

# 지 리 적



세계시민과  
지리 수업  
안내서



# 상 상 력 으 로

# 세 계 시 민



# 되 기

**지리적 상상력으로  
세계시민 되기**



# 지 리 적



세계시민과  
지리 수업  
안내서



# 상 상 력 으 로

# 세 계 시 민



# 되 기



지리 교과에서 하는 세계시민교육은 어떤 차별성이 있을까?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세계시민과 지리〉 과목이 신설되면서 많은 지리 선생님들이 이런 고민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유네스코는 세계시민교육을 모든 학습자가 더 평화롭고 정의로우며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필요한 지식, 가치, 기능, 태도를 길러주는 교육이라고 정의합니다. 이런 세계시민교육에서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지역과 세계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그 해결을 위해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세계시민과 지리〉는 특별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학습자는 〈세계시민과 지리〉 과목을 통해 세계의 다양한 지형과 지리 공간 속에서 발전해 온 인간 삶의 다양한 모습을 인식합니다. 또한 세계화와 지역화라는 서로 연결된 흐름이 인간 삶과 문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면서, 인구, 이주, 식량, 기후, 환경, 지정학적 갈등과 같은 문제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봅니다.

본 교수자료는 선생님들이 〈세계시민과 지리〉 수업을 진행하는 데 참고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세계시민교육의 의미를 정리하고 구체적인 활동안을 제시합니다. 1부는 본격적인 수업활동 제시에 앞서 유네스코가 국제이해 촉진의 맥락에서 지리교육을 강조해 온 과정을 개괄하고 세계시민성 함양에 있어 지

리교육의 역할을 살펴본 다음, 〈세계시민과 지리〉의 방향성을 탐색합니다. 2부에서는 〈세계시민과 지리〉 과목에 적합한 세계시민교육의 여덟 가지 주제를 선정하고 주제별 수업활동 방안을 제시합니다. 3부에서는 〈세계시민과 지리〉에 대한 궁금증을 세계시민교육이 낯선 (지리) 선생님의 입장에서 질의응답 형태로 풀어봅니다.

이 책은 아태교육원이 2024년에 수행한 〈세계시민과 지리 교수자료 개발〉 사업의 결과물입니다. 집필책임자를 맡아 단행본 개발을 총괄해 주신 전주교대 이경한 교수님과 공동집필진으로 참여해 주신 광주교대 김다원 교수님, 성신여대 조대훈 교수님, 공주여고 김하나 선생님,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박정연 선생님, 한광여고 이용훈 선생님, 상명고 황태성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개발된 교수자료 초안 시범적용에 참여해 이 책의 실제 활용도를 높여주신 광주동명고 김인철 선생님, 성일고 이명준 선생님과, 책 내용을 꼼꼼하게 감수해 주신 서울중앙고 이지원 선생님, 제주대 권상철 교수님, 전남대 박경환 교수님, 공주대 임은진 교수님, 경북대 조철기 교수님께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아울러 이번 사업을 기획하고 단행본 집필과 편집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아태교육원 연구개발실 지선미 실장과 이지현 전문관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을 전합니다. 또한 집필과 편집을 지원한 연구개발실 이운영, 이슬비, 신민규, 한주연의 노력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이번에 신설된 〈세계시민과 지리〉 과목을 어떻게 가르칠지 고민하는 선생님께 유용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책에 담긴 여덟 가지 주제별 수업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많은 학습자가 지리적 상상력을 통해 세계시민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원장 임현묵

## 목차

들어가는 말

004

### 1부 **지리 선생님이 세계시민을 가르친다고?**

- 1장** 유네스코, 지리교육에 주목하다 011
- 2장** 함께 고민하는 세계시민교육과 지리교육 019
- 3장** 세계시민을 위한 지리 교육과정 029

### 2부 **여덟 가지 핵심 주제로 알아보는 세계시민과 지리**

- 1장** 어서 와, GIS는 처음이지? 047  
핵심활동 1 GIS, 지도와 데이터의 만남? 핵심활동 2 GIS를 활용하여 세계를 살펴볼까요? 핵심활동 3 GIS는 세계 문제의 해결에 어떤 도움을 줄까요? 핵심활동 4 나도 GIS 지도를 제작해 볼까요?
- 2장** 평화를 위한 지정학이 되려면? 083  
핵심활동 1 지정학이란 무엇일까요? 핵심활동 2 분쟁이 그곳에서 왜 일어날까요? 핵심활동 3 국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핵심활동 4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 3장** 인구는 줄어드는데, 왜 이주민은 반대할까요? 117  
핵심활동 1 인구는 늘어서 문제일까요? 줄어서 문제일까요? 핵심활동 2 사람들은 왜 이주할까요? 핵심활동 3 이주자의 안정적인 삶을 돕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핵심활동 4 지구촌의 다문화사회,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 4장** 먹으면서 세계 얘기 좀 할까요? 151  
핵심활동 1 지역의 음식 문화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핵심활동 2 세계화 시대, 바람직한 음식 문화 수용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핵심활동 3 내가 먹는 음식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핵심활동 4 음식의 윤리적 인 소비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b>5장</b>	<b>초국적기업은 세상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까요?</b>	185
	핵심활동 1. 우리 주변에서 초국적기업이 만든 제품을 찾아볼까요? 핵심활동 2. 나도 기업가! 초국적기업을 경영한다면? 핵심활동 3. 초국적기업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핵심활동 4. 기업이 노력하면 세상은 더 나아질까요?	
<b>6장</b>	<b>에너지전환시대, 에너지 시민이 되는 법</b>	211
	핵심활동 1. 탄소는 왜 문제일까요? 핵심활동 2. 왜 신재생에너지가 중요할까요? 핵심활동 3. 에너지에도 정의가 필요해! 핵심활동 4. 나는 에너지 프로슈머! 에너지 자립학교를 만들어 볼까요?	
<b>7장</b>	<b>기후위기시대, 우리의 선택은?</b>	251
	핵심활동 1. 기후변화문제는 얼마나 심각할까요? 핵심활동 2. 기후변화-누가, 무엇이, 왜 위기일까요? 핵심활동 3. 기후변화는 왜 불평등하게 나타날까요? 핵심활동 4. 기후위기시대,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b>8장</b>	<b>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꿈꾸다</b>	289
	핵심활동 1. 우리는, 그리고 세계는 왜 서로를 도울까요? 핵심활동 2. 국제개발협력의 실천, 무엇이 문제일까요? 핵심활동 3. 돕는 데도 원칙이 있다고요? 핵심활동 4. 국제개발협력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참여해 볼까요?	

### 3부 **세계시민이 낫선 (지리) 선생님 Q&A** 327

참고문헌	332
활동지 다운로드	343





1부

지 리

선 생 님 이

세 계 시 민 을

가 르 친 다 고 ?

---





## 유네스코, 지리교육에 주목하다

우리가 발붙이며 살고 있는 지구를 어느 순간부터 지구촌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별개의 국가 시민으로 생각하던 것에서 지구라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구촌에 살면서 앞으로의 세계를 이끌어갈 청소년에게 꼭 필요한 교육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세계 이곳저곳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일들을 이해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형태의 교육이 필요할 것입니다. 유네스코가 주목한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유네스코는 청소년이 세계시민으로 성장하고 세계 평화를 적극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이 큰 역할을 담당해야 하고, 그중에서도 지리 교과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 유네스코와 국제이해교육 활동

제2차 세계대전으로 수많은 생명을 잃고 난 후, 인류는 비극적인 전쟁에 대한 반성과 함께 '전쟁과 평화'라는 주제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지구상에서 이와 같은 전쟁의 재발을 방지하고 인류에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한 결과 유엔을 창립했고, 그 산하 기구로 유네스코를 두었습니다. 유네스코의

중요한 관심은 인류에 평화 구축이었고, 이를 위한 출발을 평화교육에 두었습니다. 인류에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의 상호이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았기에 유네스코는 국가 간의 상호이해를 돕는 국제이해교육에 깊은 관심을 두었고, 이를 위한 다양한 실천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유네스코는 창립 초기부터 국제이해교육을 실천하기 위하여 각종 세미나, 프로젝트, 자료 개발 등을 통하여 세계 각국에 국제이해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제이해교육을 위한 권고안을 공포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실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1974년에 채택된 ‘국제이해, 협력, 평화를 위한 교육과 인권, 기본 자유에 관한 교육 권고(이하 1974 국제이해교육 권고)’입니다. 국제이해교육의 기본적인 틀과 내용을 제시한 이 권고는 한국의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이하 유네스코 아태교육원)의 노력으로 2023년 11월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총회에서 세계시민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추가하여 ‘평화, 인권, 국제이해, 협력, 기본적 자유, 세계시민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 권고(이하 평화, 인권,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 권고)’로 개정되었습니다(UNESCO, 2024). 이 권고는 국제이해를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세계화 시대에 세계시민으로서 세계시민의식을 갖추고 인류와 지구가 가지는 절박한 지속가능성의 교육을 강조합니다.

국제이해교육은 크게 다섯 가지 기둥인 인권교육, 평화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세계시민교육과 문화다양성교육으로 구성됩니다. 세계적 수준과 관점에서 인권, 평화, 지속가능발전, 문화다양성에 관한 쟁점과 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참여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실천을 지향합니다. 다섯 가지 기둥은 독자적인 정체성과 관점을 지니며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강조점을 달리할 수 있지만, 유네스코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더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관용적이고,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 ☆ 유네스코와 지리 교과의 역할

국제이해를 실현하기 위해 유네스코는 어떤 노력을 기울였을까요? 우선적으로 학교교육에 주목했습니다. 전 세계 국가에서 국제이해교육을 담당하는 독립 과목을 새롭게 신설하기란 국가마다의 교육 현실과 교육과정이 달라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한 유네스코는 기존 과목 중에서 국제이해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과목으로 지리 교과를 선정했습니다. 세계 각국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실천하는 데 있어서 최적의 교과로 판단한 것입니다. 유네스코는 지리 교과를 통해 세계 각국의 학교교육에서 국제이해교육을 실천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지침과 활동 방안을 개발하고 제시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지리 수업과 세계 이해’(1949a), ‘지리 수업과 국제이해에 관한 각국 교육부의 권고 26’(1949b), ‘국제이해 개발의 수단으로서 지리교육’(1950a), ‘심리학의 관점으로 살펴본 지리 교과와 세계 이해’(1950b) 등이 있습니다.

유네스코 꾸리에는 ‘세계 이해를 위한 지리 교과’라는 제호로 ‘지리교육이 고립주의 정신을 타파하고 타인과 타문화에 관한 잘못된 사고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세계 이해를 위한 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길 바란다. 유네스코는 지리교육이 아동에게 하나의 세계라는 관점을 개발하는데 유용한 방법을 제안하는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1950년의 유네스코 세미나는 지리교육에 기여할 것이다.’(1949c: 2)라고 적시했습니다.

먼저 유네스코는 1947년 7월에 ‘사회과 수업과 국제이해’ 세미나에서 사회과 수업을 위한 열 가지 지침을 제시했는데, 대표적인 지침 중에는 ‘사회과 수업은 세계 주요 지역에 대한 학습을 포함해야 한다. 사회과 수업은 학생들이 세계 문제의 중요한 측면에 관심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1949년 ‘지리 수업과 세계 이해’ 세미나에서 지리 교과가 국제이해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그 위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세미나 후, 유네스코는 세계 각국 교육부에 지리교육에 관한 준비를 요청하는 ‘지리 수업과 국제이해에 관한 각국 교육부예의 권고 26’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문서는 각국 학생들이 자기를 중심으로 한 세계 인식을 줄이고 인류의 상호의존과 도덕적 통합의 사고를 높이는 수업 방법을 통해 자기 나라에 대한 사랑을 다른 나라에 대한 이해로 넓히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950년 ‘아동과 성인의 심리학’ 연구를 실시했고, ‘심리학적 관점으로 살펴본 지리 교과와 세계 이해’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속가능에서 세계 이해를 증진할 목적으로 초·중등학생의 심리학 연구를 지리 수업에 적용하는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여기서는 심리학적 관점을 지적, 감성적, 그리고 자발적 이해로 보고 이 관점들을 지리 수업에 적용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세계 이해는 학습이 가능하다고 본 후, 지리 교과는 학생들 마음의 지평을 넓혀주고, 인문지리는 자연 환경에 적응하고 그로부터 많은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의 창의력을, 그리고 경제지리는 국가 간의 상호보완을 잘 제시해 주기 때문에 지리 교과가 세계 이해를 주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1950년 ‘국제이해 개발의 수단으로서 지리교육’ 세미나는 유네스코가 지리 교과를 통해 국제이해교육을 실천하려는 가장 구체적인 노력을 보입니다. 이 세미나의 일반목표는 지리 수업의 비교연구, 지리 수업 방법의 연구, 교육 자료의 생산, 유네스코의 목적과 활동에 대한 이해 증진입니다.

표 1 '국제이해 개발의 수단으로서 지리교육' 세미나 일반목표(이경한, 2022: 28)

5 \_ 일반목표

- a \_ 다양한 국가에서 특히 초중등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지리 수업의 비교연구
- b \_ 모든 지리 교사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전공 문제와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대로서 모든 참여자의 지식, 기능과 경험의 공유
- c \_ 국제이해 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지리 수업 방법의 연구
- d \_ 지리 수업과 이의 국제이해에의 기여 가능성과 관련된 전공 논문, 연구, 참고문헌과 기타 교육자료의 생산
- e \_ 모든 참여자들의 유네스코, 유엔과 그 산하 기구의 목적과 활동에 대한 이해 증진
- f \_ 모든 참여자들에게 국제 공동체 생활 경험 제공

세미나를 마친 후 '국제이해를 위한 지리 수업'이라는 최종 보고서의 서론에는 지리 교과가 국제이해교육에 가장 잘 기여할 수 있는 과목이며, 지리적으로 사고하는 것은 세계 관점으로 사고하는 것이고, 지리 수업을 모든 학년에 걸쳐서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 유네스코와 지리 교재 발간

유네스코는 지리 교과를 국제이해교육을 주도하는 교과로서 인정하고, 각국 지리 교사들이 국제이해교육을 위한 지리 수업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다양한 지리 교재들을 발간했습니다. 대표적인 저서로 《신지리교육의 지침》(1959), 《지리교육의 원리와 사례》(1972), 《지리 교육학 강의》(1995)가 있습니다. 이 책들의 서문에서 유네스코의 국제이해에 대한 진정성과 지리 교과에 대한 국제이해를 통한 세계 평화의 실현을 위한 노력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시기에 따라서 변화된 출간 의도를 볼 수 있습니다. 초기 저서는 유네스코가 지향하는 국제이해가 가장 잘 반영되어 있고, 다른 두 책은 유네스코가 지향하는 국제이해를 지리교육의 잠재적 목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책 서문의 '지리 수업의 수준을 높이고', '지리교육의 수준 향상과 더불어'라는 표현은 지리교육이 유네스코의 국제이해교육보다는 학문 중심 교육과정과 법칙 정립적 지리학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적극적으로 반영했음을 말해줍니다. 그 결과, 《지리교육의 원리와 사례》(1972)는 지리 수업의 현장 관찰과 조사를 강조하는 직접 관찰과 지도, 도표, 사진, 통계 등을 활용한 간접 관찰에 중점을 두었고, 《지리 교육학 강의》(1995)는 문제해결학습, 정보처리 기능, 탐구학습 등을 강조했습니다. 시기에 따라서 그 내용의 강조점이 달라지긴 했지만, 유네스코와 지리 교과에 대한 공동 목표인 국제이해교육에 큰 기여를 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표 2 유네스코 지리 교재 서문 비교(이경한, 2022: 53)

도서명	서문
《신지리교육의 지침》(1959)	이 책은 좋은 지리 수업이 학생들의 마음에 자연스럽게 국제적 선의의 태도를 가지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임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지리교육의 원리와 사례》(1972)	지리 수업의 수준을 높이고, 동시에 이 중요한 학교 교과과의 공헌을 크게 하여 국제이해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리 교육학 강의》(1995)	이 책의 목적은 지리교육의 수준 향상과 더불어, 지리 교과과의 중요한 기여인 국제이해, 협력과 평화의 고양에 일익을 담당하는 데 있습니다.

설립 초기부터 지리 교과와 함께 국제이해교육 활동을 실천해 온 유네스코는 국제이해교육을 넘어 세계시민교육을 강조합니다. 세계시민교육은 세계화 시대에 세계인이 세계시민으로서 세계 쟁점과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 쟁점과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천을 강조합니다. 유네스코가 지향하는 세계시민성, 문화다양성, 지속가능한 발전은 지리 교과가 강조하는 자연환경의 다양성,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 세계 문해력 등을 통하여 실현할 수 있습니다. 지리 교과는 지구촌의 평화와 공존에 꼭 필요한 생태학적 전환, 세계 상호의존성, 문화혼종성 등을 가르쳐서 유네스코가 지향하는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함께 고민하는 세계시민교육과 지리교육

우리는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시민교육은 글로벌 사회에서 지구적 공동체와 보편적 인류에 대한 소속감을 갖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드는 데 필요한 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둡니다. 또한, 지리교육에서도 지구의 환경과 인간의 삶을 학습 내용에 포함하며 지구상에서 인간과 자연환경의 공존적 세계를 만들어가는 데 필요한 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둡니다. 따라서 세계시민교육의 세계시민성 함양을 지리교육의 역할을 통해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다음에서는 21세기 학교의 세계시민교육의 특성과 지리교육의 특성, 그리고 상호 연관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 ☆ 21세기 학교에서 세계시민교육은 왜 필요한가?

세계시민교육은 지구촌 사회가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두드러지게 성장한 시민교육의 패러다임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세계시민교육은 세계시민성 또는 세계시민의식을 전제로 합니다. 세계시민성은 세계시민주의 또는 지구시민성과 동의어로 간주할 수 있으며, 법적 지위를 수반하지 않으면서 세계 차원에서 연대감, 집단 정체성, 소통 능력과 인류 공동 번영의 가치를 지지한다는 공통분모를 지

냅니다(한경구 외, 2015: 37). 유네스코가 2014년에 발간한 《글로벌 시민교육: 21세기 새로운 인재 기르기》는 가장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세계시민교육의 정의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문서에 따르면 세계시민교육은 ‘더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관용적이고,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학습자의 지식과 기술, 가치와 태도를 계발’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교육 패러다임입니다(유네스코 아태교육원, 2014: 27). 이와 같은 세계시민교육 패러다임의 등장에는 몇 가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첫째, 세계시민교육의 주류 영향력의 확산에는 20세기 후반기부터 누적된 학문적 노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세계시민교육의 개념은 일찍이 ‘지구촌교육’ 또는 ‘국제이해교육’ 분야의 성과(예: Pike and Selby, 1988, 1995; Merryfield, 1991, 1992), 그리고 시민성 연구 분야의 성과(예: Heater, 1996, 1999; Nussbaum, 1996; Singer, 2002) 등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의 연구는 세계화, 다문화 사회화가 가속화되면서, 단일국가에 기반한 국가주의적, 애국주의적 시민성은 개별 국가와 지구촌 사회가 당면한 공동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평화와 번영을 이루는 데 근본적인 한계를 지남을 비판하고, 대안적인 시민성 개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세계시민교육 개념의 주류화에 기여한 두 번째 요인으로는 점점 더 고조되는 지구촌의 위기 상황입니다. 인류 사회의 기술적, 물질적 진보의 이면에는 저개발국의 빈곤과 기아 문제, 인종차별과 혐오 문화의 확산, 국가 안 집단 간의 반목과 갈등 고조, 반동적 극우주의의 부활, 국지전 및 내전의 심화, 기후위기, 난민과 강제이주민 수의 급증, 국가 간 부의 불평등 심화 현상이 서로 밀접히 연결되며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국가 간 협력 및 공동 대응의 필요성에 대한 지구촌 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세계시민성과 세계시민교육의 담론이 대안적인 접근방식으로 성장하게 되었

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엔과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한 국제기구의 주도적 역할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유엔과 유네스코는 세계시민교육을 국제사회의 핵심 교육의제로 격상시켰으며, 세계시민교육이 단일국가 기반 시민교육의 대안으로서 지니는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1990년 태국 줌티엔 회의에서의 ‘모두를 위한 교육’, 2000년 세네갈 다카르 회의에서 채택된 ‘다카르 행동계획’, 그리고 2012년 ‘글로벌 교육 우선 구상’ 등의 성과를 토대로, 2015년 5월 인천 세계교육포럼의 ‘인천 선언’ 및 2015년 제70차 유엔총회의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의제 채택을 통해 세계시민교육은 국제사회의 새로운 교육의제로 채택되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최근에는 ‘1974 국제이해교육 권고’가 반세기 만에 개정되어, 이를 통해 세계시민교육의 핵심 강조점(예: 평화, 인권, 지속가능발전교육, 변혁적·포용적 교육)이 세계 여러 나라의 교육 방향 및 정책 결정에 중요한 지침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 ★ 세계시민교육 교육과정 및 페다고지의 주요 특징

세계시민교육은 학습자가 모든 시민이 보유하는 다중적 정체성과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지역-국가-세계의 상호연결성의 관점에서 개별 국가 및 국제사회의 문제를 바라보고,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이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교수·학습 역량을 강조합니다(유네스코 아태교육원, 2014: 29-30). 이를 위해 유네스코는 2015년 발간한 《세계시민교육: 학습 주제 및 학습 목표》를 통해 세계시민교육 교육과정 구성의 기본 틀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유네스코 아태교육원, 2015).

표 1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의 개념 틀(유네스코 아태교육원, 2015)

구 분	인지적 영역	사회·정서적 영역	행동적 영역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와 그 복잡성을 더 잘 이해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사고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자가 정서적, 심리사회적, 신체적으로 균형 있게 발달하고, 타인을 존중하고 서로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기 위한 가치, 태도, 사회적 기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동, 수행, 실제 적용 및 참여</li> </ul>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local)·국가(national)·범지역(regional)·세계(global)의 이슈를 비롯해 다양한 국가 및 사람들 간의 상호연계성과 상호의존성에 대한 지식, 이해, 비판적 사고 습득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존중, 연대 및 공감, 가치와 책임의 공유를 통해 인류에 함양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더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세상을 위해 지역·국가·세계적 차원에서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기</li> </ul>
학습자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식정보와 비판적 문해력을 갖춘 학습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풍부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학습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윤리적 책임감을 갖고 참여하는 학습자</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주요 학습 성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자는 지역사회(local)·국가(national)·세계(global)의 이슈를 비롯해 다양한 국가 및 사람들 간의 상호연계성과 상호의존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해한다.</li> <li>• 학습자는 비판적 사고력과 분석력을 발달시킨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자는 인권에 기반을 둔 가치와 책임을 공유하며 보편적 인류라는 소속감을 경험한다.</li> <li>• 학습자는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존중 및 공감, 연대의 태도를 익힌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자는 더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해 지역·국가·세계 차원에서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게 행동한다.</li> <li>• 학습자는 필요한 행동을 실천하기 위한 동기와 의지를 기른다.</li> </ul>
--	--	---	--

요약하면, 유네스코의 세계시민교육 개념 틀은 인지적 영역, 사회·정서적 영역, 행동적 영역으로 구성되며, 각 영역은 세계시민교육의 상위 목표 범주임과 동시에 학습주제 및 학습자 역량의 범주이기도 합니다. 표 1은 동 자료에 제시된 영역별 의미, 주요 학습 성과 및 학습주제를 재정리한 결과입니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세계시민교육의 개념 틀은 세 핵심 영역의 구분을 출발점으로 하여, 각 영역별 학습목표 및 학습주제, 그리고 학습자 특성과 학습 성과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구조화했습니다.



**표 2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의 학습주제(유네스코 아태교육원, 2015: 35-44)**

<b>인지적 영역</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역·국가·세계의 체계와 구조</li> <li>2. 지역·국가·세계의 차원에서 공동체 간의 상호작용과 연계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li> <li>3. 암묵적 가정과 권력의 역학관계</li> </ol>
<b>사회·정서적 영역</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4. 다양한 차원의 정체성</li> <li>5. 사람들이 속한 다양한 공동체와 공동체 간의 상호연계 방식</li> <li>6. 차이와 다양성의 존중</li> </ol>
<b>행동적 영역</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7. 개인적·집단적으로 취할 수 있는 행동</li> <li>8. 윤리적으로 책임감 있는 행동</li> <li>9. 참여하고 실천하기</li> </ol>

표 2는 표 1의 세계시민교육의 개념 틀을 토대로 도출된 아홉 가지의 핵심 교육과정 주제 목록을 보여줍니다. 이 아홉 가지 학습주제는 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5~9세), 초등학교 고학년(9~12세), 중학교(12~15세), 고등학교(15~18세)의 4개 연령대의 교육단계별로 권장되는 세부 학습목표와 연결되며, 이는 저학년에 서 고학년으로 동일한 핵심 주제가 반복·심화되는 나선형 교육과정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이 지침서에서 세계시민교육의 개념 틀 및 학습 매트릭스가 모든 국가에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지침이라기보다 개별 국가의 교육체제 및 교육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세계시민교육과정을 맥락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유네스코가 강조하는 세계시민교육의 특성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것은 바로 ‘변혁적 교육’일 것입니다. 유네스코 관련 문서를 토대로, 세계시민교육이 표방하는 변혁적 교육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유네스코 아태교육원, 2014, 2015; UNESCO, 2024).

- 학습자 중심적이고 학습자 주도성을 강조한다.
- 나-가족-지역사회-국가-세계 간의 상호연계성의 관점에서 사회문제 및 쟁점을 바라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 학문-교과 간의 경계를 허물고, 다양한 학문-교과 지식 간의 통합적 접근을 지향한다.
- 서로 대화하고 존중하며, 포용적인 학습 환경을 장려한다.
-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전인적이고 전(全) 학교적인 접근을 취한다.
- 학습이 교실 안에 머물지 않고, 학교 및 학교 밖에서 학습 내용과 연계된 시민참여와 실천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돕는다.

### 3 세계시민교육에서 지리교육의 역할

지리교육에서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연구는 지리교육의 목표로서 세계시민성 함양을 성취하고자 하는 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세계시민교육 연구에서는 지리교육을 세계시민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교과로 주목해 왔습니다. 지리교육에서는 시민성을 초기의 국가 시민성을 확장하여 지역 시민성 그리고 세계시민성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교육에서 세계시민성 함양을 위한 교육목표, 수업 방법, 교과서 등 관련 연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기후·생태환경의 변화, 인구구조 변화, 사회의 복잡성과 다양성 확대, 사회적 문제해결에 필요한 협력의 필요성 증가 그리고 공동체 의식 함양의 중요성 증가 등의 배경하에서 이루어졌습니다(교육부, 2022a). 이러한 지리적 환경의 변화와 문제해결의 필요성, 지구상 인구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 등은 지속가능과정에서 지리교육의 역할 증대를 요청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청의 한 부분으로 <세계시민

과 지리) 교과가 등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전에 비해서 지리교육의 세계시민성 함양을 위한 역할에 대한 기대가 더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리교육과 세계시민교육 간의 연계성을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지리 부분의 목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표 3).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개인의 성장은 물론, 지역사회·국가·세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시민을 기른다.’의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지리교육이 세계시민교육을 견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교육과정의 세부적인 목표 ‘(1) 사회의 여러 현상과 특성을 그 사회의 지리적 환경, 역사적 맥락, 정치·경제·사회적 제도 등과 관련지어 이해한다.’, ‘(2) 지리적 지표 공간의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에 대한 이해를 통해 지역에 따른 인간생활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파악하고,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 수준의 지리 문제와 쟁점에 관심을 갖는다.’, ‘(6) 개인과 사회생활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고 개인·지역사회·국가·세계적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태도를 가진다.’의 성취에 지리교육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즉, 지구상의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역동적 변화상의 파악, 지역, 국가, 세계적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시민성의 함양 등은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세계시민교육의 목표에도 해당하는 부분으로 세계시민교육의 실행에 지리교육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리 교육과정의 내용 면에서도 세계에 대한 위치지식, 세계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 자연환경과 인간 간 상호작용, 세계의 인구와 경제, 글로벌 장소와 지역, 공간적 상호작용, 갈등과 불평등의 세계, 지속가능한 환경, 공존의 세계 등 지리교육의 핵심 주제들은 유네스코의 세계시민교육에서 제시한 지역·국가·세계의 체계와 구조, 지역·국가·세계의 차원에서 공동체 간의 상호작용과 연계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 다양한 차원의 정체성,

사람들이 속한 다양한 공동체와 공동체 간의 상호연계 방식, 차이와 다양성의 존중, 참여하고 행동하기 등의 내용과 관련된 부분으로 지리교육을 통해서 세계 시민교육을 적실하게 실행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더불어서 지리교육에서 함양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력, 의사결정 능력, 의사소통 능력, 정보처리 능력, 협업 능력 등의 역량과 정의, 평등, 다양성, 지속가능성, 책무 등의 덕목은 세계시민교육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교과로서 지리교육의 역할을 기대하게 합니다.

오늘날 글로벌 차원에서 급속하게 진행되는 세계화, 지능정보화 그리고 기후변화 등은 학습자가 사회변화의 과정과 문제해결에 참여하고 시민성의 실천을 지향하는 적극적 시민성 함양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사회변화에 따른 국내외의 사회환경의 현황과 변화를 읽어낼 수 있고 다양성 존중, 지속가능한 환경 만들기를 위한 적극적 시민의식 함양을 지향하는 지리교육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세계시민교육의 안정적, 체계적, 효과적 실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표 3**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교육부, 2022b)

항목	내용
<b>사회과 교육목표</b>	<p>사회과는 학생들이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사회현상에 관한 기초적 지식을 습득함은 물론, 지리, 역사, 제 사회과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발견하고 탐구하는 능력을 익혀 우리 사회의 특징과 세계의 여러 모습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게 한다. 또한 사회과는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현대사회의 문제를 창의적,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회과는 개인의 성장은 물론, 지역사회·국가·세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시민을 기른다.</p>

<p><b>사회과 교육목표</b></p>	<p>(1) 사회의 여러 현상과 특성을 그 사회의 지리적 환경, 역사적 맥락, 정치·경제·사회적 제도 등과 관련지어 이해한다.</p> <p>(2) 지표 공간의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에 대한 이해를 통해 지역에 따른 인간생활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파악하고,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 수준의 지리 문제와 쟁점에 관심을 갖는다.</p> <p>(6) 개인과 사회생활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고 개인·지역사회·국가·세계적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태도를 가진다</p>	
<p><b>사회과 교육 핵심 역량</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의적 사고력</li> <li>• 문제해결력 및 의사결정력</li> <li>• 정보 활용 능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판적 사고력</li> <li>• 의사소통 및 협업 능력</li> </ul>
<p><b>지리교육의 내용</b></p>	<p>(1) 지리인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와 영역</li> <li>- 장소와 지역</li> <li>- 공간 분석</li> </ul> <p>(3) 인문환경과 인간생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li> <li>- 문화</li> <li>- 도시와 촌락</li> <li>- 경제와 교통</li> </ul>	<p>(2) 자연환경과 인간생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후환경</li> <li>- 지형환경</li> <li>-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li> </ul> <p>(4) 지속가능한 세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갈등과 불균등의 세계</li> <li>- 지속가능한 환경</li> <li>- 공존의 세계</li> </ul>



## 세계시민을 위한 지리 교육과정

세계시민교육의 과목으로서 〈세계시민과 지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특성을 이해하고 본 과목에서 세계시민교육 실행의 방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다음에서는 세계시민교육의 과목으로서 본 과목의 등장 배경과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과목의 성격, 목표, 내용 체계 그리고 성취기준을 차례로 살펴봄으로써, 세계시민교육의 실행 과목으로서의 특성과 교육과정에서 세계시민교육의 실행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 ☆ 〈세계시민과 지리〉 과목의 등장 배경

기존의 고등학교 세계지리 과목은 1차 교육과정 이후 세부적인 내용의 변화는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세계 각 지역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에 대한 이해, 그리고 세계 각 지역 또는 국가 간의 관계와 세계 이해, 국가 간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에 중점을 두고 관련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특히, 3차 교육과정(1973년) 이후에서는 세계지리의 목표에 ‘인류 문화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여 국제이해에 기초를 둔 국제 협조의 정신과 태도를 가지게 한다.’, ‘우리나라와 세계가

당면한 환경, 자원, 인구, 식량, 교통 등의 문제해결에 필요한 태도와 능력을 기른다.’를 포함하여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하여 세계 여러 지역의 문화를 탐구하고, 글로벌 이슈를 교육의 내용에 포함했습니다. 5차 교육과정(1988년)에서는 그간의 지리II, 인문지리 과목 명칭에서 ‘세계지리’ 과목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이전 교육과정의 지리II와 인문지리에서 세계지리 학습의 목표로 제시했던 것 이외에 ‘국제이해의 정신을 함양하여 우리나라의 발전과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며’의 목표를 포함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사회변화 그리고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도 이러한 사회변화에 따른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이뤄진 것입니다. 즉,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디지털 전환과 기후·생태환경의 변화, 인구구조의 변화 등의 사회적 불확실성과 사회의 복잡성, 다양성 확대 그리고 이에 따른 사회적 문제들의 해결에 필요한 협력의 필요성 증가, 상호 존중과 공동체 의식 함양의 중요성 증가 등과 같은 배경이 토대가 되었습니다. <세계시민과 지리> 과목은 기존의 <세계지리> 과목을 기반으로 하되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다중 스케일 관점 접근과 관계적 사고 함양, 타인에 공감하고 더 나은 세계를 위해 실천하는 세계시민의 양성을 주요한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김민성 & 이윤구, 2023).

이전 교육과정의 세계지리가 인간과 자연의 관계, 세계 각 지역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의 특성, 지역 간 상호 관계 및 연계성 이해에 중점을 두면서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발전과 인류의 공영 그리고 세계의 평화를 조성하는 데 개인의 능력과 참여의 태도를 키우는 데 목적을 두었다면,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세계시민과 지리>에서는 그간의 세계지리 내용을 토대로 하면서 세계시민으로서 인류의 공동선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더 적극적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배경으로 제시된 최근 전 지구적

기후변화, 식량 및 에너지 문제, 불평등 문제, 문화 간 갈등, 지정학적 갈등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지구사회에서 나타나는 사회문제들과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의 마련 측면에서 글로벌 차원의 세계시민성 함양을 적극적으로 포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 <세계시민과 지리> 과목의 성격

2022 개정 세계시민과 지리 교육과정에서는 본 과목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표 1).

표 1 <세계시민과 지리> 과목의 성격(교육부, 2022)

<세계시민과 지리>는 세계화와 지역화의 연계,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 에너지 및 환경문제, 세계 여러 지역의 공간적 차이와 다양한 삶의 모습을 다면적으로 이해하고 지구촌 일원으로서 인류의 공동선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행동할 수 있는 태도를 함양하는 과목이다. 여러 국가나 지역들이 자연환경, 경제, 문화, 정치 등의 측면에서 얼마나 다양한 차이를 보이는지 탐색하고, 이러한 차이가 세계 여러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다양한 삶에 대한 이해와 공감, 인간 활동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하여 세계의 긍정적인 변화와 발전을 모색하는 글로벌 리더로서의 변혁적 역량을 함양하는 과목이다.



오늘날 세계 여러 국가와 지역들은 문화 교류, 정치적 협력, 경제블록의 형성, 환경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등 상호 공존의 세계를 이루기 위해 다각적인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식량 및 에너지자원의 불평등한 분배, 글로벌 노동 분업의 불합리한 구조, 문화 차이로 인한 갈등, 지역의 통합과 분리에 따른 지정학적 긴장 등으로 인해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 규모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한다. <세계시민과 지리>는 공존과 갈등의 요인으로 작동하는 다양한 자연, 인문적 환경 및 다중 스케일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나와 세계 여러 지역 및 사람들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관계적 사고를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과목이다. 이를 바탕으로 세계시민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현명하게 행동할 수 있는 세계시민성을 함양한다.

<세계시민과 지리> 과목의 성격은 '세계시민과 지리는 세계화와 지역화의 연계,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 에너지 및 환경문제, 세계 여러 지역의 공간적 차이와 다양한 삶의 모습을 다면적으로 이해하고 지구촌 일원으로서 인류의 공동선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행동할 수 있는 태도를 함양하는 과목이다.'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즉, <세계시민과 지리> 과목은 세계 여러 지역과 국가들의 자연환경, 인문환경의 다양성과 차이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서 지구촌 일원으로서 인류의 공동선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세계시민성 함양과 실천적 참여 그리고 세계시민으로서 지역, 국가, 세계적 수준에서 지속가능한 미래 구축에의 관심과 역할을 강조합니다.

## ★ <세계시민과 지리> 과목의 목표

2022 개정 세계시민과 지리 교육과정에서는 본 과목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표 2).

표 2 <세계시민과 지리> 과목의 목표(교육부, 2022)

<세계시민과 지리>는 세계 여러 지역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세계를 위해 현명한 가치판단을 하며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시민의 양성을 목표로 한다.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의 공간적 다양성을 염두에 둔 상호 공존의 세계를 추구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문화다양성을 포용하는 세계시민으로서 바람직한 가치관과 태도를 형성하고자 한다.

- (1) 세계 여러 지역의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의 다양성과 인간과의 상호작용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이해한다.
- (2) 세계 여러 지역의 경제, 문화, 정치적 요소가 다양한 지리적 스케일에서 역동적으로 창출하는 현상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능력을 기른다.
- (3) 인간 활동으로 나타나는 기후변화, 환경문제 등을 생태적 관점으로 탐구하고 지속가능한 대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 (4) 세계의 다양한 지역에서 나타나는 불평등한 분배, 빈곤, 인권 문제 등에 공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태도를 확립한다.

(5) 세계 여러 국가 및 지역, 다양한 현상에 대한 지리정보를 수집하고 분석 및 시각화하여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른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세계시민과 지리> 과목의 목표는 첫 문장 '세계시민과 지리는 세계 여러 지역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세계를 위해 현명한 가치판단을 하며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시민의 양성을 목표로 한다.'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세계지리 학습 부분의 목표에 비해서 '지속가능한 미래 세계를 위한 행동하는 시민 양성', '세계시민으로서 바람직한 가치관과 태도 함양', '행동하는 시민 양성'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포함하여 궁극적으로 세계시민의 양성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즉, <세계시민과 지리> 과목에서는 '세계시민으로서의 가치관과 태도 함양'의 큰 틀에서 세계의 환경에 대한 깊은 이해, 상호의존과 상호연결성의 이해, 그리고 문화다양성, 평등, 인권의 가치와 미래 세계의 지속가능성 등의 보편적인 가치 함양과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 에너지 문제, 지정학적 분쟁과 같은 글로벌 과제 해결에 적극적인 시민성 함양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과정의 세부목표를 살펴보면,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세계시민과 지리> 과목에서는 세계의 환경과 이슈에 대한 이해 중심의 인지적 영역, 다양성과 차이에 대한 존중, 인권과 평등에 대한 공감과 협력적 태도 함양 등의 사회·정서적 영역, 윤리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에의 참여와 실천,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등의 행동적 영역의 학습을 제시하여 그간 인지적 영역에서 다루었던 세

계에 대한 이해 중심의 학습 외에도 사회·정서적 영역과 행동적 영역을 강화하여 적극적 세계시민성 실천으로 확장했습니다. 이러한 측면들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세계시민과 지리> 과목 목표에서 드러나는 세계시민교육 실천을 위한 과목으로서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 <세계시민과 지리> 과목의 내용 체계

<세계시민과 지리> 과목의 내용은 4개의 단원 구성을 토대로 단원 내용 학습을 위한 핵심 아이디어를 제시했으며,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의 범주별로 주요 학습 내용 요소를 제시했습니다(표 3).

표 3 <세계시민과 지리> 과목의 내용 체계(교육부, 2022)

<b>핵심 아이디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시민은 세계화의 의미와 지역의 역동적인 변화를 자신의 삶과 연계하여 파악한다.</li> <li>• 지리정보와 지리정보기술은 실세계의 문제 탐색과 해결에 도움을 준다.</li> <li>• 세계 여러 지역의 다양한 기후와 지형은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li> <li>• 세계 각 지역은 고유한 문화를 발전시켜 왔고, 세계화 속에서 문화다양성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li> <li>• 인구분포와 이동의 지역적 차이는 다양한 공간 문제를 유발한다.</li> <li>• 글로벌 경제체제에서 생산요소의 공간적 불균등으로 인해 구조적 문제가 발생한다.</li> <li>• 세계시민은 다양한 지리적 스케일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환경, 분쟁 등과 관련된 정세를 이해한다.</li> </ul>
----------------	--

<b>핵심 아이디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시민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실천한다.</li> </ul>
<b>범주</b>		내용 요소
<b>지식 · 이해</b>	<b>세계시민, 세계화와 지역 이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화와 세계시민</li> <li>• 지역변화의 역동성</li> <li>• 지리정보와 지리정보기술의 활용</li> </ul>
	<b>모자이크 세계, 세계의 다양한 자연환경과 문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기후와 인간생활</li> <li>• 지형과 인간생활 및 지형의 지속가능한 이용</li> <li>• 세계 주요 종교 경관</li> <li>• 다양한 음식과 축제의 지리적 의미</li> </ul>
	<b>네트워크 세계, 세계의 인구와 경제 공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분포 및 구조, 국제적 이주의 영향</li> <li>• 식량자원의 생산과 소비</li> <li>• 글로벌경제와 공간적 불균등</li> </ul>
	<b>지속가능한 세계, 세계의 환경문제와 평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의 에너지 문제와 대안</li> <li>• 세계의 환경문제와 생태전환적 삶</li> <li>• 지정학적 분쟁과 평화를 위한 노력</li> </ul>
<b>과정·기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 규모에서의 쟁점을 탐색하고 탐구 주제 선정하기</li> <li>• 유용한 지리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의 타당성, 신뢰성, 최신성 판단하기</li> <li>• 수집된 자료에서 요점과 핵심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세계시민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점검하기</li> <li>• 지리정보기술과 지역 조사를 바탕으로 지리적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도출하기</li> <li>• 제시된 방안을 분석, 비교, 평가하여 효과적인 전략 선택하기</li> <li>• 글, 시각화, 디지털 미디어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의사소통하기</li> </ul>

### 가치·태도

-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 규모에서의 다양한 지리적 문제와 쟁점에 대한 관심
- 세계 여러 지역의 사람들과 생활방식에 대한 공감
- 세계시민으로 함께 살아가는 가치 중시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자신이 선택한 가치에 따른 행동을 지속적으로 실천
- 인류애적 동반 성장을 위한 세계시민의 태도 성찰

단원별 주제와 내용 그리고 핵심 아이디어 내용을 토대로 세계시민교육의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단원의 '세계시민, 세계화와 지역 이해'에서는 세계화와 이에 따른 지역의 역동적 변화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지역, 국가, 세계의 체계와 공동체, 그리고 상호연계성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세계시민의 역할 파악을 통해서 세계시민의 관점에서 세계화와 세계 여러 지역의 역동적 변화를 파악하고 역할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원 '모자이크 세계, 세계의 다양한 자연환경과 문화'에서는 세계의 다양한 자연환경과 문화의 다양성 이해, 그리고 지역적 정체성(지역성) 이해를 토대로 글로벌 환경의 특성을 파악하고 나아가서 차이와 다양성 존중의 가치와 태도 그리고 다양성과 지역성의 지속가능성 가치를 성찰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원 '네트워크 세계, 세계의 인구나 경제 공간'에서는 상호연결된 세계의 속성을 인구나 경제를 통해서 파악하며 더불어서 빈곤, 이주 등의 인권 문제, 생산과 소비를 포함한 글로벌 경제활동의 불평등 문제 등 지구적 문제들의 현황과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고 방안에의 관심과 실천적 참여의 방법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원 '지속가능한 세계, 세계의 환경문제와 평화'에서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인 삶의 방식을 성찰하고, 지정학적 분쟁에 따

른 세계의 평화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세계시민으로서의 역할과 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둘 수 있습니다. 특히, 그간 지리 교과에서 에너지를 ‘자원’의 측면에서 접근했던 것과는 달리 글로벌 사회의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서 협력적으로 함께 공유하고 해결해야 할 지구적 과제로 제시하는 등 세계의 지속가능한 미래 구축의 관점에서 세계의 자연환경, 인문환경 그리고 지정학적 분쟁과 갈등의 문제해결 방향의 내용 구성과 학습을 실행해 볼 수 있습니다.

## 5 <세계시민과 지리> 과목의 성취기준

<세계시민과 지리> 과목은 ① 세계시민, 세계화와 지역 이해, ② 모자이크 세계, 세계의 다양한 자연환경과 문화, ③ 네트워크 세계, 세계의 인구와 경제 공간, ④ 지속가능한 세계, 세계의 환경문제와 평화의 4개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단원의 성취기준 내용을 토대로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접근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단원 ‘세계시민, 세계화와 지역 이해’의 성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2세지01-01] 세계화의 의미를 지리적 스케일에 따라 이해하고, 세계화와 지역화의 관계 속에서 세계시민의 역할을 탐색한다.

[12세지01-02] 지역 통합과 분리 현상의 사례와 주요 원인을 탐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변화의 역동성을 파악한다.

[12세지01-03] 지리정보기술이 세계시민의 삶과 연계되는 다양한 모습

을 이해하고, 지리적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사례를 조사한다.

성취기준 1에서는 지역, 국가, 세계적 규모에서 다양한 주체들의 역할과 상호 작용으로 나타나는 세계화를 이해하면서 지구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간, 지역 간, 국가 간 상호연계성을 파악하고 세계시민으로서 자신의 정체성 함양과 역할을 탐색하는 데 중점을 둘 수 있습니다.

성취기준 2에서는 실제 사례 지역을 탐구하면서 지역에서 나타나는 세계화 현상과 이에 따른 지역의 변화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즉, 지역의 여러 측면의 변화를 세계화와 연결하여 파악할 수 있으며 지역의 바람직한 변화 및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방향 탐색으로 전개해 볼 수 있습니다.

성취기준 3에서는 지리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지역, 국가, 세계적 수준에서 여러 가지 지리적 현상과 문제들을 파악하고 과제 탐구 및 문제해결에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리정보기술은 먼 지역의 현재의 정보를 사실적으로 파악하게 하여 지리에서 세계시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원 ‘모자이크 세계, 세계의 다양한 자연환경과 문화’의 성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2세지02-01] 세계의 다양한 기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후를 활용하거나 극복한 사례를 찾아 인간생활과의 관계를 탐색한다.



[12세지02-02] 세계 주요 지형과 인간생활의 상관성을 파악하고, 지형의 개발과 보존을 둘러싼 갈등 사례를 통해 지속가능한 이용 방안을 토론한다.

[12세지02-03] 세계 주요 종교의 특징 및 종교 경관의 의미를 이해하고, 각 종교가 인간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다.

[12세지02-04] 세계의 다양한 음식과 축제를 지리적으로 설명하고, 문화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한다.

성취기준 1과 2에서는 기후, 지형을 포함한 자연환경과 인간생활과의 관계성 탐색을 토대로 자연환경에 따른 지구상의 다양한 인간생활의 모습을 파악하면서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 다양한 삶의 모습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둘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습에서는 실제 사례에 기반하여 자연환경과 인간생활과의 관계성을 탐색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 기후변화에의 대응 및 지형의 개발과 보존에 따른 갈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방안을 탐색하는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성취기준 3과 4에서는 종교와 음식, 축제 등의 문화를 포함한 인문환경의 지역적 특성을 이해하고 인권, 문화다양성,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지역의 고유한 문화의 가치와 보존의 필요성을 파악하는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의 인문환경 특성의 이해에서는 지역의 자연환경 및 지역 주민의 가치와 전통문화 그리고 세계화 등의 요소와 연계하여 문화다양성의 의미와 가치의 파악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원 ‘네트워크 세계, 세계의 인구와 경제 공간’의 성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2세지03-01] 세계 인구분포 및 구조를 통해 세계 인구문제를 이해하고, 국제적 이주가 인구 유출 지역과 유입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다.

[12세지03-02] 주요 식량자원의 생산과 소비 양상을 통해 세계 식량문제가 발생하는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고, 식량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위한 각국의 대응 전략을 비교·분석한다.

[12세지03-03] 초국적기업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제체제의 형성 과정을 탐색하고, 글로벌경제에서의 공간적 불균등을 해소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과 개인적 실천방안에 대해 조사한다.

성취기준 1에서는 인구를 토대로 네트워크 세계를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며, 세부적으로 세계 인구분포와 인구구조 및 국제적 이주를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세계의 인구문제를 파악하고, 구조적 원인과 해결 방안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성취기준 2에서는 세계의 주요 식량자원의 생산과 소비 양상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세계 식량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본 학습에서는 지역사회, 국가의 식량문제와 연계하여 식량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을 위한 방안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미래 세계의 관점에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성취기준 3에서는 글로벌 경제체제를 이해하고 이에 따른 공간적 불균등과 경제활동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탐색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즉, 인구, 식량자원, 글로벌 경제체제를 토대로 상호연계성과 상호의존성을 이해

하게 하며, 궁극적으로 세계시민으로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방안 탐색과 실천적 노력에 관심을 갖게 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네 번째 단원 ‘지속가능한 세계, 세계의 환경문제와 평화’의 성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2세지04-01]** 세계 주요 에너지자원의 생산과 소비 현황을 조사하고, 다양한 친환경 에너지원의 특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산 방안을 제시한다.

**[12세지04-02]** 세계 주요 환경문제의 유형과 실태를 설명하고, 생태전환적 삶에 비추어 현재의 생활방식을 비판적으로 점검한다.

**[12세지04-03]** 다양한 지정학적 분쟁을 국제 정세의 변화와 관련지어 조사하고, 세계 평화와 정의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실천한다.

성취기준 1에서는 세계 에너지원의 생산과 소비 현황에 대한 이해와 이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확보 방안을 탐색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더불어, 인간 생활에 필수적으로 공급되어야 할 에너지자원의 불평등 문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지역사회, 국가, 세계의 사례들을 제공하여 향후 지속가능한 에너지 활용의 방안을 탐색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원의 현황과 지속가능한 확보 방안 탐색 등은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하여 실행할 수 있습니다.

성취기준 2에서는 기후변화를 포함하여 세계의 환경문제 현황을 조사,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생태전환적 삶의 필요성과 방식을 탐색하여 실천하는 데 중

점을 둡니다. 지역사회, 국가, 세계의 수준에서 현황과 방안 탐색을 모색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하여 실행해 볼 수 있습니다.

성취기준 3에서는 다양한 지정학적 분쟁과 갈등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세계 평화와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고 실천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즉 본 단원에서는 세계시민으로서 지속가능한 세계 구축의 측면에서 에너지자원, 환경, 지정학적 분쟁과 갈등 등의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탐색하고 협력적 실천의 능력과 태도를 갖추게 하는 학습으로 전개할 수 있습니다.

〈세계시민과 지리〉는 세계시민이 지녀야 할 지식, 기능, 가치와 태도 등 세계시민성 함양에 궁극적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인권교육, 평화교육, 다문화교육, 문화다양성교육, 민주시민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등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세계시민과 지리〉에서는 지리적 환경, 지리적 환경과 인간생활과의 관계성, 지역성의 형성, 지역 간 연계성과 상호의존성, 지속가능한 세계 등의 핵심 내용 요소를 지리적 관점과 맥락, 공간적 문제해결력, 지도와 지리정보기술 등의 활용을 통해서 접근한다는 면에서 특별함을 지닙니다. 국가를 초월하여 지구적 관점에서 지리적 현상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과 지구에 대한 지리적 지식은 세계시민에게 필요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본 과목의 교육과정을 활용하여 세계시민교육을 실행할 때 이러한 지리 교과목의 특성에 기반하여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어느 때보다 시민성 함양 교육이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오늘날 세계시민교육의 적실한 실행을 위해 〈세계시민과 지리〉 과목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2부

여덟 가지

핵심 주제로

알아보는

세계시민과

지리

## 구성 및 활용법

2부는 사람들과 세계의 자연·인문 환경이 다양한 지리적 스케일에서 상호작용하며 갈등과 공존의 요인이 된다는 다중 스케일 관점과 나와 세계 여러 지역 및 사람들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관계적 사고를 함양할 수 있는 핵심활동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세계 쟁점과 문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는 역량을 기르며, 타인에게 공감하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실천하는 세계시민을 양성하는 것이 핵심활동의 주된 목적입니다. 본 자료는 사회과 교사뿐 아니라 과학, 수학, 국어 등 타 교과 교사도 수업에서 기초 자료, 읽기 자료, 융합 수업 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각 장에서는 주제에 대한 개요적 설명과 주제별 핵심활동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 활용 가이드를 제시하고, 핵심활동을 포괄할 수 있는 학습목표와 이와 관련된 <세계시민과 지리> 성취기준 및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주제별 핵심활동과 관련된 핵심 용어들은 기본 용어 설명에서 다루었습니다.

핵심활동은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핵심활동 1은 주제에 대한 개요적 이해 중심, 핵심활동 2는 주제에 대한 사례 탐구 중심, 핵심활동 3은 주제에 대한 심화 적용 중심, 핵심활동 4는 주제에 대한 가치태도 및 실천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각 핵심활동은 3차시 수업을 기준으로 구성했으나, 교사가 학습 환경 및 목표에 맞게 몇몇 단계를 제외하거나 더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읽기 자료는 핵심활동과 연계되거나 이를 심화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선정했고, 주제별 인용 자료들은 부록의 참고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제별 핵심활동의 활동지는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국문 홈페이지(<http://unescoapceiu.org/ko/>)의 자료 → 단행본 목록에서 PDF 버전으로 다운로드받아 비영리적 목적에 한하여 자유롭게 배포 및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어서와, GIS는 처음이지?

### ★ 주제 선정의 배경

우리는 일일생활권인 지구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는 유기적으로 상호 작용하면서 다양한 스케일에서 공간적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지리학은 이러한 세계와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공간적 의사결정을 돕는 도구로 GIS를 사용합니다. ‘GIS’는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의 약자로, 장소나 현상의 위치를 나타내는 공간 정보와 자연적·인문적 특성을 나타내는 속성 정보로 구성된 지리정보를 컴퓨터에 입력·저장하고, 요구에 따라 지리정보를 가공·분석·처리하여 표현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GIS는 “주소 정보 등과 같은 위치 정보를 좌표로 전환하여 지도 위에 그 위치를 표현하는 지오코딩(geocoding), 지리 조사 등을 통하여 수집한 공간 정보를 구글어스 등 지도를 이용하여 표현하는 매쉬업(mashups), 인터넷 지도 서비스의 매쉬업 기능을 이용하여 협업으로 특정 주제의 지도를 완성하는 커뮤니티 매핑(community mapping)” 등의 개념과 관련됩니다(배선학, 2018: 107). GIS는 스마트폰 속의 지도,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에서부터 홍수, 지진, 가뭄 등의 재난·재해 관리와 도로, 상하수도, 신호등, 버스노선 등의 도시계획 및 관리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에 다양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GIS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리 수업에서 지리 공간 기술의 중요성을 충분히 보여줍니다. ArcGIS, QGIS와 같은 GIS 소프트웨어는 실제 교실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간적 의사결정을 구현하는 데 매우 유익합니다. GIS 도구의 기능을 익히는 데에 다소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더라도 한번 GIS 도구의 기능을 익히면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GIS는 위치 정보를 수집하고 지도 상에 그 위치를 표시하는 것, 즉 지오코딩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글 지도 등 온라인 지도에 표현하면 매쉬업이 됩니다. 또한 매쉬업을 활용하여 서로 협업할 수 있는 커뮤니티 매핑을 할 수 있습니다.

GIS는 세계화 시대의 관계와 상호작용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데 중요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GIS를 통해 세계시민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다중 스케일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분석적 사고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GIS를 활용하여 세계의 쟁점과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그 의사결정을 돕는 지도화 활동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 ☆ 핵심활동 활용 가이드

‘어서 와, GIS는 처음이지?’의 수업은 4개의 핵심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핵심활동 1에서는 GIS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활용 분야를 살펴본 후 세계 유산을 예로 들어 GIS의 기본 기능을 체험합니다.

핵심활동 2에서는 게임을 통해 GIS의 중첩분석 과정을 이해하며 세계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핵심활동 3에서는 전염병 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해

보고, 전 세계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GIS의 활용 방안을 찾아봅니다.

핵심활동 4에서는 GIS를 활용하여 세계 문제를 해결하거나 공간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커뮤니티 맵핑 지도를 제작하고 공유합니다.

### ★ 학습목표 및 성취기준

<b>학습목표</b>		<p>[지식·이해] 지리정보기술이 일상생활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사례를 이해한다.</p> <p>[과정·기능] 지리정보기술의 기법을 활용하여 세계 문제의 의사결정을 하는 데 활용한다.</p> <p>[가치·태도] 지리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세계시민으로서의 바람직한 자세를 함양한다.</p> <p>[실천·행동] 지리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세계시민으로서 세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참여하고 실천한다.</p>	
<b>성취기준</b>		[12세지01-03] 지리정보기술이 세계시민의 삶과 연계되는 다양한 모습을 이해하고, 지리적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사례를 조사한다.	
<b>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 3대 학습영역</b>	<b>인지적 영역</b>	1. 지역·국가·세계의 체계와 구조	○
		2. 지역·국가·세계 차원에서 공동체 간의 상호작용과 연계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	
		3. 암묵적 가정과 권력의 역학관계	
	<b>사회·정서적 영역</b>	4. 다양한 차원의 정체성	
		5. 사람들이 속한 다양한 공동체와 공동체 간의 상호연계 방식	○
		6. 차이와 다양성의 존중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 3대 학습영역	행동적 영역	7. 개인적·집단적으로 취할 수 있는 실천	○
		8. 윤리적으로 책임감 있는 행동	
		9. 참여하고 실천하기	

## ★ 기본 용어 설명

###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

장소나 현상의 위치 및 형태에 관한 공간 정보와 자연적·인문적 특성을 나타내는 속성 정보로 구성된 지리정보를 컴퓨터에 입력·저장하고, 요구에 따라 가공·분석·처리하여 표현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스마트폰 속 지도, 내비게이션에서부터 재난·재해 관리, 도시계획 및 관리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 매쉬업(Mashups)

각종 데이터나 콘텐츠를 서로 융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GIS에서 매쉬업은 지리 조사 등을 통하여 수집한 공간 정보를 구글어스 등 인터넷 지도를 이용해 표현합니다.

### 커뮤니티 매핑(Community Mapping)

인터넷 지도 서비스의 매쉬업 기능을 이용하여 협업으로 특정 주제의

지도를 만들어 공유하고 이용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지도에서 위치적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공간적 문제를 살펴볼 수 있는 공유와 활용의 장(場)입니다.

### 세계유산의 선정 기준(World Heritage: Criteria for Selection)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가 정한 기준에 따라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분류합니다. 아래 기준 중 1~6번에 해당하면 문화유산, 7~10번에 해당되면 자연유산,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기준을 중복으로 충족하면 복합유산으로 간주합니다.

1. 사람의 창조적 천재성이 만들어낸 걸작을 대표해야 한다.
2. 오랜 시간 동안 또는 세계의 어떤 문화 지역 안에서 일어난 건축, 기술, 기념비적 예술, 도시계획 또는 조경 설계와 발전에 관한 인간적 가치의 중요한 교류를 보여주어야 한다.
3. 문화적 전통, 또는 살아있거나 소멸된 문명에 관하여 독보적이거나 적어도 특출한 증거가 되어야 한다.
4. 인류 역사의 중요한 단계(들)를 잘 보여주는 건조물의 유형, 건축적 또는 기술적 총체, 또는 경관의 탁월한 사례이어야 한다.
5. 문화(복수의 문화) 또는 특히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의 충격을 받아 취약하게 되었을 때의 환경과 사람의 상호작용을 대표하는 전통적인 사람 정주지, 토지의 이용 또는 해양의 이용의 탁월한 사례이어야 한다.
6. 탁월한 보편적 중요성을 보유한 사건 또는 살아있는 전통, 사상, 신

년, 예술적·문학적 작품과 직접 또는 가시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이 기준을 다른 기준과 결합하여 사용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7. 최상의 자연현상이나 뛰어난 자연미와 미학적 중요성을 지닌 지역을 포함해야 한다.
8. 생명의 기록, 지형의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지질학적 진행 과정, 또는 지형학이나 자연지리학적 측면의 중요 특징을 포함하여 지구 역사상의 주요 단계를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이어야 한다.
9. 육상, 담수, 해안 및 해양 생태계와 동식물 군집의 진화 및 발전에 있어 생태학적, 생물학적 주요 진행 과정을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이어야 한다.
10. 과학이나 보전 관점에서 볼 때 보편적 가치가 탁월하지만 현재 위협 받고 있는 종을 포함한 생물학적 다양성의 현장 보전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의미가 큰 자연 서식지를 포괄해야 한다.

출처: 문화재청·유네스코한국위원회(2007: 61-62)

## GIS, 지도와 데이터의 만남?

### 진행방법

- GIS의 개념을 알아보고, GIS의 다양한 사례를 찾아봅니다.
- 문화유산 공간 정보에 사회·경제·문화 등 다양한 속성 정보(또는 속성 데이터)를 결합하는 수업을 진행합니다.
- 세계유산을 소재로 하여 GIS의 매쉬업 기능을 체험해 봅니다.

### 지도상 유의점

- 본 수업의 사례로 활용한 구글(Google)은 인터넷 기업, 에스리(Esri)는 GIS 기업으로서, 특히 학생들이 GIS와 에스리를 동일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본 수업에서는 GIS의 원리, 활용 아이디어 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GIS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학생의 경우 'ArcGIS'나 'QGIS'와 같은 GIS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

## GIS, 지도와 데이터의 만남?

모둠명 :

구성원 이름 :

### 1 다음 사례의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2018년 6월 전 세계가 월드컵에 빠져있을 때 태국의 열대 우기(몬순)는 유소년 축구팀인 ‘무 빠(야생 멧돼지)’의 코치와 12명의 소년들을 치앙라이 탐루엥 동굴에 고립시켰습니다. 이 동굴은 우기에 강으로 변하기 때문에 축구팀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태국 구조 당국은 즉각적인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은/는 축구팀의 위치 파악은 물론 산림 피복 정보, 유수 방향, 흐름 누적값 등을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위치에 파이프라인을 설치, 동굴 내 수위를 감소시켜 소년들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출처: 김윤지, 2018, 일부 발췌

답:  GIS 은/는 다양한 지리정보를 수치화하여 컴퓨터에 입력·저장하고,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가공·분석·처리하여 다양하게 표현해 주는 종합 정보시스템이다.

(1) GIS의 활용 사례를 찾아볼까요?

- 한국에스리 > 리소스 라이브러리 > 분야별  
<http://www.esrikr.com>

관심 주제	2018 러시아 월드컵
활용 사례	대회 일정, 개최 지역, 선수 등 월드컵에 대한 정보를 소개한다.

(2) GIS의 활용 사례를 발표해 볼까요?

- 2** 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부터 세계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 전 세계에 우크라이나의 세계문화유산을 알리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아이디어를 함께 모아 봅시다.

유네스코가 2023년 1월 25일(현지 시각) 우크라이나 남부의 유서 깊은 항구 도시 오데사를 '위험에 처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 '흑해의 진주'로 불리는 오데사의 옛 시가지와 유명 건축물, 문화 명소 등을 러시아의 공격에서 보호하려는 조치다. 오데사는 우크라이나 전체 해상 물동량의 약 60%를 처리하는 최대 항구로, 개전 이후 러시아군의 지속적 폭격을 받아왔다.


출처: <조선일보>, 2023년 1월 26일 기사



(1) 우크라이나의 세계문화유산을 조사하고, 이를 세계문화유산 카드로 만들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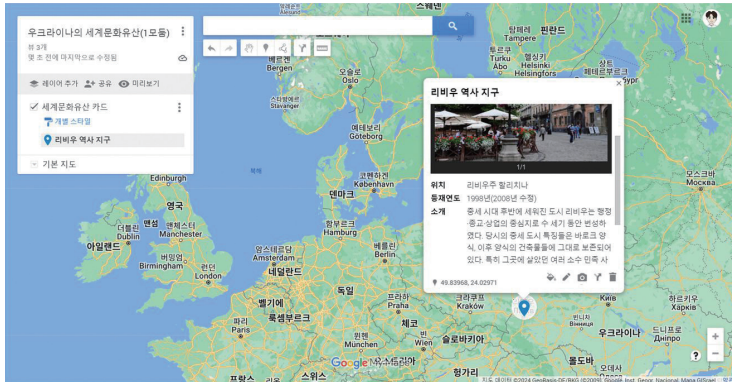
유네스코와 유산 > 유산목록 > 세계유산

<http://heritage.unesco.or.kr>

세계문화유산	리비우 역사 지구
사진	 <p style="text-align: right;">©Shutterstock/beibaok</p>
위치	리비우주 할리치나
좌표	49° 50′ 29.868″N, 24° 1′ 55.128″E
등재연도	1998년(2008년 수정)
소개	중세 시대 후반에 세워진 도시 리비우는 행정·종교·상업의 중심지로 수세기 동안 번성했다. 당시의 중세 도시 특징들은 바로크양식, 이후 양식의 건축물들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특히 그곳에 살았던 여러 소수민족 사회의 증거가 보존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2) 위 정보를 지도(구글 지도) 위에 표시 또는 위치시켜 봅시다.

**교사 사전 작업** 구글 드라이브 > 신규('Google 내 지도' 선택) > 지도 제목 및 설명 수정(예: 우크라이나의 세계문화유산(1모듬)) > 레이어 이름 편집(예: 세계문화유산 카드) > 레이어의 '데이터 표 열기' > 항목 작성(예: 세계유산, 위치, 등재연도, 소개) > 학생 공유



©2024 GeoBasis-DE/BKG (©2009), Google, Inst. Geogr. Nacional, Mapa GIsrael

(3) 위 지도에 어떤 데이터를 추가하면 좋을지 아이디어를 교환해 봅시다.

세계문화유산의 최근 현황을 알 수 있는 뉴스 링크 첨부

(4) 위 아이디어를 지도(구글 지도)에 반영하고 발표해 봅시다.

## GIS를 활용하여 세계를 살펴볼까요?

### 진행방법

- GIS 지도를 통해 GIS의 분석 방법 중 중첩분석을 실행해 봅니다.
- GIS 지도에서 수집한 정보를 통해 해당 국가의 모습을 추론해 봅니다.
- 모듈별로 한 국가를 정한 후, 이 국가의 특징적인 지표들을 찾아보고, 중첩분석 방법으로 모듈이 정한 국가를 맞힐 수 있도록 <조건>을 작성합니다.
- 모듈들이 제시한 <조건>에 맞는 해당 국가를 맞히는 게임을 진행합니다.

### 지도상 유의점

- 누리집의 내용이 영문으로 작성되어 해석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엣지(Edge), 크롬(Chrome)과 같은 브라우저로 열어 '한국어'로 번역 기능을 이용하거나 뤼튼(wrtn.ai)과 같은 인공지능의 도움(요약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갭마인더 지도상에서 조건에 맞는 모든 국가들을 찾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조사 시간을 정해놓고 가능한 만큼의 국가들을 찾도록 합니다.
- 모듈별 게임에 필요한 국가를 선정할 때는 예시 활동에서처럼 관련 신문 기사를 찾아보고, 이에 기반하여 <조건>을 함께 제시하도록 합니다.

## GIS를 활용하여 세계를 살펴볼까요?

모듬명 :

구성원 이름 :

1 GIS 지도를 통해 빈칸에 들어갈 국가를 찾아봅시다.

갭마인더 > Animating Data > MAPS

<https://www.gapminder.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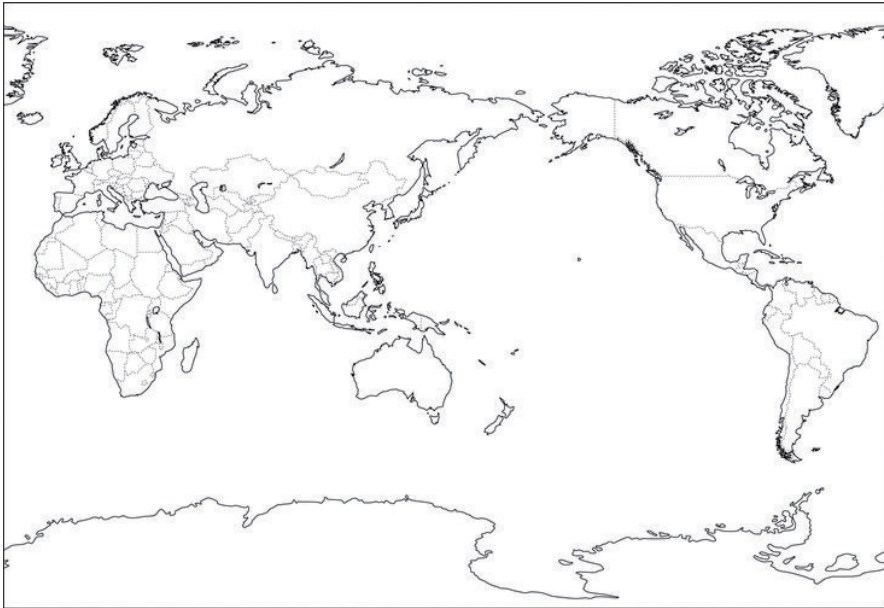
인구통계 측면에서 2023년은 [ ] 에 있어 의미 있는 해였다. 공식적으로 인구가 1억 명을 돌파했기 때문이다. 통계연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 ] 의 공식 인구수는 1억 30만 9,209명이다. 이는 2022년에 비해 약 84만 명이 증가한 수치이며, 증가율로는 0.85%이다. 인구수는 비록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인구성장률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 ] 인구 지표에서 우리 기업이 주목해야 할 점은 2023년에 1억 명을 돌파했고, 증가 폭은 점차 줄어들겠지만 당분간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인구 '1억 명'이 경제에 시사하는 바는 크다. 소비시장 측면에서는 인구가 많을수록 소비시장이 커지고, 소비 계층이 다양해져 재화와 서비스의 다양화가 촉진될 수 있다. 노동시장 측면에서 많은 인구는 풍부한 노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필요한 노동력이 시장에 충분히 공급되면 다양한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구증가를 사회 인프라 및 시스템 등이 감당하지 못한다면 경제적 불평등, 실업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

출생성비(여성 출생아 100명당 남성 출생아 수)는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

이다. 한국 통계청의 경우 출생성비의 정상 범위를 103~107명 수준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도 대체적으로 105명 내외를 정상적인 출생성비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의 출생성비는 지난 수년간 110명을 상회하고 있다.

출처: <KOTRA 해외시장뉴스>, 2024년 7월 18일 기사



출처: 국토지리정보원

(1) 다음에서 제시한 <조건>에 맞는 국가들을 지도에 표시해 봅시다.

<조건>

(기준연도: 2022년)

① 인구가 1억 명 이상인 국가들을 지도에 표시해 보자.

인도, 중국, 미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② 성비(0~14세)가 105 이상인 국가들을 지도에 표시해 보자.

인도(109), 중국(115), 베트남(106)...

③ 인구증가율이 0.7~1%인 국가들을 지도에 표시해 보자.

베트남(0.735)

(2) GIS의 중첩분석을 통해 찾은 빈칸에 들어갈 국가는  입니다.

(3) 지도를 통해  의 모습을 상상해 봅시다.

지표	연도	값	모습
성비(0~14세)	2022	111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전통적인 유교 사회의 영향으로 남아선호사상이 아직도 사회 전반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li><li>• 앞으로 남성 관련 시장이 확대될 것이다.</li></ul>


2 1번과 같이, 어느 한 국가를 선택한 후 특징적인 지표 및 중첩분석을 위한 <조건>을 작성해 봅시다.

(1) 국가:

(2) 의 특징적인 지표

지표	연도	값	특징

---

(3) 위 지표들을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해 봅시다.

①

②

③

**3** 어떤 모듈에서 제시한 <조건>을 보고 다른 모듈의 친구들이 어떤 국가인지  
맞히는 게임을 진행해 봅시다.



## GIS는 세계 문제의 해결에 어떤 도움을 줄까요?

### 진행방법

- 본 수업은 목표 기반 시나리오(Goal-Based Scenarios, GBS) 모형을 적용하여 진행합니다.
- 1854년 영국 런던에서 발생한 콜레라 문제 상황을 제시해 주고, 이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합니다.
- '당시에 스마트폰, GIS 기술이 있었다면?'이란 가정하에 이 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합니다.
-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전에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GIS의 활용 사례를 조사하여 개발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지도상 유의점

- 문제의 상황에 따라 수업을 개인 혹은 모둠 활동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코딩하여 제작해 보면 좋습니다. 본 수업에서는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가 중요하므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할지, 애플리케이션의 메뉴를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등에 중점을 둡니다.
- 애플리케이션 메뉴 설명에 관리자 또는 시민이 콜레라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내용(인터랙티브 데이터)이 포함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 GIS는 세계 문제의 해결에 어떤 도움을 줄까요?

모둠명 :

구성원 이름 :

1 다음 상황의 문제해결을 위한 목표를 설정해 봅시다.

19세기는 콜레라의 시대(콜레라 팬데믹)였다. 갠지스강 유역 벵골 지역의 풍토병이었던 콜레라는 대영제국의 군대와 상선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가 세계 여러 지역에서 무섭게 맹위를 떨치며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콜레라균에 감염된 사람들은 고열과 더불어 구토와 설사를 통해 몸 안의 액체를 모두 쏟아내며 몇 시간 안에 피부가 검고 푸르죽죽하게 변한 채 빠르게 죽었다. 순식간에 육체가 붕괴되는 과정을 본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에 빠졌다.

유럽에서 콜레라가 급속도로 확산한 19세기는 산업화에 따라 도시인구가 급증했던 시기이다. 특히 런던의 인구는 도시 기반 시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증가했다.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몰려든 사람들은 상하수도 등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주택에서 비참하게 살아가야 했다. 도시 환경은 급속도로 오염되었다. 교회의 침탑 대신 시커먼 매연을 뿜어대는 공장 굴뚝이 하늘을 뒤덮었고, 쓰레기와 배설물은 부정기적으로 치워지거나 아예 치워지지 않았다. 이윽고 1854년 콜레라가 런던을 강타했다.

출처: 박선미, 2022: 13-16

문제		
원인		
해결을 위한 목표	기본 원칙	전염원을 비감염자들로부터 격리한다.

2 1854년에 스마트폰이 있었다라면?

(1) GIS가 전염병 문제해결에 도움을 준 사례를 찾아봅시다.

① 코로나19란?

정의	
전염 경로	
확산 상황	
해결 방안	

## ② 코로나19 관련 데이터 분석 사례

- ☑ 통합데이터 지도 > 이슈 > 코로나19 데이터 > 관련 사이트 및 데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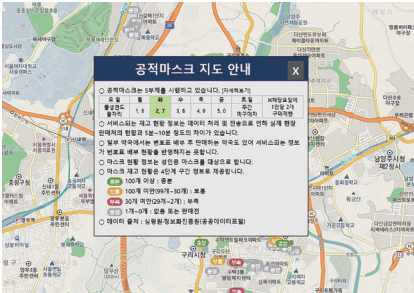
[https://www.bigdata-map.kr/covid\\_boards/ext\\_data](https://www.bigdata-map.kr/covid_boards/ext_data)

- ☑ 코로나19 공공데이터 핸드북

<https://hackmd.io/ngvgVMnYRRuTno71Uu6cMg>

- ☑ 한국에스리 > 리소스 라이브러리 > 코로나19

<https://www.esrikr.com/covid-19>

GIS 활용 사례	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마스크 지도</p>  <p style="text-align: right;">출처: 구리시청, 2020</p>	<p style="text-align: center;">마스크 판매처와 실시간 재고 현황 알람</p>

(2) 1854년 콜레라가 강타했던 런던에서 GIS를 활용할 수 있었다면 어떤 데이터가 필요했을지 아래 글을 참고하여 생각해 봅시다.

1850년대 초 영국 런던에서 창궐한 콜레라의 원인을 그 누구도 규명하지 못할 때 의사 존 스노는 콜레라 사망자의 분포를 지도에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도화를 통해 사망자 대부분이 한 우물 주변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그는 이 지도를 콜레라가 수인성 전염병이라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근거로 제시합니다.

출처: 나딘 슈르만, 2013: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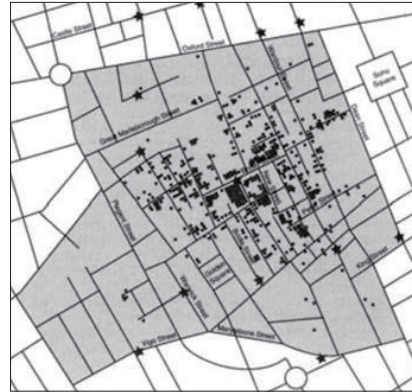
출처: Schuurman, 2004

GIS 데이터	내용

3 1854년 런던의 콜레라 문 제해결에 도움을 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화면 내용 구성을 만들어 보 시다.

홈 화면(메뉴 구성)	
Home	콜레라맵

콜레라 발생 지역 현황  
(현 시각 기준)



출처: Schuurman, 2004

현황 지도	인증 우물	예방 수칙	치료 병원	발생 신고
-------	-------	-------	-------	-------

메뉴	메뉴 설명
현황 지도	콜레라 발생 지역 실시간 반영
인증 우물	런던시 인증 깨끗한 우물 위치
예방 수칙	콜레라 예방 수칙
치료 병원	콜레라 치료 가능 병원
발생 신고	콜레라 발생 시 신고처

## 나도 GIS 지도를 제작해 볼까요?

### 진행방법

- 본 수업은 세계 문제의 해결이나 공간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GIS를 활용하는 프로젝트 수업으로 진행합니다.
- 관심 주제별로 모둠을 구성하고, 모둠별 공유하고자 하는 소주제를 선정합니다.
- 선정한 소주제를 해결하거나 알리기 위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 수집한 데이터를 정리하여 커뮤니티 매핑 지도를 제작합니다.
- 모둠별로 제작한 지도를 발표하고 친구들과 공유합니다.

### 지도상 유의점

- ‘핵심활동 1’과 ‘핵심활동 4’의 ‘구글 내 지도(Google My Maps)’ 활용 방법(커뮤니티 매핑)은 ‘핵심활동 1’에서는 주어진 조건에 따른 내용을 정리하고, ‘핵심활동 4’에서는 프로젝트형으로 내용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 제시된 대주제 외에 다른 대주제로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모둠별 소주제를 선정할 때는 커뮤니티 매핑 지도를 제작할 수 있는 주제를 고르도록 안내합니다.

## 나도 GIS 지도를 제작해 볼까요?

모둠명 :

구성원 이름 :

1 대주제 중에서 관심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모둠을 구성합니다.

문화

보건

인구

재난

정치

환경

2 모둠별로 대주제 중에서 공유하고 싶은 세계 문제를 찾아봅시다. 대주제와 관련된 세계 문제들을 찾아보고, 모둠별로 토론 과정을 거쳐 하나의 소주제를 선정해 볼까요?


대주제	문화
	세계 문제
	•
	•
	•
	•
소주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둘러싼 국가 간 갈등



3 위와 같은 소주제를 선정한 이유를 말해 봅시다.

- 
- 
- 

4 선정한 소주제를 해결하기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리해 봅시다.

항목	내용
대주제	문화
소주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둘러싼 국가 간 갈등
세계유산	헤브론/알칼릴 옛 도시
사진	 ©Shutterstock/Georgy Dzyura
위치	팔레스타인
좌표	31° 31' 27"N, 35° 6' 32"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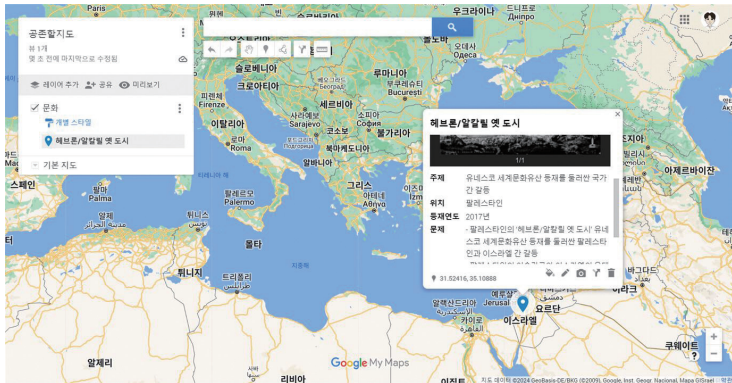
등재연도	2017년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팔레스타인의 ‘헤브론/알칼릴 옛 도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둘러싼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 갈등</li> <li>• 팔레스타인의 이슬람교와 이스라엘의 유대교 성지가 함께 있는 곳인데, 이슬람교의 모스크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인정되었지만 유대교에서 신성시하는 무덤은 빠짐</li> <li>• 2019년 이스라엘 유네스코 탈퇴</li> </ul>

5 위 내용을 지도(구글 지도) 위에 작성해 보시다.

교사 사전 작업 구글 드라이브 > 신규(‘Google 내 지도’ 선택) > 지도 제목 및 설명 수정(예: 공존할지도) > 레이어 이름 편집(예: 문화) > 레이어의 ‘데이터 표 열기’ > 항목 작성(예: 세계유산, 주제, 위치, 등재연도, 문제) > 학생 공유

한국에스리 > 리소스 라이브러리 > 분야별

<http://www.esrikr.com>



© 2024 GeoBasis-DE/BKG (©2009), Google, Inst. Geogr. Nacional, Mapa GISrael

6 모둠별로 제작한 지도를 발표해 봅시다.

구분	내용
모둠명	
프로젝트 주제	
<p>서론 (주제 선정 이유 포함)</p>	
<p>본론 (커뮤니티 매핑 포함)</p>	
<p>결론 (해결 방안, 기대 효과 등 포함)</p>	

## 세상 속의 GIS

GIS는 일상생활 속으로 들어와 있다. GIS는 사람들에게 지역 정보에 관한 표에 담긴 데이터를 지도로 전환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이렇게 GIS를 사용해 만들어진 지도는 정부, 기업, 커뮤니티 그룹, 대학, 병원 등에서 공간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토대가 된다. 그러나 GIS가 영향을 미치는 범위는 기술을 활용하는 사람을 훨씬 넘어서서, 수백만 명의 삶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

당신이 무엇을 먹는지,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근처 슈퍼마켓까지 어떤 경로를 거쳐 도착하게 되었는지 등의 모든 것이 GIS 기술로 쉽게 파악이 가능하다. 대규모 기업식 농업 분야가 성장하면서, 식량 생산과 농업에서 GIS의 역할 또한 성장하게 되었다. 기업농은 이상적인 미래의 작물 위치와 지역 및 원거리 시장과의 관계를 시각화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원격탐사 영상과 토양 분석을 결합하는 작업을 실시한다.

웹기반 판매가 확산되면서 GIS에 의해 용이해진 g-상거래 또는 전자상거래가 급성장하게 되었다. g-상거래는 기업들이 기업 대 기업(B2B), 기업 대 고객(B2C) 포털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지도화 및 데이터 분석 도구들에 기반하고 있다. 전형적인 B2C 포털로는 도서, 음악, 심지어 제약품까지 가정에 있는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Amazon.com을 들 수 있다. B2B 포털도 그만큼 흔하다. B2B 포털은 '적시관리' 배송 시스템의 토대로, 생산이 되자마자 곧장 판매되도록 하여 제품이 진열대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도록, 그래서 수익이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또한 g-상거래는 사회경제 및 '라이프스타일' 데이터를 활용하여 고객, 판매, 성과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도구를 판매자에게 제공한다.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고객 트렌드를 시각화하고 판매 증가를 위한 계기를 탐색한다.

개인이나 커뮤니티에 대한 디지털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은 비단 민간 기업뿐만이 아니다. 이는 전자정부 혹은 e-거버넌스(e-governance)를 위한 토대를 구축한다. e-거버넌스는 국가나 지방정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중의 정보 접근을 허용하기 위해 웹을 활용하게 되면서 급성장하고 있다.

출처: 나딘 슈르만, 2013: 25-29

**활용 팁:** 이 글을 통해 일상생활 속 GIS가 민간 기업, 정부 등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GIS의 활용 범위가 어떻게 확장해 나가게 될지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입니다.

## 슬기로운 GIS 활용법

### 1 GIS의 예측 기능

만카토에서 지리 교사였고 지금은 부통령 후보자인 팀 월즈는 자신을 “지리 정보체계 너드”라고 묘사하면서 2023년 11월 15일을 지리정보체계의 날로 선언했다. 그는 지도와 데이터에 대한 이해는 지역사회 리더와 정부 관련자들이 정책, 공공 안전 및 환경과 같은 중요한 정책 이슈들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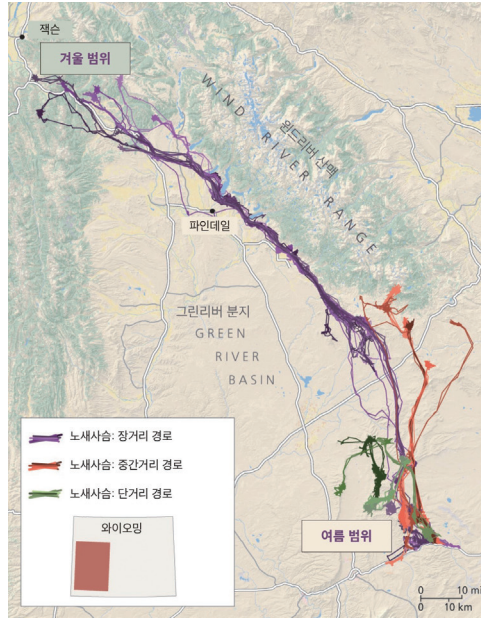
월즈는 1990년대 지리정보체계 소프트웨어의 초기 사용자로서 유대인 학살(홀로코스트)에 대해 고등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지리정보체계를 사용한 예를 들었다.

1993년, 그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지리적 정보에 기초하여 다음 제노사이드가 어디에서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 물었고, 학생들은 르완다를 지명했다. 다음 해, 월즈가 미국 국회위원이었을 때, 르완다에서 제노사이드가 일어났다.

출처: 〈Minnesota Reformer〉, August 6, 2024

### 2 GIS의 경로 탐색

다음 지도는 미국 와이오밍주의 야생동물 이동 경로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상상력을 자극하는 지도입니다. 지리학자와 현장생물학자의 협업으로 만들어진 이 지도는 중요한 동물종의 장기적인 건강과 생존에 중요한 지역에 주목하게 합니다.



출처: 알렉산더 머피, 2022: 175

이 지도는 미국 서부에서 야생동물의 이동 경로가 갖는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였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정부 집권 초기에 발표된, 얼마 안 되는 친환경 정책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실제로 지도 한 장의 나비효과로 사냥꾼의 표적이 되는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서부 지역에 속하는 주(州)의 서식지 및 그들이 이동하는 동선의 연구와 보존을 요구하는 미국 내무부의 행정명령까지 내려졌습니다.

출처: 알렉산더 머피, 2022: 78-80

**활용 팁:** GIS가 교실과 의회 그리고 친환경 정책에 기여한 사례를 통해 GIS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필요한 지도에는 무엇이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길 추천합니다.

## GIS의 감시 기술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추구하는 안보는 디지털 공간 매핑과 '위치 추적'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위치 추적 기술에 도움받아 사람과 사물에 대한 지리적 감시가 이루어진다. 한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의 이동이 추적, 통지, 기록되고 있다는 말이다. 모든 것들이 정도는 달라도 위험 상태에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어떤 지역이 위험 상태에 있는지를 식별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지리적 감시는 위협의 범위와 동등한 수준으로 광범위해야 한다. 즉, 모든 곳에 있어야 한다. 이러한 포괄적인 지리적 감시는 국가가 영토 안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협 요소로 재현하는 것이다. 이들은 국가 입장에서 통제, 수정, 기록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담론이 성공적으로 동원될 때 사람들은 기꺼이 안보를 위해 자유를 희생한다. 감시에 관심을 두고 있는 정부가 수많은 기술을 동원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는 주로 외지인, 이주민, 외국인을 비롯해 표준에 맞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타자] 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2007년 7월 <뉴스위크>는 미국인을 대상으로 FBI가 이슬람 사원을 도청해서 “무슬림 성직자가 급진적 설교를 하는지” 감시해야 하느냐고 물어보았다. 무려 반 이상의 [52%의] 응답자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답했다.

‘우리’와 ‘그들’ 사이의 [정상과 비정상, 내부자와 외부자의] 분할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감시 기술과 공간 추적 시스템, 즉 지리적 감시가 동원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술의 목적은 식별된 집단의 공간 정보를 수집, 분류 관리, 시각화하는 것이다. 집단의 지리적 분포와 이동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



도 지리적 감시의 중요한 목적에 해당한다. 이러한 기술은 센서스와 같이 오래 된 데이터 수집 노력에서부터, 미국 정부의 불법 도청, [국경 안보처립] 이동 통제 메커니즘, 이러한 공간의 지도화 등 새로운 노력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중략) 특히, 매핑, GIS, 군사 및 정보 기관 간의 오랜 연계가 형성되어 있다 (Cloud 2002).

출처: 제러미 크랩턴, 2023: 209-214

**활용 팁:** GIS가 어떻게 부정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세계시민으로서 GIS와 같은 기술을 이용할 때의 바람직한 태도를 성찰해 볼 수 있습니다.

## 세계시민교육과 세계유산

### 1 세계시민교육으로서 세계유산의 의미

세계유산은 자연사와 인류사가 만든 유산으로 보존과 보호를 통해 미래세대로 이어주어야 할 가치가 있다. 유네스코는 세계유산으로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 그리고 인류무형문화유산을 지정하여 이들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학교 안팎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 세계유산교육이다.

세계유산교육은 청소년들이 세계시민의 일원으로 자연과 인류가 남긴 소중한 세계유산과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계승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끌어내고 있다. 또한 세계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중요한 역량을 기르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세계유산교육은 세계시민교육이 지향하는 바와 교집합을 지니고 있다. 세계유산은 세계시민교육에 자연과 인류가 낳은 유산이라는 콘텐츠를 제공해 주고 있다. 자연스럽게 세계유산교육은 글로벌 마인드, 자연적·문화적 다양성, 다양한 관점, 지속가능성, 세계 쟁점에서의 관심과 참여 등이라는 세계시민교육의 테제로 이어지고 있다.

출처: 이경한, 2022: 229-230

### 2 세계유산을 둘러싼 갈등

1902년 이집트를 점령하고 있던 영국은 홍수 조절과 관개용수 확보를 위해 1902년 나일강에 아스완댐을 완공했다. 1946년 또다시 나일강이 범람하고 전력 수요가 급증하자 1952년 이집트의 나세르 대통령이 아스완하이댐 건설에 나

선다. 이 때문에 기원전 13세기 람세스 2세가 세운 아부심벨 신전 등 수단 누비아 계곡에 있던 고대 이집트 유적이 물에 잠길 운명에 놓였다. 유네스코는 1959년 유적 보호를 위한 모금운동을 제안했으며 50여 개국에서 약 8천만 달러를 모금해 1968년 아부심벨 신전을 해체 이전했다. 이 운동은 인류의 유산을 국제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자각을 불러일으켜 197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 채택으로 이어졌다.

2017년 7월 7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팔레스타인이 신청한 요르단강 서안의 알칼릴 구시가지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했다. 이스라엘이 헤브론이라고 부르는 이곳에는 유대민족과 아랍민족의 공통 조상인 아브라함(아랍어로 이브라힘)과 아들 이삭, 손자 야곱이 묻혀있다는 파르티라크 동굴이 있다. 무슬림은 14세기 이 동굴 위에 모스크(이슬람 사원)를 지었는데, 유네스코는 결정문에서 이 모스크를 세계유산으로 인정하며 유대교도들이 신성시하는 무덤은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이스라엘은 지난해 유네스코가 동예루살렘의 공동 성지 템플마운트(아랍명 하람 알샤리프)의 관리 문제에 관해 팔레스타인의 손을 들어주었을 때도 유네스코의 반이스라엘 성향을 문제 삼아 거세게 반발했다.

출처: <연합뉴스>, 2017년 10월 24일 기사

**활용 팁:** ‘GIS로 보는 세계유산’은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중요한 콘텐츠로서 세계유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 평화를 위한 지정학이 되려면?

### ☆ 주제 선정의 배경

지정학은 지리학과 정치학이 합쳐진 말로 지리적 환경과 정치적 상황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지리적 위치는 지정학의 핵심 개념으로, 고전적 지정학은 지정학적 요충지를 차지하기 위한 국가 간의 경쟁과 함께 발전했습니다. 19세기~20세기 초 위치, 지형, 기후, 자원 등 지리적 요소가 국가 전략에 미치는 영향으로 해퍼드 매킨더의 심장지대(하트랜드) 이론, 니콜라스 스파이크먼의 립랜드(주변지대) 이론 등이 등장했습니다. 심장지대(하트랜드) 이론은 세계의 심장 지역을 유라시아 대륙 중앙 지역으로 보고, 이 지역을 차지하는 국가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이론은 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 간 패권 경쟁의 중요한 전략적 틀로 이용되었습니다. 심장지대(하트랜드) 이론을 반박하며 등장한 립랜드(주변지대) 이론은 대륙 세력의 해양 진출을 막는 유라시아 대륙 주변 지역을 세계를 지배하는 열쇠라고 보았습니다. 이 이론은 미국의 소련(러시아) 봉쇄책과 해양 전략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지정학은 현대에 이르러서도 자원, 에너지, 전략적 요충지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으로 이어져 크림반도 분쟁, 남중국해 분쟁 등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인도 등 신흥 강대국들이 부상하고, 세계화에 따라 국가 간 상호의존성이 커지며 지정학에서 전

통적인 군사적 경쟁 외에도 경제적 경쟁과 협력이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지정학은 국제 관계를 이해하고,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데 고려해야 할 필수적 요소가 되었습니다.

1980년대 이후 지정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기존 지정학의 전통적 접근 방법에 대항하는 비판 지정학이 등장하였습니다. 비판 지정학은 기존의 고전 지정학과 달리 국가 이외의 비정부 기구, 기업 등까지 지정학적 행위를 하는 주체로 확장합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지정학은 어떤 국가가 견지하는 대외 정책을 통해 ‘우리’와 ‘그들’을 구분하는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데 중요합니다 (EBS, 2021: 152).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은 지정학의 역사가 켜켜이 쌓여 작동합니다. 지리는 인간과 환경의 관계를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지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등과 연계하여 ‘지정학’의 방법을 통하면 세계의 움직임을 꿰뚫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지정학을 지리 중심 융합 수업 주제로 다룰 수 있는 것입니다.

## ☆ 핵심활동 활용 가이드

‘평화를 위한 지정학이 되려면?’ 수업은 총 4개의 핵심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핵심활동 1에서는 지정학을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며 지리의 눈과 지정학의 방법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분쟁지역을 살펴봅니다.

핵심활동 2에서는 세계 여행경보 발령단계를 통하여 분쟁지역을 살펴보고, 분쟁의 원인과 현재 상황 등을 파악해 봅니다.

핵심활동 3에서는 시리아 난민을 다룬 그림책을 활용하여 국경을 살펴보고,

시리아 난민의 이동 경로를 살펴보면서 국경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분석합니다.

핵심활동 4에서는 지정학적 갈등의 해결과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한 국제사회와 세계시민으로서 우리의 역할을 살펴봅니다.

### ★ 학습목표 및 성취기준

학습목표		[지식·이해] 지정학의 개념과 세계 분쟁의 원인을 이해하고 분석한다.	
		[과정·기능] 분쟁지역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탐구한다.	
성취기준		[가치·태도] 분쟁지역의 아픔과 평화에 공감한다.	
		[실천·행동] 세계 평화를 위한 방안을 찾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한다.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 3대 학습영역	인지적 영역	1. 지역·국가·세계의 체계와 구조	○
		2. 지역·국가·세계 차원에서 공동체 간의 상호 작용과 연계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	○
		3. 암묵적 가정과 권력의 역학관계	○
	사회·정서적 영역	4. 다양한 차원의 정체성	
		5. 사람들이 속한 다양한 공동체와 공동체 간의 상호연계 방식	○
		6. 차이와 다양성의 존중	○
	행동적 영역	7. 개인적·집단적으로 취할 수 있는 실천	○
		8. 윤리적으로 책임감 있는 행동	
		9. 참여하고 실천하기	○

## ★ 기본 용어 설명

### 지정학(Geopolitics)

위치, 크기, 기후, 지형, 인구, 천연자원, 기술 및 그 잠재력 등 지리적 환경이 국가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는 학문(고전 지정학)입니다. 그러나 환경 결정론적 시각에 대한 비판으로 지정학적 행위 주체를 국가에서 국가 이외의 비정부기구, 기업 등까지 확장한 비판 지정학이 발전하면서 지정학의 영역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 지정학적 분쟁(Territorial Conflict)

국가(지역) 간 또는 안에서 지리적, 정치적, 경제적 요인들이 서로 얽혀 발생하는 갈등이나 대립을 의미합니다. 이는 관련 또는 주변 국가(지역)들의 군사적 긴장을 야기합니다.

### 전쟁(War)

국가와 국가, 또는 교전(交戰) 단체 간의 무력(군사력)을 사용한 싸움입니다. 전쟁은 지정학적 분쟁으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어 발발합니다. 전쟁은 주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수역), 자원이 풍부한 지역, 접경지역 등에서 발생합니다.

### 평화(Peace)

무력 충돌인 전쟁의 부재뿐만 아니라 상호이해와 협력, 지속가능발전

을 성취하여 구조적, 문화적, 생태적 및 기타 형태를 지닌 폭력을 해소하고 공정한 사회 구조를 포함한 갈등 원인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 지정학이란 무엇일까요?

### 진행방법

- 본 수업은 역할극(해외 특파원 역할)을 통한 직소우(Jigsaw) 협동학습으로 진행합니다.
- 모둠별로 '독일', '러시아', '미국', '일본', '이집트', '중국' 중 한 국가를 선택한 후, 모둠 내 특파원별로 '정치', '경제', '사회', '환경' 중 한 분야를 선정합니다.
- 국가별로 같은 분야를 선택한 특파원들이 모여서 각 국가의 지정학적 주제를 조사하고, 해당 내용을 4컷 만화로 제작합니다.
- 자신의 모듬으로 돌아가서 협력하여 조사한 내용을 모듬원들에게 전달합니다.

### 지도상 유의점

- 모듬별 국가 및 지정학 이슈는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단, 학생들이 지정학적 주제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국가 및 이슈로 선정하도록 안내합니다.
- 지정학 이슈를 조사할 때 지도(구글 지도 등)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위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지정학 이슈에 대한 조사는 먼저 해당 국가의 위치를 파악하고, 이의 지리적 환경이 어떻게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다른 국가(지역)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 지정학이란 무엇일까요?

모둠명 :

구성원 이름 :

**1** 해외 특파원으로서 다음 상황을 조사해 봅시다.

2023년 9월 10일(현지 시간) <로이터>·<AFP 통신> 등에 따르면, 아비 아머드 알리 에티오피아 총리는 이날 소셜미디어에 “현세대에게 큰 선물인 ‘그랜드 에티오피아 르네상스 댐’의 마지막 4차 담수 작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돼 매우 기쁘다.”면서 “그동안 외부 압박 등 시련이 많았지만 여기까지 잘 왔고, 앞으로 남은 과정도 잘 마무리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출처: <중앙일보>, 2023년 9월 12일 기사



출처: 옥성일, 2022: 171

---

(1) 이집트와 에티오피아를 연결해 주는 자연환경은 무엇일까요?

나일강

(2) 해당 자연환경을 지도에 표현해 봅시다.



출처: 국토지리정보원

(3) 에티오피아가 르네상스 댐을 건설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족한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이다.

(4) 에티오피아의 댐 건설은 이집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물 자원의 확보를 둘러싸고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

(5)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의 갈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대화를 통해 협력 방안을 찾는다.

② 해외 특파원이 되어 지정학적 쟁점을 취재하러 떠나 봅시다.

(1) 모둠별로 한 국가를 선택한 후, 특파원별로 '정치', '경제', '사회', '환경' 중 한 분야를 선정해 볼까요?

독일	러시아	미국	일본	이집트	중국
순번	해외특파원			분야	
1				정치	
2				경제(자원)	
3				사회(종교)	
4				환경	

(2) 해당 분야별로 전문가 집단이 모여서 지정학적 쟁점을 조사해 봅시다.

지정학적 쟁점	브렉시트
지리적 원인 (왜 그곳에서 일어났는가?)	
정치적 영향 (그것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다른 국가(지역)와의 관계  
(다른 국가(지역)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3) 전문가들은 조사한 내용을 4컷 만화로 표현하고, 모둠 국가(모집단)로 돌아가서 이 내용을 설명해 봅시다.

<p>1컷 (위치의 특징)</p>	<p>2컷 (지리적 원인)</p>
<p>3컷 (정치적 영향)</p>	<p>4컷 (다른 국가(지역)와의 관계)</p>

## 분쟁이 그곳에서 왜 일어날까요?

### 진행방법

- 세계 여행경보 발령단계를 살펴보면서 분쟁지역을 파악합니다.
- 세계의 분쟁지역을 조사하고, 이를 카드뉴스로 제작해 공유합니다.
- 분쟁이 ‘어디’에서, ‘왜’ 발생하는지 살펴봅시다.

### 지도상 유의점

- 분쟁지역을 지도에서 살펴보며 위치적 특성이 미친 영향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합니다.
- 누리집을 살펴볼 때 학생들이 봐야 할 누리집 경로를 교사가 먼저 시범적으로 보여줍니다.
- 누리집의 내용이 영문으로 작성되어 해석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옛지, 크롬과 같은 브라우저로 열어 ‘한국어’로 번역 기능을 이용하거나 뒤통과 같은 인공지능의 도움(요약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여행 경보 발령 단계는 유동적이므로 학생들이 특정 국가나 지역에 편견을 갖거나 일반화하지 않게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행 경보 발령 단계는 단면적 정보 중 하나이며 학생들이 지정학적 관점을 주지하고 다차원적으로 바라보려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합니다.

## 분쟁이 그곳에서 왜 일어날까요?

모둠명 :

구성원 이름 :

- ① 여러분이 가고 싶은 여행지는 어디인가요? 여행 가기 전 ‘여행경보제도’를 통해 전 세계 각국의 여행경보 발령단계를 살펴봅시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누리집 > 여행경보 > 여행경보 발령현황  
<http://www.0404.go.kr>

- (1) 세계 각국(지역)의 여행 경보 발령 단계를 확인해 봅시다.

내용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경보 색깔	남색	황색	적색	흑색
경보 내용				(여행 예정자) 여행 금지 준수 (체류자) 즉시 대피·철수
해당 국가(지역)				

- (2) 단계별 해당 국가(지역)의 특성을 말해 봅시다.

내용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해당 국가(지역)의 특성				전쟁(내전) 중인 지역이다.

2 세계지도에 적색과 흑색의 여행 경보 지역을 칠해 봅시다.



출처: 국토지리정보원

(1) 적색 국가들은 어디에 있나요?

(2) 흑색 국가들은 어디에 있나요?



3 세계의 분쟁지역을 모둠별로 조사해 봅시다.

KIDA 한국국방연구원 > KIDA 연구물 > 세계분쟁(WoWW) > 지역별 분쟁 분석자료  
<http://www.kida.re.kr>

(1) 분쟁지역을 선택합니다.

미얀마 내전	북아일랜드 분쟁
수단 내전	시리아 내전
이라크 분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① 분쟁지역 카드를 작성해 봅시다.

분쟁지역	
분쟁의 주요 원인	
•	
•	
•	
관련 국가	
주요 키워드	#

---

② 신문 기사를 찾아서 분쟁지역의 현재 상태를 알아보시다.

URL	
내용 요약	
•	
•	
•	

---

(2) 조사한 내용을 디자인 툴에 공유해 봅시다.

Padlet  
<https://padlet.com/>

- 분쟁지역:
- 분쟁 원인:
- 관련 신문 기사 링크:
- 관련 국가:
- 주요 키워드: #

(3) 카드뉴스를 디자인 툴을 활용하여 제작하고 발표해 봅시다.

Canva  
<http://www.canva.com>

Padlet  
<https://padlet.com/>

## 국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 진행방법

- 본 수업은 모둠원들이 서로 협력하여 활동지의 과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합니다.
- 비주얼씹킹 방법(수업 시간에 다루는 개념을 간단한 그림과 글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전쟁 중인 지역의 국경(수업 전)을 표현해 보며, 평화로운 지역의 국경(수업 후)을 그려 봅니다.
- 그림책에서 난민 이동 경로의 단서를 찾아 지도에 표현해 봅니다.
- 수업 후 난민의 어려움에 대한 공감으로 난민을 돕기 위한 SNS 게시물을 만들어 봅니다.

### 지도상 유의점

- 학생들이 그림책을 읽으면서 평화 감수성을 갖도록 합니다.
- 프로젝트 수업은 학생들 스스로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주제를 선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조사나 연구, 발표 및 평가에 이르기까지 학습의 전 과정에 걸쳐 스스로 참여하도록 합니다.

## 국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모듬명 :

구성원 이름 :

1 그림책을 함께 읽어 봅시다.

프란체스카 산나의 그림책 《긴 여행》은 전쟁을 피해 자기 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난민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전쟁은 단란했던 가족을 혼란스럽고 두렵게 했으며 아빠도 앓아눕습니다. 남겨진 엄마와 아이들은 전쟁이 없는 안전한 곳을 찾아서 정든 마을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밤에 이동해야 했고, 이동 거리가 길어질수록 짐을 계속 줄여야 했습니다. 국경에서 가로막힌 엄마와 아이들은 한없이 나약한 모습입니다. 발 디딜 틈도 없는 작은 보트에 겨우 올라타 바다를 건너 도착한 그곳은 긴 여행의 종착지가 될 수 있을까요?



출처: 프란체스카 산나, 2017

---

---

(1)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을 찾아보고, 이에 대한 핵심 질문을 만들어 봅시다.

가장 인상 깊은 장면 찾아보기	
책의 내용을 토대로 핵심 질문 만들어 보기	사람의 크기를 크고, 작게 그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핵심 질문에 대해 답해 보기	

(2) 책의 내용에서 난민이 발생하게 되는 이유를 말해 봅시다.

(3) 난민의 다른 이동 경로를 상상해 봅시다.



출처: <경향신문>, 2015년 8월 30일 기사

---

2 세계의 다양한 국경의 모습을 조사해 봅시다.

3 전쟁 중인 국가들의 국경과 평화로운 국경의 모습을 묘사해 봅시다. 평화로운 국경의 모습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쟁 중인 국경	평화로운 국경

4 평화로운 국경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 진행방법

- 국제사회의 분쟁 해결을 위한 노력 사례를 찾아봅니다.
-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수립해 봅니다.
- 국제사회의 분쟁 해결을 위한 세계시민의 역할을 생각해 봅니다.

### 지도상 유의점

-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국제 비정부기구 등 다양한 행위 주체로서 국제사회의 역할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합니다.
- 지속가능발전목표에 기반해서 국제사회 및 세계시민의 역할을 찾도록 합니다.



##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모둠명 :

구성원 이름 :

1 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사례를 찾아봅시다.

(1) 빈칸을 채워 봅시다.

국제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국가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국가 뿐만 아니라 각 국가의 정부가 구성원인 정부 간 국제기구와 자발적인 민간 조직인 국제 비정부기구 등 다양한 행위 주체들이 국제사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부 간 국제기구에는 국제연합(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럽연합(EU), 국제 비정부기구에는 그린피스, 국경없는의사회(MSF), 국제앰네스티가 있습니다.

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해결 노력 사례	출처	
중국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화·협상 테이블 마련 노력	〈데일리안〉(2024.07.24.) 등	
유럽연합의 우크라이나 재건 금융 지원	〈KBS〉(2024.08.06.) 등	
대한적십자사의 우크라이나 의료 지원	〈의협신문〉(2024.05.21.) 등	

(2) 찾은 사례를 발표해 봅시다.

## 2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수립해 봅시다.

### (1)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알아봅시다.

2015년 제70차 UN총회에서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한 의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인류 공동의 17개 목표입니다.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라고도 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는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Leave no one behind)’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라는 5개 영역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지속가능발전포털

## 지속가능발전 목표



© 원문 UN, 국문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한 목표를 찾아봅시다.

지속가능발전목표	이유
6. 깨끗한 물과 위생	전쟁 지역에 깨끗한 물이 부족하다.
16. 평화, 정의, 강력한 제도	평화를 위한 정의, 제도가 필요하다.
17. 파트너십	평화를 위해서는 협력이 중요하다.

(3)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해 구체적인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립해 봅시다.

지속가능발전목표	세부목표
6. 깨끗한 물과 위생	전쟁 지역의 우물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16. 평화, 정의, 강력한 제도	평화 협력체를 구성한다.
17. 파트너십	평화 교류를 확대한다.

- 3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세계시민으로서 지속가능발전목표 실천 계획을 수립해 봅시다.

번호	관련 목표	실천 계획
1	6. 깨끗한 물과 위생	하천이나 해변 청소 활동에 참여한다.
2		
3		

- 4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세계시민으로서의 실천을 장려하는 포스터를 디자인틀로 제작하여 작품을 발표해 봅시다.

Canva  
<http://www.canva.com>

작품명	
기획 의도	
포스터	

## 지정학의 개념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세계 곳곳에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자원의 가격은 폭등했고, 안보는 불안해졌으며, 국가 간의 긴장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대규모로 공급하는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하면서 유럽 에너지 공급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때문에 우리나라의 조선업계가 활황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어찌 된 일일까요?

천연가스 공급이 불안정해진 유럽은 러시아를 대신할 안정적인 공급처를 모색합니다. 이때 눈에 들어온 나라가 바로 중동의 카타르입니다. 카타르는 작은 나라지만 전 세계 천연가스 수출 2위의 에너지 대국입니다. 또한 월드컵을 개최할 정도로 경제 수준이 높고, 정치적 안정성이 보장된 나라기도 하지요. 특히 카타르는 미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 등 다른 천연가스 생산국들에 비해 유럽과 가깝다는 지리적 강점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유럽은 카타르로부터 천연가스 수입량을 늘리게 되었고, 수송을 위한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즉 LNG선이 더 많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LNG선을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드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결국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영향이 나비효과처럼 돌고 돌아 우리나라의 LNG선 수주 호황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으로 사람들은 세계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각종 분야가 작동하는 연쇄 과정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국제적 사건들이 서로 긴밀하게 얽혀있고, 이런 과정에

는 늘 지형·기후·도시·인구·교통·체제 등의 지리적 조건이 깊게 관여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지리적 조건이 국제 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지정학’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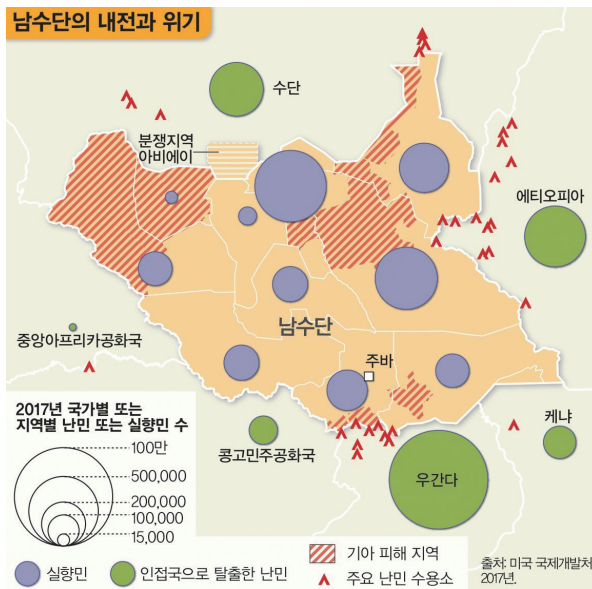
출처: 전국지리교사모임, 2023: 5-6

**활용 팁:** ‘지정학’이란 용어는 이제는 일상용어가 되었지만 지정학이 무엇인지 설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 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지정학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어 지정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분쟁지역과 난민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오랜 기간에 걸쳐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분쟁으로 꼽히는 수단 내전은 북부 아랍계와 남부 아프리카계 사이의 충돌로, 그 과정에서 수백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기도 했다. 물론 2011년 7월에 남수단은 분리 독립에 성공했다. 하지만 남수단은 독립 2년 만에 누에르족과 덩카족 간의 종족 분쟁이 다시 격화되면서 참혹한 내전 상태로 돌입, 또 전쟁을 치러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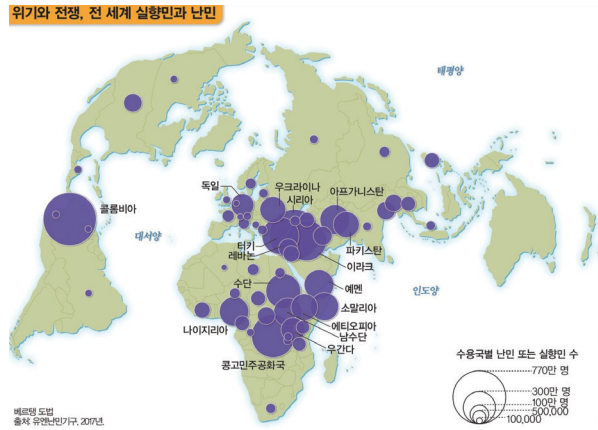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에서 벌어진 이 전쟁의 목적은 1978년 개발되기 시작한 석유를 비롯한 여러 자원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려는 것이었다.



출처: 로랑 카루에, 2022: 139

2018년 남수단 내전으로 우간다와 에티오피아 등 인접 국가에서는 220만 명의 국내 실향민과 난민이 발생했으며, 그 여파로 주변 지역의 상태는 더욱 악화하였다.

최근 몇 년 동안은 분쟁을 통해 세계의 실향민과 난민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에 따르면 2018년 7,150만 명이 국내외 분쟁을 피해 다른 지역으로 강제 이주했다.



출처: 로랑 카루에, 2022: 140

위의 지도는 국내 분쟁(콜롬비아, 나이지리아 등), 국제분쟁(시리아, 이라크) 등 주요 분쟁지역의 다양한 분포와 규모를 보여준다. 예멘 전쟁과 같이 내전으로 시작된 내부 분쟁이 지역 강국의 간섭으로 국제분쟁으로까지 비화하는 비극적인 경우도 있다.

출처: 로랑 카루에, 2022: 138-140

**활용 팁:** 이 글은 난민 문제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난민이 어디에서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지포그래픽(지도와 데이터로 시각화)’ 자료와 함께 제시합니다.



## 전쟁의 영향

전 세계의 군사주의는 날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을 비롯해 각국이 앞다퉀 군사비를 증액하고 군사동맹을 강화하며 각종 무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이후 지속적으로 군사비 지출을 늘려왔고,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 침공을 준비하면서 군사비를 크게 증액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한국, 호주 등 아시아·오세아니아 국가들의 군사비도 꾸준히 늘어왔습니다.

2022년의 식량 위기와 물가 폭등은 팬데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기후위기로 인한 각종 재해와 재난이 맞물리면서 발생했습니다. 이렇듯 기후위기, 보건 위기, 전쟁과 무력 충돌, 안보 불안은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더욱 심각하고 복합적인 위기를 불러옵니다.

각국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매년 측정하고 의무적으로 보고하지만 ‘군사 부문’만큼은 예외가 되고 있습니다. 1997년 교토의정서는 각국 배출량 집계에서 군사 부문 배출량을 제외하기로 했고, 2016년 파리기후변화협약은 군사 부문 배출량 보고를 ‘의무사항’이 아니라 ‘자발적 선택사항’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국가 안보 사항’이라는 이유입니다.

‘갈등 및 환경 전망대’와 ‘지구적 책임을 위한 과학자들’이라는 단체에서는 군대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두 단체는 보고서에서 군수 산업과 군사활동으로 인한 탄소배출이 전 세계 배출량의 5.5%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하며, “세계 모든 군대를 하나의 국가로 보면 (미국, 중국, 인도에 이어) 세

계에서 4번째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국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다른 분야에서의 탄소배출이 줄어들고 있지만 군수 분야 탄소배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출처: 조천호 외, 2023: 27-35

**활용 팁:** 전쟁은 기후위기 문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군사활동으로 인한 양의 탄소배출은 측정하지도, 공개하지도 않지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기후위기’는 정의와 평화를 위해 지정학과 연계하여 꼭 다루어야 할 주제입니다.

## 국제사회의 역할

세계는 한 국가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국가들이 각각의 구성원으로 국제사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사건일지라도 많은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이처럼 주권을 가진 각 나라들이 상호 교류하면서 영향을 주고받는 사회를 국제사회라 하며 각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합니다. 그리고 국제사회는 국내사회와 다르게 중앙정부가 없기 때문에 각 국가의 국력에 따른 힘의 논리가 적용됩니다. 그렇다고 오늘날의 국제사회를 완전한 '무정부적 상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국제연합 등의 정부 간 기구, 그린피스 등의 국제 비정부기구 등이 국제질서를 유지하고, 국제 문제에 협력하기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제사회의 구성원인 각국은 대부분 국제법, 세계 여론, 도덕적 규범 등의 영향도 받습니다.

세계화를 통해 국제적 교류가 활성화되고 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첫째,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므로 어느 특정 국가만의 문제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관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일어난 영토분쟁처럼 한 국가 내부의 영토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둘째, 특정 지역의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아프리카 국가의 내전처럼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무고한 시민들이 내전으로 인해 난민으로 전락해 고통스럽게 지내게 됩니다.

셋째, 문제에 따라서는 그 영향력이 다음 세대에까지 이어집니다. 특히 기름 유출과 같은 환경오염은 시간이 지나도 오염물질은 계속 남아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고려할 때, 국제사회의 문제를 특정 국가가 독자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국제사회가 당면한 여러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려면, 세계 각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공조 체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에듀넷, 2024

**활용 팁:** 지정학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국제사회에 대해 알아보고, 국제사회가 무슨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 인구는 줄어드는데, 왜 이주민은 반대할까요?

### ★ 주제 선정의 배경

세계화로 인해 국가 간, 문화 간의 교류가 급격히 증대되면서 타문화에 대한 이해, 다양성에 대한 존중, 지역 문제들의 상호연계성 및 상호의존성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이태주 & 김다원, 2010). 이 시점에서 근본적으로 인류가 당면한 문제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행위) 주체인 인구에 대해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인구의 변화와 그로 인한 영향은 과밀화,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전 세계적인 인구문제에서부터 국제 이주, 식량문제, 환경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이해하는 것은 불평등과 빈곤을 줄이고,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국제 협력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인구'라는 주제는 글로벌 이슈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의 시작점이 되며, 나와 지역, 그리고 세계와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구' 수업은 주로 숫자, 통계, 그래프, 지도 등을 활용하여 객관적인 사실을 다루고 있지만, 사실 인구문제는 복잡성과 논쟁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인구문제는 개인, 지역, 국가, 세계가 처한 상황과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한 차원의 인구문제는 다른 차원의 문제와도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구 조

절에 대한 관점은 주입하거나 설득할 수 없으며, 더 나은 삶을 위한 국제 이주는 인구 유출지에도 유입지에도 새로운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주제의 학습을 통해 인구문제는 단순히 인구의 많고 적음이 문제의 본질이 아님을 이해시키고, 학생들이 인구폭발론과 인구절벽론 같은 이분법적인 접근을 넘어서는 동시에 다양한 관점과 해석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하려 했습니다. 또한, 개인의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들이 개인 수준에서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스스로 문제해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구 교육은 학생들이 글로벌 차원에서의 연계성과 책임감을 갖추고,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분석하며, 실천적인 해결책을 모색함으로써 세계시민교육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 핵심활동 활용 가이드

‘인구는 줄어드는데, 왜 이주민은 반대할까?’ 수업은 총 4개의 핵심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핵심활동 1에서는 세계 인구통계 데이터 및 통계지도를 활용하여 세계 인구 분포 및 구조, 인구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익히는 활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세계 인구증가 추세를 통해 국가별, 대륙별 인구 특성을 파악하고, 인구폭발 지역과 인구절벽 지역의 인구문제를 살펴봅니다.

핵심활동 2~4는 노벨엔지니어링\* 수업을 적용하여 인구의 국제 이주에 대해

\* 독서와 공학을 융합한 수업 방식으로 책을 읽고, 책 속 문제 상황을 파악하여 해결책을 직접 설계해 보고 이야기를 다시 써보는 과정을 말하는데, 이를 지리 교과에 맞도록 변형하여 적용함.

탐구하는 활동으로 구성했습니다. 핵심활동 2는 ‘왜 인구는 이동하는가?’에 대해 이해하고, 경제적 이유로 우리나라로 이주한 외국인 노동자의 삶을 보여주는 책과 기사를 읽고 외국인 노동자가 겪는 차별과 편견 등을 느껴보는 활동을 합니다.

핵심활동 3은 이주자들이 겪는 문제들을 경제적, 법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현재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조사하고, 새로운 해결책에 대해 고민하는 활동입니다.

핵심활동 4는 이주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산출물로 제작하여 직접 실천하는 활동으로 학생들은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 ★ 학습목표 및 성취기준

<p><b>학습목표</b></p>	<p>[지식·이해] 세계 인구분포와 구조 그리고 이동을 이해하고 세계 인구문제를 분석한다.</p> <p>[과정·기능] 인구 데이터를 찾고, 통계지도 및 시각화 자료를 탐구한다.</p> <p>[가치·태도]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공존의 태도를 함양한다.</p> <p>[실천·행동] 공존적 다문화사회를 위한 개인과 사회의 역할을 성찰하고 실천한다.</p>
<p><b>성취기준</b></p>	<p>[12세지03-01] 세계 인구분포 및 구조를 통해 세계 인구문제를 이해하고, 국제적 이주가 인구 유출 지역과 유입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다.</p>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 3대 학습영역	인지적 영역	1. 지역·국가·세계의 체계와 구조	
		2. 지역·국가·세계 차원에서 공동체 간의 상호 작용과 연계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	○
		3. 암묵적 가정과 권력의 역학관계	
	사회·정서적 영역	4. 다양한 차원의 정체성	○
		5. 사람들이 속한 다양한 공동체와 공동체 간의 상호연계 방식	
		6. 차이와 다양성의 존중	○
	행동적 영역	7. 개인적·집단적으로 취할 수 있는 실천	
		8. 윤리적으로 책임감 있는 행동	○
		9. 참여하고 실천하기	

#### ★ 기본 용어 설명

##### 다문화사회(Multicultural Society)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주배경인구가 총인구의 5%를 넘을 경우 ‘다문화·다인종 국가’로 분류합니다. 이주배경인구는 내국인 귀화자, 내국인 이민자 2세 및 외국인 인구를 합친 것입니다. 2024년 1월 16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최근 공개한 ‘2023년 12월 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체류 외국인인 250만 7천584명으로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4.89%에 해당합니다.

### **이주자(Migrants)**

국제법에 의해 정의되지 않은 포괄적인 용어로, 유엔 국제이주기구의 정의에 따르면 한 국가 내에서 또는 국경을 넘어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다양한 이유로 평소 거주지를 떠나는 사람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반영합니다. 이 용어에는 이주노동자와 같은 잘 정의된 법적 범주의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밀입국 이민자와 같이 법적으로 정의된 특정 유형의 이동을 가진 사람들, 또한 유학생과 같이 국제법에 따라 지위나 이동 수단이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국제이주기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피해받은 유럽 이주민들의 재정착을 돕기 위해 1951년에 설립된 정부 간 기구입니다. 오늘날 범위를 넓혀 세계적인 인간 이동성과 관련된 이주를 위한 유엔 관련 기구가 되었습니다. 국제이주기구는 정기적이고 안전하며 질서 있는 이주를 촉진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166개 회원국들에게 다양한 서비스와 정책 조언을 제공해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4년 한국 사무소가 개소된 이후 국제이주기구는 국내 다양한 이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이주 거버넌스 개선, 이주 및 개발 촉진, 취약한 이주민 보호 및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추구합니다. 이주를 국가, 지역 및 국제 개발 계획에 편입,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난민 재정착 및 자발적 복귀 노력 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 및 시민사회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 인구는 늘어서 문제일까요? 줄어서 문제일까요?

### 진행방법

- 3~4인 모둠 5개를 구성합니다.
- 모둠원이 함께 그래프와 통계자료 해석 및 자료조사를 하여 답을 찾도록 합니다.

### 지도상 유의점

- 자료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인구통계 최신 자료를 업데이트하거나, 자료의 업데이트(영상, 그래프)가 어려울 경우 교사가 강의 중에 설명으로 시사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인구피라미드, 출생율, 사망률, 인구증가율 등 인구와 관련한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하고, 데이터를 비교하고 분석하는 기술을 학생들이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인구변화가 각 지역의 경제, 사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인구가 늘어서 문제일까? 줄어서 문제일까?’의 해답은 결국 각 지역의 상황에 따라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구가 증가 또는 감소하여 나타나는 문제를 알아보고, 인구감소를 보이는 국가 안에서도 인구가 집중되는 지역에서는 인구 밀집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인구는 늘어서 문제일까요? 줄어서 문제일까요?

모둠명 :

구성원 이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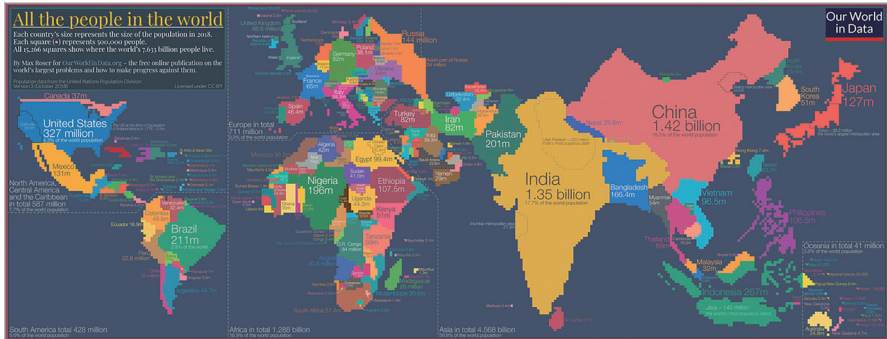
1 세계 인구증가 및 인구분포 특징을 찾아 말해 봅시다.

세계 인구증가 및 분포

<https://worldpopulationhistory.org/map/1/mercator/1/0/25/> (영상)

<https://worldpopulationhistory.org/map/2024/mercator/1/0/25/> (타임라인)

세계 인구 카토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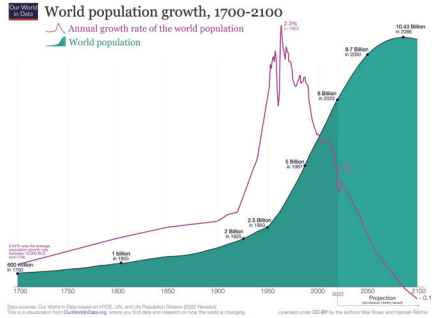


출처: Roser,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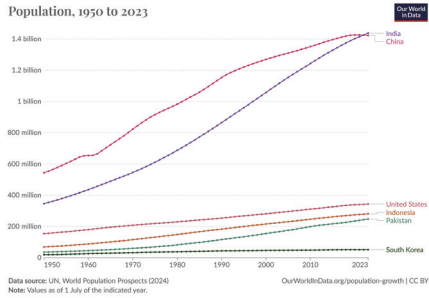
2 인구증가가 지속된다면 세계에 어떤 변화(또는 문제)가 나타날 것인지 예측해 봅시다.

☑ 데이터로 보는 세계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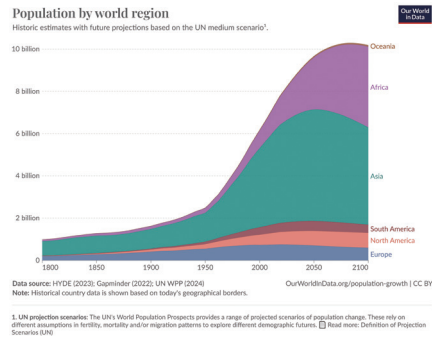
<https://ourworldindata.org/population-grow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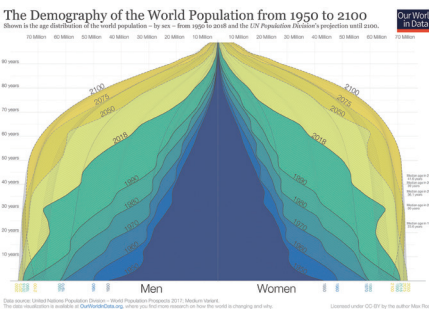
출처: Roser and Ritchie, 2023



출처: Ritchie et al., 2023



출처: Hyde, 2023; Gapminder, 2022; UN WPP, 2024



출처: Roser, 2019

---

(1) 인구성장 그래프와 인구피라미드를 통해 세계의 인구변화 양상을 해석해 봅시다.

세계 인구는 1700년까지 매우 느리게 성장(연간 0.04%)

20세기 동안 세계 인구 4배 이상 증가

인구증가율은 1963년 연간 2.3% 성장률로 정점에 달하고 지금은 인구증가 둔화세

유엔은 21세기 말 세계 인구 104억 명으로 정점에 이르고, 이 시점 이후 인구증가율

이 마이너스가 되며 세계 인구감소 예상

(2) 대륙별 인구변화(수, 증가율) 양상을 해석하고, 문제를 예상해 봅시다.

KOSIS 세계 속의 한국

<https://kosis.kr/visual/korealnWorld/korInWorldCompareResult.do?lang=ko>

아프리카, 아시아 인구증가

21세기 말까지 전 세계 인구 10명 중 8명 이상이 아시아나 아프리카에 산다.

유럽은 인구감소 예상(저출산, 고령화 문제)

극심한 빈곤은 아프리카에 더 집중될 것으로 예상, 인구 유출 심화(국제 이주 증가)

아시아의 높은 인구밀도, 인구과밀 문제(도시, 환경문제 등), 국제 이주 증가

(3) 세계 여러 국가들의 인구 데이터를 검색하여 인구증가와 인구감소가 예상되는 국가들을 찾고 해당 국가들의 인구문제를 찾아봅시다.

어떤 지역에서 인구증가 또는 인구감소 현상이 발생하고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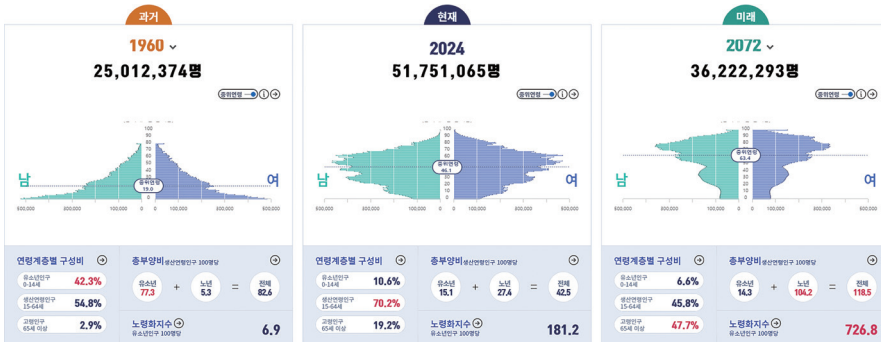
이 지역에서는 왜 인구가 빠르게 증가 또는 감소하고 있나요?

인구증가 또는 인구감소가 해당 지역의 경제, 사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3 우리나라 시기별 인구피라미드를 보고 우리나라 인구변화의 특징을 설명해 봅시다.

인구상황판

<https://kosis.kr/visual/populationKorea/PopulationDashBoardMain.do>



출처: 국가통계포털(KOSIS), n.d.

4 지역별 인구상황을 비교하여 각 지역의 인구 특징을 설명해 봅시다.

(1) 지역별 인구구조

(2) 지역별 인구변화 조사

5 아래 자료와 사이트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인구문제를 찾아봅시다.

저출생, 고령화, 인구절벽, 다문화, 수도권 집중/지방 소멸





## 사람들은 왜 이주할까요?

### 진행방법

- 4~5인 모둠 4개를 구성합니다.
- 핵심활동 2~4는 노벨엔지니어링을 적용하여 인구의 국제 이주에 대해 집중 탐구하는 활동입니다.

노벨엔지니어링 수업단계	주제: 인구의 국제 이주
책, 기사 읽기	핵심활동 2
문제 인식	핵심활동 3
해결책 설계	
창작물 만들기	핵심활동 4
이야기 바꾸어 쓰기	

- 인구이동의 요인, 유형의 특징과 사례를 찾는 활동을 합니다.

### 지도상 유의점





- 이주노동자가 겪는 어려움과 이에 대한 해결책은 활동지 3, 4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기에 활동지 2는 브레인스토밍 정도로 활용합니다.
- 국제 이주가 유입 지역(또는 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균형 있게 다루되, 이주민과 유입 지역민의 상보적 협업으로 더 나은 사회환경을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지도합니다.

## 사람들은 왜 이주할까요?

모듬명 :

구성원 이름 :

1 다음은 인구이동 유형을 보여주는 카드입니다.

<p>결혼 이주: 한국, 결혼이주여성의 증가</p>  <p>2000년대로 들어오면서 한국사회에서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남성 위주의 국제결혼 증가로 인해 결혼이주여성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국제결혼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이주여성들의 문제와 다문화사회의 문제들은 이 시대 새로운 사회현상이고 우리가 해결하고 사회통합을 이루어야 할 과제이다.</p> <p>출처: e-나라지표, 2024년 8월 5일</p>	<p>취업 이주: 해외 엘리트에 '천재 비자'</p>  <p>싱가포르가 올해 신설한 장기취업비자인 '원패스'의 후속 조치로 이달부터 취업비자 평가 항목에 신청인의 급여와 학력을 포함시켰다. 상속세, 증여세가 없다는 점에서 세계적인 엘리트와 해외 부유층 이주를 유도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일자리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내국인 반발이 커지는 부담이 있고, 내국인에 대한 차별방지를 만드는 등 사회통합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p> <p>출처: &lt;서울경제&gt;, 2023년 9월 3일 기사</p>
<p>90일 이상~180일 이하 유럽 여행할 때 필요한 비자</p>  <p>유럽을 여행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온라인 ETIAS 온라인 비자 신청해야 함. ETIAS 여행 허가는 3년간 유효한 복수 입국 비자이며, 여행 기간이 90일 이상~180일 이하인 경우 해당 지역에 체류할 수 있는 권한을 줌.</p>	<p>팔레스타인 난민 → 주변국 이동</p>  <p>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공습을 피해 난민촌을 떠나는 팔레스타인 난민 사례</p>

(1) 위 카드와 인구이동의 유형을 연결하여 정리해 봅시다.

기타 참고사이트

<https://www.migrationdataportal.org/themes-list>

구분 기준	유형	특징	사례
이동 기간	영구적	영구 거주를 목적으로 한 이동	
	일시적	단기 거주를 목적으로 한 이동	
이동 의사	자발적	더 나은 환경을 찾아 스스로 이동	
	강제적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동	
이동 원인	경제적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동	
	종교적	종교적 이유로 이동	
	정치적	전쟁, 분쟁 등의 이유로 이동	
	환경적	기후위기 등 환경문제로 인한 이동	

(2) 국제 이주가 왜 발생하는지 말해 봅시다.

(3) 국제 이주는 지역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리하여 말해 봅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입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출지</li> </ul>
---	---

2 다음 책과 기사를 통해 이주민들의 삶을 살펴봅시다.



출처: 이란주, 2022

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고향을 떠나 어쩔 수 없이 낯선 나라로 왔어요.  
 사람들이 내 미소를 보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나 봐요.  
 강철처럼 기계와 싸울 때 울어서 눈이 통통 부었네요.  
 언젠가는 여기 이 눈물에 빠져버릴 것만 같아요.  
 (...중략...)  
 나는 돈이 열리는 나무를 찾으려고 엄청 돌아다녔네요.  
 여기는 내 사람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출처: 이란주, 2022: 120



**베트남 출신 팜티프엉 순경**

“한국기업에 근무했고, 한국어에 관심이 있어서 짬짬이 공부도 했었습니다. 남편과 자주 대화도 했고요. 그런데 막상 한국에 들어와 보니 생각 외로 언어소통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같은 이주 여성들이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것을 보면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경찰이 됐다는 사실에 더 많은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2016년 12월 9일 기사

한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이주 여성들의 사례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소개되고 있습니다. 경찰, 인권활동가, 통역사를 비롯해 국회의원까지 이주 여성들이 점차 유리 천장을 깨뜨리고 사회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1) 위 자료를 읽고 이주민들의 다양한 삶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① 긍정적 사례

② 부정적 사례

---

(2) 《나는 미래를 꿈꾸는 이주민입니다》에서 발췌한 내용을 통해 이주노동자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찾아봅시다.

(3) 이주노동이 고통스럽고 슬픈 것이 아니라 즐겁고 건강한 것이 되려면 우리(한국 사회)가 무엇을 도와주어야 하는지 말해 봅시다.

## 이주자의 안정적인 삶을 돕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 진행방법

- 4~5인 모둠 4개를 구성합니다.
- 핵심활동 2~4는 노벨엔지니어링을 적용하여 인구의 국제 이주에 대해 집중 탐구하는 활동입니다.

노벨엔지니어링 수업단계	주제: 인구의 국제 이주
책, 기사 읽기	핵심활동 2
문제 인식	핵심활동 3
해결책 설계	
창작물 만들기	핵심활동 4
이야기 바꾸어 쓰기	

-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그 해결책을 정리합니다.

### 지도상 유의점

-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이주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장기적으로 이주 국가의 사회적 통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이주노동자를 사회 안으로 통합하는 데 나 자신이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고민하도록 합니다.

## 이주자의 안정적인 삶을 돕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모둠명 :

구성원 이름 :

1 다음은 이주민들이 이주지에서 겪는 다양한 삶을 보여주는 카드입니다.

차이는 있어도 차별은 없는 화합의 장 안산  
다문화거리



안산시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는 고장 중 하나입니다. 2020년 12월을 기준으로 105개국의 8만 명이 넘는 외국인이 안산에 거주하고 있으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일대는 2009년에 다문화마을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이곳에서 105개 나라에서 모인 세계인들은 저마다의 특색을 잃지 않고 소통하며 체온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거리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음식 거리로도 인기가 있어서 세계의 독특한 음식을 맛보기에도 좋으며 구하기 힘든 현지 음식재료를 판매하는 슈퍼도 있어 외국인들의 향수를 달래주고 있습니다.

출처: 안산시 문화관광, n.d.



이주민은 문제 아닌 해결책... 독일이 이주민 통합에 나선 이유는?



<인터뷰> 마틴 바커 / 독일노조연맹 노동시장 정책 담당

“이주민은 이미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존재여서 내국인의 노동시장을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주민을 통해 ‘어떤 목적을 추구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용주가 이주노동자를 도구로만 여기고 나쁜 노동조건을 고집하는 일은 잘못됐고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 변화를 통해 내국인과 이주노동자 모두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KBS뉴스채널>, 2023년 6월 19일 기사

<p>미국 뒤흔든 ‘이민자 갈등’</p>  <p>오는 11월 치르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이민정책을 둘러싼 찬반 논란은 큰 쟁점에 해당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 멕시코와 접경한 미국 남부 국경지대에 대규모 장벽을 건설해 불법 이민을 원천 봉쇄했다. 반대로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취임 후 포용적 이민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는 정부의 이민정책 방향에 따라 이주자들의 삶에도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p> <p>출처: &lt;중앙일보&gt; 2024년 2월 14일 기사</p>	<p>같은 한국, 다른 인권... ‘차별’ 다문화사회에 접어든 한국 사회</p>  <p>아직 외국인을 대하는 인식은 이러한 사회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한 조사 결과 이주민의 상당수가 인종차별을 경험하고 있다고 답했다.</p> <p>출처: &lt;서울신문&gt; 2019년 3월 21일 기사</p>
--	--

(1)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사회적, 개인적 측면에서 찾아봅시다.

사회적: 비자와 사회적 신분(또는 불법체류자) 문제, 임금 체불, 고용불안정, 안전문제  
개인적: 고향에 대한 향수, 차별과 편견, 사회적 고립, 문화 적응의 어려움

(2)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러한 노력의 효과성을 분석해 봅시다.



---

(3)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봅시다.

- International Justice Resource Center  
<https://ijrcenter.org/thematic-research-guides/immigration-migrants-rights/>
  
- Migration Data Portal  
<https://www.migrationdataportal.org/global-compact-for-migration>

## 지구촌의 다문화사회,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 진행방법

- 4~5인 모둠 4개를 구성합니다.
- 핵심활동 2~4는 노벨엔지니어링을 적용하여 인구의 국제 이주에 대해 집중 탐구하는 활동입니다.

노벨엔지니어링 수업단계	주제: 인구의 국제 이주
책, 기사 읽기	핵심활동 2
문제 인식	핵심활동 3
해결책 설계	
창작물 만들기	핵심활동 4 해결책 창작물 만들기(예시: 정책 제안서 작성) 이야기 바꾸어 쓰기 (나 ↔ 이주노동자 입장 바꾸어 생각하기)
이야기 바꾸어 쓰기	

- 노벨엔지니어링 마지막 단계인 이야기 바꾸어 쓰기를 입장 바꾸어 생각하기로 변형합니다. 이주노동자의 입장이 되어 그들이 겪는 문제를 간접 체험해 보고 해결 방안을 모둠별 창작물로 만들어 봅시다.
- 노동력의 국제 이동에 따른 영향에 대해 핵심활동 1~3을 토대로 유추해 봅시다.

### 지도상 유의점

- 이주노동자와 나의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면서 학생들이 이주노동자들의 경험과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지구촌의 다문화사회,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모둠명 :

구성원 이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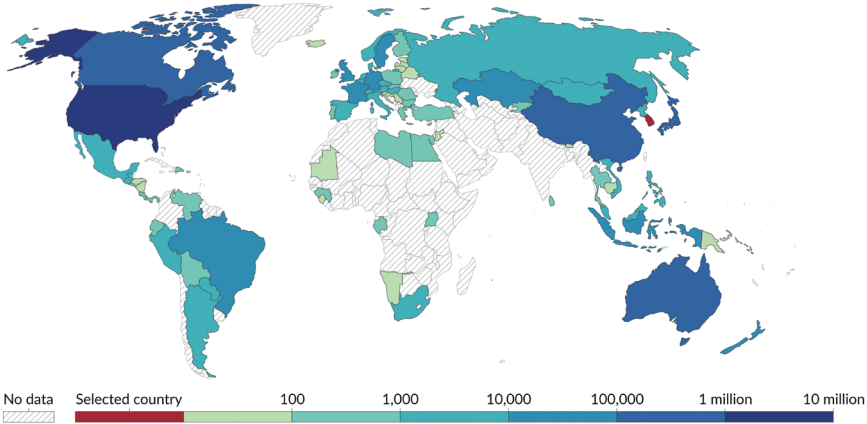
1 입장 바꾸어 생각해 봅시다.

(1) 한국에서 외국으로 간 이민자들: 그들은 어디로 이주했을까요?

### Emigrants from South Korea: Where did they move to? 2020

Our World  
in Data

The total number of people born in South Korea that now live in another country. This is a measure of emigrant stocks - it is not the annual flow of emigrants. The value for South Korea is the total emigrant stock living in another country.



Data source: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UN DESA)

CC BY

Note: For the majority of countries, being classified as an immigrant is based on place of birth: this means someone who has gained citizenship in a new country is still counted as an immigrant if they were born elsewhere. For some countries, place of birth information is not available; in this case the source defers to place of citizenship.

출처: UN DESA, 2020

(2) 다음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가별 이주 현황을 살펴보고 아래 질문에 답해 봅시다.

Our World in Data  
<https://ourworldindata.org/migration>

- ① 2020년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디로 이주했나요? 그리고 이주의 이유는 무엇인지 말해 봅시다.
- ② 내가 이주하고 싶은 국가를 선택해 봅시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말해 봅시다.
- ③ 내가 이주지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말해 봅시다.

**2** 이주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의 사례를 찾아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 정책 제안, 캠페인 등의 해결 방안을 창작물로 만들어 봅시다.

팀(개인)명	
제안 분야	이주노동자의 주거환경 개선
정책명	희망의 집 프로젝트
배경(필요성)	이주노동자들은 대한민국 경제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으나,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이주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며, 그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주거 문제는 이주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인권 과도 직결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p><b>현황 및 목표</b></p>	<p>이주노동자들이 겪는 주요 주거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p> <p>과밀한 주거 공간: 여러 명이 작은 공간에 거주하여 사생활이 침해되고, 위생 문제가 발생합니다.</p> <p>열악한 시설: 난방, 냉방, 전기, 수도 등의 기본적인 시설이 부족하거나 고장이 잦아 생활에 불편을 겪습니다.</p> <p>안전문제: 화재 등 재해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여 안전 위험이 높습니다. 이 정책의 목표는 이주노동자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p>
<p><b>정책 세부내용</b></p>	<p><b>이주노동자 주거환경 실태조사</b>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이주노동자들의 주거환경을 모니터링하고, 문제점을 파악합니다.</p> <p><b>주거기준 설정 및 시행</b>        이주노동자를 위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법제화합니다. 예를 들어, 1인당 최저주거 공간, 필수 시설(난방, 냉방, 전기, 수도 등) 설치 등을 포함합니다.</p> <p><b>주거 지원 프로그램 도입</b>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이주노동자 전용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저렴한 가격에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지를 제공하며, 긴급주거지원서비스를 마련합니다.</p> <p><b>고용주 주거 제공 의무 강화</b>        고용주가 이주노동자에게 제공하는 주거지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이를 준수하도록 합니다.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거나, 정부 지원을 제한합니다.</p> <p><b>주거지 안전 강화</b>        이주노동자 거주지역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화재 등 재해 대비 시설을 설치합니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에게 재해 대비 교육을 실시합니다.</p>

<p><b>정책 세부내용</b></p>	<p>커뮤니티 센터 운영 이주노동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커뮤니티 센터를 운영하여, 주거 문제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한국 생활에 필요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합니다.</p>
<p><b>정책 기대효과</b></p>	<p>건강 및 안전 보장: 이주노동자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됨으로써 건강과 안전이 보장됩니다. 삶의 질 향상: 주거환경 개선은 이주노동자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사회통합 촉진: 이주노동자들이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됨으로써 한국 사회에 더 잘 통합될 수 있습니다. 국제적 이미지 개선: 이주노동자 인권을 중시하는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국제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p>

출처: OpenAI, 2024

## 2024년 인구정책의 전망과 과제

한국의 인구 변화에 대한 전망은 긍정적이지 않다. 전 국가적으로는 지속적으로 감소 및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출생아 수와 사망자 수에 따른 총인구 감소의 고착화, 연령별 출산율 변화의 상이성에 따른 잠재적 정책 수요 변화, 생산연령인구 감소 및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부양비 증가가 전망된다. 특히 출생아 수 감소로 요약되는 저출산 현상의 고착화는 여러 사회정책 분야에서 과급효과를 적지 않게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점에서, 인구 고령화는 복지 수요 증대에 따른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포함하여 세대 간 부양의 문제 및 사회보험제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다 긴밀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은 젊은층의 유출, 지역 간 인구 (초)고령화의 차등적 양상에 따른 지역 인구감소와 지역 간 인구변동 및 사회경제적 특성의 양극화 심화가 전망된다. 특히 수도권·비수도권, 대도시권·비대도시권 간 양극화는 인구변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동시에 사회적 당면 과제로서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지역 측면에서의 인구변동 대응정책이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그림 1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 전망(1960~207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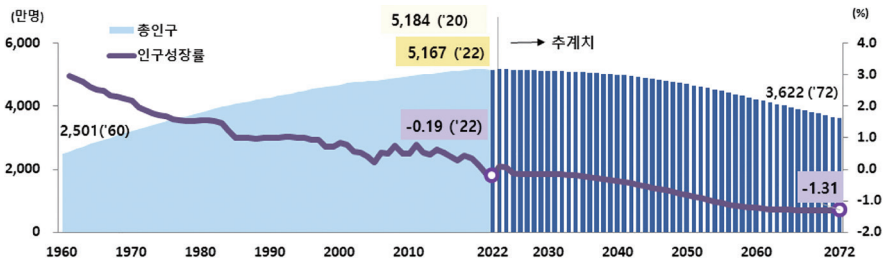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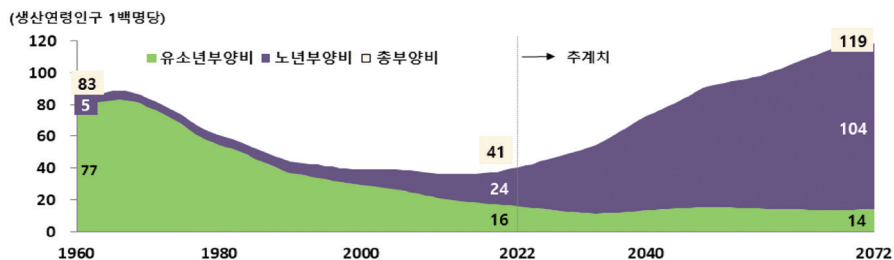


그림 2 부양비(노년부양비, 유소년부양비, 1960~2070년)



자료: 통계청, (2023. 12. 14.),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p. 17. 보도자료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기에 인구변화에 대응한 정책의 서비스 강화 및 품질관리, 효율성 제고라는 두 가지 큰 정책목표를 신속하게 달성해야 한다. 초고령사회가 된다는 것, 즉 고령인구가 많아진다는 것은 전통적 의미의 노인 돌봄 대상자가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기에 한국의 급속한 인구 고령화는 사회적 위협이다. 그럼에도 한국은 베이비붐세대와 같은 높은 교육·건강 수준을 보유한 신노년층의 등장, 신속하게 정책을 도입하고 혁신할 수 있는 사회적 역량 등 사회적 기회요인이 있다. 이러한 기회요인을 활용하여 초고령사회에 적응해야 할 것이다.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64-79

**활용 팁:** 핵심활동 1에서 우리나라의 인구문제에 대해 학습하였기에 2024년 우리나라 인구정책 전망과 과제에 대한 읽기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주요 인구 특성 및 문제, 그 해결 방안에 대해 파악할 수 있고, 수업에 적용 시 인구변화가 미래세대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토론 및 토의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세계를 움직이는 이주자들

이주자들이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그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19세기 말 국제 이주는 전체 인구에서 무려 14%를 차지했다. 숫자로는 16억 인구 중 2억 2,500만 명에 해당한다. 그러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스페인 독감이 발병하면서 이주 행렬이 둔화되었다. 그로부터 백 년이 흐른 현재, 이주자 수는 2억 7,500만 명가량으로 이전보다 훨씬 많은 80억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로 이주 비율이 예전보다 크게 낮아졌다. 이를 보면 이주가 그리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사실 오늘날의 수치는 훨씬 의미 있는 성과를 담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날 이주는 200여 개의 주권국가에서 대부분 자발적으로 이동하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또한, 숫자는 차치하고 오늘날의 이주자들은 전 세계 GDP의 10%를 담당하는데 이는 중국이나 미국의 GDP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다. 2019년 기준으로 이주자들이 해외로 송금하는 금액은 약 5,500억 달러에 달한다. 또한, 국제이주기구에 따르면 국내 이주자의 수는 국외 이주자의 약 3배에 달한다. 각국 내부에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이주가 지난 수십 년에 걸쳐 일어났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1960년에는 도시 거주 인구가 10억에 불과했지만 오늘날에는 그 숫자가 50억을 뛰어넘는다. 이러한 수치는 통계에서 국제 이주로 집계되지 않지만 임금인상, 농촌에 있는 가족에게 보내는 송금을 통해 성장의 주요 동력 역할을 한다. 국외, 국내의 인구이동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영향은 실로 크다고 할 수 있다. 움직이는 이주자들은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셈이다.

여러분은 이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정치와 경제위기, 기술의 파괴적 변화, 기후변화로 안위가 위협받고 있지는 않는가? 다른 곳에서라면 여러분과 가족이 더 나은 환경을 누릴 수 있는가? 그곳에 이르지 못하도록 막는 장애물은 무엇인가? 수십억 인구에게 이동성은 규범이 되어가고 있다. 이동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도 있다. 우리는 그저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움직이고 있다. 이동하는 과정에서 인간됨의 의미를 다시 발견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출처: 파라그 카나, 2022: 23-32 재구성

**활용 팁:** 본 읽기 자료는 핵심활동 2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파라그 카나가 쓴 《대이동의 시대》는 세계화와 이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현대의 글로벌 이동 현상을 분석한 도서입니다. 읽기 자료는 국제 이주, 국내 이주, 인구가동이 가지는 의미 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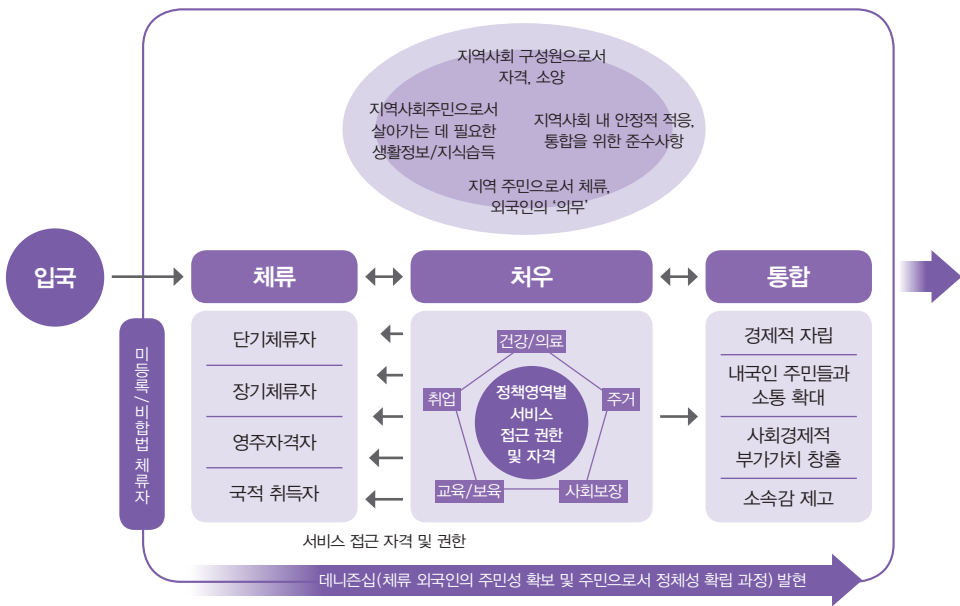
## 데니즌십의 발현을 통한 체류 외국인 지역사회 통합

우리나라는 아시아 최초로 영주 체류 자격을 갖는 외국인 주민에게 지방선거 투표권(2005)을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진일보한 법 제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어디까지 '외국인 주민'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지 현재까지 명확한 개념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즉, 체류 외국인에게 어떠한 '주민성'을 부여하여 그들이 지역사회 내 구성원으로서 어떠한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범위조차 제도화되어 있지 못한 것이다. 지역 체류 외국인에게 주민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은 그들을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포용하는 단계의 시작점이자 지역소멸 시대 새로운 대응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렇다면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주민성'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답변 중 하나로 등장한 개념이 '데니즌십(Denizenship)'이다. 데니즌십 개념은 우리보다 먼저 체류 외국인의 법적 지위 부여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서구 사회에서 시작되었으며 데니즌십을 시민권(Citizenship)과 법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차별화했다. 시민권의 경우 거주권과 사회적 권리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보장한다. 단, 데니즌십의 경우 거주에 대한 보호 조치를 이행하되 범죄 등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추방 조치가 가능하고, 선거 등 정치활동이 제한되며 일부 공공서비스에 대한 제한적 접근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지역 체류 외국인을 데니즌으로 규정하고 합법적 비자나 취업 허가 등을 통해 특정 지역에 체류할 수 있는 권한은 있으나 사회보장이나 선거 참여 등 정치적 권리는 제한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데니즌을 대상으로 정치적 권한을 포함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아일랜드(1996년), EU국가(1992년)를 중심으로 체류 외국인에 대한 지방선거 참정권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장기 체류 외국인에게 정치적 권리의 부여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체류 외국인들로 하여금 거주하는 공동체 내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3 데니즌십 발현을 통한 체류 외국인 지역사회 통합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2022

**활용 팁:** 본 읽기 자료는 핵심활동 3과 관련되며, 이 자료는 다문화사회에서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체류 외국인의 지역사회 참여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사회적 방안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유럽 각국 '이민자와 공생하는 법'

### 경제발전 동력 삼는 독일

유럽 최대의 경제·인구 대국 독일은 '경제발전 동력이 되는 합법 이민은 장려하되 불법 이주는 엄단한다.'는 두 트랙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대표 사례가 지난달 브라질과 체결한 '공정한 이민을 위한 의향서'다. 브라질 간병 인력을 독일로 이주시켜 고령자·환자들을 위한 돌봄 인력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독일은 지난달에는 체류 외국인들이 언어 등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출 경우 취업 기회를 넓혀주는 방향으로 이민법을 개정했다.

### 이주자 선제 포용한 스웨덴

독일 못지않게 포용적 이민정책을 펼쳐온 나라가 스웨덴이다. 2차 대전 이후 전쟁이나 정치 불안으로 고국을 등진 난민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자국민과 동일한 사회보장 혜택을 제공했다. 1990-2000년대 발칸 등 동유럽 주민들이 대거 이동해 왔다. 2015년 전후 대거 유입된 중동 이민자 복지 혜택으로 국가 재정이 고갈된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스웨덴은 이주 문턱을 높이고 있다. 2016년 가족 결합을 제한하고 체류 자격을 강화하는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했고, 지난해에는 유입 이민자 숫자를 줄이겠다는 정부 차원 방침을 발표했다.

### 현실적 대안 찾는 영국

유럽연합 탈퇴를 택한 영국은 현실적 해결 방안을 고민했다. 급증하는 자국 내 불법 이주민을 아프리카에서 치안 상황이 좋은 곳으로 알려진 르완다

로 보내기로 한 것이다. 영국은 르완다에 1억 7000만 달러(약 2242억 원)를 주고 불법 이주자들을 정착시키는 방안을 추진했다.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강제 송환하지 않아 인도주의에도 부합한다는 게 제도의 취지였다. 이 같은 방침은 최근 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제도의 취지는 옳지만, 장소를 다시 모색하라는 내용의 판결로 영국 내 불법 이민자들은 새 정착지를 찾을 가능성이 있다.

출처: <조선일보> 2023년 7월 3일 기사

**활용 팁:** 본 읽기 자료는 핵심활동 4와 관련되며, 유럽 각국의 최근 이주민 정책과 관련한 이슈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주민 정책과 다른 국가들의 이주민 정책을 비교해 보고 우리나라 이주민 정책을 제안하는 활동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먹으면서 세계 얘기 좀 할까요?

### ☆ 주제 선정의 배경

음식은 우리 삶의 필수적인 부분인 만큼 일상적으로 자주 접하는 소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항상 소비하는 음식에 담긴 의미나 문제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하곤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음식의 생산과 소비의 과정은 사회구조의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특히 음식의 대량생산의 주체가 개인에서 기업으로 넘어간 후로는 음식이 지닌 문제를 사회문제로 바라볼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음식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들은 소비 주체인 인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음식의 재료는 자연에서 생산되고 가공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음식 문제는 생태계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음식을 둘러싼 쟁점은 사회적·환경적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는 우리나라의 광우병 사태나 유전자변형농산물(GMO) 표시를 둘러싼 갈등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통신의 발달과 초국적기업의 등장으로 일어난 세계화는 음식 문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음식의 세계화는 식량작물의 생산 장소와 소비 장소 사이의 시간과 공간적 거리를 압축시킴으로써 세계인들이 다양한 음식을 쉽게 소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음식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환경, 노동, 인권 문제를



발생시켰고, 선진국과 초국가기업의 개발도상국의 착취, 자본 유출 등의 문제가 지 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음식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범위에서 다양한 차원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음식을 비판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는 수업은 학생의 고차사고력을 함양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지리교육에서 음식은 글로벌푸드와 로컬푸드, 공정무역을 통한 세계화와 지역화 교육의 가능성을 확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소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김병연, 2011). 뿐만 아니라 지리교육은 학생들에게 음식 소비자로서의 역할과 함께 ‘음식시민’을 양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음식을 소재로 한 지리교육은 단순히 음식의 다양성을 학습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음식의 생산, 유통, 소비에 감춰진 다양한 문제에 의문을 제기하고, 대안적인 음식 체계를 만드는 데 참여하는 음식시민의 양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조철기, 2017).

음식이라는 소재가 지나치게 일상적인 탓에 오히려 수업으로 구현하는 것이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일상적인 음식 문화를 소재로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접근한 후, 음식의 생산 및 소비 과정 등은 조금은 비판적인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업에서 다양한 읽기 자료를 활용하고, 수업을 시작하기 전 또는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책의 뒷부분에 포함된 참고문헌을 활용한다면 음식이라는 소재를 수업으로 풀어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 핵심활동 활용 가이드

‘먹으면서 세계 얘기 좀 할까요?’ 수업은 총 4개의 핵심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핵심활동 1에서는 전 세계의 다양한 음식 문화를 파악해 보고, 지역의 독특한 음식 문화가 어떠한 지리적 요인에 의해 형성되는지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이때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음식창의도시 개념을 활용해 전 세계의 음식창의도시 중 한 곳을 선정하여 그 도시가 음식창의도시로 선정된 지리적 배경을 분석해 봅니다.

핵심활동 2에서는 세계화 시대에 음식 문화의 전파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합니다. 이를 위해 그림책 《모두섬 이야기》를 활용하여 토의를 진행해 보면서 세계화가 특정 지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핵심활동 3에서는 내가 먹는 음식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비판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음식과 관련된 사회문제를 탐구하고, 이를 포스터로 표현하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음식의 생산 및 소비와 사회문제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해 보고, 나의 소비 행위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더 나아가 탐구 내용을 포스터 등의 시각적 자료로 제시하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과정을 통해 바람직한 세계시민의 자세를 일상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핵심활동 4에서는 학생 스스로가 학교급식의 식단 또는 우리 집 식탁 위의 식단을 직접 구상해 보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이 활동은 음식 또는 특정 작물의 생산과 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일상 속에서의 실천방안을 체득하며 내면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 학습목표 및 성취기준

<b>학습목표</b>		<p>[지식·이해] 전 세계 음식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음식의 생산 및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 문제를 이해하고 분석한다.</p> <p>[과정·기능] 음식의 생산 및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선정한 뒤 문제의 원인, 양상, 해결 방안 등을 조사하고 탐구한다.</p> <p>[가치·태도] 음식의 생산 및 소비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소비 태도를 함양한다.</p> <p>[실천·행동] 음식의 생산 및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 방안을 일상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한다.</p>	
<b>성취기준</b>		<p>[12세지02-04] 세계의 다양한 음식과 축제를 지리적으로 설명하고, 문화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한다.</p> <p>[12세지03-02] 주요 식량자원의 생산과 소비 양상을 통해 세계 식량문제가 발생하는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고, 식량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위한 각국의 대응 전략을 비교·분석한다.</p>	
<b>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 3대 학습영역</b>	<b>인지적 영역</b>	1. 지역·국가·세계의 체계와 구조	○
		2. 지역·국가·세계 차원에서 공동체 간의 상호 작용과 연계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	○
		3. 암묵적 가정과 권력의 역학관계	
	<b>사회·정서적 영역</b>	4. 다양한 차원의 정체성	○
		5. 사람들이 속한 다양한 공동체와 공동체 간의 상호연계 방식	○
		6. 차이와 다양성의 존중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 3대 학습영역	행동적 영역	7. 개인적·집단적으로 취할 수 있는 실천	○
		8. 윤리적으로 책임감 있는 행동	○
		9. 참여하고 실천하기	

#### ★ 기본 용어 설명

#####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도시가 가진 문화적 자산과 창의력에 기초한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도시 간 협력을 통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발전을 장려함으로써 문화 다양성을 증진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2004년에 시작되었습니다. 문학, 공예와 민속예술, 음악, 디자인, 미디어아트, 음식, 영화의 7개 창의 분야로 나뉘어 선정되며 창의성을 지속가능한 발전의 전략적인 요소로 인정한 도시들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City of Gastronomy)

창의도시 네트워크 중 하나로 음식이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 중의 하나이며 생존을 위한 수단을 넘어 음식을 통해 형성할 수 있는 사회적, 문화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포함되는 도시를 의미합니다. 즉, 지역의 고유하고 독특한 음식을 토대로 산업을 발전시키고 도시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인식을 담고 있습니다. 전 세계 57개의

도시가 음식창의도시로 지정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전주, 강릉 등 2개 도시가 지정되었습니다.

### **맥도날드화(McDonaldization)**

사회학자 조지 리처가 《맥도날드 그리고 맥도날드화》에서 사용한 사회학적 용어로서, 합리화의 전통적 사고방식에서 합리적 사고로의 전환, 그리고 과학적 경영의 재개념화를 의미합니다. 문화가 패스트푸드 음식점과 같은 특징을 가질 때 발생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문화의 한 부분으로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동일화되어 가고 있는 문화의 비교적 최근 개념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패스트푸드 음식점의 원리가 미국 사회의 각 부분뿐만 아니라 세계도 지배해 가고 있는 것으로서 요약될 수 있습니다.

### **윤리적 소비(Ethical Consumption)**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 따위를 구매할 때 윤리적인 가치판단에 따라 의식적인 선택을 하는 것, 또는 윤리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품이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산되었는지 간에 연관성을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리적 소비를 하려면, 구매하기 전에 멈추어서 우리의 생활이나 구매 방식이 환경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공동체들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 지역의 음식 문화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 진행방법

- 모둠원과 함께 세계의 다양한 음식 문화에 대해 경험해 본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 세계의 독특한 음식 문화 사례를 제시하고, 음식 문화에 영향을 미친 자연적, 인문적 요인을 설명합니다.
-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음식창의도시 중 한 곳을 선택하여, 해당 도시가 음식창의도시로 선정된 지리적 배경을 분석합니다.

### 지도상 유의점

- 음식 문화의 사례를 소개할 때에는 자연적 요인(기후, 지형 등)과 인문적 요인(문화, 정치, 경제, 사회 등)이 포함된 사례를 활용하고, 각 대륙별로 사례를 고르게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문화다양성을 이해하도록 합니다.
- 유네스코의 음식창의도시의 사례를 선정할 때에는 우리나라의 ‘강릉’과 ‘전주’ 등의 사례를 적극 활용하여 학생들이 음식창의도시의 의미와 특징을 이해하도록 합니다.
- 세계화가 음식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음식 문화가 지역의 독특한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지역의 음식 문화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모둠명 :

구성원 이름 :

- ① 세계의 다양한 음식 문화를 이해하고,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음식 창의도시 중 한 곳을 선택하여 해당 도시가 음식창의도시로 선정된 지리적 배경을 분석해 봅시다.
- (1) 세계의 다양한 음식 문화에 담긴 지리적 요인을 알아봅시다.



©Shutterstock/Civil



세상의 모든 음식은 그 지역 나름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음식은 식탁 위에 올라오기까지 수많은 과정을 거친다. 그 여정의 시작은 비교적 익숙한 지역일 수도 있고, 전혀 예상치 못한 곳일 수도 있다. 음식의 기원과 전파지 그리고 현재까지의 동선은 역사를 담고 있으면서 공간에서의 확산과 문화로의 정착이라는 지리적인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음식과 관련하여 지리적 동선을 따라가는 과정은 음식의 기본적인 이해에 있어 필수적이다.

출처: 강재호, 2015: 2-3

(2)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음식창의도시’를 분석해 봅시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음식창의도시’란 무엇인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는 도시가 가진 문화적 자산과 창의력에 기초한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도시 간 협력을 통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발전을 장려함으로써 문화다양성을 증진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2004년 시작되었다. 문학, 공예와 민속예술, 음악, 디자인, 미디어아트, 음식, 영화의 7개 창의 분야로 나누어 선정하며 창의성을 지속가능한 발전의 전략적인 요소로 인정된 도시들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기서 Food(음식)가 아닌 Gastronomy(미식)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음식이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 중의 하나이며 생존을 위한 수단을 넘어 음식을 통해 형성할 수 있는 사회적, 문화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유네스코는 이런 의미에서 음식 자체가 아닌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문화적 요소를 담아내고자 했다. 즉, 지역의 고유하고 독특한 음식을 토대로 산업을 발전시키고 도시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인식을 담고 있다.



분석 도시	  출처: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	
선정 이유		
분석 내용	도시가 속한 국가, 위치, 인구 등 기본 정보	
	음식 도시로 선정된 배경	



## 세계화 시대, 바람직한 음식 문화 수용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 진행방법

- 패스트푸드와 문화의 획일화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읽기 자료를 읽은 후, 음식 문화의 전파가 지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생각해 봅니다.
- 모둠원과 함께 그림책 《모두섬 이야기》를 읽고, ‘인상 깊었던 장면’과 ‘그 이유’를 생각해 본 다음 활동지에 정리합니다.
- 활동지에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세계화가 특정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글을 작성하며 친구들과 공유해 봅니다.
- 세계화가 전 세계 및 특정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 지도상 유의점

- 핵심활동 1에서 학습한 내용인 ‘음식 문화가 지역의 독특한 지리적 특성을 반영하고, 이러한 특성이 문화적 다양성을 가져온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도록 지도합니다. 이와 함께 패스트푸드의 대중화와 같은 음식의 세계화가 문화적 획일화 등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음을 비판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일반 도서를 활용할 경우, 허남혁(2008), 《내가 먹는 것이 바로 나》와 같은 책을 활용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입니다.
- 그림책 《모두섬 이야기》를 감상할 때에는 학생들이 글뿐만 아니라 그림책 장면 하나하나에서 표현되는 색채의 변화에 주목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 세계화 시대, 바람직한 음식 문화 수용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모둠명 :

구성원 이름 :

- ① 패스트푸드 문화의 전파는 전 세계의 음식 문화 다양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읽기 자료와 그림책 활동을 통해 세계화 시대, 음식 문화의 전파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Shutterstock/cjs415



출처: 조지 리처, 2017

음식은 지역의 자연적 조건과 사람들의 생활방식, 역사 등이 반영되어 있다. 특정한 사회는 특정한 음식 체계를 발전시켜 왔다. 유목사회는 그 조건에 맞는 음식 체계를 발전시켰고, 농경사회 또한 그 조건에 맞는 음식 체계를 발전시켰다. 예를 들면 밀가루와 관련하여 유목사회는 빵 문화를 그리고 농경사회는 국수 문화를 발전시켜 왔다.

역사적으로 보면 사회가 비교적 안정되어 있고, 느린 생활이 지배적이었던 전통 사회에서는 음식도 슬로우푸드가 자리했다. 반면에 빠른 속도를 강조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이에 맞는 음식 체체인 패스트푸드의 발전을 가져왔다. 보통 패스트

푸드라고 하면 햄버거, 프렌치프라이, 샌드위치, 피자 등을 지칭한다. 이들 음식은 미리 마련된 재료를 사용하여 조리하기 때문에 조리 시간이 짧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포드주의 방식을 통해 생산되고 유통된 음식 재료로 만든 음식도 패스트푸드로 보아야 한다. 대규모 기업농이 산업화된 영농 방식으로 생산한 곡물, 유전자조작, 성장호르몬이 사용된 음식 재료, 공장형으로 사육된 소, 돼지, 닭, 공장형으로 양식된 활어 등은 속도를 강조하며, 따라서 성장 기간이 단축된 음식 재료이기 때문에 이러한 재료로 만든 음식도 패스트푸드라고 할 수 있다. 패스트푸드를 이와 같이 정의할 때 우리가 먹는 음식의 대부분이 패스트푸드라고 할 수 있다.

패스트푸드가 제일 먼저 등장한 곳은 미국이다. 하지만 오늘날 패스트푸드는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이른바 패스트푸드의 세계화가 일어났다. 그 결과 패스트푸드가 가져오는 문제도 전 세계적인 수준에서 목격되고 있다. 패스트푸드의 세계화는 몇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itzer, 김종덕 역, 1999). 우선 바쁜 세상에 살면서 패스트푸드는 간편하게 식사를 하게 함으로써 식사 시간을 절약시켜 준다. 특히 드라이브인을 이용한 패스트푸드점의 이용의 경우 더 그렇다. 둘째, 외식이 어려운 빈곤층에게 합리적인 가격에 외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셋째, 낮은 곳에서 음식에 대한 맛·가격을 예측 가능하게 하여 편안함을 이끈다. 달리 말하면 바쁜 현대인에게 식사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게 한다. 그러나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도 존재한다. 먼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지방으로 되어있는 패스트푸드는 건강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비만을 가져온다. 미국에서 비만은 흡연에 이어 두 번째 사망 요인이 되고 있다. 1971년 일본에 맥도날드가 진출한 이래 1980년대에는 패스트푸드 판매량이 2배 증가했고, 이에 따라 일본 어린이들의 비만율도 2배 증가했다(Schlosser, 김은령 역, 2001: 324). 또한 미국식 패스트푸드의 확산은 민족음식의 소멸을 가져왔다. 규격화되고 표준화된 패스트푸드의 확산이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민족음식을 밀어내고 있다(Mintz, 김문호 역, 1998b: 43).

출처: 김종덕, 2002: 87-106 재구성

2 《모두섬 이야기》를 읽고, 세계화가 특정 지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고민해 봅시다.

(1) 그림책 장면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을 생각해 보고, 이를 중심으로 친구들과 과 토의해 봅시다.



출처: 오진희, 2015

※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과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과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과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과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내 이름		친구 이름		친구 이름		친구 이름	

(2) 이 책에서 세계화는 ‘문명, 노랑보숭이’를 상징합니다. ‘문명과 노랑보숭이’가 모두섬에 변화를 일으킨 것처럼, 세계화가 특정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면, 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작성해 봅시다.

## 내가 먹는 음식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진행방법

- 전 세계의 다양한 음식이 담긴 사진을 제시하고, 해당 음식의 명칭, 관련 국가, 음식에 들어간 재료 등을 주제로 모둠원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 탐구한 음식의 원재료와 원재료의 생산 및 소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제를 보여주는 카드를 배부하고, 각 카드의 인과관계를 생각해 원재료와 사회문제의 장면을 연결해 봅니다.
- 각 카드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토의하며 활동지를 작성하고, 작성한 활동지를 모둠별로 발표하면서 공유합니다.
- 음식과 원재료의 생산 및 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탐구하고, 해당 문제를 알릴 수 있는 포스터를 제작해 봅니다.

### 지도상 유의점

- 각각의 카드의 앞면에는 사진 또는 그림, 뒷면에는 그 내용과 관련된 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진 또는 그림을 중심으로 생각해 봅니다.
- 음식의 생산과 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문제 탐구 과정에서 문서 공유 기능을 통해 자료 검색 방법, 활동지 작성 방법 등을 안내하고 피드백을 제공하여 원활한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 포스터를 제작할 때에는 학생들이 탐구를 통해 깨달은 바를 타인에게 공유하는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추도록 안내합니다.

## 내가 먹는 음식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모둠명 :

구성원 이름 :

1 음식의 생산과 소비가 특정 지역 및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봅시다.

(1) 아래의 6개의 사진은 각 국가를 대표하는 독특한 음식을 보여줍니다. 각 음식의 명칭과 관련 국가를 유추해 보고, 해당 음식에 들어가는 주요 재료를 분석해 봅시다.



▲ 오스트리아의 자허토르테  
©Shutterstock/barmalini



▲ 멕시코의 과카몰리  
©Shutterstock/Tanveer Anjum



▲ 영국의 피시앤칩스  
©Shutterstock/MilaMas



▲ 스페인의 감바스 알 아히요  
©Shutterstock/  
from my point of view



▲ 몽고민주공화국의 치킨 모암베  
©Shutterstock/Fanfo



▲ 미국의 베이글  
©Shutterstock/Jany7980

(2) 음식에 들어가는 원재료와 원재료의 사회문제를 카드로 연결해 보고, 그렇게 연결한 이유를 적어 봅시다.

음식	원재료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오스트리아 자허토르테	카카오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하는 아동 노동자의 인권 침해 문제
영국 피시앤칩스	감자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의 세계화에 따른 감자의 종 다양성 감소
멕시코 과카몰리	아보카도	아보카도의 생산 및 소비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파괴 및 탄소 배출 문제
콩고민주공화국 치킨 모암베	팜유	팜유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대림 및 오랑우탄의 서식지 파괴(생물종 다양성 감소)
스페인 감바스 알 아히요	새우	새우의 양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맹그로브숲의 파괴와 그로 인한 피해(해일 등)
미국 베이글	밀	밀 생산을 둘러싼 식량 무기화,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애그플레이션)



## 음식-원재료 카드



©Shutterstock/Narong Khueankaew

### 카카오

아메리카의 열대 지역이 원산지인 나무이다. 열매를 빨아 만든 가루는 코코아라고 하며, 이를 건조한 뒤 잘게 쪼개어 카카오닙스나 코코아메스로 시판하기도 한다. 초콜릿의 주 원료로 쓰인다.



©Shutterstock/Nishihama

### 감자

가지과에 속하는 대표적인 구형작물로 남아메리카의 페루와 에콰도르 등의 안데스산맥 일대가 원산지이다. 오늘날에는 파스트푸드점의 감자튀김에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전쟁 시기에는 빵과 함께 국가가 배급을 통제하는 주요 주식류 중 하나였다.



©Shutterstock/Chase D'animitz

### 아보카도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 지역에서 활발하게 재배된다. 단백질과 지방의 함량이 상당히 높아 천연 버터로 불리며 부리토, 타코, 나초집에 곁들여 먹는 과카몰리 등에 많이 쓰인다. 인간에 의해 멸종을 면한 종류로 알려져 있다.



©Shutterstock/CW Studios Global

### 카카오, 그리고 아동노동

대부분의 카카오 농부들은 하루 1달러 미만의 수입을 올리는데, 이는 극심한 빈곤선보다 낮은 소득이다. 그들은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종종 아동노동에 의존한다. 여기에는 국제노동기구가 '최악의 아동노동'이라고 부르는 것이 포함된다. 아동노동은 '어린이의 건강, 안전 또는 도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로 정의되며 코트디부아르와 가나의 약 210만 명의 어린이가 카카오 농장에서 일하고 있고, 이들 대부분은 최악의 아동 노동에 노출되어 있다.



©Shutterstock/Nishihama

### 감자 품종의 단일화 문제

미국에서 소비되는 감자의 90%가 파스트푸드 음식점에서 프렌치프라이로 만들어진다. 이 음식의 절대다수는 19세기에 루서 버뱅크가 개발한 품종인 적갈색 버뱅크 감자로 전 세계에서 감자 농사를 짓는 사람들 대다수가 파스트푸드점에 납품할 목적으로 버뱅크 감자를 재배한다. 19세기 중엽 아이리스 럼퍼라는 품종만을 재배하던 아일랜드에서 대가근이 일어났던 것을 상기한다면 감자 품종의 단일화는 식량 안보, 종다양성 측면에서도 큰 문제가 된다.



©Shutterstock/juan jose florian

### 아보카도 생산으로 인한 환경파괴

멕시코 미초아칸주의 농부들이 아보카도를 심기 위해 소나무 등을 베어내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 아보카도 과수원은 나무가 뺏겨지게 들어선 숲보다 물을 2배 이상 많이 사용한다. 숲 전체에 공급될 물의 양이 줄어서 식물뿐 아니라 동물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농약 사용 문제 등 지역 전체 환경과 주민의 삶의 질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Shutterstock/Oksana Mizina

### 새우

절지동물문 십각목 중 일부 종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일부 종과 대부분의 유생은 플랑크톤이기도 하다. 식재료로 많이 쓰이며, 해양 생물의 먹이가 되어 생태계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수요가 매우 높아 태국, 인도네시아, 에콰도르 등 다양한 국가에서 새우를 수입한다.



©Shutterstock/kungfu01

### 밀

쌀, 옥수수와 함께 세계 3대 주요 곡물로 세계 인구의 30%가 밀을 주식으로 먹는다고 알려져 있다. 한자로 '작은 보리'라고 하여 '소맥'이라고 부르며, 기원전 9~8000년경 서아시아의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재배가 시작되었다. 내한성과 내건성이 우수해 전 세계의 넓은 지역에서 재배된다.



©Shutterstock/steffi asisi

### 팜유(기름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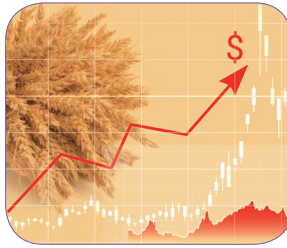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식용 유로 기름아자라는 아자수의 열매에서 짠 기름을 말한다. 원산지는 아프리카이며, 19~20세기 이후 서양 열강이 동남아시아의 식민지에 건설한 플랜테이션에서 팜유 생산 영역을 크게 확대하였다. 전 세계 팜유 생산량의 대부분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가 차지한다.



©Shutterstock/Jupiter Thetflash

### 동남아시아의 새우 양식에 의한 맹그로브숲의 파괴

생태계 평형을 이루고 자연재해를 막아주는 맹그로브는 열대와 아열대 갯벌이나 하구에서 숲을 이루는 나무를 말한다. 열대우림보다 5배 높은 탄소 흡수능력을 지녔으며,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해수면 상승을 방지하며, 자연재해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 맹그로브숲이 블락타이어가 새우의 양식장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열대 지역의 해양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이 파괴되고 있다.



©Shutterstock/LariBat

### 밀의 식량 무기화에 따른 인플레이션

인권(식량권) 관점에서 매우 우려되는 반인도적 행위로 식량을 미사일과 같은 전쟁 무기로서 활용하는 세태를 말한다. 특정 식량 생산국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식량 무기화는 아프리카 등 저개발국의 식량난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식량 가격 상승을 유도해 인플레이션 등과 같은 경제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발생한 러시아의 식량 무기화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Shutterstock/JJALAN FOTO MURAH

### 열대림 파괴로 인한 오랑우탄의 서식지 파괴와 종다양성 감소

인도네시아의 팜유 농장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열대우림의 15%가 파괴되었다. 이는 남한 면적의 1.4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15년 만에 오랑우탄 10만 마리와 수마트라 코끼리 서식지의 69%가 사라졌다. 약 백여 년 전, 23만 마리였던 오랑우탄 개체 수는 5만 마리도 되지 않으며, 지금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보르네오 섬에 서식 중인 수마트라 오랑우탄과 보르네오 오랑우탄은 절멸 위기종이 되었다.

---

2 음식과 원재료의 생산 및 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탐구해 봅시다.

(1) 탐구 소재 선정

① 모둠에서 탐구한 원재료와 사회문제

② 해당 사회문제를 선정한 이유

(2)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

생산과정에서의 아동인권(노동인권) 문제, 환경파괴 문제, GMO 문제, 빈부격차, 선진국에의 경제 종속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선택해 문제의 명칭, 원인, 실태 등을 중심으로 탐구해 보도록 합니다.

(3) 해당 사회문제의 해결 방안

3 음식과 원재료의 생산과 소비가 사회문제와 연결될 수 있음을 알리기 위한 '포스터'를 제작해 봅시다.

## 음식의 윤리적인 소비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 진행방법

- 우리나라의 '신토볼이'와 미국의 '로커보어(locavore)'라는 신조어 등 읽기 자료를 제시한 후, 로컬푸드가 지닌 의미와 가치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 핵심활동 3의 내용을 토대로, 바람직한 식재료를 바탕으로 한 음식 소비 방법을 생각해 보고 한 끼 식사를 구성해 보도록 안내합니다.
- 식단을 구성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을 안내합니다. 그런 후에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 음식(식재료)을 활용해 우리 학교급식 또는 우리 집 식사를 위한 식단을 구성해 봅니다.
- 모듈별로 구성한 식단을 발표를 통해 공유하고, 이때 식단에 사용된 각 재료의 사용 목적과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 지도상 유의점

- 본 수업을 영양교사나 가정교사와 융합 수업으로 진행할 경우, 교과마다의 전문성을 살려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수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융합 수업으로 진행할 경우 지리 과목의 정체성이 약화되지 않게 로컬푸드, 슬로우푸드 등에 담긴 지리적 특징을 적절히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음식과 원재료의 생산과 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윤리적 소비'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윤리적 소비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실천 의지를 다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음식의 윤리적인 소비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모둠명 :

구성원 이름 :

1 다음 글을 읽고 바람직한 음식 소비 방안을 찾아봅시다.

로커보어란 ‘지역’(local)과 ‘먹다’(vore)의 합성어로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재배·사육된 먹거리를 즐기는 이들을 말한다. (...중략...) 로커보어는 우리의 ‘신토불이’(身土不二)와 일본의,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지산지소’(地產地消)와 비슷하다. 그러나 지금 미국과 유럽의 대도시에서 유행하는 로커보어가 사전에 정식 등장한 것은 그리 먼 일이 아니다. 2007년 옥스퍼드사전이 올해의 단어로 ‘로커보어’라는 말을 등록하면서부터다. ‘로컬 푸드’를 먹는 것 외에 이 같은 소비 운동과 트렌드도 로커보어를 뜻한다. 로커보어는 단순히 신선한 식품을 먹자는 취지를 넘어 환경운동과도 직결된다. 즉, 식품의 이동 거리가 짧을수록 수송용 연료 사용이 줄어들어 지구온난화 문제해결과 에너지 절약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중략...) 최근 뉴욕 도심 속 양봉이 증가한다는 외신 기사가 나왔다. “도심에 벌통 하나가 생기면 5만 개의 꽃가루를 불러들인다.”며 점차 지구촌에서 사라지는 꿀벌을 살려보겠다는 로커보어들의 호응 덕분이란다. 집에서 야채를 직접 길러 먹는 것도 로커보어다. 부지런만 하면 로커보어의 길이 멀지 않다.

출처: &lt;서울신문&gt;, 2011년 8월 15일 기사

로컬푸드란 소비자가 거주하는 지역(local)에서 생산된 농산물(food)을 의미한다. 지역마다 물리적 거리 기준은 매우 다양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대략적으로 같은 시·군(혹은 도)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정의가 합의되고 있다. 로컬푸드에 대한 논의는 1990년대 초 유럽에서 믿을 수 있고 안전한 식품을 원하는 소비자와 지역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피하려는 생산자의 이해가 만나면서 시작됐다. 이후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로컬푸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특히 일본은 로컬푸드 소비 확대를 위해 지산지소 운동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 이는 말 그대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그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운동이다. 우리나라는 2008년에 전라북도 완주군에서 로컬푸드 운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고 이후 각 지역별로 다양한 로컬푸드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로컬푸드에 대한 소비를 촉진시키는 목적을 가진 로컬푸드 운동은 지역 농산물을 소비함으로써 농산물에 대한 지역 내 자급자족이 강화되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소비자는 보다 신선한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나아가 대형 유통업체들이 주도하고 있는 전체 농산물 시장에서 지역의 경제주체들이 나름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수입 농산물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를 하고 있다. 한편 로컬푸드 운동은 농산물이 멀리 떨어져있는 소비지로 운송되면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이나 기름 등의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한 환경운동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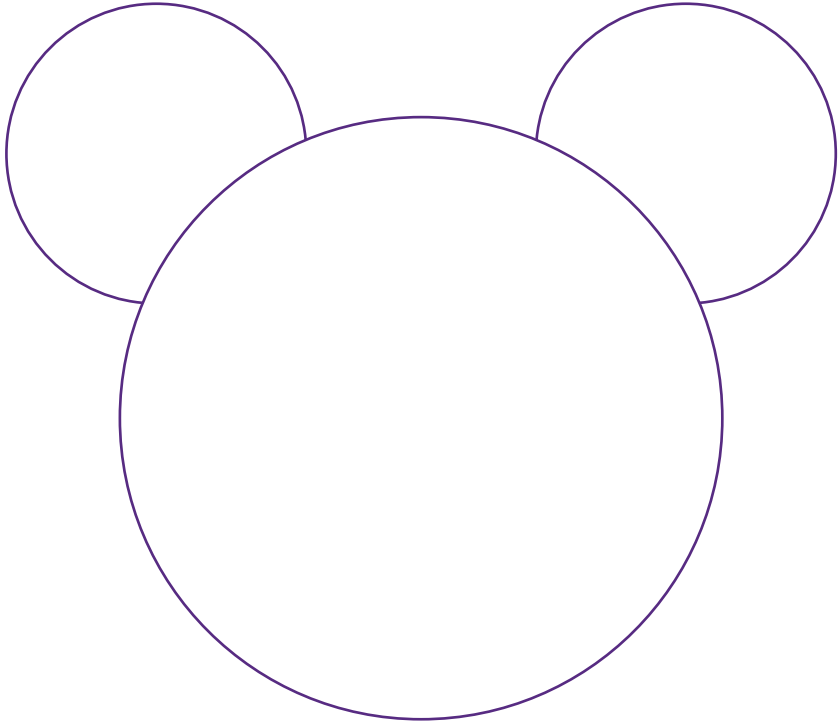
출처: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바로정보; 천안시학교급식지원센터 로컬푸드 이야기 재구성

슬로푸드 운동은 다양성과 지속가능성을 지키는 데 관심을 기울이는 사회운동이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효율성을 중시해 생겨나고 있는 표준화·획일화가 다양성을 줄이고, 다양성 감소가 지속가능성에 위기를 가져오는 것에 주목한다. 단기간에 보다 많은 성과를 내고자 하는 현대 기계 문명은 효율성에 기초를 두고 있고, 속도를 중요하게 여긴다. 현대 기계 문명에서는 다양성이 효율성에 저해된다고 보고, 표준화·획일화 방향으로 나아갔다. 농업에서는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던 농업이 산업 시간을 적용한 산업형 농업으로 바뀌었고, 이는 지역 농업의 특성을 사라지게 하며 음식 다양성도 줄어들게 한다. 패스트푸드와 패스트푸드 문화의 확산은 다양한 지역 기반 음식과 음식 문화를 사라지게 했다. 슬로푸드 운동은 다양성을 지키는 것이 지속가능성을 보장한다고 바라본다. 슬로푸드 운동이 중시하는 다양성은 생물다양성은 물론이고, 문화다양성, 지역다양성, 음식다양성, 언어다양성 등 여러 다양성을 포함한다.

출처: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

2 바람직한 원재료를 활용하여 학교급식이나 우리 집의 식단을 구성해 봅시다.



식단 소개  
(식단 구성의  
의도 등 포함)



## 음식 문화가 지닌 지리적 가치

“미식의 힘은 친화력이다. 언어의 장벽을 허물고, 문명인이란면 누구나 친구가 되게 해주고,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준다.” - 새뮤얼 체임벌린

지리학이 음식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나는 아주 깊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스무 살이 될 때까지 나나 내 주변 사람들 중에 누구도 베이글, 엔칠라다, 에스카르도, 스틸턴 치즈 같은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었다. 후무스, 스시, 키위 같은 이름은 들어보지도 못했고, 와인과 함께 제공되는 식사는 구경도 못 했다. 선택할 수 있는 음식의 종류가 다양해졌다는 점은 인류가 서로 가까워짐으로써 얻은 축복 가운데 하나이다. 수천 년 동안 뿔뿔이 흩어져 살던 인류는 마침내 최후의 개척지인 뉴질랜드와 태평양 한가운데의 섬들까지 서구인들의 발길이 닿은 후 다시 만난 서로를 새롭게 알아가며 약 500년을 지내왔다. 우리는 이제 세계 여러 곳의 다양한 문화적 맥락 안에서 만들어진 음식을 공유하게 되었다. 지리학은 인류가 하나의 공동체로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분석하는 한편, 인류가 미래를 예측하고 생존에 필요한 도구를 제공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안게 되었다. 음식, 특히 안정된 식량 공급은 지리학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다.

학생들의 교육과정에도 변화가 필요할지 모른다. 지금의 지리학 수업은 인류의 문화가 공간적 차이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발전해 왔는지, 특히 언어와 종교를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다. (...중략...) 하지만 지리학이 완제품, 즉 사람들이 만들어 먹는 음식에 대해 깊이 파고드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한국, 일본, 중국, 아프리카 일부 국가, 멕시코, 루이지애나, 캘리포니아 모두 비슷한 쌀을 생산하지

만 각 지역별로 쌀을 활용하는 방식은 크게 다르다.

지리학이 문화적인 요소를 다루는 데 있어 가장 먼저 언급하고 비중 있게 다루는 영역은 대부분 '언어'다. 언어는 공유하는 이들을 하나로 통합하고,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이들을 분명하게 갈라놓기 때문이다. (...중략...) 언어가 가장 오래 살아남는 문화 요소라면 두 번째로 끈질긴 요소는 무엇일까? 나는 종교보다는 음식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싶다. (...중략...) 문화에서 음식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든, 음식이 '세계 문화'라는 큰 그림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지리학자들이 음식을 배제하고 지내는 동안 요리책 저자들을 비롯한 각계의 전문가들은 지리적 환경이 음식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책으로 기술했다. 결과적으로 요리책은 음식이라는 매우 한정된 분야를 다루긴 하지만 종종 지리학 입문서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해내게 되었다. (...중략...) 음식을 통해 우리는 민족이나 지역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도 하며 낯선 곳에 가볼 수도 있다. 한 그릇의 음식이 우리를 새로운 곳으로 안내해 주기 때문이다. 완전히 새로운 전통, 새로운 음식에 도전하는 것은 흥미로운 커뮤니케이션이다. 단순히 배만 불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을 모두 풍요롭게 채우기 때문이다. 이것은 다른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다리를 놓는 것이기도 하다. 그 경계를 넘기 위한 준비물은 음식, 유대감, 양질의 대화, 열린 생각과 마음이면 충분하다.

출처: 개리 플라 외, 2017: 5-8

**활용 팁:** 본 읽기 자료는 핵심활동 1, 핵심활동 3과 관련됩니다. 음식 문화가 다양한 지리적 특징을 반영한다는 것과 음식 문화의 다양성이 오늘날 문화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는 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자료는 지리 수업이 낯선 타 교과 선생님 또는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읽었을 때 음식 문화와 지리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세계화가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오늘날 진행되는 문화 세계화에 대한 학자들의 입장은 크게 둘로 양분된다. 하나는 문화 세계화가 문화제국주의의 일환 혹은 신자유주의의 구현으로서 전 세계 문화를 시장 경쟁력 있는 문화상품 중심으로 동질화시키기에 이에 대항하여 자국 문화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른 하나는 문화 세계화가 문화를 동질화시킨다는 견해는 문화 수용자를 수동적으로만 파악하는 입장으로서, 사실은 문화 수용자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기에 세계화는 오히려 문화다양화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문화 세계화가 문화 동질화를 인도한다’라는 입장은 오늘날 진행되는 문화 세계화가 사실상은 서양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미국화라고 보는 견해이다. 오늘날 진행되는 세계화를 신자유주의의 실현 및 확산으로 바라본다. 프랑스의 문명 비평가인 기 소르망은 “미국화된 세계화가 문화적 다양성을 앗아가면서 세계를 빈곤하게 한다.”고 진단한다. 오늘날 진행되는 세계화가 미국화를 의미한다는 점을 토머스 프리드먼도 인정하고 있다. 그는 세계화에 관한 유명한 책 《텍서스와 올리브나무》에서 “냉전시대가 끝나면서 세계화는 앵글로-아메리칸 스타일의 자본주의와 황금 스트레이트재킷을 전 세계로 퍼뜨렸다. 세계화는 미국 문화와 아이콘들을 세계로 퍼뜨렸다. 세계화는 미국의 최고, 최악의 모습을 세계에 퍼뜨렸다. 세계화는 미국식 혁명과 미국식 주유소를 전 세계에 확산시켰다.”고 주장한다.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는 세계화를 대표하는 신자유주의가 문화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 없이 시장 논리만을 따르기 때문에 시장경제에 맡겨진 상태 속에서 문화는 다양성을 추구하기보다 동질화를 추구하

기 마련이며, 그 획일화된 문화의 모델이 ‘맥도널드 문화’라고 지적하였다.

다른 진영에서는, 세계화가 진행될수록 동질화가 이루어진다는 진단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그들은 세계화 및 보편화의 심화가 오히려 그 반대 성향인 지역화와 특수화를 자극함으로써 결국 두 가지 상반되는 성향들이 공존함을 지적한다. 이안 클라크는 《지구화와 과편화》에서 지구화가 통합 추동력으로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해체 추동력을 동시에 수반하며,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의 상호연관성이 더욱 커지는 동시에 점차 정치적 분열 및 해체 과정 역시 공존한다고 본다. (...중략...) 보편화는 언제나 ‘보편적인 것의 특수화’라는 반대 경향을 자극하는 등 표준화하려는 통일성과 다양화하려는 특수성 사이에는 상호작용이 존재하며, 세계 문화는 다양성을 억제하기도 하고 촉진하기도 함을 지적한다.

오늘날 진행되는 문화 세계화가 서양화, 좀 더 구체적으로는 미국 문화 중심의 동질화이며, 그렇기에 여기에 대항해서 지역 및 자국 문화를 보호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관점과 그러한 관점을 수용자의 능동성과 토착화 노력을 무시하는 견해로 간주하여 비판하는 관점은 각자 부분적으로 정당함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한다.

출처: 김수자 & 송태현, 2010: 63-84

**활용 팁:** 본 읽기 자료는 핵심활동 1, 핵심활동 2와 관련되며 세계화가 음식 문화를 포함한 문화의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업 전 교사가 읽는다면 세계화가 문화에 미치는 측면을 다양한 측면으로 안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세계화 및 패스트푸드의 보급으로 인한 부정적 측면을 이해하는 과정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음식 원재료의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

### 1 카카오 생산과정과 노동자 인권 문제

대부분의 코코아 농부들은 하루 1달러 미만의 수입을 올리는데, 이는 극심한 빈곤선보다 낮은 소득이다. 그 결과, 그들은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종종 아동노동에 의존하며 여기에는 국제노동기구가 “최악의 아동노동”이라고 부르는 사항이 포함된다. 코트디부아르와 가나의 약 210만 명의 어린이가 코코아 농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최악의 아동노동에 노출되어 있다.

카카오 농민이 돈을 적게 받는 주요 원인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중개상이 대부분의 이익을 가져가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가 카카오 수출에 세금을 지나치게 많이 매기기 때문이다. 전 세계 카카오의 3분의 2가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생산되지만 초콜릿은 네덜란드, 독일, 미국, 벨기에,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만들어진다. 사실 초콜릿 하나를 팔 때 발생하는 이익 중 대부분의 몫은 선진국의 소수 다국적기업에 돌아간다. 이들은 카카오 재배 농민들이 식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동안 식품 거래로 막대한 이윤을 남긴다. 반면, 카카오 재배 농민들은 초콜릿 소매가의 6%밖에 받지 못한다. 소비자가 초콜릿 하나를 사며 1,000 원을 지불할 때, 그중 카카오 농민에게 돌아가는 돈은 60원에 불과한 것이다.

선진국의 부유한 사람들이 소비하는 커피와 차, 밸런타인데이 연인들이 사랑을 속삭이며 주고받는 초콜릿, 그 속에는 이처럼 가난한 생산국 노동자들과 아동 노예 노동의 피땀이 녹아있다. 달콤한 초콜릿의 이면에 존재하는 그들의 눈물을 되새겨볼 일이다.

출처: 조철기, 2023: 138-151

## 2 아보카도 생산과 환경파괴 문제

먹으면 먹을수록 지구환경을 파괴하는 음식이 있다. ‘천연 버터’라고 불리는 초록색 열매, 아보카도이다. 아보카도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환경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아보카도는 주로 단일 작물로 재배되는데, 단일 경작의 경우 질병에 취약하기 때문에 농부들은 더 많은 살충제와 비료를 사용해야 한다.

아보카도는 재배하는 데 많은 물을 필요로 하는 작물이기도 하다. 아보카도 열매 하나를 키우는 데 필요한 물은 320L이다. 바나나가 150L, 오렌지가 22L, 토마토가 5L가 필요하다는 점과 비교해 보면 얼마나 엄청난 양인지를 알 수 있다. 물발자국(water footprint)이란 제품의 생산,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물이 사용되는지를 나타내는 환경 관련 지표를 말하는데, 아보카도는 막대한 물발자국을 남기는 작물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아보카도 생산이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 2019년 전 세계 산림을 모니터링하는 한 플랫폼에서는 아보카도 생산을 위해 매년 5,900m<sup>2</sup>에서 8,000m<sup>2</sup> 가량의 삼림이 벌채된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소를 키우기 위해 숲을 없애는 아마존의 모습과 흡사한 셈이다. 숲이 대표적인 탄소흡수원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아보카도의 생산은 결국 전 지구적인 온도를 상승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 한들 우리가 소비하는 것이 지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면 소비량을 조금은 줄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출처: 조희정, 2021: 106-113의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

**활용 팁:** 본 읽기 자료는 핵심활동 3과 관련되며 특정 음식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재료가 생산 및 소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윤리적 소비의 방법으로서 로컬푸드의 가치

지금 한국 사회에서 먹거리의 문제는 매우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패스트푸드, 정크푸드, 프랑켄푸드 등의 말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와 어떻게 먹느냐의 문제는 우리의 삶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중략...) 먹거리와 환경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는 육식이 비도덕적이라는 주장을 제기하는 학자들도 생겨나고, 먹거리의 선택이 이제는 개인의 취향과 기호에 따른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의미를 갖는 선택적 행위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먹거리에 대한 윤리적인 선택”, 그리고 “내가 이 음식을 먹을 때, 먹지 않을 때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나의 먹거리 선택은 남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를 생각해 보면 음식 윤리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간은 먹는 행위를 통해 자연의 순환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이제 먹는 행위는 더 이상 본능적인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인 음식에 대한 논의들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미 우리는 좋은 먹거리와 나쁜 먹거리에 대한 가치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개개인의 건강과 관련해서 논의되던 것이 이제는 개개인의 수준을 넘어서서 환경과 사회 차원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는 것이 음식 정의와 공정한 음식에 관한 논의이다.

그런데 현대의 먹거리는 전통사회의 먹거리와 비교했을 때 뚜렷이 구분되는 특징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현대의 먹거리는 대부분이 가까운 지역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다. 이처럼 우리의 먹거리들은 탈지역화, 탈맥락화되고 있으며, 이것은 먹거리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소외시켜 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로컬푸드를 강조하는 로컬푸드 운동은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지역에서 소비하지는 운동이다. 예를 들면 “자기 집에서 100마일(약 160km) 이내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소비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로컬푸드 운동을 받아들여 지산지소 운동을 시작했으며, 농민과 소비자의 90%가 이에 대해 알고 있다. (...중략...) 우리가 시장에서, 식탁에서 접하는 음식들이 제철에 그리고 가까운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선택하여 먹는다는 것은 이제 단순히 개인의 식성이나 기호에 따른 행위가 아니다. 좋은 행위와 나쁜 행위를 구분하듯이 우리는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을 구분하며, 무엇을 먹어야 하느냐의 선택과 어떻게 먹어야 하느냐의 선택이 가지는 의미를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와 자연의 차원에서 숙고해 보아야 한다.

“로컬푸드 체계의 핵심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면대면 접촉을 기반으로 한 농산물의 직접적인 거래에 있다.” 결론적으로 먹거리의 자연화와 맥락화를 통한 먹거리 자체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먹거리 생산자와 소비자의 인식의 전환을 통해 먹거리의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신뢰에 바탕을 둔 새로운 먹거리 공동체의 형성이 요청되는 것이다.

출처: 변순용, 2014: 136-137, 150

**활용 팁:** 본 읽기 자료는 핵심활동 4와 관련되며 글로벌푸드/패스트푸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바람직한 음식 소비의 방법으로서 ‘로컬푸드’가 지닌 가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업 전 교사가 읽어본다면 음식 측면에서의 윤리적 소비가 음식 윤리, 음식 정의 등의 개념과 연관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초국적기업은 세상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까요?

### ☆ 주제 선정의 배경

세계가 상호의존하여 변화함에 따라 개인의 삶도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과거에는 세계를 바라볼 때, 국가 중심의 포섭과 배제, 우리와 그들[타자/당신]과 같은 '경계 짓기'에 초점을 두었다면,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는 사회적, 정치적으로 형성된 '다차원적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바라볼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박선미, 2014).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경제체제에서 더욱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제의 세계화로 인해 기업의 활동 범위가 전 세계로 확장되었으며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의류, 전자제품, 자동차 등도 다양한 국가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경을 넘어 제품의 기획과 생산, 판매 활동을 하는 기업을 초국적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도 초국적기업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상품을 생산하기 위한 공정들이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 이루어지고, 다시 이 공정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최종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과정으로 구성된 생산망이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입니다. 여기서 초국적기업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통합하고 조정하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초국적기업 활동의 이해는 전 세계적인 스케일에서의 관계적 사고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나

아가 세계경제의 이해뿐만 아니라, 세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밀접한 상호의존성(네트워크)을 이해하는 데도 매우 중요합니다.

초국적기업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면서 영향도 막대해지고 있습니다. 초국적기업은 대체로 선진국에 본사를 두고, 저렴한 생산요소의 확보와 신흥시장 개척을 위해 세계 곳곳에 진출합니다. 저렴한 노동력이나 원료 조달을 위해 개발도상국에 진출하기도 하고, 고숙련 노동력과 기술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에 진출하기도 합니다.

특히, 저렴한 노동력의 확보를 위해 주로 개발도상국에 생산 공장을 설립합니다. 초국적기업의 진출은 이 과정에서 개발도상국에 고용 창출, 투자 유치, 산업화를 위한 기술 이전 등의 이득을 가져다줍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개발도상국의 지역사회에서 자생하는 산업을 위축시키거나 환경파괴 문제, 노동인권 문제 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더욱이 심각한 문제는 개발도상국이 초국적기업이나 선진국의 경제에 의존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초국적기업의 생산 공장이 개발도상국에서 철수하는 경우, 개발도상국에서는 대규모 실업 사태, 경기침체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글로벌 경제체제에서 초국적기업의 영향력 증가는 세계의 공간적 불균등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초국적기업의 작동 원리와 함께 이와 관련된 세계경제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 이해, 이에 대한 세계시민으로서 바람직한 태도는 지리 교과에서 다루어야 할 중요한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국적기업이라는 주제가 다소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오늘날 세계경제의 특징을 극명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관련 분야의 도서, 신문 자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학생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물건들이 초국적기업의 생산 활동에서 온 것임을 이해하고, 기업가의 입장이 되어 기업의 이윤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구상해 본다면 본 수업을 조금 더 쉽게 접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장에서 제시된 핵심활동을 통해 초국적기업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 핵심활동 활용 가이드

‘초국적기업은 세상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까?’ 수업은 총 4개의 핵심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핵심활동 1에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소비하는 물품에 초점을 두고,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 초국적기업을 분석함으로써 초국적기업의 의미와 성장과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핵심활동 2는 초국적기업의 경영전략으로서 공간적 분업과 현지화 전략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기업의 경영자’가 되어봄으로써 초국적기업의 경영전략이 생산요소 확보와 시장 확대의 두 가지 목적하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합니다.

핵심활동 3에서는 다큐멘터리를 활용해 초국적기업이 생산 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에 진출하는 행위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비판적인 관점에서 살펴봅니다. 여기서는 초국적기업이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에 미치는 노동인권, 환경문제, 신식민지화 등에 초점을 두어 각 문제를 비판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핵심활동 4에서는 초국적기업의 활동이 ‘세계의 구조적 불균등’을 가져오는 문제점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ESG 경영’의 의미를 살펴봅니다. 핵심활동 2에서 선정한 기업을 사례로 직접 ESG 경영의 실천 계획을 수립해 봄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 3 학습목표 및 성취기준

<b>학습목표</b>		<p>[지식·이해] 초국적기업의 의미와 특징을 이해하고 분석한다.</p> <p>[과정·기능] 초국적기업의 행위가 특정 국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조사하고 탐구한다.</p> <p>[가치·태도] 초국적기업의 행위가 특정 국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이해하고, 보다 바람직한 소비의식을 함양한다.</p> <p>[실천·행동] 초국적기업의 확대에 따른 불평등 문제를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일상에서 실천한다.</p>	
<b>성취기준</b>		<p>[12세지03-03] 초국적기업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제체제의 형성 과정을 탐색하고, 글로벌경제에서의 공간적 불균등을 해소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과 개인적 실천방안에 대해 조사한다.</p>	
<b>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 3대 학습영역</b>	<b>인지적 영역</b>	1. 지역·국가·세계의 체계와 구조	○
		2. 지역·국가·세계 차원에서 공동체 간의 상호 작용과 연계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	○
		3. 암묵적 가정과 권력의 역학관계	
	<b>사회·정서적 영역</b>	4. 다양한 차원의 정체성	
		5. 사람들이 속한 다양한 공동체와 공동체 간의 상호연계 방식	○
		6. 차이와 다양성의 존중	
	<b>행동적 영역</b>	7. 개인적·집단적으로 취할 수 있는 실천	
		8. 윤리적으로 책임감 있는 행동	○
		9. 참여하고 실천하기	

## ★ 기본 용어 설명

### **초국적기업(Transnational Corporation, TNC)**

모기업이 세계 각지에 자회사·지사·합병회사·공장 등의 자산을 확보하고 글로벌하게 생산과 판매 활동을 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모회사가 해외자산 지분의 10%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 관계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세계화로 인해 초국가적인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세계기업의 특성을 다국적기업의 용어로 는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등장했습니다.

### **다국적기업(Multinational Corporation, MNC)**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한 나라 이상에서 조직적인 생산 네트워크를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자회사를 두고 있는 국가 수와 자회사의 수, 외국에서의 활동이 기업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 여러 측면에서 초국적기업과는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 **글로벌라이제이션(Glocalization)**

Globalization과 localization의 합성어로 ‘글로벌컬’이라고도 합니다. 기업들은 세계화를 추구하면서 실제로 일을 진행하거나 상품을 만드는 곳의 특성에 맞추는 전략으로 지역화를 추구합니다. 기업들은 현지 고객의 취향까지 고려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까지도 고민합

니다.

### **ESG 경영(Environment, Social and Governance, ESG)**

이해관계자가 기업의 세 가지 비재무적인 요소(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 등장했으며 최근에는 기업 관점에서 지속가능성(현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미래세대의 필요도 충족시키기 위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요소를 의미하는 단어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우리 주변에서 초국적기업이 만든 제품을 찾아볼까요?

### 진행방법

-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물품의 뒷면에 적혀있는 원산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물품이 우리나라만이 아닌 세계의 다양한 국가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이해합니다.
- 모둠원과 함께 사용 중인 물품 하나를 선택한 후 물품의 상표(브랜드), 기업의 본사와 그 위치, 생산 공장의 위치 등을 분석합니다.
- 기업의 본사, 생산 공장 등을 분석한 후 활동지에 제시한 백지도에 표시해 보고, 해당 기업이 어느 나라와 지역에 본사와 생산 공장을 두었는지를 알아보고 그 이유를 살펴봅니다.
- 모둠별로 분석 결과를 활동지에 정리해서 기록하고, 그 내용을 공유합니다.

### 지도상 유의점

- 우리의 일상에 초국적기업이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사실을 학습자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물품인 핸드폰이나 의류 등의 소재를 적극 활용합니다.
- 물품의 상표, 기업의 본사, 생산 공장 분석 시 인터넷 등을 활용해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선진국의 초국적기업뿐만 아니라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신흥공업국의 초국적기업까지도 살펴보도록 지도합니다.



## 우리 주변에서 초국적기업이 만든 제품을 찾아볼까요?

모둠명 :

구성원 이름 :

- 1 모둠원과 함께 사용하는 물품 중 '해외'에서 생산된 물품을 찾아 분석해 봅시다.

분석할 물품(생산 제품)	상표(브랜드) 분석	제품의 기업 본사, 연구소, 생산 공장 위치 알아보기	
예시) 의류, 과자, 자동차, 핸드폰 등의 물품	예시) 브랜드 로고, 브랜드의 특징 등을 포함해 자세히 분석해 봅시다.	본사	
		연구소	
		생산 공장	

- 2 해당 기업의 본사와 생산 공장, 연구소 등 주요 위치를 세계지도에 표시해 봅시다.



© Shutterstock/matsukiyo8379

## 나도 기업가! 초국적기업을 경영한다면?

### 진행방법

- 초국적기업의 경영전략으로서 ‘공간적 분업’의 의미 및 생산요소(본사, 연구소, 생산 공장 등)별로 고려해야 할 사항, 실제 분포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 세계의 다양한 도시(지역)와 도시가 가진 특성을 적은 카드 묶음을 제시한 후, 모듈별로 본사-연구소-생산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도시 카드를 하나씩 선정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본사, 연구소, 생산 공장이 위치한 지역의 공통점을 파악해 봅니다.
- 초국적기업의 경영전략으로서 현지화 전략이 지닌 의미, 중요성, 사례 등을 설명합니다.
- 다양한 초국적기업이 추진하는 ‘현지화 전략’을 모듈원과 함께 직접 구상해 보고, 활동지에 작성한 내용을 발표합니다.

### 지도상 유의점

- 탐구를 진행할 때에는 모듈별로 다양한 탐구 주제(기업의 유형)가 나올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사, 연구소, 생산 공장을 입지시킬 때 필요한 기본적인 조건을 안내하되, 반드시 그 조건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 스스로가 창의적인 사고를 발휘하도록 허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 나도 기업가! 초국적기업을 경영한다면?

모둠명 :

구성원 이름 :

### 1 현지화 전략의 사례를 조사해 봅시다.

식품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라면회사: 이슬람교도들의 입맛에 맞춘 ‘할랄라면’ 구상하기</li> <li>• 패스트푸드회사: 각 지역의 특산품(재료)을 활용한 지역 햄버거 판매 사례</li> </ul>
화장품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운데이션 제조회사: 다양한 피부색을 가진 세계인의 특징에 맞춘 파운데이션 상품 개발하기</li> </ul>
의류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에 지나치게 많이 의류가 소비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역발상으로서 플라스틱 등 재생섬유를 활용한 의류 판매하기와 지속가능한 패션 홍보하기</li> </ul>
자동차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의 대표적인 인구 대국인 인도에 ‘친환경 소형 SUV 자동차’ 판매하기(대기의 질 개선 문제 및 탄소배출 감축 등의 규제와 자동차를 권력과 풍요의 개념으로 보는 인도 사람들의 성향을 대비해 대형 SUV 가 아닌 소형 SUV 판매)</li> </ul>

2 초국적기업의 경영자로서 기업활동에 필요한 각 생산요소별 입지를 선정해 보고, 기업활동의 확대를 위해 필요한 현지화 전략을 구상해 봅시다.

선정 기업	기업의 종류: 선정 이유:		
기업활동에 필요한 생산요소에 대해 생각해 보기	※ 본사, 연구소, 생산 공장을 둔다고 가정했을 때, 생산요소별로 필요한 입지 조건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아래 카드 묶음에서 적절한 카드를 한 장씩 골라보고, 해당 카드를 선택한 이유를 적어 봅시다.		
	구분	본사	연구소
	선정한 도시(지역) 카드 붙이기		
해당 도시(지역)을 선택한 이유			
기업의 시장 개척을 위한 '현지화 전략' 구상하기	개척할 국가(지역)		
	우리 모듬이 구상한 현지화 전략		

## 도시 카드



필리핀 마닐라

- \* 임금: 시간당 1달러
- \* 특징: 넓은 영토, 영어 사용,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



대한민국 서울

- \* 임금: 시간당 9달러
- \* 특징: 높은 교육열, 뛰어난 문화 및 정보 인프라, 안전한 치안



중국 상하이

- \* 임금: 시간당 3달러
- \* 특징: 2,000만의 대규모 인구, 해외 기업에 대한 낮은 규제, 대기오염에 따른 공장 건설 제약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 \* 임금: 시간당 0.5달러
- \* 특징: 풍부한 자원,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 자국 내 풍부한 시장 규모



멕시코 치와와주

- \* 임금: 시간당 2달러
- \* 특징: 넓은 토지와 저렴한 지가, 미국과 인접한 위치



미국 뉴욕

- \* 임금: 시간당 19달러
- \* 특징: 세계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매우 비싼 임대료, 고숙련 노동력 풍부



브라질 상파울루

- \* 임금: 시간당 3달러
- \* 특징: 풍부한 자원, 넓은 토지, 불안한 치안, 풍부한 인구



나이지리아 아부자

- \* 임금: 시간당 0.3달러
- \* 특징: 풍부한 석유 자원, 다소 불안한 치안, 정부의 전폭적 지원



폴란드 브로츠와프

- \* 임금: 시간당 4.5달러
- \* 특징: 서유럽, 북유럽과의 지리적 인접성, 유럽 내 비교적 저렴한 임금, EU 국가 간 무관세



헝가리 미슈콜츠

- \* 임금: 시간당 6달러
- \* 특징: 정부의 적극적인 기업 지원, 유럽의 중심부 위치, EU 국가 간 무관세



영국 런던

- \* 임금: 시간당 14달러
- \* 특징: 유럽 최고의 세계 도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매우 비싼 임대료, 풍부한 전문 노동력



알제리 바트나

- \* 임금: 시간당 0.5달러
- \* 특징: 저렴한 에너지 가격,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 저렴한 임금, 유럽과의 인접성

## 초국적기업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 진행방법

- 다큐멘터리 <더 트루 코스트>(The True Cost)를 감상하면서 특정 브랜드를 가진 초국적기업의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 진출 과정에서 특정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 다큐멘터리 영상의 내용을 토대로 초국적기업이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생각해 보고, 이를 친구들과 토의합니다.
- 의류 부문의 초국적기업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초국적기업이 생산 공장을 짓는 개발도상국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이와 관련된 신문 기사를 찾아 스크랩합니다.
- 모둠원과 함께 스크랩한 기사 내용을 공유하면서 초국적기업의 확대는 세계 또는 특정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초국적기업의 경영 방안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 지도상 유의점

- 의류 분야뿐만 아니라 식품, 자동차, IT 등 다양한 분야의 초국적기업이 개발도상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도록 안내합니다.
- 신문 기사를 스크랩할 때에는 공신력 있는 신문사, 최근에 작성된 기사, 신문 기사 내용의 정확성 및 논리성 등의 조건을 사전에 제시함으로써 활동이 보다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 초국적기업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모둠명 :

구성원 이름 :

- 1️⃣ 다큐멘터리 영상을 보고 패션산업의 이면에 대해 정리해 봅시다.

<p>활동 내용</p>	<p>우리가 입고 있는 옷의 진짜 가격은 얼마일까? 의류 분야 초국적기업은 어떻게 저렴한 가격으로 옷을 만들 수 있는 것일까? 세계적인 의류 브랜드 기업은 개발도상국의 의류 공장에 하청을 줌으로써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노동, 인권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패스트패션’과 같이 빠르게 생산하고 소비하는 패션은 환경에도 엄청난 악영향을 끼친다. 다큐멘터리를 감상하면서 패션산업의 이면에 숨겨진 문제를 비판적으로 파악해 보자.</p>	
<p>기억에 남는 영상 내용 정리</p>		
<p>초국적기업이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분석하기</p>	<p>신문 기사 정보</p>	<p>신문 기사명: 발행사, 일자, 날짜 등:</p>
	<p>신문 기사 스크랩 (요약 및 정리)</p>	
	<p>신문 기사 분석한 내용 정리</p>	
<p>바람직한 초국적기업의 경영 방안 생각하기</p>		

**참고 자료** 다큐멘터리 <더 트루 코스트>(The True Cost) 관련 내용

할인 판매에서 건진 1달러짜리 블랙 원피스, 3달러짜리 긴팔 블라우스는 어떻게 그렇게 저렴할 수 있을까? 예쁘게 수놓은 자수와 박음질을 한 무릎길이 원피스는 맥도널드의 아이스크림콘보다 싼다. 이러한 제품을 만들고, 유통하고, 판매하는 데 들어간 ‘진짜 비용’은 얼마인가? 그 희생을 누구에게 전가했는가? 임금으로 월 10달러도 받지 못하는 방글라데시의 의류산업 여성 노동자들, 비정상적인 수요를 감당하느라 유전자변형 목화를 사용하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더 많은 화학비료를 사용하여 땅이 황폐해지고 농부들은 건강을 잃고 있다. 너무나 가혹해 보이는 그 굴레에는 값싼 물건에 대한 소비를 아끼지 않는, 나와 같은 아주 평범한 소비자들이 있다.



출처: Andrew Morgan Youtube Channel

시간	주요 내용
시작 ~ 7분	초국적기업이 개발도상국에 생산 공장을 옮기는 이유
8분 ~ 12분	인도네시아 다카에서 일어난 ‘라나 플라자 사건’(역사상 최악의 의류산업 재앙)
20분 ~ 24분	인도네시아 다카의 저임금 노동력의 열악한 노동환경
24분 ~ 32분 52분 ~ 55분	초국적기업의 의류 생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문제
40분 ~ 42분	초국적기업의 의류 생산으로 인한 저개발국의 산업 파괴

※ 영화 분량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의류산업을 중심으로 한 초국적기업의 행태가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중심으로 편집하여 감상할 것을 추천합니다.



## 기업이 노력하면 세상은 더 나아질까요?

### 진행방법

- 세계의 구조적 불균등 해결을 위해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보면서 ESG 경영의 의미와 필요성, 실천 사례를 소개합니다.
- ESG 경영의 실천 사례를 토대로 '미래의 기업가로서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모듈별로 수립해 보고, 친구들과 공유합니다.

### 지도상 유의점

- ESG 경영의 의미와 필요성, 실천 사례를 소개할 때에는 ESG 경영의 구성 요소 중 환경, 사회에 초점을 두어 기업의 환경정책, 기후변화 완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을 강화하고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제시합니다.
-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핵심활동 2와 연계해 해당 활동에서 탐구한 내용을 토대로 세부 계획을 세워 봅니다.

## 기업이 노력하면 세상은 더 나아질까요?

모둠명 :

구성원 이름 :

- ① ESG 경영 사례를 통해 기업이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해 봅시다.

세계적인 의류기업 P사 - 환경 측면 사례	반도체 분야의 글로벌기업 I사 - 사회 측면 사례
<p>P사는 미국에서 설립된 대표적인 아웃도어 의류기업으로 “우리의 터전, 지구를 되살리기 위해 사업을 합니다.”라는 사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p> <p>제품의 원단을 포함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과 쓰레기, 그리고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에너지까지 기록하여 이를 ‘발자국 연대기(Footprint Chronicle)’라는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를 통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얻은 소비자들은 기업의 제품을 신뢰하며 이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기농, 친환경 소재를 고집하고, 제품의 공급망을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친환경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p>	<p>반도체 설계 및 제조 분야의 초국적기업인 I사는 2009년부터 지금까지 자사의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광물과 관련해 ‘책임감 있는 광물 공급망’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이나 인접국에서 전쟁, 범죄, 인권 유린 등을 통해 채굴되는 분쟁 광물의 판매 자금이 국가의 범법 단체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직접 제련소를 통해 광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p> <p>또한, 자원봉사 프로그램과 자선 기부를 통해 지역사회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회 공헌 전략을 통해 I사는 기업이 환경, 사회 및 이해관계에 대한 책임을 지키면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p>

---

2 기업가로서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봅시다.

(1) 선정한 기업의 유형은 무엇인가요?

(2) ESG 경영 중 E(환경) 분야에서 진행할 전략(계획)은 무엇인가요?

(3) ESG 경영 중 S(사회) 분야에서 진행할 전략(계획)은 무엇인가요?

## 초국적기업의 의미와 기업경영전략

다양한 기업 유형 가운데 경제의 세계화를 주도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초국적기업이다. 경제의 세계화 초기에는 다국적기업과 초국적기업이 함께 사용되었다. Dunning(1993)은 다국적기업이란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한 나라 이상에서 조직적인 생산 네트워크를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정의하면서, 이는 초국가적인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세계기업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초국적기업은 해외에 자회사를 두고 있는 국가의 수와 자회사의 수, 외국에서의 활동이 전체 기업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 소유와 경영의 세계화 정도, 중심행정과 연구활동의 세계화 수준 등 여러 측면에서 다국적기업과는 질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략...) 초국적기업이란 단순히 해외로 진출하는 기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전 세계에 흩어진 자회사들 간 통합된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불확실한 세계시장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자원을 극대화하면서 경쟁력을 신장시키고 있는 기업이다. 따라서 초국적기업은 경제 논리에 따라 특정한 국가의 정체성을 고집하지 않으며 최고의 안정성과 수익이 보장되는 곳이면 기꺼이 입지를 옮기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범지구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초국적기업의 본사까지도 다른 나라로 이전하려는 성향을 갖고 있다. (...중략...) 초국적기업은 서로 다른 나라에서 서로 다른 생산 활동을 하는 전 세계에 입지하고 있는 자회사를 하나의 조직체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세계적 차원에서 기업 내 노동 분업을 실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생산의 글로벌 네트워크로 인해 세계시장에서 거래되는 다수의 상품들은 점점 무국적화되고 있다. (...중략...) 이

와 같이 기업이 초국가적인 실체로 부상하게 되면서 세계경제구조는 국가 중심의 상호의존적 시대에서 국가와 기업이 같이 공존하는 세계화 시대로 이행되고 있다.

초국적기업이 생산 라인을 세계화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상품을 만들어 규모경제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이며, 범지구적인 생산 라인 구축을 통해 생산 비용에서의 지리적 차이를 최대한 이용하고 더 나아가 세계적 조립라인을 통해 특정 지역에 대한 원료 의존도를 줄여 보다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업 간의 경쟁이 더욱 심화되면서 부품 조달, 생산 위탁 등의 조달 제휴와 생산 비용 절감 및 시장 지배력 강화 등의 생산 제휴 등 다양한 형태의 공동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초국적기업이 해외의 자회사를 설립하고 소유권을 갖고 통제하던 성장 전략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다른 국적을 가진 회사들과의 공동협력을 통해 상생하려는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출처: 이희연, 2018: 707-721

**활용 팁:** 본 읽기 자료는 핵심활동 1, 2와 관련되어 있으며 초국적기업의 의미, 초국적기업이 생산 공장을 설립하는 이유 등 공간적 분업이라는 기업 전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핵심활동 1과 2를 시작하기 전, 교사가 읽음으로써 초국적기업의 성장과정을 이해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학생 역시 핵심활동 1, 2를 진행하기 전 읽어 본다면 초국적기업의 의미와 기업경영전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초국적기업의 공장 철수 이후 지역의 변화

2002년 지엠이 (대우의) 새로운 공장 주인이 됐다. 다만 공장은 쪼개어졌다. 승용차 공장만 지엠으로 팔렸다. 상용차\* 공장은 또 얼마간 주인을 기다렸다. 1년 뒤 상용차 공장도 인도 타타그룹에 팔렸다. 타타대우 상용차로 이름을 바꿔 달았다. 글로벌 대기업 지엠에 견주면 어딘지 미약해 보이는 회사였다. 다만 운영 방식에서 지엠 공장과 좀 달랐다. 타타대우 상용차 군산 공장에는 나름대로 기업경영과 노동자 처우를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자율성이 부여됐다. 헤드쿼터의 영향력이 적어서 가능한 일이었다. 공장의 자율성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그때 많은 이들은 알지 못했다.

어느덧 ‘대우의 도시’를 꿈꿨던 도시는 ‘지엠의 도시’가 돼 있다. 대우차가 한국지엠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부서지고 새로 지은 질서의 모습은 IMF 이후 한국 경제의 큰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군산에서 황해 건너 코앞인 중국은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었다. 중국의 수출액은 1990년 490억 달러에서 2010년 1조 7,000억 달러까지 30배 넘게 불어난다. 세계의 소비자인 미국, 유럽과 세계의 생산자인 중국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계경제의 모습이 갖춰졌다.

한국은 그사이 어디쯤, 중간재 생산 국가로 운 좋게 자리 잡았다. 세계 생산에 강하게 얽혔고, 구조적인 무역 흑자국으로 불렸다. 쉽게 휩쓸리고 변동성이 늘었지만, 아무튼 흑자였다. 국가경제 전체로 보면 성공적인 2000년대를 지났다고 자부할 만하다. 1990년대 꿈꿨던 모습이다. 생산과 소비의 무대가 세계화되

\* 상용차: 트럭, 화물차, 버스 등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었다.

다만 본사와 공장의 거리는 더욱 멀어졌다. 계획하는 본사와 물건 짓는 공장의 거리는 아득하다. 군산 입장에서야 ‘지엠의 도시’가 됐지만 지엠 입장에서 군산은 전 세계 수많은 생산 공장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글로벌기업의 슬한 생산기지 가운데 한 곳인 한국 중소 도시의 삶과 노동자의 생계는 계획하는 곳에서는 ‘비용’으로 읽힐 것이다. 일하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의 얼굴, 공장과 도시의 관계를 미국 디트로이트에 있는 지엠 이사회가 떠올리기는 쉽지 않다. 비용 대비 효율을 기준으로 공장의 생과 사, 노동조건, 삶의 지평이 갈린다. 그 안에서 벌어질 미묘한 갈등이나 소외감 같은 것은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았다.

출처: 방준호, 2021: 88-98

**활용 팁:** 본 읽기 자료는 핵심활동 1, 3과 관련되며 읽기 자료 1과 다르게 우리나라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초국적기업의 진출과 공장 폐쇄가 우리 가까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군산 등의 중소 도시에 초국적기업인 지엠이 유입되고, 이내 공장이 철수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변화를 구체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초국적기업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초국적기업이 경영전략의 변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 1 우즈베키스탄의 면화 강제 노동 근절

나이키와 H&M 등 다국적 의류 브랜드는 우즈베키스탄의 면화 수확 강제 노동이 세계적인 논란이 됐을 때도 우즈베키스탄 면화의 사용을 중단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국가의 주요 수출품인 목화를 수확하기 위해 국민을 강제 동원했으며, 여기에 아동과 환자도 예외가 아니었다. 미국 노동부는 우즈베키스탄의 목화를 아동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목록에 올리고 수입을 규제했다.

미국의 시민단체 ‘코튼 캠페인’은 해마다 1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강제 동원되고 있다고 추정하고,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기본적 노동권 확보를 촉구했다. 코튼 캠페인은 동시에 2007년부터 관련된 기업을 상대로 강제 노동의 산물인 우즈베키스탄 면화 사용 중단을 요구했다. 우즈베키스탄의 면화 수출량은 2014년 260만 배일에서, 불매의 영향으로 2016년에는 3분의1 미만인 80만 배일로 급감했다. 우즈베키스탄 면화 불매에는 전 세계 331개 업체가 참여했다.

국제사회의 제재와 331개 기업의 불매를 거쳐, 우즈베키스탄은 2020년 미국 노동부로부터 자국 내 강제 노동이 종식되었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국제노동기구(ILO)도 2021년 작성한 ILO 제3차 모니터링 보고서에서 우즈베키스탄의 강제 노동이 중단되었다고 밝히며 2022년 3월 우즈베키스탄 목화 불매 캠페인을 해제했다. ILO는 우즈베키스탄이 강제 노동을 근절하도록 법률을 정비하고 사회적 대화와 단체 교섭 관행이 확립되도록 2013년부터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협력했다고 설명했다.

출처: <오마이뉴스>, 2022년 4월 17일 기사



## 2 면화 강제 노동을 근절하기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정부, 기업 및 투자자와 협력을 피하는 면화 강제 노동 근절 연합인 ‘책임 있는 자원조달네트워크’는 ‘방적기에 이르기까지: 면화 조달의 책임 조달 체계 수립을 제안하며’라는 보고서를 통해 우즈베키스탄의 강제 노동과 아동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의류업계가 취해야 할 바람직한 관행을 다뤘다. 인권 위험 지역을 파악하고 원산지의 정확한 확인을 위한 감사 체계를 만들어 “강제 노동 또는 아동노동이 없는 목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가 못지않은 경제력과 인적 자원을 지니고 정치적 역량까지 행사하는 초국적기업이 지구촌의 노동과 인권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유엔인권이사회가 2011년 6월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UNGPs)’을 채택한 이유이다.

2019년 글로벌 금융기업 UBS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69%는 윤리경영을 하는 회사의 제품을 구매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나아가 71%의 소비자는 환경, 지배구조 등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기업의 제품을 소비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표명했다. USB 악셀 베버 회장은 “소비자의 윤리적 소비 패턴이 강화하였기에 기업의 윤리경영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고 말했다.

출처: <르몽드디플로마티크>, 2022년 4월 16일 기사

**활용 팁:** 본 읽기 자료는 핵심활동 4와 관련됩니다.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ESG 경영 전략으로 반영되기도 합니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바람직한 소비자로서 어떤 물건을 구입해야 할지 고민해 볼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이 자료는 학생들에게도 교사에게도 모두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 기업의 ESG 경영이 보편화될 새로운 자본주의의 모습

새로운 자본주의는 어떤 모습일까? 물론 알 수 없다. 지나치게 이상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부터 20년 후 세상은 어떻게 한번 그려보라고 하겠다.

새로운 자본주의 세상에서 여러분이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회사는 공유가치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수익을 추구하지만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돈을 벌기보다는 가치 창출을 우선시하는 고몰입 기업일 것이다. 모든 직원은 단기적인 이익이 공익과 기업의 장기적 잠재력과 균형을 맞춰야 할 필요를 이해한다. 기후변화라는 현실을 부정하고, 직원을 박하게 대우하고, 부패하거나 억압적인 정권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기업들은 다른 기업의 기피 대상이거나 이미 투자자들로부터 처벌을 받고 있을 것이다.

업계 전반에 걸친 유연한 협약으로 인해 모든 기업이 공통 기준을 가지며, 따라서 모든 사람이 상향식 경쟁을 할 강력한 동기를 부여받는다. 소비자들은 원칙을 무시하는 기업의 제품을 사지 않는다. 구직자들은 입사를 희망하는 기업의 환경적, 사회적 순위를 일상적으로 점검하며,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은 인재를 자석처럼 끌어당긴다. 여러분과 동료 노동자들은 회사 내에서뿐 아니라, 산업 전체에 강하고 집단적인 목소리를 내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개발할 수 있다. 이 목소리는 사회와 자유시장의 장기적인 건강을 위해 중요한 요소로 환영받을 것이다.

여러분이 다니는 기업은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을 것이다. 경제성장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대기오염을 억제하고, 사회와 사회제도의 건강을 강화하는 유연한 정책을 설계하기 위해 공적 포럼에서 기업과 정부가 머리를 맞댈 것이다.

여러분의 기업은 좀 더 높은 세금과 부패 억제, 언제 어디서나 완전한 민주적 접근을 지지하는 등 제도적 개혁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왔을 것이다.

민주적 참여가 되살아났을 것이다. 모든 학교에서는 ‘공민학’을 중요한 과목으로 가르치며, 투표 참여율은 하늘을 찌르고, 공적 대화는 서로를 존중하고 사실에 기반을 두면서도 대단히 활발한 특징을 보인다. 모든 정부는 시장 기반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곳에서 시장 기반 정책으로,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직접적인 규제를 통해 환경파괴를 억제하며, 사회를 강하게 유지하고 시장을 진정 자유롭고 공정한 상태로 만드는 공공재에 투자한다. 점점 많은 기업이 이러한 방향으로 동기부여되어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하면서도 공정한 세계를 만드는 데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함으로써 기후변화는 완화될 것이고, 불평등은 줄어들며, 경제성장은 계속 유지될 것이다.

출처: 리베카 헨더슨, 2021: 336-338

**활용 팁:** 본 읽기 자료는 핵심활동 4의 기업의 ESG 경영과 관련됩니다. 현재에도 기업의 ESG 경영이 강조되고 있지만 앞으로 20년 뒤에는 자본주의 속 기업활동이 큰 변화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데 본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 교사가 이 자료를 읽는다면 ESG 경영의 의미와 기업활동의 방향을 이해하고, 기업의 ESG 경영계획 또는 전략을 세워 보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에너지전환시대, 에너지 시민이 되는 법

### ☆ 주제 선정의 배경

인류는 에너지 없이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음식을 통해 생명을 유지하고, 음식의 재료가 되는 동물, 식물도 태양과 다른 생명체로부터 에너지를 얻습니다. 이처럼 살아있는 모든 것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모두는 에너지를 생산·소비하고 있습니다. 바츨라프 스밀은 《에너지와 문명》에서 인간의 삶을 발전시키는 핵심 요소가 궁극적으로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전 세계는 지구온난화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탄소의 배출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어떤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에너지전환시대에 중요한 화두입니다.

에너지는 크게 석유,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 등 재생 불가능 에너지와 지열, 태양에너지, 조력, 풍력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모든 에너지원은 미래의 에너지로 사용될 수 있지만 각각의 에너지원은 경제적, 환경적, 위생적 대가를 요구합니다(세계환경발전위원회, 조형준·홍성태 역, 2005). 산업혁명 이후 화석에너지에 기반한 에너지소비는 기후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처럼 기후변화와 에너지 생산·소비는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에너지전환은 세계가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 안전에 대해 인식하면서부터

시작되었는데, 환경적 부담이 큰 화석에너지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에너지전환 정책의 핵심에는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을 통한 에너지소비의 절대 감축이 놓여있습니다(조철기, 2022).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모두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합니다. 그러므로 에너지 시민성을 기를 수 있는 활동을 통해 생태전환적 삶을 위해 어떤 실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각 국가 간 경제적 차이로 발생하는 에너지소비의 차이, 즉 에너지의 혜택을 받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에 대해 이해하고, 에너지의 정의를 실천하는 세계시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계를 시공간적으로 하나의 시스템으로 생각할 때, 내가 사용하는 에너지가 제3세계 어느 지역의 환경을 파괴했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승인한 에너지 생산 시설이 도시의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인류, 지구, 번영, 평화와 파트너십이 공존하는 세계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이 주제의 학습을 통해 에너지, 생태계, 기후변화, 빈곤, 인권과의 연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며, 에너지의 소비와 생산을 정치, 경제, 사회, 환경과 연계하여 인간과 지구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 세계시민성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 ★ 핵심활동 활용 가이드

‘에너지전환시대, 에너지 시민이 되는 법’ 수업은 총 4개의 핵심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핵심활동 1에서는 세계 주요 에너지자원별 사용량 변화를 이해하고, 화석에너지 사용과 기후위기의 관계, 에너지전환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활동으로 구성했습니다. 나의 에너지 사용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직접 계산하고, 지구환경에

내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깨닫게 하고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알도록 했습니다.

핵심활동 2에서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모듈별 전문가 활동을 진행하여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탐구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핵심활동 3에서는 각 국가의 파리협정 이행 수준 점검을 통해 개인과 국가가 지구환경을 위해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에너지 불평등, 에너지 빈곤의 피해에 공감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활동으로 구성했습니다. 특히 세계 에너지포럼 역할극을 통해 에너지 불평등 문제를 이해하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협력과 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핵심활동 4는 에너지 자립학교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이 작지만 자신의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 더 나아가 우리 학교에서, 우리 지역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찾아보고 한 가지라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 ★ 학습목표 및 성취기준

#### 학습목표

[지식·이해] 화석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소비 현황과 특성을 이해한다.

[과정·기능] 세계 주요 에너지자원의 생산과 소비 현황을 시사 및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조사한다.

[가치·태도] 에너지 불평등 문제에 대해 공감하며, 개인, 국가, 세계의 차원을 연계하여 에너지정의 실현을 위한 대안을 모색한다.

[실천·행동] 탄소중립 방안을 제시하고 실천한다.

성취기준		[12세지04-01] 세계 주요 에너지자원의 생산과 소비 현황을 조사하고, 다양한 친환경에너지원의 특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산 방안을 제시한다.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 3대학습영역	인지적 영역	1. 지역·국가·세계의 체계와 구조	
		2. 지역·국가·세계 차원에서 공동체 간의 상호 작용과 연계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	○
		3. 암묵적 가정과 권력의 역학관계	
	사회·정서적 영역	4. 다양한 차원의 정체성	
		5. 사람들이 속한 다양한 공동체와 공동체 간의 상호연계 방식	○
		6. 차이와 다양성의 존중	○
	행동적 영역	7. 개인적·집단적으로 취할 수 있는 실천	
		8. 윤리적으로 책임감 있는 행동	
		9. 참여하고 실천하기	○

#### ★ 4 기본 용어 설명

##### RE100

‘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로, 기업들이 100% 재생 가능 에너지를 사용하겠다는 목표를 선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실천 행동)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비영리단체인 클라이밋 그

롭과 탄소 정보 공개 프로젝트가 공동으로 운영합니다. 참여기업은 특정 연도까지 100% 재생 가능 에너지 사용 목표를 설정하고, 에너지 사용 현황과 재생 가능 에너지전환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합니다. 이를 통해 투명성을 유지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합니다. RE100은 참여기업들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기술적 조언, 파트너십 형성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정치생태학(Political Ecology)**

환경문제와 사회, 정치, 경제구조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입니다. 이 분야는 환경문제가 단순히 과학적 또는 기술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맥락에서 어떻게 형성되고 영향을 받는지를 탐구합니다.



## 탄소는 왜 문제일까요?

### 진행방법

- 3~4인 모둠 5개조를 구성합니다.
- 모둠원이 함께 그래프와 통계자료를 해석하고, 자료조사를 통해 답을 찾도록 합니다.

### 지도상 유의점

- 기후위기 단원에서는 주로 기후위기가 지구에 미치는 영향, 기후 불평등 사례를 통해 공감과 연대를 강조한다면, 에너지 단원에서는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증가, 지구온난화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고 에너지전환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지도합니다.

## 탄소는 왜 문제일까요?

모둠명 :

구성원 이름 :

① 나의 생활 속에서 발생한 탄소 발자국을 계산해 봅시다.

월 전기 사용량 또는 연간 전기 사용량을 입력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 계산

### III 우리집 탄소배출량

우리집 탄소배출량을 계산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전기	총사용량	0	kWh
가스		0	m <sup>3</sup>
지역난방		0	Mcal

계산하기

상세계산내역

출처: 서울특별시 에너지정보

화석연료를 먹고 발달한 인류 문명, 이제는 벗어나야 할 시기 #미래수업

<https://shorturl.at/jleKD>

서울시 에너지정보

<https://energyinfo.seoul.go.kr/carbon/emissionCalculator?menu-id=Z070300>

우리나라 1인당 전력소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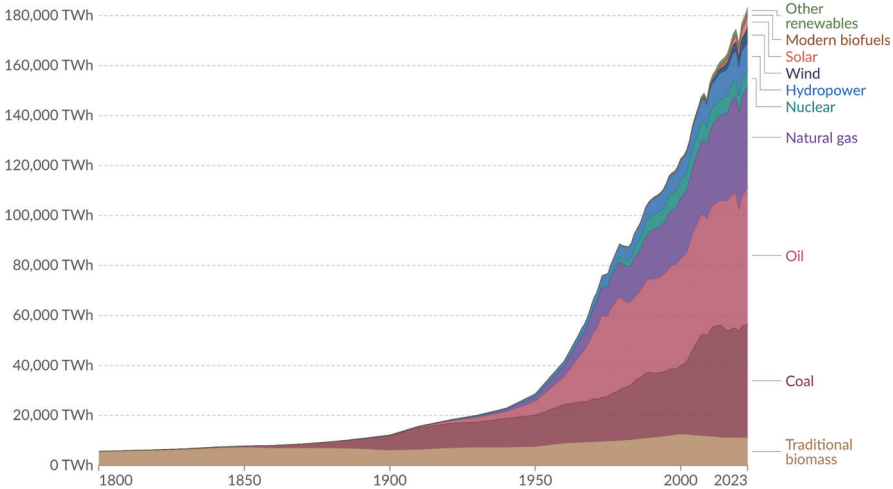
[https://tips.energy.or.kr/statistics/statistics\\_view0906.do](https://tips.energy.or.kr/statistics/statistics_view0906.do)

2 다음 그래프는 산업혁명 이후 주요 에너지자원별 사용량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프를 읽고 에너지전환 시기별로 주요 사용 에너지원과 그 특성을 조사해 봅시다.

### Global primary energy consumption by source

Our World in Data

Primary energy<sup>1</sup> is based on the substitution method<sup>2</sup> and measured in terawatt-hours<sup>3</sup>.



출처: Energy Institute –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24; Smil, 2017

시기	산업혁명-증기기관 발달 18세기 중반~19세기 초반	내연기관 발달 1950~현재	재생 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수요 증대 2000년대 이후
에너지원	석탄	석탄, 석유, 천연가스	신재생에너지
특성	재생 불가능 자원, 연소 시 이산화탄소 배출		재생에너지, 친환경에너지

3 화석에너지 사용과 이산화탄소 배출량과의 상관관계를 찾아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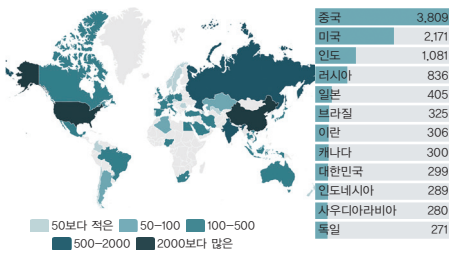
- ☑ 세계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순위

<https://datacommons.org/place/Earth?category=Environment&hl=ko>

- ☑ 주요 국가 1인당 에너지소비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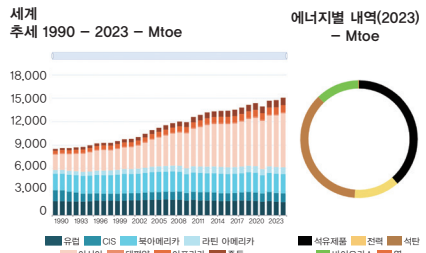
[https://tips.energy.or.kr/statistics/statistics\\_view0905.do](https://tips.energy.or.kr/statistics/statistics_view0905.do)

2022년 세계 총에너지소비량 순위  
(단위: M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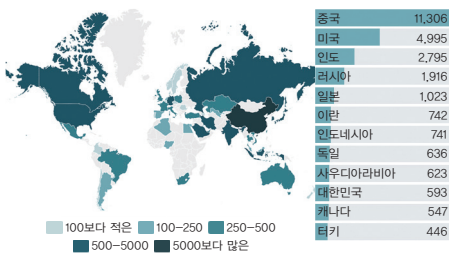


출처: Enerdata, 2009-2024

2022년 세계 총에너지소비 추세,  
에너지별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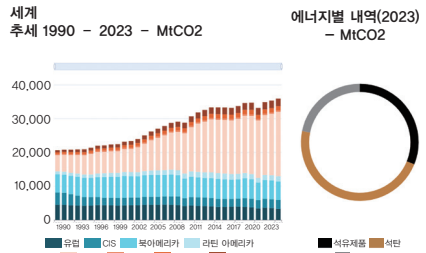


2022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  
국가별 내역



출처: Enerdata, 2009-2024

2022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 추세,  
에너지별 내역



(1) 세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국가들을 찾아봅시다. 그 국가들은 왜 탄소 배출이 많은 것일까요?

화석에너지 소비 비중이 높은 나라: 중국, 미국, 인도

---

(2) 에너지소비량과 탄소배출량 간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4 이산화탄소 배출의 문제를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찾아봅시다.

Wrtn

<https://wrtn.ai/>

(1) 지난 몇 년 동안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증가했나요?

(2)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 세계의 기온은 얼마나 상승했나요?

(3)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늘어나면 지구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4)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방안(탄소중립사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에너지소비와 생산 측면에서 탄소중립사회 실현과 연관지어 말해 봅시다.

에너지 생산	에너지소비

## 고등학교급 생성형 AI 활용 지침

구분	고등학교
수업 활용 가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사의 지도하에 학생 직접 활용</li> <li>• 프로젝트 등의 보조교사로 활용</li> <li>• 서비스 약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부모나 법적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가정통신문 등 활용하여 보호자 동의 후 사용</li> </ul>
	수업 및 교육활동에서 활용할 경우 사전에 생성형 AI원리와 한계점, AI윤리적 사용에 대한 학생 교육 실시(필수)
	생성형 AI서비스 사용 시 약관을 통해 사용 가능 연령 확인(필수) * OpenAI 서비스의 경우 이용 약관에 따라 만 13세 미만은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만 13세 이상~만 18세 미만은 부모나 법적 보호자의 동의 필요. 교사는 법적 보호자에 해당하지 않음.
학생	생성형 AI 원리 및 한계점 이해
	방과후나 가정에서 사용 시에도 윤리적 활용 실천
교원	다양한 생성형 AI의 특징과 장단점 이해 및 교육적 활용
	생성형 AI 활용이 학생에 미치는 영향 관찰·연구
	업무 경감을 위한 업무 자동화에 활용하는 방안 탐색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에 대한 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인공지능 공공성 확보를 위한 현장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AI 영향 평가 실시(권장)</li> </ul>

※ 위 사항은 현재까지 발간된 ChatGPT 활용 가이드, 지침, 연구 결과 등을 참고한 잠정적 가이드로, ChatGPT의 활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거나 의무적 사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에도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생성형 AI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의 축적, 서비스 이용 약관의 변경, 학교 현장의 우수 대처 사례, 각계 각층의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 단, ChatGPT는 나이 제한으로 청소년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으므로 가정통신문 등으로 보호자의 허가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출처: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2023

## 왜 신재생에너지가 중요할까요?

### 진행방법

- 4~5인 모둠 4개조를 구성합니다.
- 세계와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현황을 파악하고 직접 신재생에너지 전문가가 되어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집중 탐구하는 활동입니다.
- 모둠별로 신재생에너지 전문가 활동을 진행합니다.
- 전문가 협동학습은 “에너지 다큐 영상 만들기”(영상 6분 내외)입니다.
- 이 활동은 수업 환경에 따라 다큐 스토리보드, 전문가 활동지 만들기 등 다양하게 변형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지도상 유의점

- 우리나라가 아직 신재생에너지 생산 비중이 낮고, 신재생에너지 활성화가 필요함을 인지하도록 합니다.
-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과학적 작동 원리, 처음 접하는 개념 등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참고 영상 및 사이트를 적절히 안내하여 도전 과제의 문턱을 조절합니다.
- ‘다큐’란 실제 있었던 사건을 꾸미지 않고 사실을 바탕으로 그린 것이란 뜻으로 에너지와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구성하면 됩니다. 모둠원이 함께 출연해도 되고, 내레이션만 하고 이미지로 영상을 편집해도 됩니다.

## 왜 신재생에너지가 중요할까요?

모둠명 :

구성원 이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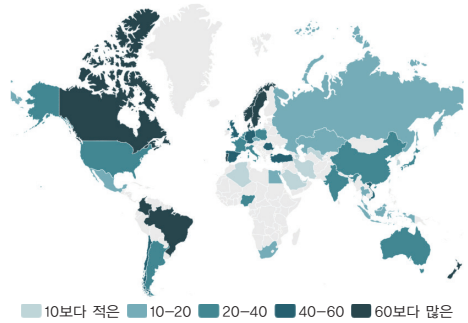
1 우리나라와 세계의 신재생에너지 생산 현황을 알아보시다.

신재생에너지 - 전력 생산 데이터

<https://yearbook.enerdata.co.kr/>

(1) 전기생산에서 신재생에너지 점유율이 높은 국가를 찾아봅시다. 그리고 그 이유를 찾아봅시다.

전기생산에서 신재생에너지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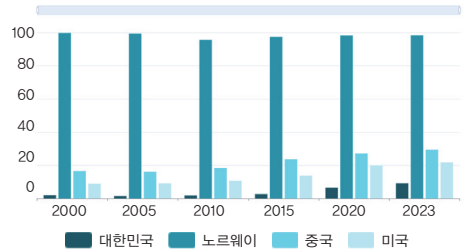


출처: Enerdata, 2009-2024

(2)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국가의 전기생산에서 신재생에너지 점유율 현황을 비교해 봅시다.

각국 벤치마크 평가

추세 1990 - 2023 - %



출처: Enerdata, 2009-2024



2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다음의 물음에 답해 봅시다.



출처: 게티이미지

애플은 2018년 4월 애플의 사무실, 데이터센터, 소매점 등 기업의 모든 활동에 소비되는 전력을 재생에너지 100%로 공급받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2020년 7월 애플은 부품 조달부터 서비스 제공에 이르는 전 사업 활동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를 포함하여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대담한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2021년 애플 공급사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한국 회사는 공급 지역 기준으로 23곳이었습니다.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를 비롯한 국내 대표 전자기업들이 대거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RE100은 기후위기 대응을 넘어 국내 주요 기업의 수출경쟁력에 직결되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출처: 그린피스, 2022

- (1) RE100이 무엇인지 관련 자료를 찾아봅시다.
- (2) RE100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 (3) RE100을 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4) 각국 정부와 기업이 RE100 경쟁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3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생산량 데이터를 찾아서 시각화하고 결과를 발표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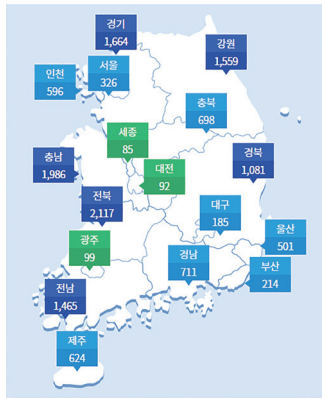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https://www.knrec.or.kr/biz/statistics/supply/supply01\\_02\\_list.do](https://www.knrec.or.kr/biz/statistics/supply/supply01_02_list.do)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별 발전소 위치

[http://nationalatlas.ngii.go.kr/pages/page\\_2253.php](http://nationalatlas.ngii.go.kr/pages/page_2253.php)

2021년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1천toe\*)      2021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toe)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태양열	
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	
지열	
수열	
바이오	
재생폐기물	
연료전지	
IGCC	
합계	

\* toe: Ton of oil equivalent(석유환산톤)

#### 4 직접 시각화해 봅시다.

##### (1) 데이터 수집 및 준비

- 세종특별자치시 전기사업(태양광) 설치현황

<https://www.data.go.kr/data/15081901/fileData.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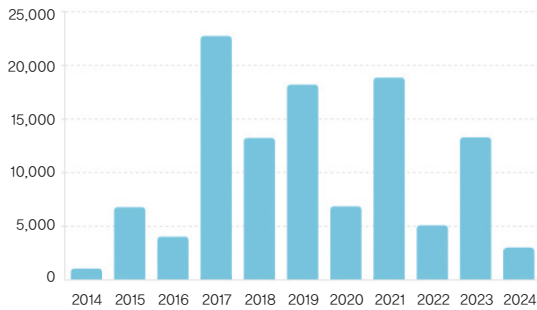
##### (2) 생성형 AI 활용

- Python

<https://www.python.org/>

세종특별자치시 태양광 설치 허가연도별 설비용량

Y 설비용량 (kw) X 허가연도



출처: OpenAI, 2024

5 신재생에너지 다큐 영상을 제작해 봅시다.

1	수소, 연료전지, 석탄가스/액화	3	수력, 수열, 지열
2	풍력, 태양광, 태양열	4	해양, 바이오, 폐기물

(1) 모둠의 대표가 4개 중 1개를 선택합니다.

(2) 제작 완료 후 함께 시청합니다.

(3) 질의응답 TIME!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각 해당 전문가에게 질의를 하고, 전문가들은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4) 탐구 활동 확인!

① 각 신재생에너지 사용의 장점과 어려운 점에 대해 얘기해 봅시다.

② 세계, 우리나라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에너지에도 정의가 필요해!

## 진행방법

- '2025 세계 에너지 포럼' 역할극을 통해 에너지정의 실천방안을 탐색하는 활동입니다.
- 역할은 총 9명(진행자 1명, 기초연설자 1명, 5개 회원국 정상 각 1명, 국제개발기구, NGO 대표 2명)입니다.
- 토의·토론 활동 시 역할에 상관없이 3~4인 모둠을 구성하여 함께 탐구하고 토의합니다.

## 지도상 유의점

- 역할이 주어진 9명의 경우 학생들이 역할에 따른 기초 지식을 쌓고, 역할극을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여 과도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패널로 토의·토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소외되지 않도록 지도합니다.
- 학생들이 세계를 개도국-선진국 등 이분법적으로 파악하거나 개도국 또는 선진국만의 문제로 지나친 일반화가 되지 않도록 발문 및 토론을 구성해야 합니다.
- 제3세계의 에너지 및 환경문제를 지역, 국가 그리고 세계의 다규모적 차원이 연계되어 있는, 보다 광범위한 정치경제적 상황으로 인식하며 환경과 발전,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에너지에도 정의가 필요해!

모둠명 :

구성원 이름 :

- ① ‘2025 세계 에너지 포럼’ 역할극을 통해 에너지정의 실천방안을 탐색해 봅시다.

- ◇ 장소: 대한민국, ( )
- ◇ 참가 규모: 파리협정 회원국, 정부기관, 회원국 주요 기업인, 국제개발기구, NGO, 학계 등
- ◇ 2대 의제
  - 선진국의 책임과 역할 강화
  - 에너지정의 실천

(1) 역할 나누기(학급 전체 인원 참가)

- 진행자: 1명
- 기업가: ○○자동차 회장 1명
- 회원국 대표: 대한민국, 미국, 중국, 인도, 노르웨이 각 1명  
(탄소배출 많은 국가, 탄소배출 적은 국가를 교사가 적절히 선택하여 구성합니다.)
- 국제개발기구 및 NGO 대표: 월드뱅크, 그린피스 대표 각 1명
- 학급 전체: 정부기관, 기업인, 학계 관계자 등

---

## (2) 방법

- 학생들은 본인이 맡은 역할 수행을 위한 대본을 작성합니다.
- 대본 작성을 마치면 모둠별로 각자 맡은 역할들에 대해 연습하고, 모둠원들과 함께 내용을 나누며 흐름을 이해합니다.
- 진행자는 세션의 순서대로 내용에 맞게 회의 진행멘트를 준비하고 회의 시작부터 끝까지 진행합니다.

## (3) 회의 순서

### ① 에너지전환과 지속가능성

- 진행자: 기업가는 기후위기와 에너지 불평등에 대한 기초연설을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준비합니다.
- 기업가: 기초연설을 발표합니다.

Wrtn

<https://wrtn.ai/>

### ② 탄소중립을 위한 과제

- 진행자: 각 회원국 대표를 정하고, 세계 각국의 탄소배출량을 파악해 봅시다. 각 국가의 점검 결과를 확인하고, 국가별 입장을 아래에 작성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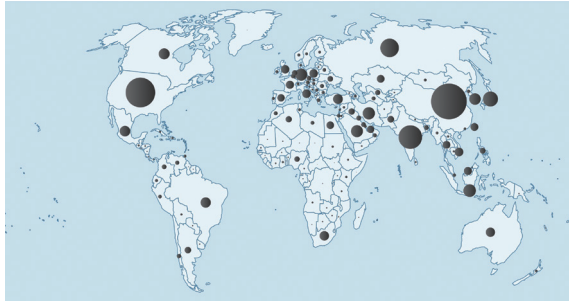
☑ 기후행동트래커 활용  
<https://climateactiontracker.org/>

<p><b>대한민국</b></p> <p>현재 범위 <b>매우 부족</b></p> <table border="1"> <tr> <td>요청된 국내 공약에 대한 정책 및 조치 <b>매우 부족</b> → 2°C 내지</td> <td>요청된 국내 공약에 대한 NDC 목표 <b>부족</b> → 2°C 내지</td> <td>요청된 국내에 대한 NDC 목표 <b>매우 부족</b> → 2°C 내지</td> <td>기후 공약 <b>평가되지 않음</b></td> </tr> <tr> <td>넷제로(Net Zero) 목표 연 <b>2050</b></td> <td>최종 범용 기준과 같이 평가합니다. 당첨하지</td> <td>표지 이용 및 일일</td> <td>중요하지 않음</td> </tr> </table> <p>출처: Climate Action Tracker, 2023</p>	요청된 국내 공약에 대한 정책 및 조치 <b>매우 부족</b> → 2°C 내지	요청된 국내 공약에 대한 NDC 목표 <b>부족</b> → 2°C 내지	요청된 국내에 대한 NDC 목표 <b>매우 부족</b> → 2°C 내지	기후 공약 <b>평가되지 않음</b>	넷제로(Net Zero) 목표 연 <b>2050</b>	최종 범용 기준과 같이 평가합니다. 당첨하지	표지 이용 및 일일	중요하지 않음	
요청된 국내 공약에 대한 정책 및 조치 <b>매우 부족</b> → 2°C 내지	요청된 국내 공약에 대한 NDC 목표 <b>부족</b> → 2°C 내지	요청된 국내에 대한 NDC 목표 <b>매우 부족</b> → 2°C 내지	기후 공약 <b>평가되지 않음</b>						
넷제로(Net Zero) 목표 연 <b>2050</b>	최종 범용 기준과 같이 평가합니다. 당첨하지	표지 이용 및 일일	중요하지 않음						
<p><b>미국</b></p> <p>현재 범위 <b>부족</b></p> <table border="1"> <tr> <td>요청된 국내 공약에 대한 정책 및 조치 <b>부족</b> → 2°C 내지</td> <td>요청된 국내 공약에 대한 NDC 목표 <b>거의 충분</b> → 2°C 내지</td> <td>요청된 국내에 대한 NDC 목표 <b>부족</b> → 2°C 내지</td> <td>기후 공약 <b>심화시켜 있음</b></td> </tr> <tr> <td>넷제로(Net Zero) 목표 연 <b>2050</b></td> <td>최종 범용 기준과 같이 평가합니다. 당첨하지</td> <td>표지 이용 및 일일</td> <td>중요하지 않음</td> </tr> </table> <p>출처: Climate Action Tracker, 2023</p>	요청된 국내 공약에 대한 정책 및 조치 <b>부족</b> → 2°C 내지	요청된 국내 공약에 대한 NDC 목표 <b>거의 충분</b> → 2°C 내지	요청된 국내에 대한 NDC 목표 <b>부족</b> → 2°C 내지	기후 공약 <b>심화시켜 있음</b>	넷제로(Net Zero) 목표 연 <b>2050</b>	최종 범용 기준과 같이 평가합니다. 당첨하지	표지 이용 및 일일	중요하지 않음	
요청된 국내 공약에 대한 정책 및 조치 <b>부족</b> → 2°C 내지	요청된 국내 공약에 대한 NDC 목표 <b>거의 충분</b> → 2°C 내지	요청된 국내에 대한 NDC 목표 <b>부족</b> → 2°C 내지	기후 공약 <b>심화시켜 있음</b>						
넷제로(Net Zero) 목표 연 <b>2050</b>	최종 범용 기준과 같이 평가합니다. 당첨하지	표지 이용 및 일일	중요하지 않음						
<p><b>중국</b></p> <p>현재 범위 <b>매우 부족</b></p> <table border="1"> <tr> <td>요청된 국내 공약에 대한 정책 및 조치 <b>매우 부족</b> → 2°C 내지</td> <td>요청된 국내 공약에 대한 NDC 목표 <b>매우 부족</b> → 2°C 내지</td> <td>요청된 국내에 대한 NDC 목표 <b>매우 부족</b> → 2°C 내지</td> <td>기후 공약 <b>평가되지 않음</b></td> </tr> <tr> <td>넷제로(Net Zero) 목표 연 <b>2060년 이전</b></td> <td>최종 범용 기준과 같이 평가합니다. 기난한</td> <td>표지 이용 및 일일</td> <td>중요하지 않음</td> </tr> </table> <p>출처: Climate Action Tracker, 2023</p>	요청된 국내 공약에 대한 정책 및 조치 <b>매우 부족</b> → 2°C 내지	요청된 국내 공약에 대한 NDC 목표 <b>매우 부족</b> → 2°C 내지	요청된 국내에 대한 NDC 목표 <b>매우 부족</b> → 2°C 내지	기후 공약 <b>평가되지 않음</b>	넷제로(Net Zero) 목표 연 <b>2060년 이전</b>	최종 범용 기준과 같이 평가합니다. 기난한	표지 이용 및 일일	중요하지 않음	
요청된 국내 공약에 대한 정책 및 조치 <b>매우 부족</b> → 2°C 내지	요청된 국내 공약에 대한 NDC 목표 <b>매우 부족</b> → 2°C 내지	요청된 국내에 대한 NDC 목표 <b>매우 부족</b> → 2°C 내지	기후 공약 <b>평가되지 않음</b>						
넷제로(Net Zero) 목표 연 <b>2060년 이전</b>	최종 범용 기준과 같이 평가합니다. 기난한	표지 이용 및 일일	중요하지 않음						
<p><b>인도</b></p> <p>현재 범위 <b>매우 부족</b></p> <table border="1"> <tr> <td>요청된 국내 공약에 대한 정책 및 조치 <b>부족</b> → 2°C 내지</td> <td>요청된 국내 공약에 대한 NDC 목표 <b>매우 부족</b> → 2°C 내지</td> <td>요청된 국내에 대한 NDC 목표 <b>부족</b> → 2°C 내지</td> <td>기후 공약 <b>해당 사항 없음</b></td> </tr> <tr> <td>넷제로(Net Zero) 목표 연 <b>2070</b></td> <td>최종 범용 기준과 같이 평가합니다. 기난한</td> <td>표지 이용 및 일일</td> <td>중요하지 않음</td> </tr> </table> <p>출처: Climate Action Tracker, 2023</p>	요청된 국내 공약에 대한 정책 및 조치 <b>부족</b> → 2°C 내지	요청된 국내 공약에 대한 NDC 목표 <b>매우 부족</b> → 2°C 내지	요청된 국내에 대한 NDC 목표 <b>부족</b> → 2°C 내지	기후 공약 <b>해당 사항 없음</b>	넷제로(Net Zero) 목표 연 <b>2070</b>	최종 범용 기준과 같이 평가합니다. 기난한	표지 이용 및 일일	중요하지 않음	
요청된 국내 공약에 대한 정책 및 조치 <b>부족</b> → 2°C 내지	요청된 국내 공약에 대한 NDC 목표 <b>매우 부족</b> → 2°C 내지	요청된 국내에 대한 NDC 목표 <b>부족</b> → 2°C 내지	기후 공약 <b>해당 사항 없음</b>						
넷제로(Net Zero) 목표 연 <b>2070</b>	최종 범용 기준과 같이 평가합니다. 기난한	표지 이용 및 일일	중요하지 않음						
<p><b>노르웨이</b></p> <p>현재 범위 <b>거의 충분</b></p> <table border="1"> <tr> <td>요청된 국내 공약에 대한 정책 및 조치 <b>거의 충분</b> → 2°C 내지</td> <td>요청된 국내 공약에 대한 NDC 목표 <b>1.5°C 목표일 최소 비용</b> → 1.5°C 내지</td> <td>요청된 국내에 대한 NDC 목표 <b>부족</b> → 2°C 내지</td> <td>기후 공약 <b>부족</b></td> </tr> <tr> <td>넷제로(Net Zero) 목표 연 <b>2025년</b></td> <td>최종 범용 기준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당 없음</td> <td>표지 이용 및 일일</td> <td>핵심요소로 고려할 가라앉다</td> </tr> </table> <p>출처: Climate Action Tracker, 2023</p>	요청된 국내 공약에 대한 정책 및 조치 <b>거의 충분</b> → 2°C 내지	요청된 국내 공약에 대한 NDC 목표 <b>1.5°C 목표일 최소 비용</b> → 1.5°C 내지	요청된 국내에 대한 NDC 목표 <b>부족</b> → 2°C 내지	기후 공약 <b>부족</b>	넷제로(Net Zero) 목표 연 <b>2025년</b>	최종 범용 기준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당 없음	표지 이용 및 일일	핵심요소로 고려할 가라앉다	
요청된 국내 공약에 대한 정책 및 조치 <b>거의 충분</b> → 2°C 내지	요청된 국내 공약에 대한 NDC 목표 <b>1.5°C 목표일 최소 비용</b> → 1.5°C 내지	요청된 국내에 대한 NDC 목표 <b>부족</b> → 2°C 내지	기후 공약 <b>부족</b>						
넷제로(Net Zero) 목표 연 <b>2025년</b>	최종 범용 기준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당 없음	표지 이용 및 일일	핵심요소로 고려할 가라앉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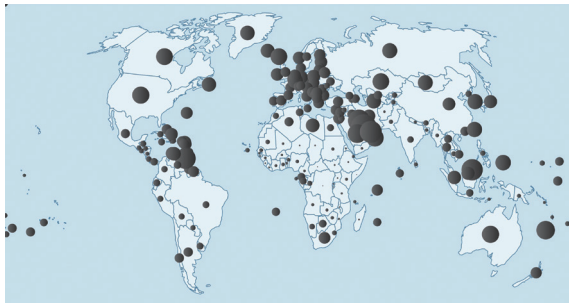
- 
- 회원국 대표: 각 국가별 입장을 발표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협력에 대해 토의해 봅시다.

### 세계 각국 이산화탄소 배출량 지도



출처: Global Carbon Atlas of the Global Carbon Project, 2022

### 세계 각국별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지도



출처: Global Carbon Atlas of the Global Carbon Project, 2022

### ③ 에너지정의 실현

- 진행자: 그린피스 대표와 국제개발기구 대표를 정하고, 에너지정의 실현을 위한 방법에 대해 논의해 봅시다.
- NGO 대표: 아래 기사를 참고하여 에너지 불평등 문제에 대해 알리고, 에너지정의의 촉구하는 발표문을 작성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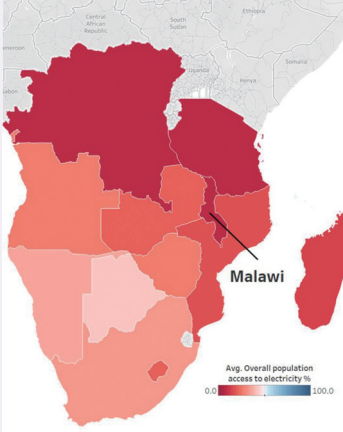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전환이 강조되고 있지만 세계 인구 6억 7000여만 명은 2030년에도 전기조차 없이 지내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유엔 산하기구들이 추정한 이 전기 미접근 인구 수는 지난해 예측했을 때보다 1000만 명 늘어난 것이어서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향한 진전 속도의 둔화를 시사한다. 보고서를 보면 지구인 3명 가운데 1명 꼴인 24억 명은 지금도 가축의 배설물이나 숯, 석탄과 같이 연소할 때 심한 연기나 유해가스를 방출해 건강에 해로운 저급 연료로 취사를 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약 7억 명은 누구나 콘센트에 플러그만 꽂으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전기에 접근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다.

출처: <한겨레>, 2022년 6월 6일 기사

- 학급 전체: 위 발표와 자료를 참고하여 '에너지정의'가 무엇인지 모둠별로 토의하고 정리해 봅시다.

에너지정의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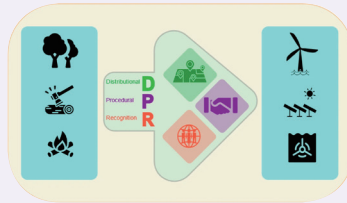
##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에너지정의 달성을 위한 방법



이 지도는 2010-2020년 동안 유엔개발 계획의 전기 접근성이 있는 인구 %를 보여줍니다(UNSTATS 2021). 어두운 빨간색 음영으로 표시된 국가는 전기 접근성이 가장 낮습니다. 말라위는 남부 아프리카(7.2%)에서 평균 인구 수가 가장 낮고, 콩고민주공화국(7.8%)과 탄자니아(8.8%)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출처: McCauley, Grant & Mwachungu, 2022

이 인포그래픽은 말라위의 목재 기반 에너지원(왼쪽 파란색 패널로 표시: 나무와 숲, 벌목, 목재 태우기) 사용에서 재생에너지 기술(오른쪽 파란색 패널로 표시, 풍력 터빈, 태양 전지판 및 조력 터빈)로의 에너지전환(열은 녹색 화살표)을 나타냅니다. 분배적 정의, 절차적 정의, 인정 정의의 렌즈를 통해 이러한 전환을 이루고자 합니다.



- 분배적 정의(D): 에너지 시스템 혜택에 대한 평등한 접근 보장
- 절차적 정의(P): 절차에 대한 공정성과 적법성 보장
- 인정 정의(R): 영향을 받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 보장(소외집단의 요구사항 반영)

출처: Pellegrini-Masini et al., 2020

## 개발도상국 - 에너지 개발과 환경



사진: <연합뉴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탄소배출국 중 하나로, 에너지의 약 90%를 석탄화력발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기업들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 투자하여 대규모 석탄발전소를 건설해 왔습니다. 이러

한 발전소들은 현지 경제에 일정한 기여를 하지만, 동시에 심각한 환경오염과 탄소배출 문제를 초래합니다.

출처: Schwikowski, 2021

나이지리아에서는 전기에 대한 접근이 중요한 과제이며, 2021년 기준으로 8,5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전기 없이 살고 있습니다.



©Shutterstock/Bilanol

나이지리아 정부는 이러한 과제와 전기 접근성 개선이 기업과 가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염두에 두고 5억 5천만 달러의 자금 조달 프로그램인 나이지리아 전기화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며 그중 3억 5천만 달러는 세계은행의 크레딧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5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깨끗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기를 제공하고 5,000개 이상의 녹색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출처: World Bank Group, 2023

- 
- 국제개발기구 대표: 개발도상국의 에너지 개발과 관련한 문제를 정치생태학적 관점에서 비판하고, 문제의 대안을 모색하는 발표문을 작성하고 발표해 봅시다.

키워드: (비관점) 권력불균형, 환경적 착취, 에너지 접근성 불평등 등 (대안모색) 지속가능한 개발, 지속가능한 기술 이전, 에너지민주화, 국제협력 강화 등

- 학급 전체: 기후변화 대응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책임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지 논의해 봅시다.

#### ④ 패널토론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의 노력

- 학급 전체: 선진국과 개도국의 책임과 역할 그리고 에너지정의 실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 봅시다. (역할 관계없이 모둠 3~4인 구성, 모둠별로 탐구하고, 전체 학생 토의 참여)

선진국과 개도국의 책임과 역할:

#### [에너지정의 실현방안]

국가:

기업:

지방정부:

개인:

## 나는 에너지 프로슈머! 에너지 자립학교를 만들어 볼까요?

## 진행방법

- 핵심활동 2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전문가 활동 모둠(4~5인 4개조)으로 구성합니다.
- “에너지 자립학교 만들기” 활동을 통해 직접 에너지 생산자 역할을 수행해 봅니다.
-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법을 조사하고 이를 우리 학교 사정에 맞추어 적용합니다.
- miro.com을 활용하여 전체 모둠의 아이디어 구성에서 실제 적용 및 실천 활동을 정리합니다.

## 지도상 유의점

- 학교 외부 전문가,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프로젝트의 범위를 확장하여 지도할 수 있습니다.
-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실습 및 실천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에너지 자립학교 프로젝트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 나는 에너지 프로슈머! 에너지 자립학교를 만들어 볼까요?

모둠명 :

구성원 이름 :

1 학교가 참여하는 에너지전환 사례를 알아봅시다.

(1) 에너지협동조합

### 지역 주민과 학교가 참여하는 에너지전환

강남햇빛발전협동조합(신림중·개웅중·건대사대부중)과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삼각산고)은 각각 서울시교육청과 협약을 맺고 학교 옥상에 햇빛발전소를 설치했다. 학생과 교직원 등이 조합원으로 참여해 발전수익을 나누고 학생들과 동아리 활동, 수업 등을 통해 태양광발전을 에너지 교육과 에너지 인식 전환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출처: <프레시안>, 2020년 4월 2일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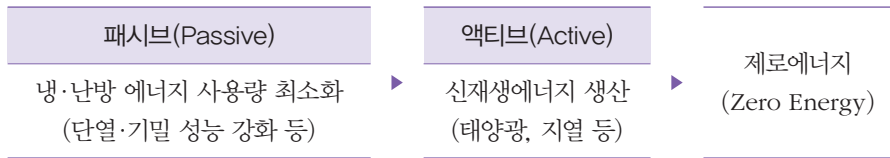
① 에너지 협동조합을 통해 어떤 걸 기대할 수 있을까요?

② 학교, 지방정부, 시민의 입장에서 예상되는 이점에 대해 알아봅시다.

학교	지방정부	시민

## (2) 탄소중립 제로에너지 학교

<p>(충청남도) 제로 에너지 그린학교: 정산중학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를 위한 제로에너지 인증 건축물(2020년 3월 개교) ※ 단열 성능을 높이는 패시브 기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액티브 기술 활용</li> <li>- 총 에너지 사용량의 40~60% 자체 생산 활용, 향후 태양광 잉여 전기 판매로 연 1,500만 원 재정 확충 및 지열 발전으로 연 600만 원 절감 등 예상</li> </ul>
--	--



출처: 환경부, 2021: 77

① 패시브 기술, 액티브 기술이 무엇인가요?

② 탄소중립이란?



출처: 환경부, 2021: 8



2 에너지 자립학교 밑그림을 그려 봅시다.

(1) 우리 학교에 적용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신재생에너지 종류	적용 이유	설치 위치
태양광발전		본교 A동 옥상

\*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키트 활용 가능함.

(2) 내가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찾아봅시다.

에너지 생산	에너지 효율	에너지소비

미로\* 사용법 안내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PPB6jSfqpc>

\* '미로'는 무제한 워크시트지라서 많은 양의 이미지, 글, 설계과정을 다 담을 수 있고, 한눈에 모든 모둠의 작업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활동에 유용합니다.

### 3 에너지 자립학교 만들기!

(1) 모둠별로 미로 워크페이지에 에너지 자립학교를 구상(아이디어 및 설계, 이미지 등)해 봅시다.

열화상카메라 이용하여 에너지 낭비되는 곳 찾기

압전소자 이용한 에너지하베스팅(공학, 기술과와 융합)

자가발전 전등 만들기(물리, 기술, 미술과와 융합)

바이오연료 만들기(과육에서 바이오에탄올 추출-화학과와 융합)

에너지소비를 줄일 수 있는 또는 생산할 수 있는 건축디자인(미술과와 융합)

## 그림 1 아이디어 예시

### 실천 가능한 아이디어 구상

#### 1. LED 조명 교체

- 학교 내 기존 조명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약.
- 조명 종류별 에너지 소비량 비교 및 효과 분석.



#### 2. 절전형 전자기기 사용 (에너지 소비효율 높은 전자기기)

- 교실 및 사무실 내 컴퓨터, 프린터 등 전자기기를 절전형으로 교체.
- 전자기기 사용 시 절전 모드 활용.



#### 3. 그린 인테리어

- 식물을 활용한 그린 인테리어를 학교 내에서 적용.
- 자연광 활용 및 실내 공기 질 개선을 통한 에너지 절약.



#### 4. 스마트 플러그

- 스마트 플러그를 통해 전자기기의 전력 소비를 모니터링하고 제어.
- 전기 사용 패턴 분석 및 절전 실천.
- 방과 후나 주말에 불필요한 전력 소비를 줄이기 위한 타이머 설정.



출처: 세종과학예술영재고 학생 활동지



## 에너지전환시대 에너지 시민성에 대하여

### 에너지전환이란?

에너지전환은 세계가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 그리고 안전에 대해 인식하면서 에너지 시스템의 변화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에너지전환 개념은 화석에너지로부터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원’만의 전환이 아니라 이와 연결되고 분리될 수 없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요소들도 동시에 변화하고 재배열되는 사회기술시스템의 전환이다. 근본적인 에너지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 변화가 수반되어야 하고 그 활동이나 대안 운동, 절약 운동, 정책 결정 과정의 참여 등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시각을 내포하고 있다.

에너지전환 정책의 핵심에는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을 통한 에너지소비의 절대적 감축이 놓여있다. 이 둘 모두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지 않고는 달성이 어렵다. 분산형 재생가능에너지 시스템 구축은 지금까지 자발적으로 진행되어 온 시민 발전소, 발전회사, 에너지 시민 협동조합 등의 지속적인 확대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웃과 카셰어링으로 자동차 연료를 절약하고 재생가능에너지 전기를 직접 생산하는 시민들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시민사회의 동력을 활용하고 ‘시민 포럼’, ‘시민 대화’와 같은 시민참여 정책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 에너지 시민성이란?

2000년대 중반 이후 ‘에너지 시민성’이라는 개념이 출현했다. 에너지 시민성의 생태시민성과 과학기술 시민성의 지향과 원칙을 공유하는데, 현재의 제한적

인 민주주의를 에너지 영역으로 심화, 확장하면서 에너지전환이라는 시대적 관제에 부합하는 새로운 시민성을 지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과거 에너지전환에 관한 연구가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시민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면, 이제는 시민참여를 에너지 시민성이라는 관점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대중들이 에너지 시스템의 전개 과정에서 단지 수동적인 소비자에 그치지 않고 보다 적극적인 능동적인 이해관계자로 등장하여 기후변화와 같은 에너지소비의 결과에 대한 책임 의식과 입지 선정 등과 관련된 환경적 형평성과 정의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궁극적으로 지역 차원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 프로젝트처럼 대안적인 에너지 행동에 나서는 것을 에너지 시민성으로 개념화한 것이다. 이러한 에너지 시민성을 가진 '에너지 시민'은 자기 이해를 벗어나 의사결정의 정당성이나 공정성에 관한 사회적, 정치적 행위자로 행동할 수 있고 때로 지역사회, 미래세대, 환경 복지에 지방적, 국가적, 지구적 책임감을 느낄 수 있다.

출처: 조철기, 2022: 101-106

**활용 팁:** 본 읽기 자료는 핵심활동 1,2와 관련있는 내용입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세계지리 에너지 관련 성취기준은 생태전환적 삶을 실천하는 능동적인 에너지 시민을 기르는 것인데, 에너지전환과 에너지 시민성의 개념에 대해 이해한다면, 학생들에게 에너지전환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학생들이 에너지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전달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정이란 무엇일까?

### 1 에너지정의

에너지정의 개념은 1980년대 미국 내 환경 불평등성에 대한 관심 증대로 등장한 환경정의에서 시작하여, 이후 적용 범위 및 대상이 확장되며 발전했다. 이후 환경정의 담론은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문제의식과 결합하여 기후정의로 발전되었으며, 에너지 시스템에 초점을 맞춘 에너지정의 개념이 등장했다. 기본적으로 에너지정의는 환경정의, 기후정의와 같은 철학을 공유하지만, 각각이 다루는 주제와 범위에는 차이가 있다. 에너지정의는 ‘모든 영역에 걸쳐 모든 개인에게 안전하고 저렴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출처: 이수민 & 김현재, 2022: 304

### 2 에너지는 인간의 기본권인가

2002년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빈곤층에 적절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게 필수 과제’라고 선언했다. 에너지를 공기, 물, 음식처럼 인간의 기본 권리로 인정한 것이다. 이전에는 깨끗하고 효율적인 에너지가 산업화된 국가들의 전유물처럼 취급됐지만 원래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천부인권에 속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전 지구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런 관점은 두 가지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첫째는 저소득층이나 개발도상국에게 전기나 난방 연료 같은 ‘현대적 에너지원’을 지원해야 하고, 이것은 국제사회의 의무나 마찬가지다. 현대사회에서 에너지와 직간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

지 않은 분야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복지, 환경, 교육, 보건, 산업, 농업 등 모든 분야가 에너지 사용과 형태에 영향을 받는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경우 학교와 가정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학생들의 생활권과 학습권이 크게 침해받고 있고, 이것은 빈곤의 악순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농부산물, 가축 폐기물, 목재, 나뭇잎 등을 태워 불을 피우는 재래 방식에 의존해 조리하기 때문에 여성들의 경우 건강권과 사회 진출 권리에 제약을 받는다. 따라서 깨끗하고 효율적인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은 각 분야의 기본권을 증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 둘째로 기존의 에너지 이용 방식이 온실가스 배출과 산림 파괴 등의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환경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에너지에 관한 보편적 접근권을 인정하면서도 환경 부하를 줄일 수 있어야 '지속가능한 성장'에 들어맞는다. 그렇게 하려면 화석연료와 재래식 에너지 생산을 넘어 새로운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재생가능에너지와 분산된 에너지 체계 도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민간 차원에서 아프리카와 아시아 각국에 지원하는 에너지는 태양광과 풍력 등 소규모 분산형 에너지원을 활용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각국에서 경제발전을 위해 지원하거나 개발하고 있는 생산방식은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 불가능한 기존의 발전 방식을 답습하고 있어서 염려를 자아내고 있다.

출처: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2013: 34-36

**활용 팁:** 본 읽기 자료는 핵심활동 3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에너지는 인간 삶의 기본권이므로 에너지 접근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과 에너지 문제의 연관성에 대해 이해하고, 에너지 불평등 문제를 탐구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수업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지역 정치생태학

### 정치생태학

환경과 사회 간의 관계를 광범위한 정치경제적 상황과 연계시켜 고려하는 접근 방법이다. 환경 이용과 관리에 시장 원리를 확대하려는 글로벌 노스(선진국) 주도의 환경 정치는 불평등한 권력의 부의 축적을 위해 사용하는 전략이므로, 환경과 발전 그리고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비판적 입장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제3세계 정치생태학

제3세계의 환경 이용과 관리에 대한 관심은 환경 악화에 집중된다. 소지역의 환경 악화에 대한 주류적 접근은 무분별한 환경파괴의 원인으로 인구증가를 강조하는 데 반해, 정치생태학 연구는 소지역을 둘러싼 국가, 세계의 정치경제 상황과 연계시켜 이해하는 접근을 강조한다.

### 아프리카 사헬지대 사막화

사막화에 대한 과학적 접근은 아프리카 열대 지방에서 지속적으로 가뭄이 나타나는 기후변화를 그 원인으로 꼽는다. 이러한 과학적 주장의 저변에는 환경과 인구에 관한 신팻서스주의적 입장이 논의의 주류를 이루는데, 핵심 개념인 수용 능력을 생태적 규칙으로 제기하며 이를 넘어서는 이용은 피해, 악화, 생산성 저하를 유발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이에 따른 사헬 지역에서의 관리 정책은 이동 목축업자를 한정하고 통제하여 정착시키는 정책을 실시한다. 또 다른 정책은 토



양 악화가 진행된 지역의 거주자를 새로운 지역으로 이주시키고, 이들을 교육시켜 새로운 적합한 농촌 경제를 형성하고 교육과 가족계획을 통해 인구성장을 억제하는 방법을 제도화하도록 권고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 주도의 광범위한 재정착에는 정치적, 경제적, 인간적 비용이 상당히 소요되는데, 이를 위한 선진국의 원조가 정착 등을 위해 유입되고 있다. 이러한 선진국의 아프리카 원조 계획은 의도는 좋았지만, 과잉 목축은 줄어들지 않았으며, 이로 인한 식생제거가 확대되며 사막화로 이어졌다. 주류적인 지속가능한 발전 문헌에서는 자연환경이 수많은 빈곤층의 손에 의해 악화 경로로 치닫고 있는 것으로 비추어진다.

정치생태학 연구는 환경 악화를 유발하는 토지 이용자의 대다수가 빈곤층이라는 기존의 일반화된 주장(주류적 관점)과 달리,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여건을 환경과 발전 문제의 핵심으로 고려하여 부유층을 책임자로 부각시키는 비판적 접근과 이해를 제시한다. 환경과 빈곤 간의 연계는 토지의 과도한 이용에 따른 환경 악화, 기근과 장기적 식량부족으로 이어진다는 신랄서스적 관점처럼 단순하지 않다. 환경 악화는 빈곤층의 생계 위협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이 빈곤층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이지 않다. 소지역의 환경문제는 농부의 경작 방법과 같은 지역 사회 경제의 산물일 뿐 아니라 지역, 국가, 세계적 규모의 정치경제의 산물이기도 하다.

출처: 권상철, 2016: 56-63

**활용 팁:** 본 읽기 자료는 핵심활동 3과 관련되며 에너지 문제와 정치, 환경 간의 상호작용과, 지역적 관점에서 에너지 불평등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가(또는 지역)의 에너지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서 누가 이익을 얻고, 누가 피해를 보는지 분석한다든지, 또는 학생들이 자신이 속한 지역의 에너지 문제를 다층적으로 탐구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프로젝트 등의 수업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서울시 에너지 자립마을

### 에너지 자립마을 추진 배경과 목표

기후변화와 에너지위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에너지소비를 줄이고, 에너지위기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에너지절약 및 생산을 함께 실행하는 지역 기반의 공동체를 조직해 활동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술 발달에 따라 에너지 효율화 정도나 재생에너지 생산 역량이 높아질 수는 있으나 시민의식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으면 에너지 사용량은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에너지절약, 효율화, 생산 활동을 기획하고 동일한 지역이나 공동체에 속한 이들을 활동에 참여시킴으로써 에너지 자립을 지향하는 시민을 양성해 낸다.

### 에너지 자립마을 분포

2012년 7개소로 시작했던 에너지 자립마을은 2018년 100개소로 확대되었다(그림 1). 2022년 251개소, 추후 50곳을 추가로 진행 예정이다(서울시 기후환경본부 환경시민협력과, 2022).





## 기후위기시대, 우리의 선택은?

### ☆ 주제 선정의 배경

전 세계 차원에서 기후변화의 심각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 이후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구 평균기온의 가파른 상승과 기후변화에서 비롯된 각종 재난 소식이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의 분기점이 되는 산업화 이후 지구 평균 상승 기온을 1.5℃ 이내로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면 1.5~2℃ 이상의 기온 상승이 거의 확실하다는 연구 결과가 쏟아지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기후위기와 관련된 전망이 결코 밝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는 전 지구적인 문제이지만 이로 인해 나타나는 사람들의 삶의 변화는 국가와 지역, 사회적 계층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기후위기로 인해 자연환경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이것이 지역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탐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후위기를 둘러싼 이슈로 전 지구적 자연현상을 이해하고, 다양한 지리적 스케일의 사회·경제적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탐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후위기를 주제로 하는 수업은 교사 입장에서조차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초적인 기후시스템과 지역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최근의 이슈와 쟁

점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세계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상기후 및 기상현상과 자연재해의 심각성은 기존 교과서의 설명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는 내용과 국가 간의 이해관계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무엇보다 기후위기 현상 자체와 그 영향들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그에 대한 대응과 해법에 대한 논의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교사 개인이 모두 알고 수업에 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과 변화의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면서 배우고, 해결 방안과 실천 과제 또한 함께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주제에 더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융합 선택 과목인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를 통해서 더 심화된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하면 좋습니다.

## ★ 핵심활동 활용 가이드

‘기후위기사대, 우리의 선택은?’ 수업에서는 4개 핵심활동을 통해서 기후위기를 둘러싼 각종 이슈를 다루고,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방안과 활동을 살펴보고 합니다.

핵심활동 1에서는 기후위기를 둘러싼 새로운 단어가 다수 등장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서 최근 기후변화를 둘러싼 이슈와 쟁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술가들의 메시지와 가열화 줄무늬를 통해 현시대에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얼마나 깊이 다가와 있는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핵심활동 2에서는 기후위기로 인한 극한 기후현상, 기후 재난이 지역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고 과거와는 어떻게 다른지 살펴봅니다. 또한 먹거리 문제와 같이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문제 등에 대해서 탐구해 보도록 합니다.

핵심활동 3에서는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가 국가, 지역, 계층 등에 따라 불평등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아봅니다. 사례를 통해 국가와 집단 간의 입장과 이해관계 등이 다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핵심활동 4에서는 기후위기 문제해결을 위해 개인이 할 수 있는 일, 지역과 국가 등이 해야 하는 일 등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또한 학생들의 진로와 관련해서 기후위기의 문제가 나의 삶에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살펴봅니다.

### 3 학습목표 및 성취기준

<b>학습목표</b>	<p>[지식·이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고, 그 피해가 지역과 계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기후정의의 관점에서 이해한다.</p> <p>[과정·기능] 국제사회 및 국가와 지역 차원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영향에 대해 찾아서 탐구한다.</p> <p>[가치·태도] 기후변화의 문제가 불평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것을 알고 기후정의의 관점에서 지역과 사람들의 문제에 공감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태도를 갖는다.</p> <p>[실천·행동] 기후위기시대 대응에 대해 개인, 지역사회와 국가, 국제사회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행동한다.</p>
<b>성취기준</b>	<p>[12세지02-01] 세계의 다양한 기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후를 활용하거나 극복한 사례를 찾아 인간생활과의 관계를 탐색한다.</p> <p>[12세지04-02] 세계 주요 환경문제의 유형과 실태를 설명하고, 생태전환적 삶에 비추어 현재의 생활방식을 비판적으로 점검한다.</p>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 3대학습영역	인지적 영역	1. 지역·국가·세계의 체계와 구조	
		2. 지역·국가·세계 차원에서 공동체 간의 상호 작용과 연계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	○
		3. 암묵적 가정과 권력의 역학관계	○
	사회·정서적 영역	4. 다양한 차원의 정체성	
		5. 사람들이 속한 다양한 공동체와 공동체 간의 상호연계 방식	○
		6. 차이와 다양성의 존중	
	행동적 영역	7. 개인적·집단적으로 취할 수 있는 실천	○
		8. 윤리적으로 책임감 있는 행동	○
		9. 참여하고 실천하기	○

#### ★ 기본 용어 설명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1988년 공동 설립한 국제기구로,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규명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수년 간격으로 각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기후변화정책을 수립할 과학적 근거가 될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2023년 6차 평가보고서(AR6)를 발표했습니다.

### **유엔기후변화협약**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온실가스의 방출을 규제하기 위한 협약으로, 1992년 브라질 리우회의에서 처음으로 채택되었으며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the Parties)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3차 당사국총회(COP3)에서는 온실가스의 구체적 감축목표를 설정한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고,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1차 총회(COP21)에서는 세계 197개국이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신기후체제를 규정한 파리기후변화협약(파리협정)이 채택되었습니다.

### **1.5도 상승과 2도 상승(1.5 °C and 2 °C of Global Warming)**

2015년 파리협정에서는 당사국들이 인류사 최초로 지구 온도 목표를 설정했는데, 선진국들뿐 아니라 개도국들도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참여하기로 하고 개별 국가가 자발적 감축목표를 정했습니다.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에 비해 2도 상승 이내로 제한하자는 것이며, 더 노력해서 1.5도 상승을 넘지 않도록 하자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2018년 IPCC가 발표한 1.5도 특별보고서 및 여러 연구에 의하면 1.5도 상승과 2도 상승은 매우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구 기온 상승을 최소화하는 것이 인류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 기후변화 문제는 얼마나 심각할까요?

### 진행방법

- 올해의 단어와 사전에 새롭게 등재된 기후변화 관련 용어를 찾아 의미를 살펴보고 그 단어가 등장한 배경과 영향 등에 대해 탐구해 봅니다.
-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경고하는 예술가들의 작품 사례를 찾아보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 가열화 줄무늬(warming stripes)의 사례와 강이연 작가의 미디어아트를 살펴보고, 다른 국가와 지역을 선택하여 자신만의 캠페인 작품을 만들어봅니다.

### 지도상 유의점

- 옥스퍼드 사전에 등재된 단어의 의미를 찾을 때,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지도합니다. 너무 어려운 단어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느끼고, 긴급한 이슈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 예술가들의 작품은 제시된 것 이외에도 학생들의 관심에 따라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음악, 미술, 미디어아트, 행위예술, 설치 예술 등 다양한 작품의 형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 가열화 줄무늬는 홈페이지에 글로벌 데이터 외에 국가와 도시(지역)별 데이터가 제공됩니다. 우리나라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학생들이 거주하는 도시 또는 인근 지역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업이 진행될 시점의 바로 전년도에 추가된 막대의 색깔을 통해 기온 상승 정도를 확인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 기후변화 문제는 얼마나 심각할까요?

모둠명 :

구성원 이름 :

- ① 아래 기사를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해봅시다. 올해의 단어로 선정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2019년 올해의 단어로 ‘기후 비상사태’가 선정된 사실이 전 세계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 올해의 단어 ‘기후 비상사태’

영국 옥스퍼드 사전이 2019년 올해의 단어로 ‘climate emergency’(기후 비상사태)를 선정했다고 일간 <가디언>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기후 비상사태’는 ‘기후변화를 줄이고, 이로 인해 잠재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환경 피해를 피하기 위해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으로 정의됐다. 옥스퍼드 사전 측은 ‘기후 비상사태’가 그동안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용어였다가 2019년 가장 눈에 띄고, 중요하게 토론된 용어 중 하나였다고 선정 배경을 밝혔다. 옥스퍼드 사전 측은 자체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기후 비상사태’ 검색은 올해 100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옥스퍼드 사전의 올해의 단어는 그해의 사회적 기풍이나 분위기, 화제 등을 반영하며, 문화적으로 중요한 용어로 오래 지속되는 잠재력을 가져야 한다. 옥스퍼드 사전에 앞서 콜린스 사전은 이달 초 올해의 단어로 ‘기후 파업’(climate strike)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출처: <연합뉴스>, 2019년 11월 21일 기사

- 2 2021년 옥스퍼드 사전은 기후변화에 관한 새로운 표현을 대거 등재했습니다.  
한번 알아보시다.

### 옥스퍼드 사전도 “긴박함 반영”

세계적 권위의 옥스퍼드 영어사전이 기후변화에 관한 새로운 표현을 대거 등재했다. 출판부는 트위터에서 “기후위기를 둘러싼 논의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올해 우리도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어휘 범위를 확대하고 검토하는 프로젝트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사전에 새로 등재된 표현으로는 다음과 같은 단어들이 있었다.

- 기후 재앙(climate catastrophe)
- 기후 위기(climate crisis)
- 기후 행동(climate action)
- 기후 부인(climate denial)
- 기후 난민(climate refugee)
- 기후 파업(climate strike)
- 기후 정의(climate justice)
- 지구 가열(global heating)
- 자연 자본(natural capital)
- 넷제로(net zero)

출처: <뉴시스>, 2021년 10월 22일 기사

(1) 옥스퍼드 사전에 새로 등재된 표현 중, 몇 개의 단어를 골라 그 의미에 대해 알아봅시다.

단어	단어의 의미	등장 배경, 사용의 예 등
(예) 기후 파업	기후변화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대중 시위에 참여하기 위해 학교나 직장에 가지 않는 행위	스웨덴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시작해서 널리 알려진 '기후를 위한 학교 파업 시위' 등에서 유래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큰 호응과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음.

(2) 기후변화와 관련해, 가장 공유하고 싶은 단어 또는 새롭게 만들고 싶은 단어가 있다면 그 이유와 함께 설명해 봅시다.

3 다음 예술작품의 사례를 감상하고, 그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폴란드 음악가 시몬 바이스가 연주하는 비발디의 '사계'

<https://www.youtube.com/watch?v=PYCR39-8YQw>

이탈리아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에이나우디, 북극해 빙하 위에서 연주

<https://youtu.be/dHpHxA-9CVM?si=-RSo9VeLM7who8rO>

정크 아티스트 알레한드로 두란

<https://alejandroduran.com/>

대지 예술가 아그네스 데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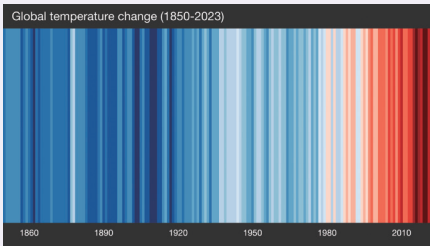
<http://www.agnesdenesstudio.com/works1.html>

## 질문

- 작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자.
- 대표 작품은 무엇인가?
- 작가는 작품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하여,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4 가열화 줄무늬를 활용하여, 기후변화 문제를 표현하는 예술작품을 기획해 봅시다.

### 가열화 줄무늬(warming stripes)



©Ed Hawkins

- 2018년 영국 레딩대학교 기후학자 에드 호킨스 교수에 의해 처음 만들어졌다.
-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단순한 형태의 디자인을 고안했다.
- 세로줄 1개는 1년을 나타내며, 1961~2010년의 평균기온 대비 낮으면 파란색, 높으면 붉은색으로 표현하고, 상승과 하락 수치가 높을수록 진하게 표현된다.

(1) 가열화 줄무늬 사용 사례를 보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 봅시다.

다양한 사용 사례 살펴보기

<https://showyourstripes.info/showcase/>

강이연 작가 미디어아트 0.4 감상하기

<https://youtu.be/ARr34iNN-lo?si=DEoEoWG6zosX9Lrl>

(2) 다른 국가와 지역을 선택하여 가열화 줄무늬를 이용한 자신만의 캠페인 작품을 만들어 봅시다.

### 질문

-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하여 어떤 메시지를 담고 싶은가?
- 어떤 형태의 작품을 만들 것인가?
- 누구를 대상으로, 어디에 전시(또는 공연)하고 싶은가?



출처: 상명고등학교 가열화 줄무늬 활용 수업

## 기후변화-누가, 무엇이, 왜 위기일까요?

### 진행방법

- 최근 이슈가 된 기후재난 상황사례에 대해 조사합니다. 모둠별로 지역 또는 국가나 유형(폭염, 폭우, 가뭄, 강풍 등)을 나누어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 조사한 내용을 모둠별로 간단한 판넬을 제작해서 전시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심각성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합니다.
- 기후변화와 식량 및 과일재배 환경변화를 통해 기후변화가 생태환경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사람들의 식량, 질병 및 건강 등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 지도상 유의점

- 기후 재난의 피해 상황을 조사할 때, 너무 특정 대륙(지역)이나 선진국(혹은 개발도상국)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합니다.
- 과거의 기후변화 사례를 통해, 기후변화의 문제가 현재 우리의 식량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 열대과일 재배의 문제를 생산자(농민)와 소비자의 입장에서 각각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를 토론을 통해서 생각하고 느껴볼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국내 열대과일 재배지역의 복상은 지구온난화의 영향이 일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기술 발달에 의한 시설재배(온실 등)의 영향이 큼니다. 기후변화에 의한 극한 기후(이상기후) 현상에 의한 농업 피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열대과일을 재배하는 동남아시아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 기후변화-누가, 무엇이, 왜 위기일까요?

모둠명 :

구성원 이름 :

1 주목해야 할 최근의 기후 재난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시다.

지역	유형
 <p>©Shutterstock/matsukiyo8379</p>	(폭염 / 폭우 / 가뭄 / 강풍 / )

(1) 기후 재난의 기본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해 봅시다.

피해 지역	
피해의 종류와 규모	
피해 대상	

(2) 재난의 주요 원인은 무엇일까요?

직접적인 원인	
간접적인 원인	



---

(3) 이전에도 발생하던 재난인가요? 그렇지 않다면 어떤 점에서 다른가요?

2 생태환경, 먹거리의 변화 사례를 탐구해 봅시다.

(1) 아일랜드 대기근을 불러온 기후변화에 대해 살펴봅시다.

1300년대부터 1800년대까지 이어진 ‘소빙기’와 그 이후 기후변화의 시점에 식량의 상당 부분을 감자에 의존하던 아일랜드는 심각한 기아에 직면하게 된다. 1840~1850년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사하고, 200만 명 이상이 다른 나라로 이주하게 된다. 감자 단일 작물 재배, 병충해, 사회구조적 문제 등이 원인으로 꼽히지만, 그 배경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이 컸다고 한다.

① 1300년대~1800년대 아일랜드 대기근의 상황과 원인을 조사해 봅시다.

② 기후변화는 당시 유럽 국가들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2) 열대과일 재배를 둘러싼 주요 쟁점과 지구온난화와 관련해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알아보시다.

### 기후위기가 바꾼 한반도 과일지도

한여름에 폭염과 호우특보가 동시에 내리는 ‘도깨비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국내 과일지도가 변하고 있다.



©Shutterstock/Catchiangmai

높은 위도에 추운 날씨로 열대식물 재배를 엄두도 못 냈던 강원 양구 지역에서는 현재 70~80여 개 농가가 10여 년 전부터 멜론 농사를 하고 있다. 오히려 농가의 고민은 여름 기온이 너무 높아지는 것이다. 양구에서 멜론을 키우는

송원휘(59) 유정농장 대표는 “아무리 열대식물이라도 35도를 넘으면 못 견디고 습한 날씨가 지속되면 썩어버릴 수 있다.”며 “(기온이) 높을 땐 하우스 온도가 40~45도까지 올라간다. 이때 환기나 천장 개폐로 열을 빼야지, 안 그럼 애들(멜론)도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했다.

식품업계도 과일 산지 변화를 인지하고 있다. 이마트는 친환경·유기농 특징을 가진 열대과일 상품을 확대하고 있다. 2020년부터 경남 산청 재배 유기농 바나나를 판매하는 게 대표적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2~3년 전부터 강원도 임계 지역 사과 산지 물량을 운영 중”이라며 “2021년 전후로는 충북 충주와 전남 나주의 한라봉 판매를 시작했고 제주산 친환경 레몬

상품도 운영 중”이라고 했다.

다만 올라간 기온과 더불어 기후 불안정성도 커지면서 농가의 고심도 만만치 않다. 농민 사이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날씨로 생육에 대해 쓰는 영농일지가 무의미해졌다는 토로도 나온다.

출처: 〈헤럴드경제〉, 2023년 8월 14일 기사

### 한반도에 뿌리내리는 열대과일들, 이대로 괜찮을까

현재 한반도에 뿌리를 내리는 아열대 작물들은 파파야나 망고, 구아바 등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정부가 선정한 농촌 미래 소득원에도 아열대 채소와 과일 20종이 포함될 정도다. 김천환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연구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패션프루츠, 망고, 구아바, 용과, 파파야를 비롯해 최근에는 아메모야, 스타프루트, 아보카도 등도 재배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전통 과일을 재배하던 농가들이 열대과일로 작목을 전환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기온상승으로 인한 병충해나 품질하락, 소득 등의 문제가 영향을 미쳤다. 이전에는 난방비 부담으로 실험단계에 머무르던 제주도 내 파파야 재배의 경우 난방을 틀지 않아도 되는 날이 늘어나면서 감귤에서 파파야로 작목을 바꾸기도 한다.

열대과일의 재배지도 북상 중이다. 2001년 제주에서만 재배됐던 망고는 현재 전남·경북 등 내륙으로 북상하며 전국 150여 농가에서 재배 중이다.

패션프루츠는 경북과 충북에서도 생산이 가능하며, 멜론 역시 강원도 양구에서 재배된다. 지난해 최북단 경기 파주에선 애플 망고가 첫 수확에 들어갔다.

기후변화로 인한 열대과일의 국내 재배 증가와 작목의 다양화로 덕을 보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 전문가들은 득보다 실이 점점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를 표한다. 기후변화가 멈추지 않고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이다. 한빛나라 기후변화센터 커뮤니케이션실 실장은 “한반도 평균기온 증가는 전 지구 평균 증가보다 높다.”며 “기후재해로 돌발 병해충 및 외래 잡초, 농경지 침수와 토양유실 등 농업 기반이 약화될 위험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토종 과일의 설 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걱정도 나온다.

출처: <헤럴드경제>, 2018년 2월 2일 기사

(3) 우리나라 기존 농업 작물 대신, 열대과일을 재배하는 것에 대해 농민과 소비자의 입장을 찾아 정리하고, 계속 재배해야 하는가에 대해 토론해 봅시다.

생산 농민	소비자

## 기후변화는 왜 불평등하게 나타날까요?

### 진행방법

- 자료(기사, 지도)를 보고 기후변화에 의한 피해가 심각한 지역과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 나타나는 지역을 글로벌 차원에서 구분해 보도록 합니다.
-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해당 국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 입장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크게 나타나는 지역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정부, 지역 주민, 비정부기구(NGO) 활동가, 국제기구, 선진국 등)의 입장과 주장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피해 지역 지원을 위한 국제(모의)회의를 열어, 국제사회가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지를 논의해 보도록 합니다.

### 지도상 유의점

- 기후변화 문제에 책임이 더 큰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각 주체별 입장 차이에 대한 설명을 통해, 각 입장에 공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자연스럽게 기후정의와 관련된 내용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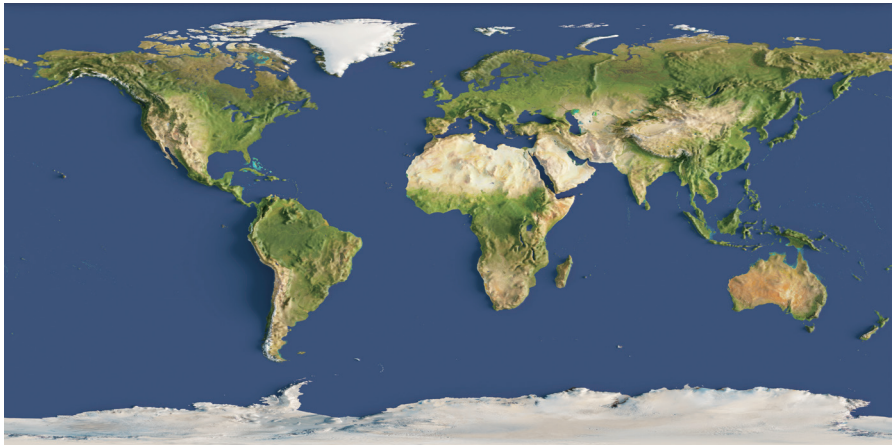
## 기후변화는 왜 불평등하게 나타날까요?

모둠명 :

구성원 이름 :

① 기후변화 피해가 심각한 곳과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곳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 다음 기사를 읽고, 인구가 유출되는 지역(적도 주변)과 유입되는 지역(고위도 지역)에 일어나게 될 각각의 변화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 Shutterstock/Cherdchai Chaivimol

### 과학 저널리스트 가이아 빈스 “더워진 지구, 기후 이주 불가피”

“인류는 지난 1만 5천 년 동안 안정적인 기후 속에서 번영하며 지배종이 될 수 있었다. 우리는 지구의 생태계를 결정하고, 심지어 기후와 대기의 온도까지 변화시켰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기후에 직면해 생활방식에 큰 위협을 받게 됐다.”

영국의 과학 저널리스트 가이아 빈스는 2일 일본 〈닛케이 아시아〉와 한 인터뷰에서 ‘2050년까지 12억 명의 기후 난민이 발생할 것’이라는 글로벌 싱크탱크 경제평화연구소의 보고서를 인용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인류가 야기한 기후변화로 인해) 적도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북쪽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고, 국경·이민·도시 건설 방식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빈스는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 요소로 폭염, 화재, 가뭄, 홍수 등 네 가지를 꼽았다. 이런 기후재해가 농업 활동을 위협해 식량문제를 야기하고, 해수면 상승 등을 유발해 많은 지역을 인간이 살기 힘든 땅으로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한겨레〉, 2024년 1월 3일 기사

(2) 다음 기사를 읽고, A그룹의 국가, B그룹의 국가 중 하나를 대표해서 국제사회에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작성해 봅시다.

기후위기로 인해 전 세계 소득이 2049년까지 평균 19% 줄어들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류가 이미 배출한 온실가스로 인해 초래될 경제적 피해만 따진 것입니다.

특히, 피해 상당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저소득국가에 집중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상된 소득 손실 정도는 지역별로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예컨대 A그룹(유럽·북미)에서는 약 11% 수준의 소득 감소가 예상됩니다. 반면, B그룹(아프리카와 서아시아 국가)에서는 소득이 22% 줄어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논문 1저자인 Maximilian Kotz 박사는 “북미와 유럽을 포함한 대부분 지역에서 심각한 소득 감소가 예상된다.”며 “남아시아와 아프리카가 받는 영향이 가장 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차이가 더 뚜렷합니다. 연구진이 예측한 소득 손실은 영국 7%, 미국·독일·일본 등은 11%, 프랑스는 13% 등이었습니다. 한국은 14%의 소득 손실이 예상됐습니다. 가장 큰 소득 손실이 발생할 국가로는 카타르(31%)가 꼽혔습니다. 이어 이라크(30%), 파키스탄(26%), 말리(25%)가 뒤를 이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경제 손실이 불균형하게 발생함으로써 국가간 불평등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사실이 재확인된 것입니다.

출처: <그리니엄>, 2024년 4월 18일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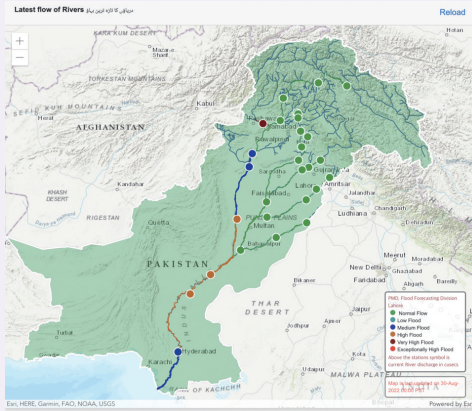
A그룹 국가 중, ( 캐나다 )	B그룹 국가 중, ( )
<p>최근 발표된 연구 결과에서 우리 캐나다를 비롯한 북극권의 국가는 소득이 상승하고, 상대적으로 저위도 국가들의 경제적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구온난화로 인한 극지방의 환경변화는 매우 심각하고 그 피해를 우리 캐나다는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일부 농산물 생산량 증가 등이 과대 평가되었다고 보여질 뿐입니다. 오히려 산불 등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우리 캐나다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훨씬 많은 국가들이 기후변화에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며, 해당 국가들의 온실가스 감축 및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합니다.</p>	

2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1) 다음 사례에 대한 각각의 인물이 처한 입장과 주장을 정리해 봅시다.

<p>① 파키스탄 정부 고위 관계자 최근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대홍수는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 국제연구팀(WWA, 세계기후특성)에 의하면 기후변화가 이번 집중호우의 강수량을 50~75%까지 키웠다고 합니다. 지구 평균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2℃도 오르지 않았을 때보다 비의 양이 50%도 이상 더 많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것은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한 주로 부유한 나라와 그 나라의 소비자에게 그 원인이 있습니다. 속히 우리 파키스탄이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p>	<p>② 큰 피해를 본 신드주 주지사 우리 신드주는 파키스탄 식량 생산의 40%를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하지만, 홍수에 쏟아진 물의 대부분은 북부 고산지역 빙하지대에서 흘러왔음이 분명하고, 그 책임은 지구온난화의 주범 국가들이 져야 합니다. 파키스탄 중앙 정부는 우리 주 정부를 최우선적으로 지원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긴급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식량과 옷가지는커녕, 당장 마실 물도 부족하고, 금새라도 전염병이 돌 수도 있어, 특히 어린아이들이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p>
<p>③ 북부 고산지역 초입 마을의 한부모 모자가정</p>	<p>④ 큰 피해를 본 아프가니스탄 접경 폐쇄와르에 있는 NGO 활동가</p>
<p>⑤ ‘피해 복구 기금’ 모금과 집행을 주장하는 국제단체 대표</p>	<p>⑥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선진국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 정부 대표</p>

(2) '파키스탄 홍수피해 지원' 국제(모의)회의를 열어서, 파키스탄에 대한 지원을 논의해 봅시다.



인도 서부, 남아시아에 위치한 인구 2억3천만 명의 세계 5위 인구 대국인 파키스탄은 현재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겼다. 2022년 6월 이후 계속된 폭우와 홍수 때문이다. 수몰 면적은 26만km<sup>2</sup> 정도로, 한때 이 나라 식민

출처: 파키스탄 기상청 지 중주국이던 영국의 국토

면적보다 넓다. 집은 물에 잠기고 건물은 떠내려가고 도로는 유실됐다. 집 117만 채와 학교 2만2천 곳, 5735km의 도로와 철로, 246개 다리가 흠탕물 아래로 사라졌다. 파키스탄 정부는 8월 25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어린이 340만 명을 포함해 640만 명의 주민이 이재민이 됐고, 국민 7명 중 1명꼴인 3300만 명이 홍수 피해를 봤다. 9월 20일 파키스탄 재난관리청은 홍수로 1559명이 숨졌고 이 가운데 어린이가 551명이라고 밝혔다. 피해가 커지자 세계보건기구는 파키스탄에 임시진료소 4500곳을 세웠다. 천막을 세워 급히 만든 이재민 캠프에는 화장실이 없다. 말라리아와 뎅기 열 같은 감염병이 유행하고 급성설사, 장티푸스, 홍역 환자가 늘고 있다.

출처: <한겨레21>, 2022년 9월 26일 기사

---

지난 6월 이후 계속되는 폭우로 1천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파키스탄에서 홍수 사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파키스탄 국립재난관리청은 28일 폭우와 홍수로 지난 24시간 동안 119명이 추가로 사망했다고 밝혔다고 〈AFP 통신〉 등이 보도했다.

매해 여름 찾아오는 몬순은 작물 경작에 필수적이지만 홍수 피해도 일으켜왔다. 특히, 올해 강우량은 일부 지역에서는 평균보다 6배가 많은 데다, 2달 동안 계속돼 큰 홍수 사태를 야기하고 있다. 파키스탄 정부는 이번 몬순에 의한 홍수 사태를 ‘기후 재앙’으로 규정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주변 국가에 도움도 요청했다. 북부에서는 홍수로 범람한 물이 산악 지대에서 내려오는 눈 녹은 물들과 섞여, 피해가 커지고 구조도 어려워지고 있다. 세리 레만 기후장관은 비가 그칠 때쯤이면 “파키스탄의 4분의 1, 혹은 3분의 1이 물에 잠겨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출처: 〈한겨레〉, 2024년 7월 14일 기사

## 기후위기시대,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 진행방법

- 기후위기시대에 대한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어떤 부분에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생각해 봅니다.
- 개인, 지역사회, 국가, 국제사회 등에서 실천할 일을 각각 작성해 보도록 합니다.
-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와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보고 기후위기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계획해 보도록 합니다.
- 모둠 안에서, 또는 모둠별로 작성한 내용을 발표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지도상 유의점

- 단순히 개인의 실천만 강조하거나 특정 분야 또는 전문가의 기술 개발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지양하도록 하고, 가능한 모든 창의적인 방법을 살펴보고 다양한 생각을 인정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진로에 단순히 친환경, 기후 등의 키워드만 추가하는 것이 아닌, 개인과 사회의 방향성에 대해 고민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기후위기시대,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모듬명 :

구성원 이름 :

① 다음 글을 읽고 기후위기시대 극복을 위한 실천방안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 기후위기의 시대,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대응방식으로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가뭄, 폭염, 폭풍우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증상을 완화시키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후변화를 완화하거나 억제하는 기술이나 기후를 의도적으로 바꾸는 지구 공학을 해결책으로 들먹입니다. 그러나 모든 기술은 양면성을 지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편익을 가져다주기도 하지만 필연적으로 폐해를 동반합니다. 기술적 노력 이외에 국제적인 협약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는 노력들도 있습니다. 잘 알려진 것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입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 또한 국가 간의 불신 및 각국의 이해관계 등의 충돌로 별다른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탄소배출 ‘주범’으로 꼽히는 주요국이 겉으로는 기후위기 대책을 쏟아내지만, 정작 이를 실행하는 데 속도를 내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합니다.

###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비록 상황이 비관적이고 여러 가지 실천의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생존과 관련된 이런 문제를 내팽개치거나 뒷전으로 미루어둘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6번째 대멸종을 얘기하는 시점에서 우리는 여전히 이를 문제로 인식하고 과학기술은 물론 정치, 경제, 철학, 윤리, 안보 등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론적으로든 실천적으로든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게다가 우리는 행동을 멈출 수도 없습니다. 인류의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거나 침묵하는 것은 결국 생태적 파멸이라는 악의 승리를 무력하게 지켜보는 비극을 앞당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행동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출처: 김완구, 2022

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개인, 지역, 국가, 국제사회는 각각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어떤 한계가 있을지 써 봅시다.

기후위기시대 대응에 있어서 ( )의 역할은 왜 중요한가?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어떤 한계가 있는가?	

3 관심 있는 진로 분야에서 기후변화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기후변화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탐구해 봅시다.

(1) 내가 관심 있는 진로 분야는 기후변화로 인해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가 탐구해 봅시다.

해당 직업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 (예상되는 변화, 미래 전망 등)
전자제품 기획 및 디자인	에어컨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에너지 효율이 좋고, 설치가 간편한 제품이 요구되고 있음. 모든 전자제품에서 ‘발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큰 과제가 되고 있음. 팬을 돌려서 공기로 냉각하던 방식에서, 물과 다른 냉매를 사용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함. 전자제품 전반에 날씨(기온) 이슈가 크게 나타나면서, 이 직업에 대한 수요가 늘어, 전망이 좋다고 생각됨.

(2) 다음 몇 가지 직업 예시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봅시다.

해당 직업	기후위기 대응 실천 전략
건축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 건축 (에너지 제로 하우스 주택 설계)</li> <li>- 탄소배출이 없는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주택단지 설계 및 시공</li> </ul>
제품 디자이너	

(3) 내가 속한 지역과 공동체, 국가, 세계에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어떤 부분을 실천하고 기여할 수 있는가 생각해 봅시다.



## 예상보다 더 빠른 '지구온난화'... '가까운 미래에 1.5도 상승'

기후위험 증가로 극한현상 심화... 산불에 1억 명 노출되고 산호 99%는 멸종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보고서에 따르면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은 최근 1세기 동안 전 지구 지표 온도 상승을 일으켰다. 산업화 이전인 1850년~1900년과 비교했을 때 2011년~2020년 지표 온도는 1.09도 상승했다. 온실가스를 구성하는 주범으로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가 꼽혔다. 1850년부터 2019년 누적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160~2640기가톤 이산화탄소(GtCO<sub>2</sub>: 1기가는 10억)로 추정됐다. 누적 배출량의 42%는 1990년 이후 배출됐다. 특히 2019년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0년 대비 12% 증가한 수준으로 최근 배출량의 급증세가 관측됐다.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으로는 에너지, 산업, 수송, 건축 분야와 농림, 산림, 토지 사용 등 인간의 다양한 활동이 꼽혔다. 이렇게 배출된 온실가스는 인간을 포함한 육상, 대기, 해양, 빙권 등에서 광범위하고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는 기후변화로 이어졌다. 특히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뭄 증가, 산불, 홍수, 집중호우 등 물리적 기후 조건의 부정적인 변화가 두드러졌다. 보고서는 지금과 같이 지속적인 온실가스 배출 추세가 이어진다면 가까운 미래 거의 모든 시나리오에서 지표면 온도 상승폭이 1.5도에 도달할 것이라 전망했다. 새로운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향후 1세기 지표면 온도 상승폭은 1.4~4.4도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기후 온난화가 심화하면서 기후위험도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간과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극한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후위험이 야기하는 질병에 대해 노출은 잦아지면서 대응력은 낮아진다는 분석이다. 생물다양성은 감소하고 인간이 건강에 치명적

인 폭염에 노출되는 일수가 지금보다 10일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작물 생산성 또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기후위험은 생태계별로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됐다. 예를 들어 지구 지표면 온도가 4.5도 상승하는 시나리오에선 산불에 1억 명 이상이 노출될 것으로 예상됐다. 해양과 해안에선 지구 지표면 온도가 2도 상승했을 때 산호의 99%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됐다.

### 실행 가능하고 효율적인 대책 시급

보고서는 2020년대 말까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없다면 2100년까지 지구 지표면 온도는 3.2도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구 지표면 온도 상승폭 목표치인 1.5도 또는 2도를 달성하기 위해선 이산화탄소 배출에 상당한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현재 지구 지표면 온도 상승폭 목표치인 '1.5~2도 시나리오'에서 전 지구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2025년 사이에 산업화 이후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보고서는 기후 온난화가 야기하는 기후위험은 앞으로 더 복잡해지고 연쇄적으로 발생할 것이라 분석했다. 지금보다 대응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이야기다. 이러한 이유로 실행 가능하고 효율적인 적응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기후 온난화의 향후 양상에 따라 효율이 낮거나 제약이 따르는 대책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출처: <동아사이언스>, 2023년 3월 21일 기사

**활용 팁:** 본 읽기 자료는 핵심활동 1, 2와 관련하여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IPCC 보고서는 기후변화가 과학적 사실이라는 것을 국제적으로 인정한 근거로 기후변화에 대한 전 인류의 대응이 시급함을 알 수 있습니다.

## 기후위기와 인권의 상관관계

기후위기가 살인, 강간, 가정폭력과 같은 개인적 폭력, 집단 간 폭력과 정치 불안정, 그리고 통치 기구 등 제도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한 연구가 많았다. 그러나 기후변화와 갈등 사이의 인과관계를 뚜렷이 확정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상당수 있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2019년, 정치학자, 경제학자, 환경학자, 지리학자 등 각 분야 전문가 11인이 전문가 판단 조사 방법을 활용해서 기후 갈등 연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발표되었다. 이들은 국가의 역량, 집단 간 불평등, 주변국과의 갈등, 소득 불평등, 정부 불신 등의 직접적 영향이 기후변화보다 더 즉각적인 갈등을 야기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이들은 20세기 동안 기후변화가 갈등 리스크를 3~20퍼센트가량 상승시켰다는 결론도 함께 내렸다.

장기적 기후변화가 간접적이고 맥락적인 방식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수치는 기후-갈등 연계의 증거가 상당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런 식의 영향은 조절된 매개효과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급격한 개시로 나타나는 기후재난이 간혹 직접적으로 폭력 갈등을 야기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그와 동시에, 기후변화가 기존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요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갈등과 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역시 이러한 이원적 접근을 통해 기후변화가 갈등을 직접 촉발하기도 하지만, 갈등이 발생하는 맥락적 메커니즘에 영향을 주는 간접적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케냐를 비롯한 동아프리카 지역의 갈등을 기후변화와 연관해서 분석한 2017년의 보고서가 이런 접근을

잘 보여준다. 첫째, 경작과 목축에 의한 수입이 줄면서 다른 유목민의 가축을 약탈하는 등, 조건이 악화되면서 지역사회에서 갈등이 고조될 수 있는 조건이 조성된다. 둘째, 유목민들의 이동 패턴이 바뀌면서 폭력 갈등 리스크가 커진다. 그러잖아도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 외부인들이 이주해 오면 토착민과 이주민 사이에 자원 획득 경쟁과 갈등이 발생한다. 물과 목초지를 둘러싼 충돌이 대표적이다. 양쪽이 동의할 수 있는 갈등해소 제도의 완충장치가 없는 곳에서 이런 충돌이 더욱 격렬하게 나타난다. 셋째, 무장 집단이 활동하는 지역에서 기후변화는 그런 집단의 전술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녹음 우거진 수풀이 사라지면 병력의 은폐가 어려워진다. 병력과 군수물자의 이동도 기후 패턴의 영향을 받게 되고, 폭우와 태풍은 군사작전에 장애요인이 된다. 넷째, 지배 집단들 사이에 강한 정치적 갈등이 이미 존재하는 나라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갈등이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면 지배 집단들은 그 기회를 악용하곤 한다. 지역사회의 불만을 더 큰 차원의 정치적 갈등에 편입시켜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는 호기로 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역 내 불만, 안보 불안, 내전, 인종청소 등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연결 고리가 생긴다. 이처럼 기후변화는 갈등과 무장 충돌을 직접 발생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갈등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의 맥락을 바꿔놓음으로써 갈등을 격화시키고 장기화하기 쉽다.

출처: 조효제, 2020: 270-272

**활용 팁:** 핵심활동 3에서는 기후변화가 차별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는 인권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으며, 국가와 지역뿐 아니라 사회와 경제적인 계층에 따라서도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가난하거나 어리거나... 기후위기와 불평등은 얽혀있다

미국 스탠퍼드대 마셜 버크와 그 동료들이 2015년 <네이처>에 발표한 논문에서 연평균 기온과 경제 사이에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생산성은 연평균 기온이 13도인 나라가 가장 크고 13도에서 떨어질수록 떨어진다. 기온이 너무 높거나 낮지 않아야 생산성이 높은 것이다. 지금까지 일어난 지구 가열로 추운 나라는 최적 기온 13도에 다가가면서 혜택을 받았고, 더운 나라는 최적 기온에서 멀어지면서 피해를 보았다. 가난한 나라는 대부분 더운 지역에 있어서 지구 가열에 더욱더 심각한 영향을 받았다. 특히 열대 가난한 나라는 기후 영향을 많이 받는 농업에 의존하므로 기후위기의 최전선에 놓이게 된다.

옥스팜과 스톡홀름환경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계층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분석했다. 1990년에서 2015년 동안 부유한 10% 사람이 전 세계 배출량의 약 52%를 차지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1% 사람은 인구 50%의 가난한 사람보다 두 배 이상 많이 배출했다. 지난 25년 동안 배출량은 60% 증가했는데, 상위 1% 부유층이 인구 50%의 빈곤층보다 3배 더 컸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허용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모든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이지만, 실제로는 이미 부유한 사람들이 과소비를 증가시키고 부를 더 모으는 데 대부분 낭비된 것이다.

기후위기로 타격을 입었을 때 소득과 자산의 손실 비율이 가난한 사람이 부유한 사람보다 더 크다. 부유한 사람은 위험에서 피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만, 가난한 사람은 위험을 피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피할 수 없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이 때문에 더 가난해지는 악순환이 일어난다.

기후위기는 각 계층에 끼치는 영향이 다를 뿐만 아니라 이에 대응하는 수단도 각 계층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 경제 불평등에 의한 소득 부족과 정치 불평등에 의한 권리 부족은 가난한 사람이 연안이나 하천의 저지대, 또는 산비탈과 같은 자연 재난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 살도록 내버려둔다. 연령과 성별도 기후위험의 취약성을 결정한다. 어린이와 노인은 혹독한 날씨에 더욱더 고통을 받는다. 가난한 나라 여성 대부분은 집 밖에서 연료와 물을 구해야 하므로 기후위험에 더 노출되고 노동이 더 힘들다. 빈곤층은 기후 피해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지원을 받는 데도 불리하다. 부유한 사람은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구매할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은 그러한 대비책이 없어 피해가 더 크다.

기후위기는 세대 간에도 불평등한 영향을 미친다. 기후위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지금 어린 세대는 기성세대처럼 사치스러운 이산화탄소 배출을 누릴 수 없다. 허용 가능한 배출량이 이미 대부분 소진되었기 때문이다. 벨기에 공공대학이 주도한 ‘극한 기후 노출로 인한 세대 간 불평등’에 관한 연구가 지난해 <사이언스>에 실렸다. 2021년에 태어난 어린이들은 60년 전에 태어난 사람들보다 평균적으로 7배나 더 많은 폭염, 2배 더 많은 산불, 거의 3배나 많은 가뭄, 홍수, 기근이 일어나는 지구에서 살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출처: <한겨레>, 2022년 2월 20일 기사

**활용 팁:** 본 읽기 자료는 핵심활동 3과 관련하여 기후변화로 인해 나타나는 불평등이 경제적 차이에 의해서도 발생하며, 세대 간에도 크게 나타남을 보여줍니다. 또한 기후변화의 핵심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하여, 지구온난화에 책임이 큰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 간의 불평등이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습니다.

##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위기를 위기로 다루기 시작하라:**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를 위기로 다루지 않고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행동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소중한 시간은 점점 더 줄어들 것이다.

**비상사태임을 직시하라:** 지도자들이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에 대처해야 할 임무를 방기해 온 탓에, 이제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일만 해서는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제 우리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거나 저탄소사회를 이루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물리적으로 가능한 선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0에 가깝게 줄여야 한다.

**실패를 인정하라:** 지금 당장 자연 파괴행위를 멈춘다 해도, 이미 우리의 생명 부양 시스템은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었다. 이것은 우리의 실패다.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실패다. 경제 시스템의 실패다. 그럼에도 우리는 파괴행위를 줄이려는 시도는커녕, 오히려 파괴행위를 가속화하면서 여전히 실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한 우리는 실수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없고 실수를 바로잡을 수 없다.

**모든 배출량을 빠짐없이 포함시켜라:** 우리가 당장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실제 배출량을 빠짐없이 기후 관련 통계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실제 배출량을 알 수 없다면, 어떻게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해 필요한 변화를 조직할 수 있겠는가? 실제 배출량이 통계에서 제외되어 온 사실만 보아도 우리 사회가 이제껏 기울여 온 노력의 실상이 어떤지 알 수 있다.

여러 위기의 연관관계를 파악하라: 삼림 벌채, 오염, 과도한 자원 추출 등으로 인해 생태계의 탄소흡수 능력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산업형 농업으로 토양과 강, 해안이 파괴되고, 생물권의 지속적인 파괴행위로 잠재적인 대량멸종의 위험과 전체 기후시스템의 불안정화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자연을 파괴함으로써 새로운 팬데믹이 발생하기에 적합한 조건을 만들고 있다. 그러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환경만이 아니다.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최고 부유층과 극빈층 사이의 소득 격차가 터무니없을 만큼 크게 벌어져 있다. 이런 위기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어느 위기 하나만을 따로 떼어놓고 해결할 수 없다.

정의와 역사적 배상을 선택하라: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는 불평등과 사회적 불공정의 위기이기도 하다. 이 위기를 빚어낸 책임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 가장 큰 충격에 시달리고 있다. 따라서 이 위기는 사회적 불공정, 인종 불공정, 세대 간 불공정 문제, 즉 약 80억 명과 연관된 도덕적 문제다. 다 함께 전진할 수 있는 길을 찾으려면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야 한다. 우리는 이것을 기필코 이루어내야 한다. 다른 출구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 탄소 예산의 90퍼센트를 이미 써버린 나라들이 자신들의 행동이 빚어낸 결과를 직시하고 그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피해 보상은 그들이 해야 하는 최소한의 의무다. 사람의 목숨은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것이니 말이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을 외면하는 한,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진전할 수 없다.

출처: 그레타 툰베리, 2023: 542-553

**활용 팁:** 본 읽기 자료는 해당 주제를 마무리하며 행동 및 실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국가와 국제사회의 역할 외에 개인이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합니다.







##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꿈꾸다

### ★ 주제 선정의 배경

현재 우리는 세계화와 지역화가 공존하는 글로벌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은 전 세계를 하나로 묶어 상호의존할 수밖에 없는 세계로 만들었고, 지역과 지역이 더 촘촘하게 연결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개발의 수준은 국가와 지역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나며 저개발로 인한 문제 또한 지속되고 있거나 더욱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21세기를 앞두고 전 세계가 함께 협력해야 할 목표 8가지(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설정했습니다. 인류가 지속가능하기 위한 개발(발전)의 목표를 설정하고 전 세계가 함께 협력하기로 한 최초의 시도로 많은 부분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진보를 이뤘다고 평가됩니다. 2015년 이후에는 17개의 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설정하고 국제사회가 협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과거에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고 도왔지만, 현재에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구별하지 않고 전 지구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개발협력의 과정에서 형성되는 권력적인 지위, 이른바 주는 자와 받는 자의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협력하는 수평적인 개발협력을 강조하는 시대인 것

입니다. 한 명의 개별 시민의 경우도, 지역과 국가를 뛰어넘는 세계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협력하고 연대해야 합니다.

국제개발협력은 거대한 주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뉴스에 등장하는 전 세계 대부분의 지역 문제가 세계 각 지역과 연결되어 나타나는 글로벌 이슈이고, 세계화 시대에 여러 곳이 연결된 결과 발생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잘사는 나라가 가난한 나라를 도와주는 것이 아닌, 전 세계가 다양한 차원에서 많은 협력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우리나라가 많은 지역에서 다양한 국제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시로 보여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이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인가를 찾아볼 수 있게 하는 수업이 중요합니다. 이번 장의 핵심활동으로 세계 각 지역과 연대할 수 있고, 그것이 지구 반대편의 어려운 사람들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의 국제개발협력 프로젝트의 사례를 분석하고 다시 설계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가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역할극으로 각각의 주체들이 갖는 입장에 대해 공감하고,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성찰하며, 이를 토대로 협력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경험을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역의 자연환경 특성과 인문환경, 사람들의 삶에 관심을 갖는 지리 과목은 국제개발협력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과목입니다. 특정 지역에는 어떤 개발이 필요한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고 지역 주민들을 존중하는 개발을 어떻게 기획하고 실행해야 하는지, 국제적인 협력을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수준 높은 이해와 적용의 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제개발협력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개발 프로젝트들 또한, 지리 수업에서 배우는 주제들로 이

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 핵심활동 활용 가이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꿈꾸다’ 수업은 4개의 핵심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핵심활동 1에서는 지역과 국가 차원에서 개인이 개인을 돕거나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부분과 함께, 세계시민으로서 전 지구적 차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단순히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수준을 넘어, ‘개발’의 차원에서 어떻게 ‘협력’하는가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핵심활동 2에서는 국제개발협력의 실제 사례를 통해, 지역적 특성을 잘 이해하고 반영하는 개발협력이 무엇인가에 대해 비판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한 지역의 문제가 또 다른 지역과 깊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고, 그 중심에는 지역적 특성과 맥락을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핵심활동 3에서는 국제개발협력의 중요 원칙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인도주의적 활동의 원칙, 지역의 자연환경을 해치지 않는 것, 인권을 중요시하는 것, 윤리적인 책임이 따르는 미디어 사용 등에 대해 살펴봅니다.

핵심활동 4에서는 실제 국제개발협력 프로젝트를 기획하며 배웠던 것들을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 3 학습목표 및 성취기준

<b>학습목표</b>		<p>[지식·이해] 국제개발협력의 의미와 필요성을 이해한다.</p> <p>[과정·기능] 국제개발협력의 사례를 찾아서 조사한다.</p> <p>[가치·태도] 국제개발협력의 주체와 대상들의 입장에 공감하고, 개발협력의 가치와 원칙을 적용한다.</p> <p>[실천·행동] 개발협력 프로젝트를 기획하며, 의미있는 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p>	
<b>성취기준</b>		<p>[12세지03-03] 글로벌경제에서의 공간적 불균등을 해소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과 개인적 실천방안에 대해 조사한다.</p> <p>[12세지04-03] 세계 평화와 정의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실천한다.</p>	
<b>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 3대학습영역</b>	<b>인지적 영역</b>	1. 지역·국가·세계의 체계와 구조	○
		2. 지역·국가·세계 차원에서 공동체 간의 상호 작용과 연계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	○
		3. 암묵적 가정과 권력의 역학관계	
	<b>사회·정서적 영역</b>	4. 다양한 차원의 정체성	○
		5. 사람들이 속한 다양한 공동체와 공동체 간의 상호연계 방식	○
		6. 차이와 다양성의 존중	
	<b>행동적 영역</b>	7. 개인적·집단적으로 취할 수 있는 실천	○
		8. 윤리적으로 책임감 있는 행동	
		9. 참여하고 실천하기	○

## ★ 기본 용어 설명

### **국제개발협력(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전 세계 사회·경제적 발전의 격차를 줄이고, 개발도상국의 빈곤문제 해결을 통한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행동을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원조'의 개념보다 포괄적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이 강조됩니다.

###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를 의미합니다. UN에서는 GNI(Gross National Income, 국민총소득)의 0.7%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원조위원회**

#### **(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국제사회 원조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주요공여국 모임으로,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OECD DAC 회원국의 ODA/GNI 평균은 0.36%, 우리나라는 0.17%(2023년)입니다.

## 우리는, 그리고 세계는 왜 서로를 도울까요?

### 진행방법

- 수업 자료(영상자료 및 학습지)를 통해 학생들이 개인적인 경험과 생각을 돌아 보고, 모둠 안에서 친구들의 경험과 생각을 같이 들어볼 수 있도록 합니다.
- 다른 사람을 돕는 행위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모둠 안에서 나눠보도록 합니다.
- 공적개발원조(ODA) 통계를 통해, 국가 간의 원조(도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지도상 유의점

- 도움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는, 올해 또는 최근의 이야기를 하도록 합니다. 또한 모둠원 친구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도록 지도합니다.
- 개인이 개인을 돕는 행위와 국가가 국가를 돕는 행위 사이의 차이점에 대해서 인식하도록 합니다.
- 구체적인 국가명을 이야기할 때, 단순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또는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의 단순한 틀로만 이야기하지 않도록 지도합니다.
- 왜 '저개발'의 상태인가에 대해, 구조적(정치, 경제, 사회, 국제 관계)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을 지도합니다.
- 국제개발을 위한 '협력'은 가난한 나라에 대한 선진국의 원조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며 개발도상국 간의 협력,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협력,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협력을 얻어내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 우리는, 그리고 세계는 왜 서로를 도울까요?

모둠명 :

구성원 이름 :

- 1 자신의 주변에서 어려운 곳을 도와주었거나, 도움을 받았던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나의 이야기	모둠원 친구들의 이야기

- 2 참고 영상 및 질문지를 통해서 모둠 내 의견을 모아 봅시다.

- “한국은 선진국” 공식 인정...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도국→선진국’ 지위 변경  
<https://youtu.be/J5h2gHU2zu8?si=tNK3aMc2t0prg9mw>
- [국민리포트] 원조받던 한국... 이제 원조하는 나라로!  
<https://youtu.be/NryuS0TQWRw?si=YHacPZ7J9kHKwohe>



개인의 나눔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p>나는 나의 개인 소득에서 어느 정도의 금액을 다른 사람들, 또는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일에 기부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자. 기부하고 싶지 않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도 모둠 내에서 이야기해 보자.</p> <p>(1) 나는 총소득 규모에 상관없이 일정 비율을 기부할 수 있다. (○, ×)</p> <p>(2-1) (1번 항목에 ○를 한 경우) 나의 총소득의 ( %)를 기부할 수 있다.</p> <p>(2-2) (1번 항목에 ×를 한 경우) 나는 총소득이 (월 만 원)이 된다면 그중에 ( %)를 기부할 수 있다.</p> <p>(3) 나는 (2)의 금액을 다음과 같은 곳에 사용할 것이다. (복수 선택 가능)</p> <p>① 내가 아는 사람, 또는 내가 아는 사람과 관련된 기관과 단체</p> <p>②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어려운 사람을 직접 지원하는 일</p> <p>③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개발을 위한 사업에 지원하는 것</p> <p>④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넘어, 우리나라의 어려운 사람들과 지역을 지원하는 일</p> <p>⑤ 지구촌 어느 곳이든 어려운 사람, 지역과 국가를 지원하는 일</p>	<p>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일정한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여 개발사업에 사용하도록 ODA를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알아보자.</p> <p>(1) ODA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다음 중, 어느 것에 가장 가까운가?</p> <p>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영향이나 위치 등을 생각할 때, 선진국 수준의 ODA를 집행해야 한다.</p> <p>② ODA는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필요와 요구에는 부합하되, 최소의 금액을 집행해야 한다.</p> <p>③ ODA를 집행하되, 우리나라의 이익에 부합하는 부분에만 집행해야 한다.</p> <p>④ 국민의 세금을 다른 나라를 지원하는 데 사용하는 ODA 집행에 반대한다.</p> <p>(2) ODA 통계는 GNI(국민총소득) 비율로 나타낸다. 우리나라 ODA는 GNI 대비 몇 %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또는 국민 1인당 얼마를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p>
	<p>• 우리 모둠의 ODA 규모를 결정해 보자. GNI 대비 _____%</p>

(1) 위 질문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적어 봅시다.

(2) 모둠 안에서 각자의 응답, 그렇게 생각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3) 모둠 내 토론을 통해 모둠의 ODA 규모를 결정해 보고, 모둠 간 의견을 공유해 봅시다.

3 우리나라의 ODA(공적개발원조) 상황과 UN 권고기준, OECD 국가들의 상황 등을 비교해 봅시다.

#### 국제사회 주요 국가 대비 우리나라의 ODA 현황

- 2022년 ODA 지원 규모 상위 국가는 미국,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순이며 우리나라는 16위(OECD DAC 회원국 중)에 해당함.
- 2023년 우리나라 ODA/GNI 비율은 0.17%로 전체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0.37%의 약 1/2 수준임.
- 우리나라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스페인(0.30%), 이탈리아(0.33%)에 비해 낮은 수준
- 2023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ODA 지원액은 61달러 수준으로 DAC 회원국 평균 195달러에 많이 부족함.
- 1990년~2000년대 초반에는 ODA/GNI 비율이 0.1% 미만, 국민 1인당 ODA 지원액도 20달러 미만이었지만, 지속적으로 규모와 비율이 증가했음.

## 향후 정책 방향

- 최근 ODA의 꾸준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ODA/GNI 비율은 DAC 회원국 중 낮은 수준(0.17%)으로 유엔이 권고한 0.7% 및 DAC 회원국 평균(0.37%)에도 미흡한 바, OECD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ODA 확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 정부는 중기 ODA 확대 계획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맞도록 ODA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

그림 1 우리나라 ODA 지원 추이(2015~24년)



출처: ODA Korea, 2024: 9

- 4 다음은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의 인터뷰 내용의 일부입니다. 개인이 국제 사회의 어려움을 살펴보고 도움을 주는 행동과, 국가 차원에서 저개발 국가를 도와주는 것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또는 어떤 점에서 달라야 하는가에 대해 모둠별로 토의하고 발표해 봅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난민을 위해 써달라며 선뜻 기부한 시민이 있었습니다. 한국전쟁을 겪었기에 실향민의 아픔을 알고, 전 세계 몇 안 되는 난민법을 제정한 한국은 난민 이해도가 높은 나라로 손꼽힌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 7월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로 부임한 제임스 린치 대표는 “약 1년간 지켜본 한국은 유럽이나 미국 등에 비해 뒤늦게 난민 유입을 겪었음에도 대응 방식이나 시민의식은 오히려 더 성숙했다.”고 평가했다. 유엔난민기구에서 30년 넘게 일하면서 태국, 케냐, 라이베리아 등 10곳이 넘는 국가를 누빈 베테랑이지만 한국은 다소 특별했다고 한다.

“유엔난민기구로 들어온 민간 후원액이 전 세계 국가 중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시민들의 난민 지원도 적극적입니다. 특히 기업이 아닌 개인 후원이 많았다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전쟁을 겪었기에 난민이 겪는 고통에 공감하고 애정을 보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2020년 6월 9일 기사

- 
- (1) 개인적으로 해외 여러 지역의 어려움(자연재해 또는 분쟁 상황 등으로 인한 피해, 이주 및 난민 발생, 사회·경제적 피해 등)을 돕는 행위의 의미와 가치는 무엇일까요?
  
  - (2) 국가 차원에서 ODA를 통해 다른 국가와 지역을 돕는 행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 (3) 개인적 차원의 행위, 국가 차원의 행위는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을까요?
  
  - (4) 개인이나 국가가 국제사회의 어려움과 저개발에 대해 지원하는 행위에 대한 우리 모두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 국제개발협력의 실천, 무엇이 문제일까요?

### 진행방법

- 모둠별로 사례 카드 1장을 선택하여 카드에 나타난 내용(지역, 관련 주체들-지역 주민, 시민단체, 지방정부, 중앙정부, 관련 외국 기관 등)을 파악하고, 해당 기사 원문 및 연관 기사를 찾아보도록 합니다.
- 해당 지역의 핵심 문제를 파악하고, 인과관계를 표현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해당 지역과 연결되어 있는 주체(집단)와의 관계를 파악하도록 합니다.
- 문제가 발생하게 된 배경과 원인, 해당 문제로 나타나는 결과는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지역 주민들은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가를 탐구합니다.
- 외부의 도움과 지원이 필요한 문제인지 해당 지역과 국가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살펴보고, 개인과 지역사회, 지방정부, 중앙정부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등을 탐구합니다.

### 지도상 유의점

- 문제나무 활동 수행 시, 간단한 브레인스토밍부터 시작해서 각 원인과 결과를 연결시켜 나갑니다. 문제나무의 아래쪽으로 향할수록 더 근원적이고 1차적인 문제이고, 위로 갈수록 핵심 문제에서 파생되어 나가는 문제가 되도록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관련된 주체와 내용들을 접착 메모지를 통해 배열하거나, 에듀테크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모바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더 편리하고 익숙한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 국제개발협력의 실천, 무엇이 문제일까요?

모둠명 :

구성원 이름 :

### 1 국제개발협력 프로젝트 사례를 파악해 봅시다.

사례 1 (태평양 섬나라 솔로몬제도, 맹그로브 숲 보전)



호주 북동쪽에 있는 투발루, 솔로몬제도, 마셜제도, 키리바시 등 섬나라들은 긴급한 지구촌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들 마을 주변에는 우리네 소나무처럼 지천으로 널려 있어 빨갭으로 쓰거나 먹거리로 쓰고, 늘 조개나 게, 물고기와 같은 단백질원을 제공하는 숲이 있다. 바로 맹그로브숲이다. 그런데 너무 흔하고 늘 곁에 있었기에 사람들은 이 숲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했다. 쓸모없는 나무로 여겨서 베어내고 집을 짓거나 양식장을 만들거나 빨갭으로 사용했다. 그렇게 숲을 없애고 보니 지진해일이나 허리케인이 몰려왔을 때, 해안가 마을은 속대밭이 되었다. 천연의 방파제였던 맹그로브숲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출처: <고양신문>, 2024년 4월 1일 기사

사례 2 (콩고민주공화국 반군 콜탄 광산마을 점령)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이 동부 지역 콜탄 광산마을을 반군 M23에 점령당했다. 북부 키부 지역에 이어 추가로 광산마을을 점령당한 가운데 민주콩고 정부는 반군의 배후 세력으로 르완다를 의심하고 있다. M23은 지난해 2월 민주콩고 북부 키부 지역에 위치한 루바야 콜탄 광산마을을 점령했다. 당시 민주콩고 정부는 르완다 군대가 함께 루바야 콜탄 광산마을에 진입했으며 경제적 이익을 노리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출처: <더구루>, 2024년 5월 2일 기사

<p>사례 3 (베네치아, 위협에 처한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p>  <p>2023년 8월 2일(현지시간) 심야에 사람들이 해수면 상승으로 물에 잠긴 이탈리아 북부 베네치아의 산마르코 광장에 앉아있다. 지난달 31일 유네스코는 기후변화와 대규모 관광, 지속적 개발 등에 시달리고 있는 베네치아를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목록에 올려야 한다고 권고했다.</p> <p>출처: &lt;연합뉴스&gt;, 2023년 9월 15일 기사</p>	<p>사례 4 (튀르키예 지진, 시리아 난민촌 피해)</p>  <p>튀르키예 남부에서 발생한 규모 7.8 강진으로 시리아 난민이 다수 거주하는 가지안테프주와 카라만마라시주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lt;뉴욕타임스&gt;지가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을 인용해 6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튀르키예에는 시리아 난민 약 36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내전을 피해 튀르키예로 향했고, 튀르키예 정부는 2016년부터 난민을 수용하기 위한 캠프를 건설하기 시작했다.</p> <p>출처: &lt;조선비즈&gt;, 2023년 2월 7일 기사</p>
--	---

(1) 뉴스 기사 원문 및 연관 기사를 보고 등장하는 관련된 주체와 각각의 입장을 찾아서 정리해 봅시다.

구분		주체별 입장 및 주장
주체	전통 방식을 이어온 주민	
	양식장 경영에 나선 주민	
	지역 원로	
	환경 단체 활동가	
	정부	



(2) 해당 지역의 문제에 공감해 봅시다.

<p>해당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간략하게 설명해 보자.</p>	<p>내가 해당 지역의 주민이라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느낌과 감정, 생각을 이야기해 보자.</p>	<p>해당 지역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그렇지 않은가? 외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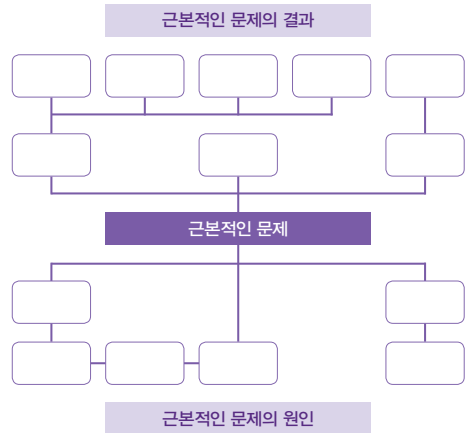
(3) 해당 지역의 특성을 탐구해 봅시다.

해당 지역	내용	
지역의 특성	자연환경 특성	기후, 지형, 생태환경 등
	사회·경제적 특성	산업, 경제활동, 소득수준 등
	역사·문화적 특성	관습, 종교, 이웃 구역과의 관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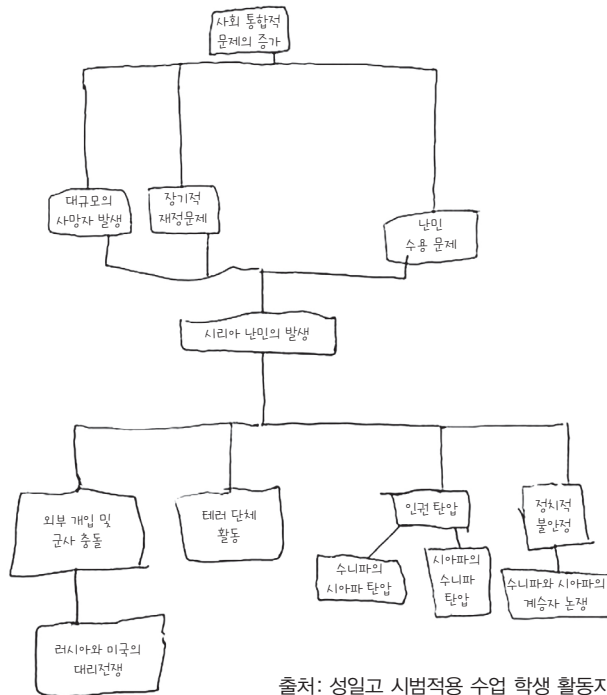
2 지역의 문제를 파악해 봅시다.

(1) 문제나무 분석

‘근본적인 문제(핵심 문제)’를 중심에 두고,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연결하며 원인을 찾습니다. 또한 핵심 문제로 인해 초래되는 결과, 그 결과와 연결되어 발생하는 일끼리 연결해 봅니다.



출처: 월드비전 한국, 2010: 194



출처: 성일고 시범적용 수업 학생 활동지

③ 문제해결에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무엇일까요? 주체들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면 누가, 어떤 역할로 참여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참여 주체		역할
지역	지역의 원로 지방정부 지역 내 커뮤니티	
국가	중앙정부 및 관계부처 핵심 기업 시민단체, 이익집단 등	
국제사회	UN 및 국제기구 국제 NGO 언론 및 SNS 미디어 등	

## 돕는 데도 원칙이 있다고요?

### 진행방법

- 모듈 구성은 핵심활동 2와 같은 형태로 합니다. 모듈별로 사례카드 1~4 중에 1장씩을 가지고 활동하게 됩니다. 각 모듈은 사례 1~4에서 나타난 국제개발 프로젝트의 긍정적인 점과 부정적인 점을 살펴봅니다.
- 각 개발 프로젝트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해당 지역 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경험하게 될 변화에 대해 예상해 봅시다.
- 비정부인도주의기구 행동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몇 가지를 찾아보고,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개발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들을 세워 보도록 합니다.

### 지도상 유의점

- 국제개발협력 프로젝트는 지역과 지역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 외부의 지원과 개발프로젝트는 지역에 해가 될 수도 있음을 생각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점만을 너무 부각해서 '개발협력에 동참하지 말아야겠다. 지원하지 말아야겠다.' 등의 부정적인 결론에 도달하지 않도록 유의해서 지도하도록 합니다.
- 영상자료와 미디어 가이드 등을 통해 빈곤 포르노의 문제를 생각해 보고, 각종 홍보와 캠페인 등의 문제도 찾아볼 수 있도록 합니다.

## 돕는 데도 원칙이 있다고요?

모둠명 :

구성원 이름 :

### 1 국제개발협력 프로젝트 사례를 파악해 봅시다.

#### 사례 1 긴급구호 물품이 암시장에?



재난 상황에서 긴급하게 구호 물품을 보내야 하는 상황에서 교통로의 상황이 열악하거나, 분쟁 등으로 인해 치안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항공기를 통해 일정 지역에 구호 물품을 투하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특정 세력이 구호 물품을 독점하여 암시장에 되파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 긴급구호 물품의 배분은 치안이 확보되는 상황에서 대단히 조심스럽게 진행되어야 한다.

#### 사례 2 무분별한 수자원개발



저개발국의 식수 개발 사업에 비영리단체, 정부, 기업 등이 나서면서 무분별한 개발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일정한 금액의 지원으로 물이 부족한 지역에 우물을 파는 사업은 단시간에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모금에도 효과적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이렇게 개발된 지하수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오염되거나, 너무 많은 우물을 파서 지하수가 고갈되거나, 지하수위가 낮아지면서 지반침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사례 3 원조, 자생적인 지역 경제에 악영향(?)



많은 기부와 원조가 이뤄지면서, 저개발 빈곤국의 일부 지역들은 건강하고 자생적인 지역 경제가 세워지지 못하고 있다. 기부금을 받은 기관은 손쉽게 그 돈을 지역에 다양한 형태로 지원하게 되고, 정상적인 생산과 소비로 이뤄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기부받은 물품이 암시장으로 흘러들고, 원조받은 식량에 의존하게 되면서 식량 가격이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사례 4 개발원조사업, 현지 환경·인권 상황 충분히 고려해야...



“댐이 건설될 경우 9개 마을이 수몰되고 7개 마을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몰 이재민이 생계와 전통문화를 잃고 떠나야 하는데 재정착 프로그램도 제대로 제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활동가 ○○○○는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며 댐 건설 중단을 촉구했다. ‘○○강 다목적사업’은 현재 2단계 공사를 앞두고 있지만 2012년부터 지진 발생 위험성, 비자발적 이주, 환경파괴 등을 이유로 지역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왔다. 현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공적개발원조 추진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비단 이 사업뿐만이 아니다.

출처: <연합뉴스>, 2018년 12월 18일 기사

<p>(1) 해당 지역에서 이뤄진 국제개발협력 프로젝트는 무엇인가?</p>	<p>긴급구호 물품 배분.</p>
<p>(2)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인가? 이 프로젝트는 왜 실시되었는가? 어떻게 실시되었는가?</p>	<p>재난 상황에서 긴급하게 구호 물품을 배분해야 했음.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치안을 확보할 수 없었고, 열악한 교통 상황으로 구호 물품을 빠르게 운송할 수 없는 상황임. 그래서 항공기를 통해 구호 물품을 공중에서 투하했음.</p>
<p>(3) 이 프로젝트를 통해 기대되는 지역의 변화는 무엇일까? 긍정적인 점 또는 부정적인 점에 대해 생각해 보자.</p>	<p>필요한 구호품이 빠른 시간에 주민들에게 전달되어, 긴급구호가 절실한 상황이 해소될 수 있을 것임. 하지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함. 특정 세력이 구호 물품을 독점하거나(특정 세력의 경제적 이익으로 포함됨) 구호 물품이 암시장에 풀리게 됨.</p>
<p>(4) 해당 지역 주민들이 겪어야 할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인가? 이 부분은 어떻게 해소될 수 있는가?</p>	<p>긴급구호가 필요한 상황이 해결되지 못했음. 생명과 건강에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음.</p>
<p>(5) 상황이 지속된다면 해당 지역은 중장기적으로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 혹시 우려되는 문제점이나 부작용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p>	<p>긴급구호가 필요한 상황이 개선되지 못할 수 있음. 그런 경우에는 긴급구호를 실시한 기관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또한, 사용된 재정은 긴급구호가 필요한 사람에게 사용된 것이 아니라, 특정 세력의 자금으로 유입되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음. 해당 지역은 특정 세력의 영향력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음.</p>

## 2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지역개발이 이뤄지려면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요?

국제개발협력 프로젝트가 이뤄지는 현장에서는 다양한 변수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기관의 입장, 지역 주민의 입장, 해당 상황을 바라보는 국제사회 다양한 주체들의 다양한 입장이 존재한다. 또한 언어와 문화가 다르고, 해당 지역의 자연환경 특성,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실현 가능하거나 불가능한 프로젝트가 있다. 그래서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 꼭 지켜야 하는 원칙들을 정해두고 그 원칙에 따라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된다. 보통은 각 기관과 단체의 입장이 반영되고,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권을 준수하는 방향에서 결정된다.

- (1) 지금까지 살펴본 국제개발협력 프로젝트의 사례를 우리 모둠에서 진행한다고 했을 때, 꼭 지켜야 할 원칙들을 만들어 봅시다.
- (2) 모둠원들이 생각하는 꼭 지켜야 할 원칙을 모두 적어 봅시다.
- (3) 토의 후에 우선순위를 정해서(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5~10가지 정도를 작성해 봅시다.



---

(4) 모둠끼리 발표하면서 서로의 원칙들을 비교해 봅시다.

#### 재난구호활동에 임하는 비정부인도주의기구 행동원칙

1. 인도적 원칙이 최우선이다.
2. 원조는 수혜자의 인종이나 국적, 종교의 구분 없이, 오직 필요성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3. 원조는 특별한 정치적 또는 종교적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4. 우리의 활동이 정부의 외교정책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5. 우리는 문화와 관습을 존중한다.
6. 우리는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현지 역량을 강화한다.
7. 구호 활동을 진행할 때 프로그램 수혜자들의 참여 방법을 모색한다.
8. 구호 원조는 기본적인 욕구에 부응하면서 향후 재난에 대한 취약성을 줄여나가야 한다.
9. 우리는 우리가 지원하는 이들과 우리를 지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책임을 진다.
10. 자료수집 및 홍보활동에 있어서, 우리는 재난 피해자들을 동정의 대상이 아닌 존엄한 인간으로 인식한다.

---

3 국제개발협력에서의 미디어 사용에 대해 생각해 보자.

(1) 다음 동영상을 보고 떠오르는 생각을 적고, 모둠에서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Let's save Africa! – Gone wrong'

[https://youtu.be/xbqA6o8\\_WC0?si=52rXBp\\_Wyp1tBlab](https://youtu.be/xbqA6o8_WC0?si=52rXBp_Wyp1tBlab)

(2)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국제개발 NGO들의 모금 '캠페인(광고)- 포스터 또는 영상'을 찾아서 비평해 봅시다.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미디어 가이드라인

<https://shorturl.at/FkbE5>

① 어느 기관의 어떤 프로젝트를 위한 캠페인(광고)인가요?

② 누구를 대상으로 한 캠페인(광고)인가요?

③ 캠페인(광고)을 보고 난 다음에 든 감정과 생각은 무엇인가요?

④ 참고 자료를 통해, 해당 캠페인(광고)이 잘 만들어진 것인지, 문제가 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모둠에서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비영리기관, NGO 등이 큰 금액을 지불하고 TV나 포털사이트 등에 '광고'를 게시하는 것, 특정 사례, 해당 스토리를 위해 대역 배우를 쓰는 것

## 국제개발협력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참여해 볼까요?

### 진행방법

- 해외 여러 지역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찾아서 개발협력 프로젝트를 기획해 보도록 합니다.
- 지역과 국가를 선정할 때, 관심 있는 지역과 주제를 좁혀서, 모둠원들과 논의하고 함께 찾도록 합니다. 기존 프로젝트의 문제점도 분석해 봅니다.
- 프로젝트와 관련된 주체들의 입장에 대해 각각의 모둠원을 배정하고, 해당 입장과 주장에 대해 발표하고 입장을 이해하도록 노력합니다.
- 함께 기획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모둠별로 발표합니다.
- 각 프로젝트에 대해 훌륭한 점, 부족한 점, 제안할 점을 제시합니다.

### 지도상 유의점

- 모둠 간 평가에서는 프로젝트 기획의 문제점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프로젝트가 만들어낼 수 있는 긍정적 변화에 초점을 맞추도록 지도합니다. 평가 과정에서 활동한 모둠이 생각하지 못한 참여 방법을 추가로 제안하도록 질문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 거창한 프로젝트보다는 해당 지역에서 진행할 수 있는 간단한 프로젝트를 기획하도록 합니다.
- 실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과 의미에 대해 고민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모둠원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 국제개발협력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참여해 볼까요?

모둠명 :

구성원 이름 :

### 1 지역과 주제를 선정해 봅시다.

지역	대륙별 주요 개발도상국, 저개발국 / 선진국 내에서도 특정 지역의 저개발 문제를 다룰 수도 있음
주제	빈곤, 교육, 아동노동, 에너지, 도시문제, 성평등과 인권, 분쟁(갈등) 문제와 평화, 자연재해,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농촌 저개발 문제, 질병과 보건 문제 등

### 2 지역의 문제를 파악해 봅시다.

(1) 지속가능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 주요 문제와 원인을 파악해 봅시다.

(2) 지역의 문제를 둘러싼 각각의 이해관계자 및 집단의 특성을 분석해 봅시다.

### 3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개발 프로젝트를 기획해 봅시다.

(1) 지역의 핵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2)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인적, 물적 자원 등)을 찾아봅시다.

(3)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주체들 (지역 주민, 지역 그룹, 정부, NGO 및 국제기구, 전문 연구기관 등이 해야 할 일, 협력할 수 있는 일 등을 찾고, 각 주체별로 모둠원을 배정해서 각각의 입장문을 작성해 봅시다.

지역 아동	지역의 원로	지방정부 단체장	국가의 관련 장관
나의 입장은~	나의 입장은~	나의 입장은~	나의 입장은~
유엔기구	국제 NGO 활동가	후원 국가의 개인 후원자	
나의 입장은~	나의 입장은~	나의 입장은~	나의 입장은~

4 내가,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1) 해당 프로젝트에 내가,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2) 해당 프로젝트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 '발전'의 의미

### 1 개발과 발전

국내에서는 SDGs에 대해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지속가능개발목표 두 가지 번역어가 동시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자는 환경부에서, 후자는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자는 국내 이행을 후자는 개도국에 대한 지원 즉 국제적 이행을 강조할 때 사용합니다.

출처: 이성훈, 2017: 5

### 2 자유로서의 발전

인도의 학자인 아마르티아 센은 사람들이 누리는 자유가 발전을 이끌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자유로서의 발전》이라는 책에서 사람들이 주체성을 발휘할 기회를 제한하는 '비자유'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 발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을 받을 기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 정치적 자유 등 개인이 실제 삶에서 어떤 일을 성취할 수 있는 실질적 자유도 중요하지만, 이를 실현하고 증진하기 위한 사회적 제도와 정책과 같은 도구적 자유를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출처: 로버트 포터 외, 2023: 25

### 3 발전권과 지속가능발전

“발전은 포괄적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과정이며, 발전과 환경 활동에 대한 적극적이고 자유롭고 의미 있는 참여와 그로 인한 이익의 공정한 분배를 바

탕으로 전체 인구와 모든 개인의 복지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1986년 유엔총회가 채택한 ‘발전의 권리에 대한 유엔선언(이하 발전권 선언)’ 서문의 내용이다. 1986년 유엔총회에서는 ‘발전권 선언’을 채택했다. 이후 발전권 선언이 진화해 온 과정은 인권과 국제개발협력 논의가 진화해 온 과정과 궤를 같이한다. 2016년 국제사회는 발전권 선언 발표 30주년과 동시에 새로운 목표인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립했다.

출처: 발전대안 피다, 2018

**활용 팁:** 본 읽기 자료는 국제개발협력에서 이야기하는 전체적인 ‘개발’의 의미를 둘러싼 여러 입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해당 주제에 대한 기본 배경의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누가 누구를 왜 돕는가?

### 1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구분?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 모든 국가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른바 잘 사는 국가가 못 사는 국가를 원조하는 의미의 '개발을 위한 원조'보다는, 보다 나은 지구촌을 위한 포괄적 의미의 '협력'이 더 어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DAC)에서는 1~3년마다 '수원국 목록'을 발표하며, 수원국은 최빈국과 저소득국, 하위중소득국, 상위중소득국의 4단계로 분류됩니다. 세계은행은 1인당 GNI을 기준으로 저소득국, 하위중소득국, 상위중소득국, 고소득국의 4단계로 분류하며, 경제개발협력기구의 수원국 목록에는 고소득국이 제외된 대신 최빈국이 첨가되었습니다(한국국제협력단(KOICA), 2013: 37).

### 2 국제개발협력

국가 간은 물론, 같은 나라 안에서도 도시와 농촌 간, 지역 간, 세대 간, 성별 간, 계층 간에 개발의 격차가 존재합니다. 일부 선진국들은 이러한 개발격차를 자체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지만, 많은 개발도상국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개발도상국 상호 간, 개발도상국 국내의 개발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개발격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구체적인 노력과 행위를 국제개발협력, 또는 개발협력이라고 합니다. 이 개발협력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금액을 '개발재원'이라고 합니다. 개발재원은 공적인 영역과 민간의 영역이 있는데, 공적인 부분은 국가와 국제기구 및 기관



을 통한 것이 있고 ODA(공적개발원조)가 대표적입니다.

출처: KOICA ODA 교육원, 2012: 96-100

### 3 왜 돕는가?

ODA는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주목적으로 하는 재원입니다. ODA는 과거에 ‘원조의 의미가 강조되었지만, 최근에는 국가 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어 ‘개발협력’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OECD/DAC은 ODA 자금을 제공하는 국가들의 동기를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합니다.

첫째, 인도주의적인 의도입니다. 빈곤과 고통을 목격했을 때 느끼는 동정적인 반응입니다.

두 번째 동기는 보다 진보된 이기심입니다. 다른 국가를 돕는 것은 해당 국가에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은 나라의 번영은 도와준 나라의 경제적 이익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동기는 모든 사람 간의 연대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전 지구적, 모든 국가의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연대가 필요합니다.

출처: 한국국제협력단(KOICA), 2013: 36

**활용 팁:** 본 읽기 자료는 핵심활동 1과 관련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도움을 주는 자와 받는 자(혹은 국가 간의 관계) 사이에 형성될 수 있는 권력관계를 지양하고, 더 나은 개발을 위한 포괄적 협력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 현장의 맥락과 필요를 다층적으로 이해하기

### 해를 끼치지 말 것

2400년 전 히포크라테스의 저술가가 처음으로 제시한 “해를 끼치지 말라”는 원칙은 여러 전통에서 윤리적 행동의 기초이자 지침으로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노력의 중심에는 우리가 돕고자 하는 사람들의 복지를 두어야 합니다. 즉, 치료법이 질병보다 더 나빠서는 안 되며, 도움을 주고자 개입한 활동이 오히려 해를 끼쳐서는 안 됩니다. 복지는 우리가 도움을 제공하는 순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나 재건된 집, 성공적인 수술,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진 또한 아닙니다. “해를 끼치지 말라”는 원칙은 우리가 그들의 복지를 그 이상으로 고려할 것을 요구합니다.

“해를 끼치지 말라”는 원칙에 대한 두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첫째, 일부 사람들은 이 원칙이 개입의 잠재적인 피해와 부정적인 영향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원칙이 상황을 개선하는 방법이나 긍정적인 영향에는 관심이 없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원칙은 해로움과 이익 모두에 동등하게 초점을 맞춘 전체적인 관점입니다. “해로움”이라는 개념은 이익을 제공하려는 노력 없이는 의미가 없습니다. “해를 끼치지 말라”는 말의 경고는 성급하게 행동하기 전에 생각해 볼 것을 일깨워줍니다.

둘째, 일부 사람들은 “해를 끼치지 말라”는 원칙이 행동 회피를 정당화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해를 끼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오해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피해를 막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 도움을 줄 때 유의해야 할 다섯 가지 패턴

- **분배효과:** 사람들이 자원을 분배하는 방식을 통해 특정 그룹에 대해 우호적이거나 반대하는 편향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할 때 발생합니다.
- **합법화효과:** 정치적 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자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 **시장효과:** 새로운 자원의 도입으로 인한 지역 인센티브 구조와 기회 패턴이 변화할 때 발생합니다. 새로운 자원은 소득, 연령, 이익 및 가격에 눈에 띄게 영향을 미치므로 경제적 승자와 패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변합니다.
- **대체효과:** 현지 역량을 대신하여 현지 노력을 줄이거나 대체할 때 발생합니다.
- **절도:** 사람들이 자원을 훔쳐갈 때 발생합니다.

출처: Wallace, 2016

**활용 팁:** 본 읽기 자료는 핵심활동 3, 4와 관련해서 개발의 중요한 원칙을 생각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인권과 윤리적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고, 지역적 특성을 존중하고 고려하는 개발이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 1 '원조의 덫'을 넘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으로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들은 오랜 시간 가난한 나라에 대한 원조를 지속해 왔습니다. 하지만 국가에 의해 주도된 원조는 외교·안보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고, 원조를 받는 나라의 구조적인 문제(부정부패, 내전 등의 정치적 혼란 등)로 인해 빈곤과 저개발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사례가 많았습니다. 때로는 원조를 주는 나라에 경제적으로 종속되거나, 원조에만 의존하게 되는 등 부작용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원조피로, 개발원조 실패 또는 원조의 덫”은 이러한 현상을 잘 나타내는 단어들입니다(손송희, 2018: 9; KOICA ODA, 2012: 25). “1990년대 후반부터 이러한 개발원조의 관행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보다 나은 원조 방식을 제시하기 위하여 원조효과성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손송희, 2018: 10).

잘 사는 나라가 가난한 나라에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원조가 아닌, 해당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개발이 국제적인 협력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경제적 개발을 중요시하는 측면도 있지만, 사회개발의제(인권, 양성평등, 환경 등)를 달성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국가와 지역의 주인의식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역과 지역 주민들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뤄지며,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성이 충족되는 개발이 이뤄져야 합니다.

개발의 과정에서는 인권을 중요시하고, 윤리적이고 친환경적인 방법을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포괄적인 협력이 가능한 개발의 형태를 지향합니다. 공여국(지원하는 국가)과 수원국(지원을 받는, 개발이 이뤄지는

국가)만의 원조(협력)를 뛰어넘는 민간부문, 지방정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이 포함되는 개발협력의 형태도 시도되는 시대인 것입니다.

출처: 손송희, 2018; KOICA ODA 교육원, 2012 일부 내용 발췌

## 2 지역의 생태환경, 전통적 산업과 경제를 지키려는 노력

국제 원조, 개발협력의 대상이 되는 상당수의 저개발국가는 현대적인 산업화가 이뤄지지 않은 국가들입니다. 전통적인 농업과 어업, 유목 등으로 생계를 이어온 지역들이 많습니다. 산업화된 국가의 시각에서의 ‘개발’이 이들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경제적인 이익을 위한 개발이 해당 국가와 지역에는 어떤 변화를 일으킬 것인가? 전통적인 경제활동을 이어온 사람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수백 년 동안, 농업 및 유목 생활을 지켜왔던 지역이 있었습니다. 내전이 발발한 이후, 안정적인 농목업 생활이 어려워졌고, 많은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내전이 끝난 후, 고향에 돌아온 귀환 난민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 종자를 구하고 있을 때, 한 국제개발 NGO에서 종자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 종자는 품질이 좋았고 1,2년 동안은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날수록 수확량은 급감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지역의 종자가 아닌, 이웃나라의 종자를 수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건조 기후 및 고산 지역이었던 해당 지역의 종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지역의 생물다양성을 지키고, 생태환경을 복원하는 것이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개발이었던 것입니다. 출처: 황태성, 2006: 125-127 재구성

**활용 팁:** 핵심활동 3, 4를 진행하거나 마무리하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제개발협력의 왜 필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단순한 원조가 아닌 모두를 위한 개발이 어떤 의미인가를 깊이 성찰할 수 있도록 합니다.

3부

# 세 계 시 민 이

## 낮 선

---

## (지 리) 선 생 님

## Q & A

---



Q1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신설된 <세계시민과 지리>가 기존의 2015 교육과정의 <세계지리>와 어떻게 다른가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세계지리> 과목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 지역 간 상호 관계, 문화, 정치, 경제 등 지역 내 여러 현상들 간의 연계성의 관점에서 세계 각 국가와 지역을 체계적으로 학습하여 공존의 세계를 추구하고 변화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궁극적으로 글로벌 리더십 함양'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반면,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세계시민과 지리>에서는 '세계 여러 지역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세계를 위해 현명한 가치 판단을 하며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시민의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의 공간적 다양성을 염두에 둔 상호 공존의 세계를 추구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문화 다양성을 포용하는 세계시민으로서 바람직한 가치관과 태도 형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의 변화는 내용의 선정, 접근 방법의 변화를 수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세계시민과 지리>에서는 기존 <세계지리> 내용을 포함하면서도 '기후변화', '환경문제', '불평등', '빈곤', '인권', '문화다양성 존중', '지속가능한 환경' 등의 학습 내용을 포



함하여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세계시민성 함양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Q2

**세계시민교육을 실천하는 데 왜 <세계시민과 지리> 과목이 필요한가요?**

<세계시민과 지리> 과목은 학교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실천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계시민교육은 세계적 관점과 지역적 시각을 바탕으로 글로벌 쟁점과 문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교육입니다. 이는 지속가능발전교육, 문화다양성교육, 평화교육, 인권교육 등으로 구성됩니다.

<세계시민과 지리> 과목은 '세계시민, 세계화와 지역 이해', '모자이크 세계, 세계의 다양한 자연환경과 문화', '네트워크 세계, 세계의 인구와 경제 공간'과 '지속가능한 세계, 세계의 환경문제와 평화'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계시민, 세계화와 지역 이해' 단원은 세계시민교육의 인지적 영역인 기초 지식을 제공하며, '모자이크 세계, 세계의 다양한 자연환경과 문화' 단원은 문화의 차이와 다양성, 더 나아가 자연환경의 다양성을 이해하도록 해 문화다양성과 생물다양성교육에 기여합니다. '네트워크 세계, 세계의 인구와 경제 공간' 단원은 세계가 다양한 네트워크로 연계되어 있음을 강조해 세계 체계 관점으로 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세계, 세계의 환경문제와 평화' 단원은 환경문제와 평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발전교육과 평화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세계시민과 지리> 과목은 학교에서 세계시민교육을 가르치는 데 필수적인 과목입니다.

Q3

**세계시민, 세계시민성, 그리고 세계시민교육은 어떤 관계인가요?**

세계시민의 기원을 따지자면 오랜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겠지만, 본 도서에서는 세계시민을 서구 근대국가 탄생 이후 등장했던 단일국가 기반의 시민 개념의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이론적-실천적 노력의 성과로 이해하고자 합니다. 이 같은 세계시민의 개념은 국가-지역-세계 공동체의 다중적 정체성과 다중적 관점을 바탕으로 인권, 평화, 지속가능성 등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고 행동하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세계시민성은 세계시민의 자질과 역량, 그리고 그 본질을 탐구하는 노력 그 자체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시민교육은 이러한 세계시민성의 핵심 지식, 기능, 가치, 태도 등을 함양하도록 돕는 교육의 패러다임이자 교육과정 및 교수법의 총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시민교육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세계시민과 세계시민성 개념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Q4

**지리 교사가 아닌 다른 교사들도 본 도서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본 도서는 지리 교사뿐만 아니라 역사, 일반사회, 윤리, 과학, 수학, 국어 교사 등이 다양한 교과목의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도서는 지정학, 지리정보체계, 기후위기, 국제개발협력, 음식, 초국적기업, 인구, 에너지 등의 주제를 다루며, 비판적 사고, 관계적 사고, 변혁적 사고를 지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리, 일반사회, 역사, 윤리 교사는 ‘통합사회1’과 ‘통합사회2’ 과목의 ‘인간, 사회, 환경과 행복’, ‘자연환경과 인간’, ‘문화와 다양성’, ‘생활공간과 사회’ 주제와 연계하여 자료를 수업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회 교사는 ‘정치’, ‘사회와 문화’, ‘국제관계의 이해’, ‘경제’ 과목에서도 본 자료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학 교사는 ‘변화와 다양성, 환경과 에너지’, 그리고 ‘과학과 미래 사회’ 주제로 구성된 ‘통합과학2’에서 에너지 관련 주제를 다루고, ‘기후변화와 환경생태’, ‘융합 과학 탐구’ 과목에서 기후위기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어 교사는 ‘공통 국어’, ‘독서와 작문’, ‘주제 탐구 독서’, ‘독서토론과 글쓰기’, ‘매체 의사소통’ 과목에서 읽기, 토론, 비판적 글쓰기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수학 교사는 ‘실용통계’ 과목에서 그래프와 도표 등의 통계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Q5

**세계시민교육에서 강조되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교수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세계시민교육을 실천하는 데 있어 특별히 더 효과적인 교수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교수법을 활용하느냐’보다 교육자로서 현재 주어진 교수법을 ‘어떠한 교수 관점 또는 원칙에 입각해 적용하느냐’입니다. 탐구학습, 발견학습, 프로젝트 기반 학습, 협동학습, 사례연구, 현장연구, 거꾸로 학습(플립드 러닝) 등은 혁신적인 교수모형이지만, 그 자체로 세계시민교육에 기여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교수법을 적용할 때는 교수법적 원칙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유네스코가 제시한 세계시민교육의 페다고지 원칙으로는 ① 마을-국가-지역-세계 간의 상호연결성, ② 학습자를 능동적인 지식 구성의 주체로 간주하는 접근, ③ 개별 교과보다는 학제적-통합적 접근, ④ 시민적 참여 및 행동의 지지, ⑤ 지역사회와 연계된 전 학교적 접근이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교수법에 결합시키려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Q6

교실 안에서 세계시민교육을 하는 데 한계를 느낍니다.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교실을 넘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요?

세계시민교육은 인권교육, 평화교육, 국제이해교육, 문화다양성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등을 포함하며, 궁극적으로 시민성을 함양하고 변혁적 교육을 지향합니다. 이는 학습자가 권리와 책임을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행동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를 위해 교실뿐 아니라 학교 안팎, 지역사회 전반에서 이뤄지는 학습이 필요합니다. 시간적 측면에서는 학제적-통합적 접근을 통해 교과 간 통합을 활용하여 세계시민교육 실행을 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공간적 측면에서는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해 현장학습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사회의 학습 장소와 인적자원 활용, 현장 실천 활동 등을 통해 학생들은 실제로 참여하고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실 안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스토리텔링, 디지털 환경, 국내외 학교들과의 교육 교류 등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Q7

세계시민교육에 대해 더 알고 싶을 때 참고할 만한 자료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은 연구보고서, 종합 정보지, 교수학습자료 등 다양한 세계시민교육 자료를 개발해 왔습니다. 관련 자료는 유네스코 아태교육원 홈페이지(<https://www.unescoapceiu.org/board/k412>)와 GCED 클리어링하우스(<https://gcedclearinghouse.org/>)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참고문헌

### 1부 지리 선생님이 세계시민을 가르친다고?

#### 1장 유네스코, 지리교육에 주목하다

김경성(1959). 《신지리교육의 지침》. 서울: 동국문화사.

이경한(1995). 《지리 교육학 강의》. 서울: 명보문화사.

이경한(2022). 《세계시민교육과 지리교육》. 서울: 푸른길.

이찬, 김연옥, 권혁재(1972). 《지리교육의 원리와 사례》. 서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UNESCO(1949a). The Teaching of Geography and World Understanding. UNESCO. International Bureau of Education (UNESCO/I.B.E./124, 1949).

UNESCO(1949b). Recommendation No.26 To The Ministries of Education Concerning The Teaching of Geography and International Understanding. UNESCO. International Bureau of Education (UNESCO/I.B.E./142, 1949).

UNESCO(1949c). Geography for World Understanding. UNESCO Courier, 2(4), Paris: UNESCO.

UNESCO(1950a). The Teaching of Geography as a Means of Developing International Understanding. Enquiry Form (UNESCO/SEM 50/1/2 Paris, 23, January 1950).

UNESCO(1950b). Geography and World Understanding Regarded from Psychological Viewpoint (Unesco/SEM 50/1/LOc. 36, Macdonald College—August 15, 1950).

UNESCO(2024). Recommendation on Education for Peace and Human Rights, International Understanding, Cooperation, Fundamental Freedoms, Global Citizenship and Sustainable Development. Paris : UNESCO.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91686\\_eng](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91686_eng).

#### 2장 함께 고민하는 세계시민교육과 지리교육

교육부(2022a).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 1].

교육부(2022b). 사회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 7].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2014). 《글로벌 시민교육: 21세기 인재 기르기》. 서울: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2015). 《세계시민교육: 학습 주제 및 학습 목표》. 서울: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한경구·김종훈·이규영·조대훈(2015). 《SDGs 시대의 세계시민교육 추진 방안》. 서울: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UNESCO(2024). Recommendation on Education for Peace and Human Rights, International Understanding, Cooperation, Fundamental Freedoms, Global Citizenship and Sustainable Development. Paris : UNESCO.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91686\\_eng](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91686_eng).

### 3장 세계시민을 위한 지리 교육과정

교육부(2022). 사회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 7].

김민성·이윤구(2023). <2022 개정 세계시민과 지리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31(2), 1-14.

이경한(2022). 《세계시민교육과 지리교육》. 서울: 푸른길.

UN(2015). SDGs, <https://sdgs.un.org/goals>.

## 2부 여덟 가지 핵심 주제로 알아보는 세계시민과 지리

### 1장 어서 와, GIS는 처음이지?

구리시청, 구리시 공적마스크 '맞춤지도 서비스' 실시간 제공(2020년 3월 17일자), <https://www.guri.go.kr/www/selectBbsNttView.do?key=393&bbsNo=42&nttNo=27723>. 접근일: 2024년 8월 15일.

국토지리정보원, 백지도 내려받기, <https://www.ngii.go.kr/child/content.do?sq=149>. 접근일: 2024년 8월 15일.

김윤지(2018년 7월 31일). 태국 동굴 소년 구출 작전의 숨겨진 조력자 'GIS'. Esri Korea, <https://www.esrikr.com/blog/case-study-thailand-cave-rescue/>. 접근일: 2024년 8월 29일.

나딘 슈르만(2013). 《짧은 지리학 개론 시리즈: GIS》. 서울: 시그마프레스.

로랑 카루에(2022). 《지포그래픽 세계화의 세계》. 고양: 이다미디어.

문화재청·유네스코한국위원회(2007). 《청소년과 함께하는 세계유산》. 서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박선미(2022). 《전염병의 지리학: 병은 어떻게 세계를 습격하는가》. 서울: 갈라파고스.

배선학(2018). <중등교육과정에서 GIS와 연계된 문제중심학습(PBL) 기반의 창의적 체험 활동 수행>. 한국사 진지리학회지, 28(3), 101-114.

알렉산더 머피(2022). 《지리학이 중요하다》. 파주: 김영사.

연합뉴스, 유네스코 위기 부른 세계유산 갈등(2017년 10월 24일자), <https://www.yna.co.kr/view/AKR20171023146000371?input=1195m>. 접근일: 2024년 7월 31일.

이경한(2022). 《세계시민교육과 지리교육》. 서울: 푸른길.

임완수(2021). 《세상과 나를 바꾸는 지도, 커뮤니티 맵핑》. 서울: 빨간소금.

제러미 크럼턴(2023). 《지도 패러독스》. 서울: 푸른길.

조선일보, “이 아름다운 도시 지키자”…우크라 오데사 ‘위험 처한 세계유산’ 등재(2023년 1월 26일자),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3/01/26/42G4EQVV7BEIHJ4EB-CFS7OWC6M/?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3/01/26/42G4EQVV7BEIHJ4EB-CFS7OWC6M/?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접근일: 2024년 8월 29일.

파이낸셜뉴스, 러시아에 대응한 우크라이나의 새 전쟁수행 방식 ‘모자이크戰’(2023년 5월 29일자), <https://www.fnnews.com/news/202305281508314819>. 접근일: 2024년 7월 31일.

KOTRA 해외시장뉴스, 최신 공식 통계치를 통해 알아보는 베트남 - ①인구편(2024년 7월 18일자),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80&CONTENTS\\_NO=2&bbsGbn=242&bbsSn=242&pNttSn=217407](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80&CONTENTS_NO=2&bbsGbn=242&bbsSn=242&pNttSn=217407). 접근일: 2024년 8월 29일.

Minnesota Reformer, Former geography teacher Tim Walz is really into maps(August 6, 2024), <https://minnesotareformer.com/2024/08/06/former-geography-teacher-tim-walz-is-really-into-maps/>. 접근일: 2024년 8월 18일.

Schuurman, Nadine(2004). GIS: A Short Introduction. New Jersey: Wiley-Blackwell.

## 2장 평화를 위한 지정학이 되려면?

경향신문, 죽음의 ‘난민 루트’…‘필사적 엑소더스’ 시리아 난민들의 이동경로(2015년 8월 30일자), <https://www.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1508302335205>. 접근일: 2024년 8월 30일.

국토지리정보원, 백지도 내려받기, <https://www.ngii.go.kr/child/content.do?sq=149>. 접근일: 2024년 8월 15일.

로랑 카루에(2022). 《지포그래픽 세계화의 세계》. 고양: 이다미디어.

에듀넷, 국제사회의 갈등과 해결, [https://www.edunet.net/nedu/contsvc/viewWkstCont.do?class\\_id=CLSS0000000362&menu\\_id=81&contents\\_id=9629fa38-c19a-4a99-bf96-65c5cdf7a76f&svc\\_class\\_id=CLSS0000018006&contents\\_openapi=naverdic](https://www.edunet.net/nedu/contsvc/viewWkstCont.do?class_id=CLSS0000000362&menu_id=81&contents_id=9629fa38-c19a-4a99-bf96-65c5cdf7a76f&svc_class_id=CLSS0000018006&contents_openapi=naverdic). 접근일: 2024년 8월 9일.

옥성일(2022). 《지리 모르고 뉴스 볼 수 있어?》. 서울: 다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 청소년 평화 프로젝트, <https://asp.unesco.or.kr/평화-프로젝트/>.

이경한 외(2023). 《세계시민과 지리》 과목 교과서 및 교수 학습 자료 개발자를 위한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 권고안》. 서울: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전국지리교사모임(2023). 《나의 첫 지정학 수업》. 서울: 탐.

조천호 외(2023). 《2023 기후 전망과 전략》. 서울: 협동조합 착한책가게.

중앙일보, ‘소양강댐 25배’ 대형 댐에…에티오피아·이집트, 뜨거운 물싸움(2023년 9월 12일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91715>. 접근일: 2024년 8월 9일.

지속가능발전포털.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 <https://www.ncsd.go.kr/unsdgs>.

프란체스카 산나(2017). 《긴 여행》. 서울: 풀빛.

EBS(2021). 수능특강 국어영역 독서.

### 3장 인구는 줄어드는데, 왜 이주민은 반대할까요?

국가통계포털(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KOSIS), 인구피라미드, <https://kosis.kr/visual/populationKorea/PopulationPyramidDetail.do?year=2023>, 접근일: 2024년 8월 25일.

김규환(2020). <에너지전환을 위한 사회혁신 아이디어 실천과정에 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OpenAI (2024), <https://chat.openai.com>.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다문화 이웃들의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 '2016 다문화가족 우수사례집' 발간(2016년 12월 9일자),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2408>, 접근일: 2024년 10월 31일.

서울경제, 해외 엘리트에 '천재비자'...인재 블랙홀 된 싱가포르(2023년 9월 3일자) <https://www.sedaily.com/NewsView/29UJGYM635> 접근일: 2024년 8월 2일.

서울신문, 흑형-외노자...친근함·재미로 둔갑한 인종차별(2019년 3월 21일자),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19/03/22/20190322011008>, 접근일: 2024년 8월 1일.

시사저널, 인구 소멸 전국지도...100년 안 사라지는 마을 수 123곳(2024년 02월 23일),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83943>.

안산시 문화관광, 8경 다문화거리, [https://www.ansan.go.kr/tourinfo/common/cntnts/selectContents.do?cntnts\\_id=C0001976](https://www.ansan.go.kr/tourinfo/common/cntnts/selectContents.do?cntnts_id=C0001976), 접근일: 2024년 9월 1일.

연합뉴스, 독일 귀화요건 완화...빠르면 거주 3년만에 국적 취득(2024년 1월 20일자), <https://www.yna.co.kr/view/AKR20240120000700082>, 접근일: 2024년 8월 1일.

이태주, 김다원(2010). <지리교육에서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개발교육의 방향연구>. 대한지리학회지, 45(2), 293-294.

이란주(2022). 《나는 미래를 꿈꾸는 이주민입니다》. 서울: 한겨레출판.

조선일보, 합법은 지원, 불법은 엄단...독, 이민자 '투트랙 전략'(2023년 7월 3일자)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2023/07/03/G7BNIDN75NEZFMZPJ3QEGE4GKM/> 접근일: 2024년 11월 3일.

중앙일보, 미국과 유럽을 뒤흔드는 '이민 갈등'...한국도 남의 일 아니다(2024년 2월 14일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8493#home>, 접근일: 2024년 8월 2일.

파라그 카나(2022). 《대이동의 시대》. 비즈니스맵.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4). 2024년 인구정책의 전망과 과제. <https://kiss.kstudy.com/Detail/Ar?key=4070866>, 접근일: 2024년 8월 1일.

한국행정연구원(2022). 데니즌십(Denizenship)을 통한 체류 외국인의 사회통합 방안. [https://www.nkis.re.kr/subject\\_view1.do?otpld=OTP\\_000000000010970&otplSeq=0&popup=P](https://www.nkis.re.kr/subject_view1.do?otpld=OTP_000000000010970&otplSeq=0&popup=P), 접근일: 2024년 8



월 1일.

e-나라지표, 국제결혼 현황,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IPageDetail.do?idx\\_cd=2430](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IPageDetail.do?idx_cd=2430). 접근일: 2024년 8월 5일.

KBS 시사 유튜브 채널, 인구국가비상사태, <https://www.youtube.com/watch?v=sbZEla0UwFY&t=699s>. 접근일: 2024년 6월 20일.

KBS, “이주민은 문제 아닌 해결책”...독일이 이주민 통합에 나선 이유는(2023년 6월 19일자),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702565> 접근일: 2024년 7월 28일.

Ritchie, Hannah., Rodés-Guirao, Lucas., Mathieu, Edouard., Gerber, Marcel., Ortiz-Ospina, Esteban., Hasell, Joe., and Max Roser(2023) – “Population Growth” Published online at OurWorldInData.org. Retrieved from: ‘<https://ourworldindata.org/population-growth>’ [Online Resource].

Roser, Max and Ritchie, Hannah(2023). “How has world population growth changed over time?” Published online at OurWorldInData.org. Retrieved from: ‘<https://ourworldindata.org/population-growth-over-time>’ [Online Resource]. Access: 31 July 2024.

Roser, Max(2018). The Map We Need If We Want to Think about How Global Living Conditions Are Changing. Published online at OurWorldInData.org. Retrieved from: ‘<https://ourworldindata.org/world-population-cartogram>’ [Online Resource]. Access: 31 July 2024.

Roser, Max(2019). The Global Population Pyramid: How Global Demography Has Changed and What We Can Expect for the 21st Century. Published online at OurWorldInData.org. Retrieved from: ‘<https://ourworldindata.org/global-population-pyramid>’ [Online Resource]. Access: 31 July 2024.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UN DESA) – processed by Our World in Data. Emigrants from South Korea [dataset].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UN DESA) [original data]. Access: 31 July 2024.

YTN, ‘차별 그늘 밑’ 외국인 노동자(2023년 10월 6일자), [https://www.ytn.co.kr/\\_ln/0103\\_202310061704113837](https://www.ytn.co.kr/_ln/0103_202310061704113837). 접근일: 2024년 8월 2일.

#### 4장 먹으면서 세계 얘기 좀 할까요?

강재호, 2015, 《지리레시피》, 서울: 도서출판 황금비율.

개리 풀러, T.M. 레데쿰(2017), 《너무 맛있어서 잠 못 드는 세계지리》, 파주: 생각의 길.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http://slowfood.or.kr/direction>. 접근일: 2024년 8월 30일.

김병연(2011). <관계적 사고를 통한 상품의 지리교육적 의미>. 대한지리학회지, 46(4), 554-566.

김수자, 송태현(2010). 《맥도날드화를 통해 본 세계화와 지구지역화》. Trans-Humanities, 3(3), 63-84.

김종덕(2002). <패스트푸드의 세계화와 슬로우푸드 운동>. 지역사회학, 4(1), 87-106.

변순용(2014). <로컬푸드에 나타난 음식의 윤리적 의미에 대한 연구>. *윤리연구*, 1(94), 135-153.  
 서울신문, [씨줄날줄] 로커보여(locavore)(2011년 8월 15일자), <https://www.seoul.co.kr/news/editOpinion/2011/08/15/20110815031006>. 접근일: 2024년 8월 30일.

오진희(2015). 《모두섬 이야기》. 서울: 내인생의책.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 로고, <https://unesco.jeonju.go.kr/html/sub1/index2.php>.

조지 리처(2017). 《맥도날드 그리고 맥도날드화》. 서울: 풀빛.

조철기(2017). <음식을 매개로 한 지리교육의 새로운 방향>.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3(3), 626-637.

조철기(2023). 《기호와 탐닉의 음식으로 본 지리》. 서울: 따비.

조희정(2021). 《우리 같이 착한 소비》. 서울: 그레이트북스.

천안시학교급식지원센터, 로컬푸드 이야기, <http://canhfood.or.kr/eco/eco1.php>. 접근일: 2024년 8월 3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바로정보, <http://baroinfo.com/front/M000000712/content/view.do>. 접근일: 2024년 8월 30일.

허남혁(2008). 《내가 먹는 것이 바로 나》. 서울: 책세상.

Northeast Indiana Local Food Network(2018-2021). Local Food Definitions. <https://www.neifood.org/local-food-definitions>. 접근일: 2024년 8월 21일.

## 5장 초국적기업은 세상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까요?

르몽드디플로마티크. '인권'은 소비와 경영의 주요한 요소가 됐다(2022년 4월 16일자), [https://www.ilemonde.com/news/articleView.html?idxno=15627#\\_ftn7](https://www.ilemonde.com/news/articleView.html?idxno=15627#_ftn7). 접근일: 7월 15일.

리베카 헨더슨(2021). 《자본주의 대전환》. 서울: 어크로스출판그룹.

박선미(2014). <일상적 소재의 통합적 사회과교육 자료로서의 가능성 탐색: 커피를 중심으로>. *사회과수업연구*, 2(1), 25-39.

방준호(2021). 《실직도시: 기업과 공장이 사라진 도시는 어떻게 되는가》. 서울: 부키.

오마이뉴스. 소비자가 달라졌다... 나이키, 아디다스에 생긴 일(2022년 4월 17일자),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826650](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826650). 접근일: 2022년 6월 6일.

이희연(2018). 《경제지리학》. 서울: 법문사.

Andrew Morgan YouTube Channel, The True Cost, [https://youtu.be/rwp0Bx0awoE?si=dQ00xQ\\_sl-riMIEM](https://youtu.be/rwp0Bx0awoE?si=dQ00xQ_sl-riMIEM). Access: 30 August 2024.

## 6장 에너지전환시대, 에너지 시민이 되는 법

권상철(2016). 《지역 정치생태학》. 서울: 푸른길.

그린피스. RE100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요? RE100에 대한 8가지 사실(2022년 2월 7일자), <https://www.greenpeace.org/korea/update/21347/blog-ce-why-re100-is-important/>.

모두를위한환경교육연구소(2019). 서울시 에너지 자립 마을백서.

모두를위한환경교육연구소(2019).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 스토리북. <https://shorturl.at/7DqZm> 접근일: 2024년 8월 1일.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학교급별 생성형 AI 활용 지침, <https://iaae.ai/research/?q=YToxOntzOjEyOiJrZXI3b3JkX3R5cGUiO3M6MzoiYWxsIjI9&bmode=view&idx=53452713&t=board>. 접근일: 2024년 8월 30일.

서울특별시 에너지정보. 나의 에너지, 우리집 탄소배출량, <https://energyinfo.seoul.go.kr/carbon/emissionCalculator?menu-id=Z070300>.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2013). 《나쁜 에너지 기행》. 서울: 이매진.

연합뉴스. 남아공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에 SMR 도입 추진(2024년 5월 22일자). <https://www.yna.co.kr/view/AKR20240522147900099>.

이수민, 김현제(2022). <에너지 정의에 대한 이해와 시사점>. 한국자원공학회. 59(3), 303-307.

조철기(2022). <에너지 시민성과 에너지 정의를 위한 지리교육>.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8(1), 99-117. 10.26863/JKARG.2022.2.28.1.99.

조형준·홍성태 역(2005). 《우리 공동의 미래》. 서울: 새물결.

프레스이안. 지역 문제 해결하고 에너지 교육의 장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하는 협동조합(2020년 4월 2일자).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33116440509884>. 접근일: 2024년 8월 5일.

한겨레. 전기없는 삶...2020년 7억 3천만 명, 2030년에도 6억 7천만 명(2022년 6월 6일자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45862.html>. 접근일: 2024년 8월 22일.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지역별생산량(광역). [https://www.knrec.or.kr/biz/statistics/supply/supply01\\_02\\_list.do](https://www.knrec.or.kr/biz/statistics/supply/supply01_02_list.do).

환경부(2021). 탄소중립생활실천 안내서(학교편). [https://beec.or.kr/reference\\_01.html?query=view&page=2&table=LimBo&botype=LIS\\_B02\\_01&page\\_num=10&bid=172](https://beec.or.kr/reference_01.html?query=view&page=2&table=LimBo&botype=LIS_B02_01&page_num=10&bid=172). 접근일: 2024년 8월 4일.

Climate Action Tracker, China, <https://climateactiontracker.org/countries/china/>. Access: 22 August 2024.

Climate Action Tracker, India, <https://climateactiontracker.org/countries/india/>. Access: 22 August 2024.

Climate Action Tracker, Norway, <https://climateactiontracker.org/countries/norway/>. Access: 22 August 2024.

Climate Action Tracker, South Korea, <https://climateactiontracker.org/countries/south-korea/>. Access: 22 August 2024.

Climate Action Tracker, USA, <https://climateactiontracker.org/countries/usa/>. Access: 22 August 2024.

Enerdata, World Energy & Climate Statistics - Yearbook 2024, <https://yearbook.enerdata.co.kr/co2/emissions-co2-data-from-fuel-combustion.html>. Access: 22 August 2024.

Enerdata, World Energy & Climate Statistics – Yearbook 2024, <https://yearbook.enerdata.co.kr/total-energy/world-consumption-statistics.html> Access: 22 August 2024.

Energy Institute –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24); Smil (2017) – with major processing by Our World in Data. Primary energy from biofuels [dataset], Energy Institute,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Smil, “Energy Transitions: Global and National Perspectives” [original data], Access: 31 July 2024.

Global Carbon Atlas of the Global Carbon Project, Fossil Fuels Emissions, <https://globalcarbonatlas.org/emissions/carbon-emissions>, Access: 22 August 2024.

McCaughey, Darren, Grant, Rebecca & Mwathunga, Evance(2022), Achieving energy justice in Malawi: from key challenges to policy recommendations. Climatic Change, 170(28) <https://doi.org/10.1007/s10584-022-03314-1>.

Pellegrini–Masini, Giuseppe., Pirni, Alberto., Maran, Stefano..., & Klockner, Christian A.(2020), Delivering a timely and Just Energy Transition: Which policy research priorities? Environmental Policy and Governance, 30(6), 293–305.

Schwikowski, Africa digs for coal amid climate concerns(4 February 2021), <https://www.dw.com/en/africa-digs-for-coal-to-meet-energy-demands-amid-climate-concerns/a-57086116>, Access: 2024년 8월 22일.

World Bank Group(2023), Going Green: Scaling up access to clean electricity for 17 million Nigerians, <https://www.worldbank.org/en/news/feature/2023/12/15/going-green-scaling-up-access-to-clean-electricity-for-over-17-million-nigerians>, Access: 15 July 2024.

## 7장 기후위기 시대, 우리의 선택은?

그레타 툰베리(2023). 《기후 책》. 파주: 김영사.

그리니엄, “기후불평등 격차 재확인”…기후위기로 세계 평균 소득 19% 감소 불가피(2024년 4월 18일자), <https://greenium.kr/news/32504/>. 접근일: 2024년 8월 30일.

김완구, 기후위기 시대,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2022년 9월 15일자), <https://inmun360.culture.go.kr/content/537.do?mode=view&cid=2372887&page=>. 접근일: 2024년 7월 29일.

뉴시스, 기후재앙·기후난민·기후파업…옥스퍼드 사전도 “긴박함 반영”(2021년 10월 22일자), [https://www.newsis.com/view/NISX20211022\\_0001624195](https://www.newsis.com/view/NISX20211022_0001624195). 접근일: 2024년 7월 1일.

동아사이언스, 예상보다 더 빠른 ‘지구온난화’…가까운 미래에 1.5도 상승” (2023년 3월 21일자), <https://m.dongascience.com/news.php?id=59039> 접근일: 2024년 8월 2일.

연합뉴스, 옥스퍼드 사전 올해의 단어 ‘기후 비상사태’(climate emergency)(2019년 11월 21일자), <https://shorturl.at/b5BLq> 접근일: 2024년 7월 1일.

열린뉴스통신, 파키스탄 대홍수로 비상사태선포… 시진핑주석, 파키스탄 대통령에 위로전(2022년8월 30일

자), <https://www.ownews.tv/news/articleView.html?idxno=136701>. 접근일: 2024년 8월 1일.

조효제(2020), 《탄소 사회의 종말》. 경기: 21세기북스.

한겨레, “파키스탄 3분의 1, 물에 잠길 것”…홍수 사태 ‘기후 재앙’ 규정(2024년 7월 14일자),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siapacific/1056548.html>. 접근일: 2024년 7월 20일.

한겨레, 가난하거나 어리거나…기후위기와 불평등은 얽혀있다(2022년 2월 20일자),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31762.html> 접근일: 2024년 8월 2일.

한겨레, 더 북쪽으로, 기후위기가 세계를 ‘집단 이주’시킬 것(2024년 1월 3일자),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122773.html>. 접근일: 2024년 8월 2일.

한겨레21, 죄는 부국이 짓고 벌은 빈국이 받고(2022년 9월 26일자), <https://h21.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52607.html> 접근일: 2024년 7월 29일.

헤럴드경제, [지구의 역습, 식탁의 배신](농산편②)한반도에 뿌리내리는 열대과일들, 이대로 관찰을까(2018년 2월 2일자), <http://realfoods.co.kr/view.php?ud=20180202000131&pg=1&ret=section>. 접근일: 2024년 8월 2일.

헤럴드경제, 기후위기가 바꾼 한반도 과일지도(2023년 8월 14일자), <https://biz.heraldcorp.com/view.php?ud=20230814000365>. 접근일: 2024년 8월 2일.

Hawkins, Ed. #ShowYourStripe, <https://showyourstripes.info/>.

#### 8장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꿈꾸다

고양신문, 맹그로브숲은 솔로몬 사람들을 구할 수 있을까(2024년 4월 1일자), <https://www.mygoy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78638>. 접근일: 2024년 8월 30일.

더구루, ‘공고 반군, 노트북·스마트폰 핵심광물’ 콜탄 광산마을 또 점령(2024년 5월 2일자), <https://www.theguru.co.kr/mobile/article.html?no=70336>. 접근일: 2024년 7월 18일.

로버트 포터 외(2022), 《개발지리학과 국제개발협력》. 파주: 김영사.

발전대안 피다, 다시 읽는 발전권 선언(2018년 1월 23일자), <https://pida.or.kr/pium/?q=YToxOntzOjEyOiJrZXI3b3JkX3R5cGUiO3M6MzoiYWxsIjI9&bmode=view&idx=465468&t=board&category=VLG67m8n2i>. 접근일: 2024년 7월 20일. 접근일: 2024년 8월 18일.

서울신문, 튀르키예 “마음만 받겠다”며 거절한 애플단지 구호품…뫼글래(2023년 2월 20일자), <https://www.seoul.co.kr/news/international/2023/02/20/20230220500024>. 접근일: 2024년 8월 18일.

세계일보, 선진국 폐기물 사절에도…감시당 피해 매년 수만 몰려 [이슈 속으로](2024년 2월 4일자), <https://www.segye.com/newsView/2024020521442>. 접근일: 2024년 7월 25일.

손승희(2018),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 정책의 책임성 분석-양자 무상원조분야를 중심으로 [석사 학위논문, 서울대학교], [https://s-space.snu.ac.kr/handle/10371/144646#export\\_btn](https://s-space.snu.ac.kr/handle/10371/144646#export_btn)

연합뉴스, “한국 공적개발원조사업, 현지 환경·인권상황 충분히 고려해야”(2018년 12월 18일자) <https://www.yna.co.kr/view/AKR20181218064200004?input=1195m>.

연합뉴스, 유엔난민기구 韓대표 “한국戰 후 큰 성장 韓, 난민에 도움줘야”(2020년 6월 9일자), <https://www.yna.co.kr/view/AKR20200608166100371>. 접근일: 2024년 7월 8일.

연합뉴스, 베네치아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목록 등재 겨우 면해(2023년 9월 15일자), <https://www.yna.co.kr/view/AKR20230915046700009>. 접근일: 2024년 7월 14일.

연합뉴스, “한국 공적개발원조사업, 현지 환경·인권상황 충분히 고려해야”(2018년 12월 18일자), <https://www.yna.co.kr/view/AKR20181218064200004?input=1195m>. 접근일: 2024년 10월 21일.

월드비전 한국(2010), 《해외사업 실무자를 위한 가이드》. 서울: KCOC.

이성훈(2017),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인권기반 개발협력》. 국제개발협력, 4, 3-38.

조선비즈, 튀르키예 지진에 시리아 난민 피해도 커질 듯...남동부에 약 360만 명 거주(2023년 2월 7일자), <https://v.daum.net/v/20230207085406864>. 접근일: 2024년 7월 5일.

한국국제협력단(KOICA)(2013), 《국제개발협력의 이해(개정판)》. 서울: 도서출판 한울.

황태성(2006), 〈아프가니스탄 고산지역의 생물다양성 변화와 환경〉.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125-127.

KOICA ODA 교육원(2012), 《국제개발협력 첫걸음》. 한국국제협력단(KOICA).

ODA Korea(2024), '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확정액 기준), [https://www.odakorea.go.kr/kor/bbs/YrlyIntrnDvcprPlan?bbs\\_id=kor\\_003](https://www.odakorea.go.kr/kor/bbs/YrlyIntrnDvcprPlan?bbs_id=kor_003). 접근일: 2024년 8월 30일.

ODA Watch(2012), 누구도 들려주지 않았던 해외아동결연이야기, <https://pida.or.kr/resources/?q=YToyOntzOjEYeiYlZlZjI3b3JkX3R5cGUlO3M6MzoiYWxsijzOjQ6lnBhZ2UiO2k6Mzt9&bmode=view&idx=570747&t=board&category=>. 접근일: 2024년 8월 30일.

SAIH Norway 유튜브 채널, Let's save Africa! - Gone wrong, [https://youtu.be/xbqA6o8\\_WCO?si=52rXBp\\_WyptlBlab](https://youtu.be/xbqA6o8_WCO?si=52rXBp_WyptlBlab). 접근일: 2024년 8월 18일.

Wallace, Marshall(2016), From Principle to Practice: A User's Guide to Do No Harm, <https://www.principletopractice.org/wordpress/from-principle-to-practice/>. 접근일: 2024년 7월 20일.



여덟 가지 핵심 주제로 알아보는 세계시민과 지리 활동지 다운로드

- 1장 어서와, GIS는 처음이지?
- 2장 평화를 위한 지정학이 되려면?
- 3장 인구는 줄어드는데, 왜 이주민은 반대할까요?
- 4장 먹으면서 세계 얘기 좀 할까요?
- 5장 초국적기업은 세상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까요?
- 6장 에너지전환시대, 에너지 시민이 되는 법
- 7장 기후위기시대, 우리의 선택은?
- 8장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꿈꾸다



<https://www.unescoapceiu.org/post/5210>





# APCEIU

Asia-Pacific Centre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은 유네스코 회원국과 함께  
국제이해교육 및 세계시민교육을 증진·발전시키기 위해  
유네스코 본부와 대한민국 정부의 협정으로 설립된 유네스코 산하 국제기구입니다.  
[www.unescoapceiu.org](http://www.unescoapceiu.org)

## 지리적 상상력으로 세계시민 되기: 세계시민과 지리 수업 안내서

BE-RND-2024-010

©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2024  
ISBN 979-11-93573-15-0 93370

**발행일** 2024년 12월 10일  
**발행인** 임현묵  
**발행처**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주 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 120(구로동)  
**전 화** 02-774-3956 **팩 스** 02-774-3957

**기획·편집**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집필책임자** 이경한(전주교육대학교)  
**공동집필자** 김다원(광주교육대학교)  
조대훈(성신여자대학교)  
이용훈(한광여자고등학교)  
황태성(상명고등학교)  
김하나(공주여자고등학교)  
박정연(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지선미(유네스코 아태교육원 연구개발실)  
이지현(유네스코 아태교육원 연구개발실)  
이윤영(유네스코 아태교육원 연구개발실)  
이슬비(유네스코 아태교육원 연구개발실)  
신민규(유네스코 아태교육원 연구개발실)

**편집디자인** 다봄프렌즈

- \* 이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 이 책에 수록된 모든 사진과 자료는 출처를 확인한 후 게재하였습니다. 만약 출처가 누락되었거나 저작권과 관련된 사항이 있을 경우, 연락 주시면 확인 후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GIS, 지정학, 인구, 음식, 초국적기업, 에너지, 기후위기, 국제개발협력  
여덟 가지 주제로 배우는 세계시민과 지리 수업

## **세계화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지리적 상상력!** \_\_\_\_\_

지도와 데이터만 있으면 나만의 지도를 만들 수 있다고?

평화를 이루려면 분쟁지역을 공부해야 한다고?

인구가 줄어서 문제라며 왜 우리는 이주민을 반대할까?

햄버거는 왜 슬로우푸드가 될 수 없었을까?

내가 에너지 자립학교를 만들 수 있다고?

##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32개 활동지 수록** \_\_\_\_\_

“지리 교과에서 하는 세계시민교육은 어떤 차별성이 있을까?”

고민 많은 선생님을 위한 수업 안내서

